

존 폭스

폭스의책 순교자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orean

저작권 © 2020.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해당 저작권법이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또는 기타 형식 또는 수단으로.

본 책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사, 녹음, 정보 저장,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편집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책의의 어떤 부분도 복제 또는 전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 데이터의 카탈로그

편집 및 디자인: 뉴 언약 국제 간행물

영국에서 인쇄.

최초 인쇄 2020 년 5 월 26 일

게시됨: 뉴 언약 국제 간행물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웹 사이트 방문 : www.newcovenant.co.uk

폭스의 순교자 책



존 폭스 씨 (JOHN FOXE)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돼지와 같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불명예스러운 곳에서 사냥당하고 쫓기며,
우리의 주변에 미친 배고픈 개가 짖어대어도,
저주 받은 그 곳에서도 개들을 야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고귀하게 죽게 두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헛되이 그때에는 우리를 거스르는 괴물들조차
죽은 채로도 우리를 공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 동적들이여 우리는 공적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적으로 우리가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1000 번의 타격으로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열린 무덤에 우리 몸을 눕히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답게
우리는 살인과 비겁함에 맞설 것입니다,
벽에 몸을 바짝 기대고 반격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1919

Claude McKay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Inc.

개혁 된 책, 변형 된 마음

Alt-Heerdt 104, 40549 Düsseldorf, Germany

Tel : +49 211 399 435 234

Email: newcovenantpublicationsintl@gmail.com

헌정의 글

하나님께 바쳐진

서문

새 언약 출판물 국제 하늘과 땅을 바인딩 신성한 계획과 사랑의 법의 영속을 강화와 독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언약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의 중심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사실 새 언약은 구속에 증명, 줄어 들지 않은 투쟁에 의해 탄생과 혈액에 의해 밀봉.

수많은 세기 동안, 많은 견디고 마모에 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의 계산을 없애는 진리입니다. 특히 암흑 시대에, 빛이 있었다 크게는 궁지에 몰린과에 의해 가려진 인간의 전통과 인기있는 무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계는 지혜를 멸시하고 배반하의 언약입니다. 대재앙의와 타협을 방지할 자극 악 이러한 재앙의 무한 퇴화 및 악마 같은 비인간적에는 많은 생명을 희생을 부당하게 거부, 항복하심이 있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지식은 특히 개혁의 시간 동안, 부활했다.

16 세기의 개혁 시대는 반 개혁에 반영 된 진리, 근본적인 변화 및 결과적 난류의 순간을 촉발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볼륨, 하나의 재발견 명백한 의미의 이 유일한 혁명의 관점에서 본 개혁자 및 다른 용감한 개척자. 자신의 계정에서, 하나는 황폐 한 전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저항과 초자연적 인 개입의 기본 이유.

우리의 모토: "개혁 된 책, 변형 된 마음"은 중요한 시대와 그 영향으로 구성된 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 개혁, 부활과 변화의 긴급 공감. 으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결합에 의해 기관의 번역, 전파의 원리, 개혁 신앙을 약 500 년 전, 디지털 압박과 온라인 미디어 통신 것이라 모든 언어로 진리의 빛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간.

목차

제 1 장 - 순교사의 서곡..... 4

제 2 장 - 열 차례의 초기 박해들..... 9

제 3 장 - 페르시아의 성도들에게 가해진 박해들..... 31

제 4 장 - 로마 교회에 의한 박해..... 34

제 5 장 - 종교 재판에 대한 설명..... 56

제 6 장 - 교황권 밑에서 자행된 이탈리아의 박해들..... 68

제 7 장 - 존 위클리프의 생애와 박해에 관한 기사..... 73

제 8 장 - 교황권 밑에서 자행된 보헤미아의 박해들..... 77

제 9 장 - 마틴 루터의 생애와 박해에 관한 기사..... 92

제 10 장 - 독일의 일반적인 박해..... 96

제 11 장 - 네덜란드의 박해에 대한 설명..... 101

제 12 장 - 하나님의 참된 종이자 그분의 순교자인..... 107

제 13 장 - 존 칼빈의 삶에 관한 기사..... 118

제 14 장 - 1641 년 아일랜드 사람들의 대학살 사건의 전모..... 122

제 15 장 - 프랑스와 위그노..... 127

제 16 장 - 메리 여왕 통치 기간에 영국에서 자행된 박해들..... 136

제 17 장 - 성경의 전투 그리고 화약 음모 *..... 144

제 18 장 - 아일랜드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진보와 박해..... 166

제 19 장 - 존 번연의 생애와 박해에 관한 기사..... 171

제 20 장 - 존 웨슬리의 생애에 관한 기사..... 184

제 21 장 - 1789 년프랑솔혁명과그박해..... 189

제 22 장 - 1814 년에서 1820 년까지 프랑스에서..... 223

제 1 장 - 순교사의 서곡

순교사의 서곡

마태복음(16:16)에서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들으신다.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그분의 아버지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구원의 손길을 감지했다. 주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 이름지었으며, 반석이신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강력한 것이어서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둘째,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모든 음부의 최고 능력과 권세로부터도 강력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셋째, 그 교회는 마귀와 그의 원한으로 인한 극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이 예언이 적중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교회가 거쳐온 모든 발자취는 이 예언된 말씀을 확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둘째, 이 세상의 귀족들과 왕들, 군주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공개적이든 음성적이든 자신의 모든 권력과 교활함을 동원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자신을 헌신하다시피 하였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는 그것을 견뎌 내고 있으며, 지탱해 오고 있다.

1. 스테판(Stephen)

스테판은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것이 그의 죽음을 야기시켰다. 죄의 찔림으로 흥분한 유대인들의 광란적 반응은 그를 성읍 밖으로 내몰아 돌로 쳐죽이기에 이르렀다. 스테판이 박해받았던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듬해의 봄인 오순절 시기였다고 추정되며, 이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즉시,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또는 선지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 박해가 가해졌다. 이 사실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행 8:1)고 기록한 것을 보면 즉시 알 수 있다.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니카놀을 포함한 약 2 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스테판에 의해 일어난 박해" 기간 중에 순교당했다.

2. 야고보(James)

그 다음 우리가 만날 순교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다. 그는 요한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다.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는 종자매이다). 야고보의 순교는 스테판이 죽은 후 약 10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이는 헤롯 아그립파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매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3. 빌립(Philip)

그는 갈릴리 벳새다에서 태어났으며 최초로 "제자"로 불린 사람이다. 그는 북아시아(Upper Asia)에서 신실하게 주를 섬겼으며, 프리기아의 헤리오폴리스에서 순교당했다. 그는 채찍에 맞았으며, 감옥에 갇힌 후 A.D. 54 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4. 마태(Matthew)

마태는 세리였으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는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였고,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받았으며 A.D. 60 년 나다바에서 미늘창으로 살해당하였다.

5. 작은 야고보(James)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기도 하다. 94 세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로 맞아, 결국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했다.

6. 맛디아(Matthias)

맛디아는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다 이스카리옷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명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으며 후에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다.

7. 안드레(Andrew)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에데사에서 붙들려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땅에서 십자가의 두 끝을 수직으로 못박혀 죽었다.

8. 마가(Mark)

마가는 레위 족속의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 의식을 할 때 순교당하였다. 그는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며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

9. 베드로(Peter)

다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복받은 제자인 베드로는 죽음을 선고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제롬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를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혔다. 그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10. 바울(Paul)

처음에는 사울이라 불렀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숭고한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치룬 후, 역시 네로의 박해 아래서 순교하였다.

압디아스(Abdias)는 진술하기를, 네로가 바울에게 처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그의 병사 네레가(Nerega)와 파테미우스(Parthemius)를 보냈다고 한다. 그 두 병사는 바울에게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소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곧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무덤 가에서 침례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일이 있는 후에 그 병사들은 바울을 마을 밖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갔으며,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를 마치고 칼에 목이 베여 순교당했다.

11. 유다(Jude)

야고보의 형제이며 다대오(Thaddeus)로 불렸다. 그는 A.D.72 년 에데사(Edessa)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12. 바돌로매(Batholomew)

바돌로매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당하였으며,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13. 도마(Thomas)

도마는 디두모(Didymus)라고 불리며,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격노케 하였다. 그래서 그는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다.

14. 누가(Luke)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이며 복음 전파자이다. 그는 바울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선교하였으며, 그리스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 의하여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시몬(Simon)

시몬의 다른 이름은 젤로(Zelotes)이다. 그는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MAuritania)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영국에서도 선교하였다. A.D. 74 년에 그는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16. 요한(John)

이 "사랑받는 제자"는 큰 야고보(James the Great)의 형제이다.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었다. 그러나 기적으로 피해 달아나는데 성공했다. 그 후 도미티안(Domitian)은 그를 팻모 섬으로 추방하였고, 요한은 그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도미티안이 후계자인 네르바가 요한을 재송환하였다. 그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인 셈이다.

17. 바나바(Barnabas)

바나바는 사이프러스(Cyprus) 출신이며, 유대인 자손이다. 그는 약 A.D. 73 년경에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모든 박해와 끔찍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일 성장하였고, 사도들과 사도직분을 수행했던 형제들의 가르침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그 위에 성도들의 피가 풍성한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제 2 장 - 열 차례의 초기 박해들

네로 통치 하의 첫 번째 박해, A.D. 67 년

교회에 가해진 첫 번째 박해는 A.D. 67 년, 로마의 제 6 대 황제 네로가 통치할 때 일어났다. 이 독재자가 벌인 일들 가운데 유명한 것이 바로 로마 시를 불태운 일이었다. 황제의 위용을 자랑하던 로마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 네로는 마케나(Macaenas) 탑에 올라가 하프를 타며 '불타는 트로이'를 노래했고,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외쳐댔다. 그는 한 마디로 마귀 들린 미치광이 군주였다.

웅장한 건축물과 수많은 궁전들과 가옥들이 잿더미가 되었다. 수천만 명이 불길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사되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더미 밑에 파묻혔다. 이 가공할 대화재는 9 일 동안이나 그 불길이 꺼질 줄 몰랐다. 그런데 네로의 소행에 대해 맹렬한 비난과 증오가 빗발치자, 네로는 그 모든 원인을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기로 결심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을 면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귀적 성품을 즐겁게 해줄 또 다른 잔악극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났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된 짐승 같은 소행이 어찌나 끔찍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로마인들조차 끓어오르는 연민을 감출 수가 없었다. 네로는 잔인함의 극치를 보이며 극악무도하기 짝 없는 상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온갖

처형 수법을 고안해 냈다. 어떤 이들은 짐승 가죽에 꿰매어 넣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개들에게 물어 뜯기게 했다. 다른 이들은 밀랍을 먹인 딱딱한 속옷을 입혀 마차 차축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자신의 정원에서 불태워 야밤의 칙흑 같은 정원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로마 제국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일어난 이 잔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더 강성해졌고,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 순교자에는 바울 외에도 고린도 재무관인 에라스토(Erastus), 마케도니아의 아리스타코(Aristarchus), 바울을 통해 회심한 에베소인 트로피모(Trophimus), 바울의 동역자요 바사바(Barsabas)라고 불리는 요셉(Joseph), 다마스쿠스 감독 아나니아(Ananias) 등이 있었다.

도미시안(Domitian) 통치 하의 두 번째 박해, A.D. 81 년

도미시안 황제는 날 때부터 잔인함이 몸에 밴 인물로, 처음엔 친형제와 로마 원로원 의원 몇을 죽이더니 급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의 손길을 뻗었다.

이 박해 때 순교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 감독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시므온(Simeon)이 끼여 있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넣어졌다가 팻모섬으로 추방당했다. 특히 로마 원로원 의원 딸인 플라비아(Flavia)가 폰토(Pontus)로 유배당한 일이 계기가 되어 다음과 같은 특별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재판에 회부되어 호민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도미시안 통치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 목적으로 날조된 이야기들이 가지각색으로 난무했다. 기근과 전염병, 지진 같은 것들이 로마 지배 하의 속주(屬州) 어느 곳에 스치기만 해도 그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졌다.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불어 닥친 박해들로 믿음 없는 내부 밀고자들의 수가 증가했고, 돈에 눈먼 거짓 고발자들이 무고한 생명들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집정관 앞에 서면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법정 선서가 제안되었는데, 재판을 원치 않아 그것을 거절해도 사형이 선고되고, 설사 선서한 후에라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 사형이 언도된다는 선서였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기간에 순교했지만, 단연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은 다음과 같았다.

헬라 문학을 섭렵한 뒤 천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다가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던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초자연적” 일식을 관찰하게 된 아레오파고(Areopagus) 사람 디오누시오(Dionysius)는 그 입술에 배인 거룩함과 몸에 젖은 순결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호감을 사 아테네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가 그 후 순교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음 따스한 그리스도인 니코데모(Nicodemus)는 도미시안 박해 기간의 들끓는 격분 속에서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프로타시오(Protasius)와 거바시오(Gervasius)는 밀란(Milan)에서 순교했다.

사도 바울의 제자요 영적 아들로 불린 디모데(Timothy)는 에베소 감독이었고 A.D. 97년까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 이 박해 기간에 카타고기온(Catagogion)이라는 우상 축제를 거행하려는 이교도들의 가두 행렬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허황된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책망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교도들이 그를 곤봉으로 사정없이 끔찍하게 내리쳤고, 디모데는 그때 얻은 부상으로 이틀 후 숨을 거두고 말았다.

트라얀(Trajan) 통치하의 세 번째 박해, A.D. 108년

학식 있고 이름 높던 플리니 2세(Pliny the Second)는 이 세 번째 박해 때 통치자 트라얀에게 서한을 띄웠는데, 이유인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로마법에 저촉되어 박해받을 만한 이가 한 사람도 없음에도 하루에도 수천 명씩 대학살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끓어오르는 연민을 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안티옥 감독 이그나티우스(Ignatius)가 바로 이 박해 때 고난을 당했다. 붙잡혀 스머냐에 당도한 그는 순교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얻도록 해 달라는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띄워 순교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고, 그후 맹수의 우리에 던져 넣으라는 형을 선고받고서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귓전에 들려오자 "오, 나는 그리스도의 밀알이라. 순결한 빵으로 발견되기 위해 맹수들의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려 하노라."고 말한 후 맹수들에게 뜯겨져 순교했다.

트라얀을 뒤이어 아드리안(Adrian)이 등극했고, 그 역시 지독한 가혹함으로 이 세 번째 박해를 이어나갔다. 로마 감독 알렉산더(Alexander)가 그의 두 집사와 함께 순교했으며, 퀴르누스(Quirinus)와 헤르네스(Hernes) 그리고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로마의 귀족 제논(Zenon)과 10,000명에 육박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넘겨졌다. 아라랏 산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떠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특히 유스타치우스(Eustachius)라는 로마 지휘관은 그의 몇몇 전승을 축하하기 위한 우상 희생제에 참가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중히 거절했고, 이에 화가 치민 배은망덕한 황제는 이 노련한 지휘관의 공로를 잊고서 그와 전 가족을 몰살시켜 버렸다.

파우스티네스(Faustines)와 조비타(Jovita) 그리고 브레스키아(Brescia)의 형제들과 시민들이 순교당할 때에는 고난에 대한 그들의 인내에 감탄한

칼로세리우스(Calocerius)라는 한 이교도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라고 탄성을 질렀다가 체포되어 함께 죽임을 당했다.

A.D. 138 년, 아드리안이 명을 다하자 유순한 성품의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가 뒤를 이었고,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잠시 중단되었다.

누스(Marcus Aurelius Antoninus) 통치하의 네 번째 박해, A.D. 162 년 - ①

A.D. 161 년경 왕위에 오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스도인들에게 독기를 품고 사납게 굴던 이 자에 의해 네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다.

어떤 순교자들은 이미 까발려진 발바닥으로 가시, 못, 뾰족한 조개껍데기 같은 것들 위를 지나가야만 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근육과 핏줄들이 살갗 밖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채찍으로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부족한지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문들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맞본 후 소름끼치기 짝 없는 죽임을 당했다.

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게르마니쿠스(Germanicus)는 맹수들에게 넘겨질 때 맹수들을 비웃듯 담대한 믿음을 지켰고, 이를 지켜보던 몇몇 이교도들이 확고부동한 그의 믿음을 보고서 주님께로 회심했다.

스머나의 덕망 있는 감독 폴리캡(Polycarp)은 지방 총독 앞으로 끌려가 사형을 언도받고 시장 바닥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저주하라, 그러면 널 놓아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비난해 보란 말이다!” 총독의 이 타협안에 폴리캡은 “내가 주님을 섬긴 지 86 년이 흘렀어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날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응수했다. 화형틀에 홀로 묶인 그를 나뭇단에 지핀 화염이 아치 모양으로 휘감았지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본 총독은 칼로 찌르라는 명령을 내렸고, 칼로 찌르자 불길을 꺼뜨릴 정도로 많은 피가 쏟아졌다.

큰 담력으로 말씀을 전파했던 주님의 일꾼 메트로도루스(Metrodorus)와 수차례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탁월하게 변호했던 파이오니우스(Pionius) 역시 불살라졌으며, 카푸스(Carpus)와 파필루스(Papilus)라는 두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독실한 믿음의

아가도니카(Agathonica)라는 여인도 아시아의 퍼가모폴리스(Pergamopolis)에서 순교했다.

로마 명가의 귀부인 펠리시타티스(Felicitatis)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슬하에 일곱 아들을 두었다. 그 중 장남 재누아리우스(Januaris)는 채찍에 맞은 후 육중한 추들에 눌러 압사했고, 밑의 두 동생 펠릭스(Felix)와 필립(Philip)은 곤봉에 맞아 뇌가 터져 나왔으며, 넷째 실바누스(Silvanus)는 절벽에서 떠밀려 추락사했다. 철없는 알렉산더(Alexander)와 비탈리스(Vitalis)와 마셜(Martial)은 참수당했고, 어머니도 그 어린 것들의 피가 묻은 칼에 목이 베어졌다.

진리를 끄적이도 애찬하던 박식한 학자 저스틴(Justin)은 원래 철학에 심취한 철학자였지만, A.D. 133 년경 서른 살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 처음으로 진리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가혹하게 대하자 그들을 위한 첫 번째 변호서를 작성하게 되고, 거기에 배인 뛰어난 학식과 천재성에 손을 들어 버린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리한 칙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기성사실을 멸시하고 세상을 비꼬며 비뚤어진 눈으로 보는 퀴닉학파의 크레센스(Crescens)와 잦은 논쟁을 벌이던 중 그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는데, 이에 저스틴을 죽이기로 작정한 크레센스는 저스틴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두 번째 변호서를 작성했을 때 황제를 부추겨 그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결국 저스틴과 그의 여섯 동료는 그 글로 인해 체포되고 말았다.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거절한 그들에게 채찍형과 함께 참수형이 선고되었으며, 그들은 혀를 내두르게 하는 온갖 가혹한 형벌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시기에 몇 사람이 주피터(Jupiter) 형상에 제물 바치기를 거절한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는데, 거기에 스폴리토(Spolito) 시의 집사 콘코두스(Concordus)가 포함되었다. 그는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딤편 3:13).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Marcus Aurelius Antoninus) 통치하의 네 번째 박해, A.D. 162 년 - ②

로마의 네 번째 박해 기간에 열왕기상 18 장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 로마로 인해 마음 편치 못해 하던 몇몇 북쪽 나라들이 로마를 대항해 무장하고 일어서자 황제는 그들과 교전키 위해 출전했다. 그런데 그만 적군이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빠져 들었는데, 첩첩산중 어딘가에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다, 또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 돼 버린 그들은 이교도 신들에게 간절히 구해 보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묵묵부답이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왕상 18:26).

이처럼 전의를 상실하고 있을 즈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민병대, 즉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뇌성 군단’ 대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왕상 18:36,37). 아니나 다를까 기적적인 구원이 그 즉시로 뒤따랐다.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부대원들이 만들어 놓은 도랑을 가득 채웠고, 그로 인해 때 아닌 놀라운 구원이 찾아들었으니, 자신들의 면상에 불어 닥친 불가사의한 폭풍으로 너무도 겁에 질려 버린 일부 적들이 로마 군대로 투항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패배의 쓴잔을 맛보게 되어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속주들이 평상을 되찾은 것이다.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단 4:3).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왕상 18:39).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얼마간 박해가 누그러졌다.

그러나 박해는 곧이어 프랑스, 특히 리옹(Lyons)에서 맹위를 떨쳤다. 거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문들을 말로 표현하자면 아예 입이 다물어질 지경이다. 이 순교자들 중 단연 으뜸인 이들 중에는 베티우스 아가투스(Vetius Agathus)라는

파릇파릇한 청년, 그리스도를 믿는 가냘픈 몸매의 숙녀 블란디나(Blandina), 시뻘겋게 달궈진 늦접시를 신체의 가장 연한 부위에 대고 있어야 했던 비엔나(Vienna)의 집사 생투스(Sanctus), 일전에 한 번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있는 약골의 여인 비블리아(Biblias)가 있었고, 퍼가모(Pergamus)의 아탈루스(Attalus)와 리용의 덕망 있는 감독인 아흔 살의 포티누스(Pothinus)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블란디나로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과 다른 세 챔피언들이 원형극장 안으로 처음 끌려 들어온 날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말뚝에 묶여 맹수들의 먹이감으로 노출되었다. 그녀는 그때 간절한 기도로 다른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맹수도 그녀만은 건드리려 하지 않는지라 그녀는 도로 감옥에 남겨지게 되었다. 그녀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원형극장으로 끌려 나왔을 때, 그녀 옆에는 폰티쿠스(Ponticus)라는 열다섯 살의 소년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의 믿음이 지닌 굳은 지조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군중들은 그들을 성적 노리개로 하여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고문하고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소년은 블란디나로부터 힘을 얻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녀 또한 갖은 고문을 잘 참아낸 후 결국 칼로 죽임을 당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점철되었다. 그들의 삶은 로마의 원형경기장 "콜로세움"과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대변된다. "카타콤"은 로마의 땅 밑에 파 놓은 굴들로, 교회당과 무덤을 겸해 사용되었다. 초기 로마의 교회는 일명 "카타콤 교회"였던 것이다. 로마 부근에는 약 60 개의 카타콤이 있으며, 그 안에서 600 마일 정도의 지하 통로가 발견되었었다. 이 지하 통로들은 높이가 약 1.8 미터, 폭이 1-1.5 미터 정도로, 각 측면 벽에는 수평선처럼 길고 낮게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선박의 층계식 침대들처럼 위아래로 차곡차곡 만들어져 있다. 이것들 안에는 시체들이 안치되어 있었고, 앞면이 한 판의 대리석이나 회반죽으로 이어 놓은 몇 개의 커다란 기왓장으로 봉입되어 있었다. 이 대리석 판들이나 기왓장들 위에는 묘비명이 새겨져 있거나 어떤 상징들이 그려져 있다.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그들의 죽은 자를 이곳 지하 묘지들에 묻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을 열어젖히면 그들의 뼈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 머리들이 몸에서 잘려진 채로 발견되는가 하면, 갈비뼈들과 견갑골들이 부서져 있고, 또 뼈들은 종종 불태워져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생석회(生石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무시무시한 박해 기사를 읽어 나갈지 모르나, 그 비면(碑面)들에 새겨진 비문(碑文)들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입맞춤을 보내고 있다.

“마르시아(Marcia)가 평안을 꿈꾸며 이곳에 고이 잠들어 있다.”

“로렌스(Lawrence)가 천사들의 품에 안겨 떠나간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아들에게 바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승리했도다.”

“부르심을 받고서 평안히 갔도다.”

세베루스(Severus)와 함께 시작된 다섯 번째 박해, A.D. 192 년

심한 병으로 몸져누워 있던 세베루스는 한 그리스도인의 도움으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호의를 보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무지한 군중들의 편견과 광분에 못 이겨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법령을 실행토록 하고야 만다. 기독 신앙이 눈에 띄게 활기를 얻자, 이에 놀란 이교도들은 우연발생적인 재난들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그 옛날의 중상모략을 재개하는데, 때는 A.D. 192 년이었다.

그러나 박해가 아무리 날뛴다 해도 복음은 찬란히 빛났고, 그 어떤 내침에도 끄덕 않는 바위처럼 원수들의 사납고 거친 공격들을 훌륭히 이겨 내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로마 제국에서 빠져 나간다면 제국이 심각한 인구 부족을 겪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갔다.

로마 감독 빅터(Victor)는 세 번째 세기가 시작되던 해, 그러니까 A.D. 201 년에 순교했다. 라이스(Rhais)는 펄펄 끓는 새까만 역청을 머리에 뒤집어쓴 후 그녀의 어머니처럼 화형에 처해졌다. 언니 포타이니에나(Potainiena) 역시 라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녀의 형 집행을 맡은 바실리데스(Basilides)라는 장교가 그녀로 인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진다.

바실리데스는 이후 군 장교로서 응당 해야 할 특정 서약을 요구받자 그리스도인이기에 로마 우상들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노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던 사람들 앞에서 거둬 준은 결심을 표명하자, 즉시 재판관 앞으로 끌려가 감옥에 넘겨져 그 후 서둘러 참수되었다.

이제 박해의 불길은 아프리카로 옮겨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그쪽 모퉁이에서 순교를 당했다.

페르페투아(Perpetua)는 스물두 살 가량의 기혼녀였다. 함께 고난당한 이들은 만삭으로 배가 부른 펠리시타스(Felicitas)와 이제 갓 신앙을 갖게 된 노예 레보카투스(Revocatus)였다. 다른 수감자 명단에는 사투르니누스(Saturninus), 세쿤둘루스(Secundulus) 그리고 사투르(Satur)가 있었다. 처형 당일 그들은 원형극장으로 끌려 들어갔고, 사투르와 사투르니누스, 레보카투스를 '사냥꾼들' 사이에서 태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도 죽지 않을 시에는 그들을 맹수들에게 넘기는 것이 관례였다. 사냥꾼들이 두 줄로 늘어선 자, 그들은 사냥꾼들 사이로 뛰어들어 지나가면서 가혹하게 난타를 당했다. 펠리시타스와 페르페투아는 발가벗겨진 채 미친 황소에게로 던져졌는데, 그 미친 소는 페르페투아를 들이받아 기절시킨 뒤, 쏘살같이 펠리시타스에게 돌진해 무참히 받아 버렸다. 그 일로도 죽지 않은 그들을 사형 집행인이 칼로 숨통을 끊어 버렸다. 결국 레보카투스와 사투르는 맹수들에 의해, 사투르니누스는 참수형으로, 세쿤둘루스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일들은 A.D. 205 년 3 월 8 일에 집행되었다.

스페라투스(Speratus)와 다른 20 명도 역시 목 베임을 당했다. 프랑스의 안도클레스(Andocles)도 마찬가지였다. 안티옥의 감독 아스클레피아데스(Asclepiades)는 술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다.

로마 명가 출신의 숙녀 세실리아(Cecilia)는 발레리안(Valerian)이라는 신사에게 시집을 갔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동생을 주께로 인도했고 그 둘 모두 참수를 당했는데, 그들의 형 집행을 담당한 장교가 그들로 인해 회심하게 되어 그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했다. 세실리아는 물이 펄펄 끓는 욕조에 알몸으로 담귀졌고, 꽤 시간이 지난 뒤 칼로 목 베임을 당했다. 이 일은 A.D. 222 년에 일어났다.

로마 감독 칼리스트투스(Calistus)는 A.D. 224 년에 순교했으나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로마 감독 우르반(Urban)도 A.D. 232 년에 동일한 운명을 맞이했다.

막시무스(Maximus) 통치하의 여섯 번째 박해, A.D. 235 년

A.D. 235 년은 막시무스가 통치하던 때였다. 카파도키아(Cappadocia)에서는 그곳의 총독 세레미아누스(Seremianus)가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그 지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려 하였다.

이 통치하에 죽은 주요 인물들에는 로마 감독 폰티아누스(Pontianus)와 그리스 사람으로 그의 후계자며 순교자들의 행적들을 수집하러 다니다 정부의 미움을 산 안테로스(Anteros), 로마 원로원 의원 팜마치우스(Pammachius)와 퀴리투스(Quiritus), 그리고 그들의 전 가족과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원로원 의원인 심플리시우스(Simplicius)와 티베르(Tyber)로 추방당한 주님의 일꾼 칼레포디우스(Calepodius), 고귀하고 아름다운 처녀 마르티나(Martina), 거칠게 날뛰는 야생마에 줄로 매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땅바닥에 끌려 다녔던 주의 종 히폴리투스(Hippolytus)가 있다.

막시무스가 일으킨 이 박해 기간 동안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정에 서 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한 후 그들의 시체가 무더기로 쌓이며 매장되었다. 어떤 때는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이 한꺼번에 오륙십 명씩 구덩이에 던져 넣어졌다.

날마다 썩어가는 육신이 죽어 이토록 가치 없이 내버려졌다 해도,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시 116:15). 이제 곧 구속받은 몸으로 부활하면, 그 날 박해받던 성도들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것을 온 천하

데시우스(Decius) 통치 하의 일곱 번째 박해, A.D. 249 년

이번 박해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던 선왕 필립에 대한 데시우스의 증오와 교회들의 왕성한 성장에 대한 그의 시기가 뒤엉켜 일어났다. 데시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그 이름을 뿌리째 뽑으려 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으로 수많은 오류가 유입되었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사랑을 해도 어려운 판국에 분열되어

다양한 분파를 만들고야 말았다. 이런 상황에 이교도들은 황제의 칙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을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그것을 자신들의 공적으로 돌리고픈 마음으로 불타고 있었다.

시실리아(Cicilia) 태생의 줄리안(Julian)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독사와 전갈이 우글대는 가죽 부대에 넣어진 후 그대로 바다에 던져졌다. 피터(Peter)라는 청년은 비너스에게 제물 바치기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악명 높은 여인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녀의 방탕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역사가들도 기록하고 있고, 그녀의 삶은 당신들의 법이 처형하기로 규정해 놓은 것들로 얼룩져 있으니 이 어찌 놀랄 일이 아닌가! 난 결코 할 수 없다.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실 찬양과 기도의 제물들을 참되신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아시아의 총독 옵티무스(Optimus)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를 형차(刑車) 위에서 찢으라고 명령했다. 이로 인해 모든 뼈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청년은 이후 다른 곳으로 보내져 참수당했다. 열여섯밖에 안된 처녀 데니사(Denisa)는 한 청년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을 지켜보다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다. “오 불행하고 가련한 사람아, 왜 너는 한순간 편안하여 영원히 비참해지려고 하는가!” 이 말을 들은 옵티무스는 그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고, 데니사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힌 후 참수당했다.

순교자 니코마쿠스의 두 친구 앤드류(Andrew)와 폴(Paul)은 A.D. 251년에 복되신 구세주를 부르며 돌에 맞아 순교했다.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와 에피마쿠스(Epimachus)는 ‘죄’라고 불리는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갈고리로 찢긴 후 결국 불태워져 죽었다.

두 명의 사악한 이교도 루시안(Lucian)과 마르시안(Marcian)은 솜씨 좋은 마법사들이었으나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열변을 토하는 설교자들로 변모하여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들은 산 채로 화형시키라는 형을 선고받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했다.

트루포(Trypho)와 레스피시우스(Respicius)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까닭으로 체포되어 니스(Nice, 프랑스 남부의 피한지)에서 투옥되었다. 두 발에 못들이 박히는가 하면,

길거리를 끌려다니고, 채찍질당하고, 쇠갈고리로 갈기갈기 찢기며 불붙은 햇불로 지져지다가 A.D. 251 년 2 월 1 일에 목이 베어졌다.

시칠리아(Sicily)의 숙녀 아가사(Agatha)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가꾸어 온 자질도 자질이지만 신앙 또한 이에 못지않게 눈에 띄었다. 너무도 수려한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버린 시칠리아 총독 퀸티안(Quintian)은 그녀의 순결을 빼앗으려고 갖은 시도를 다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기 일쑤였다. 그는 그 정숙한 여인을 아프로디카(Aphrodica)라는 음탕하기로 악명 높은 여자의 손에 넘겨 그녀를 매춘시키기 위해 갖은 수작을 다 부려 보았지만,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다. 퀸티안은 자신의 계획이 좌절된 데 대해 끓어오르는 격분을 누를 길이 없었고, 그녀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자 그의 정욕은 분노로 바뀌어 그녀에게 앙갚음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채찍질당하고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지져지고 날카로운 갈고리들로 살점이 툭툭 뜯겨져 나갔다. 이 고문들을 곳곳하고 훌륭히 잘 참아 낸 그녀는 이번엔 뾰족한 유리 파편들이 섞여 있는 뜨겁게 달궈진 석탄 위에 발가벗겨진 채 눕혀졌다가 다시 감옥에 넣어졌으며, 그곳 감옥에서 A.D. 251 년 2 월 5 일 숨을 거두었다.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의 피는 박해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넘실거렸다. 박해의 괴수 데시우스가 성도들의 모임을 들여다보고파 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세 제자들과 참수당한 바빌라스(Babylas)와 혹독한 감옥 생활로 생을 마감한 예루살렘 감독 알렉산더, 낙타 등에 묶인 채 가혹하게 채찍질당한 후 불구덩이에 던져져 한 줌의 재가 된 노인 줄리아누스(Julianus)와 크로니온(Cronion), 투옥되어 채찍질당하다 불살라진 안티옥의 40 명의 처녀들, 에베소에 이교 사원을 세운 황제가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했을 때 정중히 거절하고 황제가 원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느 동굴로 몸을 숨겼다가 돌아온 황제가 입구를 봉하는 바람에 굶어죽은 친위대원 막시미아누스(Maximianus), 마르티아누스(Martianus), 조아네스(Joannes), 말쿠스(Malchus), 디오니시우스(Dionysius), 세라이온(Seraion),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가 있었다. 그리고 세쿤디아누스(Secundianus)가 병정들에 의해 감옥으로 끌려갈 때 “지금 그 무고한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 중이요?”라고 물었다가 체포되어 함께 고문당하고 교수형에 처해진 후 목이 잘린 베리아누스(Verianus)와 마르셀리누스(Marcelinus)가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데오도라(Theodora)라는 아리따운 숙녀가 로마의 우상들에게 제물 바치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매춘굴로 보내지자 디두모(Didymus)는 로마 병정 군복을 입고서 매춘굴로 위장해 들어가 그녀를 자신의 군복을 입고 도망가게 하였다. 후에 자신은 발각되어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자기를 구해 준 그가 사형에 처해지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오도라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곧장 판사에게로 달려가 그의 발치에 몸을 던진 채 디두모의 죄는 자기가 질 테니 그를 놓아 달라며 애걸복걸 울먹이며 매달렸다. 그러나 매정한 판사는 그녀에게도 사형을 선고해 버렸다. 두 사람은 먼저 목이 베였다. 그후 시체가 토막이 났으며, 그리고 불살라졌다.

이 순교 이야기는 남녀 간의 애정보다도 깊은, 지극히 숭고한 성도의 사랑을 보여 준 것이다. 연인이 아닌 성도로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사랑을 실천했다. 성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들은 그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고 실천한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요 15:12-14, 벡전 1:22).

발레리안(Valerian) 통치하의 여덟 번째 박해, A.D. 257 년

이 박해는 A.D. 257 년 4 월, 발레리안 통치 때 시작하여 3 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한 부모 슬하에서 자란 루피나(Rufina)와 세쿤다(Secunda) 자매는 둘 다 미모가 출중하고 교양이 넘치는 여인들이었으며 돈 많은 귀족들과 약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던 두 신랑은 박해가 닥치자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믿음을 저버렸고, 약혼녀들을 설득하지 못하자 언제 사랑했느냐는 듯 밀고해 버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힌 두 여인은 로마 총독 쥬니우스 도나투스(Junius Donatus) 앞으로 끌려가 A.D. 257 년에 자신들의 피를 인주 삼아 순교의 도장을 찍었다.

로마 감독 스테펜(Stephen)도 그 해 참수당했다. 그 즈음 툴루스(Toulouse)의 경건한 정통파 감독 사투르니누스(Saturninus)는 우상들에게 제물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황소의 꼬리에 발이 묶였다. 박해자들은 황소를 사원 계단 아래로 내몰았고, 그 짐승이

격분하여 콧김을 내뿜으며 내달리는 바람에 그 훌륭한 순교자의 뇌가 터져 나오고 말았다. 스테펜의 뒤를 이은 로마 감독 섹스투스(Sextus)는 로마 정부 재무관 마르시아누스(Marcianus)가 황제를 꼬드겨 로마의 모든 감독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낸 일로 인해 그의 여섯 집사들과 258 년에 순교했다.

로렌스(Lawrence)는 성례(침례와 주의 만찬)를 주관하고, 교회의 자산 분배를 도맡고 있는 사역자였다. 폭군 발레리안은 로렌스가 교회재산을 어디에 간수해 두었는지를 추궁했는데, 이는 교회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한 뒤 박해하기 위해서였다. 로렌스는 3 일 여유를 주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곳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렌스는 그 사이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불러모았고, 답변의 날이 이르자 가난한 성도들 위로 두 팔을 벌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이 교회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들보다 그리스도께 소중한 보석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그 폭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성난 멧돼지처럼 게거품을 물면서 소리쳤다. “장작에 불을 붙여라! 채찍으로 후려치고, 막대기로 가랑이를 찢고, 주먹으로 때려눕히고, 곤봉으로 머리통을 부셔라. 이 역적이 감히 황제를 우롱해? 불에 달군 부젓가락으로 살을 쥐어틀라. 시뻘겁게 달군 쟁반들로 살을 문질러라. 가장 튼튼한 쇠사슬과 불갈퀴와 쇠격자 침대를 꺼내고 침대 위에 불을 지피라. 그리고 역적의 손발을 묶고 침대가 뜨겁게 달궈졌을 때 놈을 그 위에 올려놓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구워 버려라. 오, 고문 집행자들아, 일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네 놈들이 그 꼴이 될 줄을 알라.” 이 명령은 즉시 그대로 실행되었다. 로렌스는 수많은 잔인한 손길에 처참하게 놀아난 뒤 별경게 달궈진 쇠침대에 눕혀져 순교했다.

유티카(Utica)에서는 그곳 총독의 명령에 300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불타는 석회 가마에 빙 둘러 세워졌다. 숯불 위에서 향이 살라지고 있는 접시가 준비되자 주피터에게 제물을 바치든지 가마 속에 던져지든지 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하나같이 제물 바치기를 거절하고 담대하게 그 가마 속으로 뛰어들어 질식해 죽고 말았다.

프루고뚜오수스(Fructuosus)라는 스페인의 따라곤(Tarragon)의 감독과 그의 두 집사 아우구리우스(Augurius)와 율로기우스(Eulogius)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다. 맥시마(Maxima), 도나틸라(Donatilla), 세쿤다(Secunda), 즉

뚜부르가(Tuburga)의 세 처녀는 그들에게 주어진 쓸개즙과 식초를 들이킨 후 심하게 채찍질당하고, 효시대(梟示臺,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못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본을 보여 주는 교수대)에서 고문을 당하고, 석회로 문질러지고, 달궈진 석쇠로 지져지고, 맹수들에게 물어뜯기고, 결국 목이 베어졌다.

아우렐리안(Aurelian) 통치하의 아홉 번째 박해, A.D. 274 년

이 아홉 번째 박해 때 로마 감독 펠릭스(Felix)는 A.D. 274 년 로마 관구로 파견된 뒤 심술 사나운 아우렐리안에 의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그는 동년 12 월 22 일 참수당했다. 또 자신의 사유지를 팔아 생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젊은 신사 아가페투스(Agapetus)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고문당한 후 로마에서 하룻길인 프래네테(Praenete) 시에서 참수당했다. 이 통치 기간에 순교당한 이들에 관한 기록은 이들에 관한 것이 전부인데, 이는 황제가 비잔티움(Byzantium)에서 신하들에게 살해되는 바람에 박해가 일찍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타시투스(Tacitus), 프로부스(Probus), 카루스(Carus), 카르니오우스(Carnious), 누메리안(Numerian)이 왕위를 이었고, A.D. 284 년 디오클레시안(Diocletian)이 황제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호의를 보여 주다가 싶더니, 286 년에 막시미안(Maximian)과 한패가 되어 대대적인 박해를 일으키기 전부터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내어주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는 펠리시안(Felician)과 프리무스(Primus)라는 두 형제가 있었고, 마르쿠스(Marcus)와 마르셀리아누스(Marcellianus)는 기둥에 묶여 발에 못박힌 채 주야를 매달려 있다가 창에 몸이 꿰뚫려 순교했다. 조에(Zoe)는 이 순교자들을 지키던 간수의 아내였는데, 그들을 통해 회심하고서 발밑에 벚짚단이 타오르는 나무에 매달려 순교했다.

A.D. 286 년에 매우 진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로지 6,666 명의 그리스도인 보병으로만 구성된 테반 군단(Theban Legion)이 전원 순교했기 때문이다. 이 군단은 모든 병사가 테비아스(Thebias)에서 자랐기에 테반 군단이라 이름 붙여졌다. 로마 제국 동편에 자리잡고 숙영하던 그들은 부르군디(Burgundy) 반군을 대항해 자신을 도우라는 황제 막시미안의 명령을 받고서 골(Gaul, 고대 켈트 사람의 땅으로 지금의 북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을 포함함)을 향해 진격했다. 그들은 덕망 있는 사령관인

마우리티우스(Mauritius), 캔디두스(Candidus), 엑수페르니스(Exuperis)의 지휘 하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 골 지방의 황제 군대와 합류했다. 그들이 당도할 즈음 막시미안은 전군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희생제를 명령해 놓았고, 테반 군단 역시 충성을 선서하고 골에서 기독 신앙을 근절하는 일에 조력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테반 부대는 전원 절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희생제물을 바치지도 규정된 선서를 하지도 않았다. 이에 막시미안은 열에 한 명씩 뽑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피비린내 나는 명령이 수행되었음에도 살아남은 이들이 여전히 꿈쩍도 하려 하지 않자 그중 매 열 번째에 해당하는 이들이 또다시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나 두 번째 잔혹한 처사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전 군단을 몰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다른 군단 대원들이 그들을 칼로 토막 냄으로써 6,666 명 모두가 286 년 9 월 22 일 한날에 순교했다.

이외에도 영국의 첫 번째 순교자 알반(Alban)과 프랑스의 아끼떼인(Acquitain)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던 여인 페이뜨(Faith), 골에서 순교한 퀸틴(Quintin)과 루시안(Lucian)이 이 기간에 순교당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디오클레시안(Diocletian) 통치하의 열 번째 박해, A.D. 303 년 ①

“순교자들의 시대(the Era of the Martyrs)”라고 일컬어지는 이 열 번째 박해는 디오클레시안의 양자인 갈레리우스(Galerius)의 증오가 한몫 단단히 거들었다. 그는 완악하기 그지없는 이교도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아 황제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목적을 이루었다.

A.D. 303 년 2 월 23 일은 테르미날리아(Terminalia)를 기념하는 날이었다. 잔인한 이교도들은 그날 기독 신앙을 뿌리째 뽑아 없애기를 원했고, 박해는 니코메디아(Nicomedia)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시 관원들은 장교들과 병력을 대동하고서 교회에 들이닥쳤고, 문을 떠밀어 부수고 들어가 성경이란 성경은 모두 모아 불태워 버렸다. 이 모든 만행의 현장에는 디오클레시안과 갈레리우스가 함께했는데, 그들은 이 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산산이 부숴 버렸다. 이후 다른 모든 교회들과 성경들도 부수고 소각하라는 칙령이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모든 법적 은전(恩典)과 보호를 박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 즉시 순교가 뒤따랐다. 이는 한 담대한 성도가 그 포고문을 벽에서 뜯어내어 찢어버리고 황제의 이름에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은 그를 붙잡아 처참히 고문한 후 산 채로 불살랐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투옥시켰다.

오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이교도들을 지독히도 역겹게 만들었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중상에 희생되었다. 수많은 가옥이 불살라지고 주님을 믿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불길 속에서 몰살당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목에 돌덩이를 매달고 한데 묶여진 채 바다로 내몰렸다. 박해는 로마 제국 도처에서 10년 동안 대대적으로 지속되었기에 순교자들의 수와 만행의 방식을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팔다리를 잡아당기는 고문대, 채찍, 서슬 퍼런 칼날, 단검, 십자가 형틀, 독약 그리고 굶주림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각지에서 사용되었고,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기 위한 기구들이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발명되었다. 대학살을 자행하다 스스로 지쳐 버린 몇몇 지방 총독들은 이와 같은 박해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을 황궁에 올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형으로부터는 한숨을 돌리게 되었으나, 대신 귀가 잘리고, 코를 찢이고, 오른쪽 눈만 도려내지고, 관절이 무참히 탈구되어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새빨강게 달궈진 쇠덩어리로 눈에 잘 띄는 신체 부위가 지저지는 바람에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다.

저명한 순교자 세바스티안(Sebastian)은 골의 나본(Narbonne)에서 태어나 밀란(Milan)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후 로마의 친위대 장교가 되었다. 그는 이상 숭배가 만연하는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켰는데, 황제는 이교도가 되기를 거절하는 그를 캠퍼스 마르티우스(Campus Martius)라는 로마 근교의 벌판으로 데려가 화살로 쏘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형 선고는 그대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시신을 땅에 묻으려던 성도들이 그에게 숨이 붙어 있는 것을 알고서 즉시 안전한 장소를 옮겨 극진히 간호했다. 세바스티안은 빠르게 회복했고, 이것은 두 번째 순교를 위한 준비였다. 외부로 돌아다닐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그는 이교도 사원으로 가고 있는 황제를 가로막고 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처사들과 상식에서 벗어난 편견들을 꾸짖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난데없이 나타나는 바람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황제는 정신을 가다듬은 즉시 그를 황궁 근처로 끌고 가 때려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시체를 공용 하수구에 던져 넣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몸을 회복시키거나 땅에 묻는 일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루시나(Lucina)라는 여성도가 기어코 시신을 하수구에서 끄집어내더니 지하 납골당인 카타콤에 안치시켰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히 숙고한 끝에 이교도 황제의 통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병역에 복무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써 파비우스 빅토르(Fabius Victor)의 아들 막시밀리안(Maximilian)이 첫 번째로 참수당했다.

비투스(Vitus)는 시칠리아(Sicilia) 섬의 명가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으며 자랐다. 부친 홀라스(Hylas)는 이교도였는데, 아들이 보모에게서 기독 신앙의 교리를 배운 것을 알아차리고서 다시 이교 신앙으로 되돌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노력이 실패하자, 결국 A.D. 303년 6월 14일 자기 아들을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버렸다.

빅토르(Victor)는 마르세유(Marseilles)의 훌륭한 가문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밤이 되면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 자기 재산을 털어 가난한 성도들과 병자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결국 막시미안의 포고령에 따라 붙잡혔고, 그를 묶어 거리에서 끌고 다니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가 여전히 믿음을 굽히지 않자, 막시미안은 그로 하여금 고문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했다. 빅토르는 고문 중에도 두 눈을 주님 계신 하늘 나라로 들어올리고서 인내를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감탄을 자아낼 만큼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문을 견뎌 내었다. 고문하던 형 집행인들이 녹초가 돼 버리자 그는 이번엔 지하 감옥으로 옮겨졌고, 갇혀 있는 동안 알렉산더(Alexander), 펠리시안(Felician), 롱기누스(Longinus)라는 이름의 수감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나 이 일을 들은 황제는 그 수감자들을 참수해 버렸다. 빅토르는 그 후 또다시 고문대에 눕혀져 막대기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고서 재수감되었다. 신앙에 관한 세 번의 심문에도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자 이번엔 작은 제단을 들여와 그에게 그 위에 향을 피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 요구에 타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빅토르는 몇 발짝 앞으로 가더니 제단과 우상에게 발길질하여 한꺼번에 넘어뜨려 버렸다. 지켜보던 막시미안은 제단을 걷어찬 그

발을 당장에 잘라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빅토르는 제분기 사이로 던져졌고, 맷돌들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어졌다.

타소(Tarsus)에 근무하는 킬리키아(Cilicia)의 총독 막시무스(Maximus) 앞에 노인인 타라쿠스(Tarachus)와, 프로부스(Probus), 안드로니쿠스(Andronicus), 즉 3 명의 그리스도인이 끌려왔다. 고문에 고문을 당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자 마침내 사형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온 그들에게 대여섯 마리의 맹수들이 들여보내졌지만, 짐승들은 굶주렸음에도 털끝 하나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지켜보던 사육자가 그날 3 명을 죽인 큰 곰 한 마리를 들여보냈지만,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피조물도 그들을 건드리기를 꺼렸다. 야수들로 죽이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막시무스는 그들을 칼로 베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그렇게 순교했다. 이 일은 A.D. 303 년 10 월 11 일에 일어난 일이다.

디오클레시안(Diocletian) 통치하의 열 번째 박해, A.D. 303 년 ②

팔레스타인(Palestine)의 로마누스(Romanus)는 박해가 시작될 무렵 캐사리아(Caesarea) 교회의 집사였다. 그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안티옥에서 사형을 선고받고서 채찍질당하고, 사지가 찢기고, 갈고리로 몸통이 뜯겨 나가고, 예리한 칼로 살이 도려내지고, 얼굴이 난자당하고, 얻어맞은 이빨들이 빠져 버리고, 머리카락이 뿌리째 쥐어 뜯겼다. 그후 즉시 명령이 떨어져 A.D. 303 년 11 월 17 일 목 졸려 죽임을 당했다.

로마의 감독 카이우스(Caius)의 질녀 수잔나(Susanna)는 황제의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라는 황제의 압력을 받았지만 눈앞의 영예를 거절하고 목 베임의 길을 택했다. 황실 시종장 도로세우스(Dorotheus)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고르고니우스(Gorgonius)와 궁정의 다른 그리스도인도 합류해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은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가 교살당했다. 황제의 내시 페테르(Peter)는 석쇠 위에 눕혀져 숨이 멎을 때까지 약한 불로 서서히 구워졌다.

마법사로 알려진 시프ريان(Cyprian)은 안티옥 태생으로, 저스티나(Justina)라는 안티옥의 젊은 여인을 알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한 이교도 신사가 저스티나에게 구혼하려고 시프ريان에게 손씨 줄 것을 의뢰했다. 얼마 안있어 시프ريان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시프리아의 회심은 이교도 신사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도 믿게 되었다. 시프리아와 저스티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들 모두 고문으로 고통당한 뒤 목 베임을 당했다.

율리아(Eulalia)는 건실한 명철이 돋보이는 스페인 처녀였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붙잡히자 이교도들의 신들을 거칠게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다. 때문에 옆구리가 갈고리로 뜯겨졌고, 뜯 눈으로 볼 수 없도록 가슴이 불태워졌다. 그리고 A.D. 303년 12월 맹렬한 불길에 삼켜져 숨을 거두었다.

박해가 스페인에까지 이른 304년, 테라고나(Terragona)의 총독 다시안(Dacian)은 감독 발레리우스(Valerius)와 집사 빈센트(Vincent)를 잡아들여 어깨에 쇠짐을 지우고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어찌하지 못하자 발레리우스는 추방하고, 빈센트는 고문대 위에서 사지를 찢어 탈구시키고 갈고리로 살점을 뜯어냈다. 그를 석쇠 위에 눕혀 구웠을 때 석쇠 윗면의 대못들이 그의 몸통을 직통으로 뚫고 들어왔다. 이에 꿈쩍할 그가 아니었다. 죽기는커녕 믿음 또한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다시 수감되어 비좁고 악취나고 여기저기 날카로운 부싷돌과 유리 파편이 깔려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304년 1월 22일, 그는 그곳에서 생을 마쳤고,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

아그라페(Agrape), 치오니아(Chionia), 아이레네(Irene) 세 자매는 박해가 그리스에 이르렀을 때 데살로니가(Thessalonica)에서 체포되었다. A.D. 304년 3월 25일, 그들은 화형에 처해졌고 화염 속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아들였다. 경건한 지성을 소유한 아가도(Agatho)는 카시케(Cassice), 필리파(Phillippa), 유투키아(Eutychia)와 함께 같은 시기에 순교당했다. 마르셀리누스(Marcellinus)는 카이우스(Caius)를 뒤이어 로마 감독이 되었는데, 디오클레시안을 신으로 떠받들며 경의를 표하는 일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324년 순교했다.

빅토리우스(Victorius), 카르포포루스(Carpophorus), 세베루스(Severus), 세베리아누스(Severianus)는 친형제였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소리 높여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에 맞았다. 형벌이 심히 잔인하게 집행되었기에 형제들은 잔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모리타니아(Mauritania)의 집사 디모데(Timothy)와 그의 아내 모라(Maura)는 박해로 인해 서로 떨어져 지낸 연고로 3 주 넘게 신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붙잡혔을 때에야 서로를 가까이서 마주볼 수 있었고, A.D. 304 년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아시시움(Assisium)의 감독 사비누스(Sabinus)는 주피터에게 제물 바치기를 거부하며 그 우상을 밀쳤다는 이유로 총독 투스카니(Tuscany)의 명령에 손이 잘려 나갔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총독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들 모두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다. 그들의 처형이 있는 직후, 사비누스 자신도 채찍질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맞이했다. A.D. 304 년 12 월의 일이었다.

디오클레시안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자 콘스탄티우스(Constantius)와 갈레리우스(Galerius)가 권좌를 차지했다. 이로써 제국은 제국 동편의 갈레리우스와 제국 서편의 콘스탄티우스가 쌍벽을 이루는 두 정부로 나뉘었다. 갈레리우스의 명령으로 순교당한 성도들 가운데 가장 혁혁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줄리타(Julitta)는 루카오(Lycao) 사람으로 왕족의 후손이었다. 고문대에 눕혀져 있는 동안 그녀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되었다. 처형을 마무리 지을 때가 이르자 그녀의 양발에 끓는 역청이 부어졌고 옆구리가 갈고리로 뜯겨졌다. 그녀는 결국 목 베임을 당함으로써 순교의 고통을 끝냈다. A.D. 305 년 4 월 16 일의 일이었다.

판텔레온(Panteleon) 집안과 친분이 있던 헤르몰라우스(Hermolaus)는 함께 믿음을 지킨 판텔레온과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순교당했다. 아르미나(Armina)의 총독 서기관 에우스트라티우스(Eustratius)는 붙잡혀 들어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다. 로마 제국군 고위급 장교 니칸데르(Nicander)와 마르시안(Marcian)은 참수당했다.

나폴리(Naples) 왕국에서 대여섯 차례의 순교가 있었다. 특히 베네벤투 감독(bishop of Beneventum) 재뉴어리즈(Januaris), 미세네(Misene)의 집사 소시우스(Sosius), 또 다른 집사 프로쿨루스(Proculus)와 페스투스(Festus) 그리고 에우투체스(Eutyches)와 아쿠티우스(Acutius)라는 두 성도와 기도서 낭독자 데시데리우스(Desiderius)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맹수들에게 던져졌지만 야수들이 건드리려 하지 않아 목 베여 죽임을 당했다.

시스키아 감독(bishop of Siscia) 퀴리누스(Quirinus)는 총독 마테니우스(Matenius) 앞으로 끌려와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가 목에 돌덩이를 매달고 강물에 던져졌다. 형이 집행되는 동안 퀴리누스는 물 위를 떠다녔다. 그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서 다음과 같은 기도로 훈계를 매듭지었다. “오 전능하신 주 예수시여, 주님께서 물의 흐름을 멈추거나 사람으로 물 위를 건도록 하시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 베드로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도 주의 능력을 제 안에서 보았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시여, 이제 주님을 위해 이 생명을 내려놓도록 허락하옵소서.” 마지막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는 돌덩이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A.D. 308 년 6 월 4 일의 일이었다.

로마 감독 마르셀루스(Marcellus)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 추방당했고, 유배 생활 때의 수많은 고통들로 A.D. 310 년 1 월 16 일 순교당했다. 16 대 알렉산드리아 감독 페테르(Peter)는 동로마 제국 막시무스 시저(Maximus Caesar)의 명령으로 A.D. 311 년 11 월 25 일 순교당했다. 열여섯 살밖에 안된 처녀 아그네스(Agnes)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목 베임 당했고, 디오클레시안의 황후 세레네(Serene)도 동일하게 처형되었다. 감독 에라스무스(Erasmus)는 캄파니아(Campania)에서 순교당했다.



제 3 장 - 페르시아의 성도들에게 가해진 박해들

태양 숭배자들인 이교도 승려들은 복음이 페르시아로 전해지자 자신들의 영향력을 상실할까봐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원수들이라는 전략적인 불평을 황제에게 털어놓았고, 페르시아의 철천지원수인 로마인들과도 음모를 꾀하는 서신을 주고받았다.

본디부터 기독교에 반감이 있던 황제 사포레스(Sapores)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망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서 제국 전체에 박해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칙령으로 교회와 제국 내의 수많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의 무지와 포악한 손길에 처참히 순교했다.

페르시아의 박해 소식을 들은 콘스탄틴 대제는 페르시아 군주에게 박해를 그만두면 큰 행운이 찾아온다는 장문의 서한을 띄웠고, 덕분에 박해는 당분간 꼬리를 감췄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다른 왕이 페르시아 권좌에 등극하자 박해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리우스(Arius) 이단들이 자행한 박해들

아리안 이단 교리는 리비아(Libya) 태생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수도승 아리우스(Arius)가 최초로 주창했고, A.D. 318 년에 그의 오류들을 책으로 찍어 내기 시작했다. 그는 리비아와 이집트 감독들의 한 공회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A.D. 325 년 니케아 공회에서 확정되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죽자, 아리안주의자들은 그의 아들이자 동로마 제국 계승자인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의 환심을 살 구실을 찾아내었고, 그리하여 정통파 감독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게 되었다. 그 결과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와 여타 감독들이 추방당하고, 그들의 교구가 아리안 이단들로 득실거리게 되었다.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30 명의 감독들이 순교했고, 다른 많은 성도들도 잔인하게 고문당했다. A.D. 386 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파 감독 게오르게(George)가 황제의 권한을 등에 업고서 그 도시와 주변 인근에서 박해의 불길을 당겨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게 성도들을 죽여 나갔다. 박해가 어찌나 잔혹한 맹위를 떨쳤던지, 이상

송배자들의 만행 못지않게 치가 떨리던 아리안 이단들의 박해로 인해 교회 성직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 그들의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

황제 줄리안(Julian)이 저지른 박해

이 황제는 줄리우스 콘스탄티우스(Julius Constantius)의 아들이자 콘스탄틴 대제의 조카였는데, 콘스탄티우스가 A.D. 316 년에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는 황제의 위엄을 손에 넣자마자 우상 송배를 회복시키고 추방된 이교도들을 모두 불러들여 각 종파마다 자유로운 종교 의식을 거행하도록 허용했다.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궁정이나 행정직, 군대에서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으며, 콘스탄틴 대제가 성직자들에게 부여한 특권들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다.

감독 바실(Basil)은 아리안주의에 대항한 일을 연유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리안주의와 이교도 신앙을 싸잡아 함께 비난했다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플의 아리우스파 감독의 복수를 불러들였다. 황제의 앞잡이들은 약속들로 회유하고, 위협하고, 고문대에서 팔다리를 찢으며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갖은 수작을 다 부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건져 내지 못했다. 그가 요지부동 믿음을 고수하며 다른 고문들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연히 안키라(Ancyra)에 들른 줄리안은 자신이 직접 바실을 심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심문해도 바실의 믿음은 확고히 서 있었고, 오히려 황제가 죽는다면 다른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당돌한 예언까지 토해 내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줄리안은 바실의 살가죽과 근육이 완전히 짓이겨질 때까지 몸의 일곱 부위를 날마다 위치를 바꿔 가며 찢어발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이 선고는 엄격하게 집행되었고, 그 잔혹함을 견디다 못한 순교자는 A.D. 362 년 6 월 28 일 숨을 거두었다.

아레조 감독(bishop of Arezzo) 도나투스(Donatus)와 로마 집정관 고르디안(Gordian)도 같은 시기에 순교당했다. 이집트 주둔 로마군 총사령관이던 아르테미우스(Artemius)는 파직당한 후 재산을 빼앗겼고, 그후 그의 머리까지 내어주게 되었다.

A.D. 363 년 말, 박해는 가공할 정도로 맹위를 떨쳤다. 그러나 그 전말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 채로 불에 태워졌고, 다른 이들은 발이 묶인 채 발가벗겨진 몸으로 숨이 멎을 때까지 길거리에서 질질 끌려 다녔으며, 또 어떤 이들은 끓는 물에 데여 죽고, 허다한 이들이 돌에 맞아 죽었으며, 굉장히 많은 이들이 곤봉으로 머리가 깨져 뇌가 터져 나왔다는 식의 개괄적 언급으로만 만족해야 할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칼에 베어지고, 불살라지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돌에 맞아 순교했다. 아레투스(Arethusa)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뱃가죽을 찢어 벌려 그들의 복부에 옥수수 알갱이를 채워 넣은 후 돼지들을 끌고 와 그 속을 파먹도록 해서 곡물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창자까지도 게걸스레 먹어 치우도록 만들었고, 트라키아(Thrace)에서는 에밀리아누스(Emilianus)가 화형대에서 불살라지고, 도미티우스(Domitius)가 피신해 있던 동굴 속에서 살해당했다.

황제 줄리안은 A.D. 363년 페르시아 원정 때 입은 상처로 죽었는데,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듣는 사람을 진저리치게 하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줄리안을 뒤이어 조비안(Jovian)이 권력을 잡자 교회에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조비안 서거 후에는 발렌티니안(Valentinian)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동로마 제국의 통수권자인 발렌스(Valens)와 손을 잡았는데, 발렌스는 아리안주의자였으며 무자비한 박해를 즐기는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제 4 장 - 로마 교회에 의한 박해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역사가 일차적으로 이방 세계에 의해 자행되어 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허울을 쓰고 이방 로마가 행했던 박해보다 더욱 극악한 박해를 가했던 시대를 보게 될 것이다. 복음의 정신과 가르침을 외면하고 로마 교회는 수세기 동안 무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데 모든 힘을 쏟았으며, 역사에서는 이 기간을 가장 합당한 용어로 "암흑 시대"라고 부른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었으며,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로 가득 찬 그 악한 망나니들에게 완전히 복종되었다.

1. 프랑스에서의 알덴파 박해

가증한 로마 카톨릭이 전대 미문의 여러 가지 교리를 교회 안으로 들여오고, 기독교계에 암흑과 미신들을 퍼뜨리자, 이 거짓되고 파멸적인 경향을 미리 간파한 몇몇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의 빛을 비추기로 결심하였고, 교활한 사제들이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복음의 참 빛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일으켰던 이 모든 구름들을 일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A.D. 1000 년경에 살았던 베렝가리우스(Berengarius)로서, 그는 그들의 초기 순수함을 따라 매우 용감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였다. 당시에 신앙의 신념에서부터 그의 교리에 찬성했던 많은 사람들은 베렝가리우스 파(Berengarians)라고 불렸다.

베렝가리우스의 뒤를 이어 피터 브루이스(Peter Bruis)가 나왔으며, 그는 헬데폰수스(Hildephonsus) 백작의 보호 아래 툴루스(Toulouse)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또 그는 개혁주의자들의 신념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한 이유들을 기록하여 "적그리스도"(Antichrist)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1140 년경의 개혁주의자들의 수는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더욱 증가할 공산이 커지자, 당시의 교황들은 크게 불안해져서 이들을 로마 교회로부터 추방하기 위하여 학식 높은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1147년에는 당시 가장 뛰어난 복음 전파자라고 여겨지는 툴루스의 헨리(Henry)로 인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헤네비시안즈(Henevicians)로 불렸다. 그들은 신앙과 관련한 어떤 증명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단지 성경 스스로 추론하는 것들을 믿었으므로, 로마 카톨릭 측에서는 그들을 사도 계승자들이라고 불렀다. 결국 리용(Lyons) 출신이며, 신앙심과 배움에 있어서 탁월했던 피터 왈도(Peter Waldo)는 강력한 로마 카톨릭의 반대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당시의 개혁주의자들은 왈덴파(Waldenses) 또는 왈도이스(Waldoys)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리용의 주교들로부터 이런 분리 운동에 대해 정보를 얻은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추방시켰고, 가능하면 지구상에서 그들을 없애 버릴 것을 주교에게 명령하였다. 이로부터 왈덴파들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왈도와 개혁주의자들에 대한 종교 재판이 심문관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심문관을 임명하여 그들을 심문하고 세상의 법정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마치 그 고소 사건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고, 그들에게는 공정한 심리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 잔인한 방법이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교황은 학식 있는 수도사를 왈덴파 사람들에게 보내서 설교하게 함으로써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를 반박하게 하였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도미니크(Dominic)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 카톨릭이 추구하는 목적에 극도의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서 그는 수도사들로 구성된 심문관 기관을 창설하였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것으로서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계급이 높든 낮든 간에 재판에 회부하였다. 피고인은 힘이 약하였으므로 그 고발은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심지어는 무명으로 투서된 정보도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곤 하였다.

부자가 되는 것도 이단 종파와 같은 범죄로 취급되었으므로 돈이 많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자로 고소되거나 이단 교리의 신봉자로 몰렸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했다. 또 투옥자들을 뒷바라지하는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투옥된 사람에게 약간의 밀짚이나 한 잔의 물을 건네 주어도 그들은 이단 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로 몰렸고 곧이어 박해를 받았다.

자신의 혈육을 위하여 감히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도 없었으며 로마 교회의 적의는 무덤 너머에까지 확대되어 죽어 매장된 사람의 뼈를 파내어 태우면서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로를 지켜보게 하였다.

죽은 사람도 왕도의 추종자로 고소되면 그의 모든 재산들이 몰수되었고, 재산 상속자를 속여 그들 중 몇 명을 '성지'(Holy Land)로 보내어 그 집과 재산을 도미니칸 수도사들이 취하였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들을 모르는 체 하곤 하였다. 이러한 박해들이 수세기 동안 여러 교황들과 카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다.

2. 알비겐파(Albigenses)에 대한 박해

알비겐파 사람들은 알비(Albi)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라테란 공의회(Council of Lateran)에서 교황 알렉산더 3세의 명령에 의해 종교적인 이유로 정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상한 속도로 증가하여 많은 도시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었으며 몇몇 유명한 귀족들도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레이몬드, 툴루소의 백작, 포익스의 백작, 베지에르의 백작 등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다.

피터라는 수도사는 툴루소의 백작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계속적인 살인을 자행하였고 교황은 그 귀족과 그가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그 살인자를 이용하였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은 전 유럽 지역에 사람들 보내어 알비겐 파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한 군대를 일으키도록 종용하였고 그들이 거룩한 전쟁(Holy War)이라고 부른 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생활을 약속하며 40 일 동안 군대를 소집하였다. 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관대함이 십자군 성지 탈환 목적을 수행케 하였다.

툴루소의 백작을 공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자 프랑스 왕과 왕비의 어머니, 그리고 세 명의 대주교는 또 다른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 그 백작을 교묘히 설득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한 뒤 그를 체포하여 투옥하였고 그의 적들 앞에 맨발과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나타나게 하여 강제로 굴욕적인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게

하였다. 그 후 알비겐 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뒤따르게 되었고 이 때 평신도는 성경책을 읽는 것을 허락지 않는 명령이 공표되었다.

1620 년의 알비겐 파에 대한 박해는 극히 심한 것이었다. 1648 년에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거쳐 무시무시한 박해가 맹위를 떨쳤다. 코삭스(Cossacka)의 야만성은 정도를 지나쳐 타르타스(Tartas)에서조차도 그들의 야만성을 부끄러워했다.

박해의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드리안 칼린스키 목사(Rev. Adrian Chalinski)가 있다. 그는 산 채로 약한 불에 오랫동안 태워졌으며, 그의 고통과 죽임당한 방법은 당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의 적들로부터 참아내야 했던 그 두려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들이 매우 초기에 프랑스에서 세워졌다. 3 세기에 학식 높았던 알메리쿠스(Almericus)와 여섯 명의 그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기 위하여 박해받을 것을 명령하였다. 즉 하나님은 성찬식 때 떼는 빵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거짓이며, 재단을 쌓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성도를 신성시하는 것과 그들에게 분향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이었다. 알메리쿠스와 그의 제자들은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많은 오류들이 성행하는 것을 막았고, 그들의 개혁 신앙의 순수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때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복음의 불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524 년 프랑스의 멜든(Melden)에서는 존 클라크(John Clark)라는 사람이 교회의 문에 방을 붙여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즉시 체포되어 채찍으로 맞고 이마에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그 후 로레라인(Lorraine)의 멘츠(Mentz)로 간 그는 조각상들을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과 코가 절단당하고 짐승에게 조각조각 찢기는 수난을 당하였다. 그는 이러한 야만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인내력으로 견디었으며, 시편 115 편을 노래하였다. 그 후 그는 불 속에 던져져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이 당시에 찢기고 맞고 채찍질당하고 태워져 죽은 많은 개혁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었으며, 특히 프랑스의 여러 지역과 특히 파리, 말다(Malda), 그리고 리모신(Limosin) 등지에 많이 있었다.

A.D. 1546 년 피터 차포트(Peter Chapot)가 프랑스에 다량의 성경책을 들여와 공개적으로 팔았다. 이로 인해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형을 선고받았으며, 며칠 후에 형을 집행받았다. 얼마 후 막스(Meaux)의 한 장애자로서 페라(Pera)의 학교 선생님인 스테판 폴리오투(Stephen Poliot)와 존 잉글리쉬(John English)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 불에 산화되었다.

(1) 교황이 저지른 박해들

복음의 원리와 정신은 안중에도 두지 않던 로마카톨릭은 손수 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며 그것을 수세기 동안 황폐화시켰는데, 우리는 그것을 “암흑시대”(dark ages)라 부른다. 교황에 의해 휘몰아치던 박해의 폭풍은 프랑스의 왈덴스(Waldenses)에게 처음으로 불어닥쳤다.

프랑스의 왈덴스에 대한 박해

로마카톨릭이 교회 안으로 잡동사니 같은 혁신안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간파한 몇몇 성도들은 참된 순수성을 간직한 복음의 빛을 비추기로 결심했다. 그 중심에 브랑가리우(Berengarius)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A.D. 1000 년을 전후로 그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 설교에 확신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리에 동의를 표했고, 그들은 브랑가리안스(Berengarians)라 불렸다.

브랑가리우를 이어 뷔페 브루이(Peter Bruis)가 일데뵙슈(Hildephonsus) 백작의 보호 아래 툴루스(Toulouse)에서 말씀을 전파했다. 로마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브루이는 개혁자들의 모든 교리를 한 권의 책에 담아〈적그리스도 · Antichrist〉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A.D. 1140 년 즈음 신앙을 쇠신한 이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놀란 교황은 늦게나마 손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 영주들에게 영토에서 개혁자들을 추방해 달라는 서한을 띄우는가 하면, 많은 학자들을 고용해 그들의 교리를 반박하는 글을 쓰게

했다. A.D. 1147 년, 개혁자들은 그들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던 돌루스의 앙리(Henry)로 인해 '에네리샹'(Henericians · 앙리파)이라 불렸고, 신앙에 관한 그 어떤 논증도 성경 자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해서 카톨릭교도들에 의해 '아보스톨릭스'(apostolics · 사도들)라 불렸다. 그러다 결국 리용(Lyons) 태생의 경건과 학식으로 이름 높은 피터 왈도(또는 발도)(Peter Waldo or Valdo)가 로마카톨릭 제도에 대한 극렬한 반대자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개혁자들은 왈덴스(Waldenses) 또는 왈도이즈(Waldoys)라 불리게 되었다. 리용의 주교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교황 알렉산더 3 세는 왈도와 그 추종자들을 파문시켰고, 그 주교에게 그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왈도와 개혁자들에게 걸려 있던 소송 사건은 심문관(inquisitors)이란 존재를 처음으로 부각시켰다. 심문관은 교황 이노센트 3 세(Innocent III)가 개혁자들을 찾아내어 세상 권세에 넘겨줄 수 있는 심문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한 특정 수도승들이었다. 소송 절차는 간단했다. 고소 하나면 죄를 뒤집어씌우기에 충분했으며, 피고는 공정한 재판을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잔인한 계책이 의도한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자, 몇몇 학식 있는 수도승들을 왈덴스들에게로 보내 그들 가운데서 설교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 보도록 했다. 이 수도승들 중에는 도미니크 수사단(修士團)이라는 기사단을 조직한 도미니크(Dominic)가 있었다. 수사단원들은 그 후 여러 종교재판에서 우두머리급 심문관들이 되었다.

심문관들이 지닌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그들은 나이나 성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에게나 소송을 걸었다. 아무리 파렴치한 고소라도 합법적으로 여겨졌고, 익명의 편지로 흘러든 정보까지도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이단과 맞먹는 범죄여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단이나 이단 옹호자로 솔하게 고소당했다. 또한 가장 절친한 친구나 가족일지라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신앙 때문에 갇혀 있는 이들을 아무도 보살필 수 없었다. 감금된 이들에게 작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전해 주거나 물 한 컵이라도 가져다 주는 날에는 이단들과 한패로 몰려 박해를 받았다. 변호사라도 자신의 친형제를 위해 변호할 수 없었다.

그들의 악의가 미치는 곳은 무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의 뼈를 무덤에서 파내어 불태움으로써 누구든지 까딱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 줬다.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이 왈도의 추종자로 고소당하면 재산이 몰수당했고, 유산을 상속받은 자가 있을 시에는 그것을 속여 빼앗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성지(Holy Land)로 보내졌고, 그들이 없는 사이 도미니크 수사들이 집과 재산을 갈취했는데, 소유주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도무지 모르는 일이라며 탄청을 피웠다. 이런 박해들은 로마카톨릭의 여러 교황들과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자행되었다.

알비겐스(Albigenses)에 대한 박해

알비겐스는 알비(Albi)라는 지방에 거주하던 개혁신앙인들이었다. 교황 알렉산더 3세의 명령에 라테랑(Lateran) 공회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만 갔다. 툴루스 백작(earl of Toulouse) 레이몽(Raymond)과, 동명이인 푸아 백작(earl of Foix) 그리고 브지에르 백작(earl of Beziers)과 같은 저명한 귀족들도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쁘뎀(Peter)라는 이름의 탁발 수도사가 툴루스 백작 영내에서 살해되자 교황은 이것을 그 귀족과 그의 영주민들을 박해할 구실로 삼았다. 알비겐스를 진압할 군대를 일으키려고 유럽 전역에 특사를 파견했고, 성전(Holy War)이라 이름 붙인 이 전쟁에 참여하여 40일간 복무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약속했으며,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이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툴루스 백작은 교황 특사들과 카톨릭 귀족 몽포르 백작(earl of Montfort)에 맞서 툴루스와 다른 지역들을 방어하여 수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여간해서는 툴루스 백작을 공개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이번엔 프랑스 국왕과 대비와 세 대주교가 또 다른 가공할 병력을 일으켰다. 그들은 툴루스 백작에게 협상할 게 있으니 나와 줄 수 없겠냐는 간책을 썼고, 그들을 철석같이 믿고 나타난 그를 붙잡았다. 그는 적들이 보는 앞에서 맨발과 맨머리로 강제로 세워진 채 신앙을 버리겠다는 비굴한 서명을 강요당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알비겐스들에게 가혹한 박해가 가해졌고, 평신도가 신성한 성경을 읽는 일을 금지시키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알비겐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하기는 1620 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648년에는 리투아니아(Lithuania)와 폴란드(Poland) 전역에 걸쳐 맹렬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코작인들[Cossacks : 러시아 남부의 변경 지방에 사는 혼혈의 농경 종족으로 말을 잘 타며 제정 시대에는 경(輕)기병으로 유명했다.]이 어찌나 극악무도하게 잔인하던지 타타르인들[Tartars : 중세에 아시아 서부와 유럽 동부를 침략한 몽고족이나 터키족의 유목 민족] 스스로도 그들의 야만스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였다. 순교자들 가운데는 아드리앙 샬랭스키(Adrian Chalinski)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느긋한 불에 산 채로 구워졌다.

1524 년, 프랑스 작은 도시 멜당(Melden)의 존 클라르(John Clark)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써 놓은 전단을 교회 문에 붙여 놓은 일로 채찍질당한 후 이마에 낙인이 찍혔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후에도 로렌(Lorraine)의 망뜨(Mentz)로 가서 몇몇 형상들을 파괴시켰는데, 이 때문에 오른손과 코가 잘리고 양팔과 가슴이 펜치로 쥐어뜯겼다. 그는 이런 잔악한 행위들을 깨끗하게 견뎌내었고, 우상 숭배를 금하는 '시편 115 편'을 노래할 정도로 침착하기까지 했다. 그 후 그는 불 속에 던져져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말다(Malda) 태생의 어떤 사람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서히 타오르는 불에 태워졌다. 리모생(Limosin)에서는 개혁 종파 목사 존 드 까듀르꼬(John de Cadurco)가 화형에 처해졌다. 펠레이 추기경(cardinal of Pellay)의 서기관 프랑시스 브리바르(Francis Bribard)는 개혁자들을 편들어 말했다는 이유로 혀가 잘리고 A.D. 1545 년 불태워졌다. 자메 꼬바르(James Cobard), 즉 성 미샤엘(St. Michael) 시의 학교장은 "미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여 A.D. 1545 년 화형에 처해졌다. 같은 시기 말다에서는 14 명의 남자들이 불태워졌고, 아내들은 남편들의 처형을 옆에서 뜬 눈으로 지켜보도록 강요당했다.

A.D. 1546 년, 뽀뎀 샤뽀(Peter Chapot)는 프랑스어 성경을 프랑스로 들여와 팔고 다니다가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모(Meaux)에 사는 어느 지체 부자유자와 스테팡 뿔리오(Stephen Poliot)라 불리는 페라(Fera)의 학교장 존 앙리쉬(John English)가 믿음 때문에 화형에 처해졌다. 보석상 블롱델(Blondel)은 A.D. 1548 년 리용에서 체포되어 파리로 보내졌고, A.D. 1549 년 법정 선고에 따라 믿음 때문에 화형에 처해졌다. 열아홉

살 청년 헤르베르(Herbert)는 디종(Dijon)에서 불길에 넘겨졌고, 플로랑 베노뜨(Florent Venote)도 같은 해에 화형당했다.

A.D. 1554 년, 개혁 신앙의 두 남자가 그 중 한 명의 아들, 딸과 함께 체포되어 니베른(Niverne) 성에 감금되었다가 조사를 받을 때 신앙을 숨김없이 고백하자 사형이 언도되었다. 그들은 몸에 기름과 유황, 화약이 발라질 때 다음과 같이 외쳤다. “차라리 소금을 발라 달라. 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썩어빠진 육신에 소금을 바르란 말이다!” 그러자 그들의 혀가 잘렸고, 그들은 타오르는 불길에 넘겨졌다. 불길은 그들의 몸에 발라진 인화성 물질 때문에 그들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 버렸다.

(2) 파리에서 있었던 성 바돌로매의 대학살

피가 낭자했던 이 마귀적인 만행은 프로테스탄트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 버리려는 의도로 1572 년 8 월 22 일에 시작되었다. 프랑스 국왕은 여동생과 프로테스탄트들[16~17 세기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Huguenots)]의 수장이자 거두인 나바르의 군주 콜리니(Coligny, the prince of Navarre) 사이의 결혼을 교활하게 제의했다. 이 신중치 못한 결혼은 8 월 18 일 파리에서 부르봉(Bourbon)의 추기경의 주례로 공개적으로 치러졌다. 그들은 교황이 함께한 자리에서 성대한 만찬을 들었고, 파리에서는 국왕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일이 있고서 나흘째 되던 날, 군주는 의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팔에 총상을 입었다. 그는 도망가라는 충고를 거부하고 파리에 머물렀으며, 얼마 안있어 방주(Bemjus)에게 살해되었다.

사령관 콜리니가 죽은 뒤 한 지령이 떨어졌다. 즉 신호가 떨어지면 시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학살을 감행하라는 것이었다. 사령관을 죽인 그들은 그를 창문 밖 길바닥으로 내던졌고, 거기서 그의 머리가 베어져 교황에게로 보내졌다. 이것을 만족 못한 그 흉악한 로마카톨릭 교도들은 그의 양팔과 음부를 잘랐고, 시체를 길거리 여기저기에 3 일 동안 질질 끌고 다니다가 발목을 밧줄로 묶어 시 외각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그 외에도 그들은 위대하고 훌륭한 많은 프로테스탄트들, 즉 로쉬푸콜 백작(Count Rochfoucault), 죽임 당한 사령관의 사위인 텔리니우(Telinus), 앙토뉴(Antonius), 라벨리(Ravelly)의 후작인 플라리몽뉘(Clarimontus), 루이 부슈(Lewes Bussius), 방디뇌(Bandineus), 뿔루비알류(Pluvialius), 부르네유(Burneus) 등과 같은 이들을 살해했다. 그들은 일반

프로테스탄트들에게도 들이닥쳐 처음 3 일 동안 모든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10,000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죽였다. 시체들이 강물 속에 던져졌고, 피가 세찬 물줄기처럼 거리들을 흘렀으며, 강물은 이내 핏줄기가 된 듯했다. 그리고 파리에서 시작된 이 대학살은 프랑스 구석구석으로 번져갔다.

오를레앙(Orleans)에서는 1,000 명이, 루앙(Rouen)에서는 6,000 명이 살해당했다. 멜디뜨(Meldith)에서는 2,000 명이, 리용에서는 800 명이 학살당했다. 오구스또보나(Augustobona)에서는 파리의 대학살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즉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야만적으로 살해했다. 동일한 잔혹 행위가 아바리꿈(Avaricum), 트로이(Trois), 툴루스(Toulouse), 루앙(Rouen)뿐 아니라, 시에서 시에 이르는 다른 많은 지역들과 소도시, 촌락 등 프랑스 전역에서 자행되어 약 100,000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난도질당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는 사악한 기쁨 가운데 거창한 축제일과 기념일을 지정했다. 프랑스 국왕 역시 위그노 교도들의 씨를 말렸다는 결론을 내리며 기쁨을 감추지 말고 마음껏 축제를 즐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학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몸값으로 상당량의 돈을 지불한 많은 사람들이 그후 즉시 살해되었다.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던 왕의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몇몇 마을의 주민들은 약속만 믿고 제 발로 투항했건만 곧바로 죽임을 당했다.

보르도(Bordeaux)에서는 어느 불한당 같은 수도사의 선동으로 264 명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블루아(Blois)로 진군해 들어가던 기스 공작은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이게 했고, 메르(Mere)로 진격해 들어가서는 동일한 만행을 저지르며 까세보뉴(Cassebonius)라는 목사를 강물에 던져 넣었다. 앙주에서는 알비아큐(Albiacus)라는 목사를 죽였고, 많은 여인들을 욕보인 후 그 자리서 살해했다.

튜랭(Turin)의 장관은 양다리를 위쪽으로 하고 머리와 가슴이 강물에 잠긴 채 매달리게 되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그들은 그의 배를 갈라 열고 창자를 뜯어내어 강물에 던졌으며, 그 후 그의 심장을 창날에 꽂고서 시내를 돌아다녔다.

+ 바르(Barre)에서는 철모르는 아이들의 배를 찢어 열고 창자를 고집어낸 후 이빨로 그것들을 깨물어 끊어 버렸다. 성으로 달아났던 이들은 항복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마띠스공(Matiscon) 시에서는 팔다리를 자른 후 죽이는 일을 오락으로 여겼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경충경충 기막히게 잘 뛰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말하며 프로테스탄트들을 높은 다리에서 강물 속으로 던져 넣었다.

빼나(Penna)에서는 300 명을 짐승 죽이듯 죽였고, 알비아(Albia)에서는 주일에 45 명을 살해했다. 논(Nonne)에서는 시 전체가 보호를 조건으로 투항했으나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었다. 곳곳에 핏물이 흘러내렸고, 집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남편과 함께 숨어 있던 곳에서 끌려나온 한 여인은 처음엔 잔인한 군사들에게 옥보임을 당하더니, 그후 병사들의 강요로 칼을 억지로 손에 쥐고 그들의 완력에 밀려 그것을 남편의 뱃속에 찔러 넣고 말았다.

사마로브리저(Samarobridge)에서 그들은 100 명 이상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였고, 앙띠시도(Antisidor)에서도 100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 일부는 옥외 변소에, 나머지는 강물에 버려졌다. 오를레앙에서 투옥되었던 100 명은 격노한 군중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

마귀들려 발광하던 로마카톨릭으로부터 도피한 로셀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 국왕은 프랑스의 거의 모든 군사력을 로셀 한 곳에 파견했고, 장기간의 포위공격으로 22,000 명 중 18,000 명을 아사시켰다. 그러나 매번 공격할 때마다 부딪친 저항이 만만치 않은지라 국왕의 군대는 132 명의 대장들을 그 병사들과 함께 죽은 채로 별판에 남겨 두어야 했다. 결국 포위 작전은 국왕의 친형제요 폴란드(Poland)의 왕으로 선포된 앙주 공작(duke of Anjou)의 요청으로 막을 내렸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당했던 비극적인 고통들은 뽀립 드 도(Philip de Deux)가 당한 고통을 보면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다. 이 순교자를 그의 침대에서 죽인 악랄한 살인자들은 산파의 도움으로 출산을 하려는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 아기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살인을 멈추어 달라는 산파를 그들은 단검으로 폭 찢러 버렸다. 산모는 죽음을 면하려고 곡물 창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뒤쫓아 와 그녀의 배를 찢르고 길바닥에

내던졌다. 내동댕이쳐지는 충격에 그만 죽어가는 어머니에게서 아기가 나오고 말았는데, 로마카톨릭 불한당들 중 하나가 아기를 들어 올려 칼로 찌른 뒤 강물 속에 던져 버렸다.

(3) 파리에서의 바들로메 대학살

파리에서의 바들로메 대학살

1572 년 8 월 스물한 번째 날에 피비린내나는 극악 무도한 잔인한 행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를 단 한번에 뿌리뽑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그 전에는 프로테스탄트가 부분적으로만 박해를 받았을 뿐이었다. 프랑스의 왕은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인 나바(Navarre) 왕자와 자기의 자매 사이의 결혼을 거짓으로 제안했다. 이런 무분별한 결혼이 8 월 18 일 그 결혼을 위해 세워진 높은 무대 위에서 보오본 추기경에 의해 공개적으로 거행되었다. 그들은 주교와 함께 호화스런 만찬을 들었고 파리에서 왕과 함께 마셨다. 이로부터 4 일 후 의회에서 돌아오다 왕자(콜리그니)가 양쪽 팔에 총을 맞았다. 그는 그때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군이었던 모르(Maure)에게 말했다. "오 나의 형제여,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참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위해 내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네." 비담(Vidam)이 그에게 도망하라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파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는 곧 베미어스에게 살해되었다. 그는 나중에 그 장군보다 더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한 신호에 따라 파리 전역에서 군인들이 갑자기 살륙을 시작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다. 장군을 살해하고 그들은 그를 창문을 통해 거리로 던졌으며 그의 머리를 잘라서 교황에게 보냈다. 그에게 여전히 분노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그의 팔과 각 지체를 잘라서 3 일 동안 거리를 끌고 다닌 후에 시 밖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그 뒤에 그들은 수많은 존경받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살해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평민들을 학살했다. 먼저 삼일만에 그들은 만 명에 달하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살해했다. 시체들은 강으로 던져졌고 강한 급류와 더불어 피가 거리를 흘렀다. 강은 곧 피로 물들었다. 그들의 지옥같은 분노는 너무도 거대해서 그들의 극악무도한 종교에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의심이 가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도들까지 살해했다. 이런 파괴는 파리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산됐다.

오렌스(Orleans)에서는 천 명의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살해되었고 로렌(Rouren)에서는 6 천명, 멜디스에서는 2 백명이 감금되고 그 후에 한꺼번에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리용(Lyons)에서는 8 백명이 학살되었다. 여기서 부모에게 매달린 어린이들과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안고 있던 부모들이 칼과 피에 굶주린, 스스로를 카톨릭 교회라고 칭하는 자들의 맛있는 음식이 되었다. 여기서는 3 백명이 주교의 집에서 살해되었고 사악한 수도승들은 그들이 매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거스토보나에서는 사람들이 파리에서의 학살 소식을 듣자마자 프로테스탄트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서 개혁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나서서 감옥에 넣고는 그런 후에 야만스럽게 그들을 살해했다. 아바리콤, 트로이, 토올로우스, 로엔과 다른 많은 곳에서도, 도시에서 도시로, 시골로, 읍으로, 온 나라 전체에 걸쳐 그와 똑같은 잔인성을 실행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대학살의 확실한 증거로써 한 양식있고 학식있는 로마 카톨릭교도가 쓴 다음의 흥미있는 서술을 특별한 타당성을 가지고 여기에 제시한다.

“젊은 나바르 왕과 프랑스 왕의 자매의 결혼식(그가 말하기를)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모든 찬사의 말들과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말들과 사나이들 사이에서 하는 모든 신성한 맹세들이 여왕 캐더린과 왕에 의해 아낌없이 남발되었다. 그 동안 궁정사람들은 축제와 연극과 가면 무도회만을 생각했다. 마침내 성 바돌로매 전야 12 시에 신호가 내려졌다. 즉각적으로 모든 프로테스탄트 집의 문들이 강제로 열려졌다. 콜리그니 장군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그때 일단의 암살자들이 그의 방으로 돌진해왔다. 베스메(Besme)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구이에스 집에서 종으로 길러졌었다. 베스메 장군의 가슴에 칼을 꽂았으며 또한 그의 얼굴을 칼로 그었다. 베스메는 독일인이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를 데려간 후에 로체슬러가 사람들이 그를 매달아 사지를 찢기 위해 데려갔다. 그러나 그는 브레탄 빌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이세의 젊은 공작인 헨리는 브로이스에서 살해되었다. 그는 후에 카톨릭 연맹을 형성시켰으며 이 끔찍한 도살이 끝날 때까지 문에 서서 ‘베스메! 다 됐나?’라고

크게 소리를 쳤다. 이 말에 즉시 악당들이 시체를 창문으로 던졌으며 콜리그니는 구이세의 발에서 숨을 거두었다.”

“텔리그니 백작도 또한 희생되었다. 그는 열 달 전에 콜리그니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의 용모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악당들이 그를 살해하기 위해 왔을 때 그들에게 동정심이 일었다. 그러나 더욱 야만스러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들이닥쳐서 살해했다.”

“그 동안 콜리그니의 모든 친구들은 파리 전역에서 암살되었다. 남녀 어린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학살되었으며 모든 거리는 숨이 끊어지는 시체들로 흩뿌려져 있었다. 어떤 사제들은 한 손에는 십자가를 다른 한 손에는 단검을 들고서 살인자들의 우두머리들에게 가서 친척이나 친구들도 봐주지 말라고 그들을 훈계하였다.”

“프랑스의 사령관 카바네스는 무식하고 미신적인 군인이었는데 그는 종교의 분노를 걱정의 파티에 접목시켜서 파리의 전 거리를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그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피를 흘려라! 피를 흘려라! 피흘림은 5 월처럼 8 월에도 건전한 것이다.’ 이러한 열정의 삶의 기록들이 그의 아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임종시에 그의 향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고백을 했다고 했다. 사제가 놀라서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성 바돌로메의 학살은 언급하지 마세요?’ 이 말에 타바네스는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나의 모든 죄들을 씻어 줄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이 거짓 종교의 영을 복돋을 수 있다!”

“왕의 궁전이 주요한 도살장명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나바르의 왕은 루브레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가솔들은 프로테스탄트였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침실에서 살해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면서 군인들에 의해 쫓기며 궁전의 몇 개의 방들을 통과하면서 왕의 대기실까지 이르렀다. 나바르의 헨리의 젊은 아내는 무시무시한 소요소리에 잠이 깨어 무서워하며 그의 배우자와 그녀 자신의 생명을 위해 공포에 질려 반은 죽은 채로 침실에서 도망쳐 그녀의 형제인 왕의 발 앞에 엎드리고자 했다. 군인들이 즉시 뒤따라 왔으며 공주의 눈 앞에서 그들을 뒤쫓아 그녀의 침실로 숨어들어갔던 사람을 살해했다. 창으로 부상을 입은 다른 두 사람이 여왕의 발에 쓰러졌다. 그리하여 그녀는 피범벅이 되었다.”

“드 라 로체포켈트 백작은 젊은 귀족으로 온화한 기품과 공손함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특이한 기품으로 인해 왕의 호의를 크게 받았다. 그 날 그는 즐거움 속에서 최상의 기쁨과 용솨음치는 상상력과 함께 11 시까지 그 날 밤을 보냈다. 군주는 다소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일종의 동정심의 발로에서 두서너번 그에게 집에 가지 말고 루브르에 머물라고 했다. 백작은 자기 아내에게 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왕은 더이상 그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를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선언하셨음을 내가 보노라.’고 했다. 그리고 두 시간 후에 그는 살해되었다.”

“열광적인 박해자들의 분노에서 도망한 프로테스탄트는 극히 드물었다. 이들 중에 약 열 살 정도의 어린아이인 라 포스가 있었다. (후에 그는 유명한 드 라 포스 사령관이 되었다.) 그가 구조된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형과 그는 앤주 공작의 군인들에 의해 모두 포위되었다. 이 살인자들은 이 세 사람에게 들이닥쳐서 닥치는 대로 그들을 쳤다. 이 때 그들 모두는 쓰러져서 차곡차곡 쌓였다. 비록 죽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가장 어린아이였던 그는 단 한 방도 맞지 않았으며 다음 날 도망쳤다. 그리하여 그의 생명은 놀랍도록 보존되었으며, 85 년 동안 지속되었다.”

비참한 희생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물가로 도망쳤다. 어떤 이들은 센스 강을 넘어 성 저메이네의 교외로 헤엄쳐 갔다. 왕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창에서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종들 중의 하나가 이런 목적을 위해 장치해 둔 카빈총으로 그들을 쏘았다. 반면에 살륙의 와중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여왕은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인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살륙된 자들의 죽어가는 신음 소리에 웃음을 보냈다. 이 야만적인 여왕은 격동하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으며 이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녀의 담을 바꾸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조처가 있는 지 며칠 후에 프랑스 궁정은 그것을 법의 형태로 변명코저 했다. 그들은 중상으로 대학살을 정당화시키는 체 했으며 사령관을 공모 혐의로 비난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의회는 쿠리그니에 대한 화상을 반대하도록 위탁받았다. 그의 죽은 몸은 몬포콘 교수대에 사슬로 매달려 있었다. 왕은 이 놀랄 만한 모습을 보기 위해 직접 갔다. 그의 아첨꾼들 중의 하나가 그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충고하면서 시체의 악취에 대해 불평했다. 그는 ‘죽은 적의 냄새가 참으로

종구나.'라고 대답했다. 성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은 다음과 같이 새겨진 문구와 함께 바티칸의 왕의 홀에 그려져 있다. '교황은 콜리그니의 죽음을 승인한다.'

이 무시무시한 학살은 단순히 파리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유사한 명령이 프랑스의 모든 지역의 영주들에게 궁정으로부터 내려졌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약 십만명의 프로테스탄트가 그 나라의 전역에서 조각조각 찢겨졌다. 단지 두세 명의 영주들만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이 둘 중의 하나인 오버언의 영주인 몬트오린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왕에게 보냈다.

"폐하, 저는 제 지역의 모든 프로테스탄트를 죽이라는 폐하의 인장이 있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폐하를 너무나도 존경하기 때문에 그 편지가 가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명령이 사실이라면 (정녕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폐하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그 기쁨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들은 하루를 축제일과 희년으로 정하고 모두가 이것을 지켰고 그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기쁨의 표현들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로레인의 추기경에게서 그의 불경건한 메세지 덕분에 1000 크라운을 받았다. 왕은 또한 모든 위그노들이 멸절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하루를 지키라고 했다.

자신의 몸값으로 상당한 돈을 냈던 사람들도 즉시로 살해되었다. 보호와 안전에 대해 왕의 약속을 받았던 몇몇 도시들은 그 약속을 근거로 왕의 장군들에게 자신들을 내 주자마자 목이 잘려나갔다.

보텍스에서는 설교 중에 카톨릭교도들에게 살륙하라고 충동질을 하곤 했던 악한 수도승의 부추김으로 264 명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그들 중의 몇 명은 상원의원이었다. 비슷한 신앙심의 또 다른 우애단체가 메인의 아겐디컴에서 유사한 학살을 행했다. 거기서 종교재판관들의 사탄적인 제안으로 시민들이 프로테스탄트에게 돌격해서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집을 약탈하고 그들의 교회를 무너뜨렸다.

구이세 공작은 브로이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군인들에게 약탈품에 달려들며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이거나 익사시키도록 했다. 이 말에

그들은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여자들을 더럽힌 후 그들을 살해했다. 거기서 그는 미래에 가서 똑같은 폭동을 며칠 동안 자행했다. 여기서 그들은 카세보니우스라는 관료를 발견하고 그를 강에 던졌다.

안주에서 그들은 관료인 알비아커스를 살해했으며 많은 여인들이 더럽혀지고 거기서 살해되었다. 그들 가운데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 아버지 앞에서 추행을 당했다. 암살자들은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벽에 묶어 놓은 후 그들과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

투린의 장은 자신의 목숨 값으로 많은 돈을 지불했음에도 곤봉으로 잔인하게 두들겨 맞았으며 옷이 벗겨지고 강에서 거꾸로 매달렸다. 그가 죽기 전에 그들은 그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어 강에 던졌으며, 그의 심장은 창에 꽂아 시로 가져왔다.

바레(Barre)에서도 극악한 잔인성이 행해졌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어 극심한 분노로 그것을 씹기도 했다. 성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은 행복했을 때 거의 모두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마티스콘 시에서는 팔과 다리를 자른 후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스포츠로 여겨지기도 했다.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때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뛰어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펜나에서는 그들에게 안전을 약속한 후 삼백 명을 학살했다. 알비아에서는 주일에 45 명이 학살되었다. 논네에서는 안전을 조건으로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광경이 전개되었다. 남녀가 조건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었고, 거리는 슬픈 외침소리가 울렸으며, 피가 흐르고 집들은 파렴치한 군인들이 던진 불로 화염에 되덮여 있었다. 한 여자가 숨어있던 곳에서 남편과 함께 끌려 나와서 먼저 잔인한 군인들에게 추행을 당한 후에 그들은 그녀에게 칼을 뽑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강제로 그녀 남편의 내장을 찌르게 했다.

사마로브리지에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에게 평화를 약속한 후 백 명 이상을 살해했다. 안티시도에서는 백 명이 살해되어 강으로 던져졌다. 오리엔즈에서는 감옥에 투옥된 백 명이 분노한 군중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지옥의 분노에서 기적적으로 도망해서 로첼레로 도망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저 거룩한 악마들에게 굴복했던 이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접받았는지를 보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다른 도시에서도 이에 용기를 얻어 그와 같이 행동을 했다. 로첼레를 쳐부수기 위해 왕은 프랑스의 거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일곱 달 동안 그곳을 포위했다.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의 거주자들을 거의 죽이지 못했다. 그러나 기아로 그들은 18,000 명이 죽었다. 산 자들이 매장하기에는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벌레와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을 교회 뜰로 가져와서 그 안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오랫동안 그들의 음식은 그들이 풍족했을 때는 몸서리치던 것들이었다. 심지어는 사람의 살, 내장, 배설물과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이 진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들의 유일한 음식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와 자유의 가치가 없었다. 매번 공격 때마다 포위자들은 용맹스러운 환대를 받았고 132 명의 장군들과 그에 어울리는 부하들의 수를 들에 죽은 채로 남겨 두었다. 마침내 이 포위는 왕의 형제인 앤주 공작의 제안으로 끝이 났다. 그는 폴란드 왕으로 선포되었고 지쳐버린 왕은 쉽게 승낙했으며 좋은 조건들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

이 모든 무시무시한 대학살에서 기껏해야 두 명의 복음의 일꾼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비극적인 고통은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필립 드 독스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일이 그 나머지 일들을 조명해 줄 것이다. 악당들이 이 순교자를 그의 침실에서 살해한 후 그들은 그의 아내에게로 갔다. 그녀는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 곧 아이를 분만할 예정이었다. 조산원은 그들에게 최소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칼자루를 이 가련한 여인에게 밀어 넣었다. 분만을 하고자 애쓰면서 그녀는 곡물창고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쫓아 거기까지 가서 그녀의 배를 찌르고 거리로 던졌다. 떨어지면서 아이가 죽어가는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카톨릭 부랑자들 중의 하나가 이 아이를 집어서 찌르고는 강으로 던져 버렸다.

(4) 트 칙령의 폐지와 프로테스탄트들의 죽음

낭트 칙령의 폐지로 인해 야기된 박해가 루이 14 세의 통치 하에서 발생하였다. 이 칙령은 1598 년 프랑스 왕 헨리가 제정한 것으로 시민권이든, 종교적이든 다른 여러 영역의 문제들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니메스 칙령에 의하여 루이 14 세가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보장했던 이런 모든 특권들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충실하게 지켜졌다.

루이 14 세의 즉위 시에 왕국은 내란으로 거의 다 파괴되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의 호의를 입고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왕에게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군대의 힘이라고 억지로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그를 위해 싸웠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장하는 대신 왕은 그를 위해 싸웠던 그 세력이 자신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서 교황의 계략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최종 결정을 나타내는 규제와 법률적인 보호 박탈을 내놓기 시작했다. 로첼은 엄청난 비난과 더불어 곧 감금되었다. 몬토벤과 밀로는 군인들에 의해 약탈당했다. 교황의 사절단들이 프로테스탄트 일을 처리하도록 임명되었으며 왕의 의회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명령에 대한 항변도 없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행동들의 뿌리를 강타했으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유로 카톨릭 교도들을 어떤 이유에서도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 그 이후 또 다른 금지 명령이 뒤따랐으며, 전 교구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지난 20 년간 했던 말과 행동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다. 이리하여 감옥은 무고한 희생자들로 가득 찼으며 다른 사람들은 노예선으로 끌려가거나 추방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들의 공직과 장사와 특권들과 고용에서 추방당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단을 박탈당했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조산원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출산의 위기에 있는 여자들을 잔인한 카톨릭 교도들인 그들의 적들에게 내어주도록 강요했다. 그들의 자녀들은 카톨릭 교도들이 교육시키도록 데려갔으며, 7 살이면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병자나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개인적인 경배도 금지되었다. 성스러운 예배는 로마 카톨릭 사제 앞에서만 행해지도록

했다. 불행한 희생자들이 왕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변방의 모든 길들이 엄격하게 경비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약 15 만 명이 그들의 야간 경비를 피해 달아났으며, 이 암울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은 기존의 허가서와 같은 낭트 칙령을 단순히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685 년 10 월 18 일, 마침내 그 칙령의 악마적인 폐지가 통과되었으며 모든 형태의 법에 대해서 22 번째로 등록되었다. 즉시로 기병연대의 병사들이 전 지역에서 프로테스탄트를 찾아 다녔으며, 왕은 자신의 왕국에 어떠한 위그노도 허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종교를 바꿔야한다는 소식이 전 프랑스를 가득 메웠다. 이 소식에 전 교구의 감독관들(로마 카톨릭 행정관들과 프로테스탄트를 감시하는 스파이들)은 개혁주의 거주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의든지 강요에 의해서든지 지체 없이 카톨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들의 목숨과 토지를 왕에게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노라고 했다.

즉각적으로 군대가 도시의 문과 거리를 포위했으며 손에 칼을 든 경비병들이 모든 길에 배치되었고 "죽음이 아니면 로마 카톨릭 교인"이라고 외쳐댔다. 곧 그들의 종교를 바꾸도록 하는 데 그들이 창안해 낼 수 있는 모든 사악함과 무시무시한 일들을 자행했다.

그들은 남자 여자 모두를 머리와 발을 매달아 놓고서 그들이 거의 죽게될 때까지 건초로 연기를 피웠으며, 만약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기를 거절하면 그들을 다시 매달아 놓고서 죽이지도 않고 그들이 고문으로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만행을 저질렀으며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굴복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핀셋으로 잡아뜯겼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큰 불에 집어 던졌다가 다시 끄집어 내었다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이런 짓을 반복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발가벗겨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고, 머리부터 발까지 핀으로 찔렀으며, 주머니칼로 그들을 절개시켰다. 때로는 벌겍게 달군 핀셋으로 그들이 돌아서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코를 찔렀다. 때로는 아버지들과 남편들을 묶어 놓고 그들의 눈 앞에서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강간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유해한 지하 감옥에

감금해 놓고서 온갖 종류의 고문을 비밀리에 자행했다. 아내와 자녀들은 수도원에 감금시켰다.

도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숲에서 추적되었으며, 들에서 사냥되었고, 들짐승들처럼 총에 맞았다. 어떠한 상황이나 재능도 이 지옥의 군단의 흉포함에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심지어는 의회 의원들과 군 장교들까지도 실제 업무 중에 일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짐들을 이 폭풍에 견디도록 직접 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왕에게 불평하는 이들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보내졌으며 거기서 그들도 같은 잔을 마셔야만 했다. 주교들과 감독관들은, 선교사들과 승려들과 다른 성직자들과 더불어 군대 맨 앞에서 행진하며 그들의 "거룩한" 교회가 매우 기뻐하고 그들의 신인 악마와 전제 군주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들을 수행하도록 군인들의 힘을 돋워 주었다.

낭트 칙령을 폐지시키고자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는 양분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을 감금시켜서 강제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시키자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들의 존재가 프로테스탄트에게 힘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어쩔 수 없이 개종한다 해도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의 엄청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잠재적이고 강력한 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주장이 우세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추방형을 선고받았으며 왕국을 떠나기까지 15 일의 기한이 허락되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자유를 폐기시키는 칙령이 공포된 바로 그 날 그들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사역자들을 추방시켰다. 또한 파리를 떠나는데 24 시간의 여유를 허락했을 뿐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그들의 도피를 지연시키고자 가는 길을 방해함으로써 제한된 시간이 만료되어 프로테스탄트들이 평생을 노예로 사는 저주를 받게 하고자 했다. 항구에는 경비병들이 두 배로 증가되었고 감옥은 희생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몸서리치는 고문을 감수해야만 했다.

노예선으로 보내진 사역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겪은 고난은 극치에 달했다. 노예 묶인 채 그들은 밤낮으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바깥 공기에 노출되었다. 몸이 허약해져서 그들이 노 밑에서 기절할 때면 그들을 소생시키기 위한 강장제나 새 힘을

주는 음식물대신 그들이 받는 것은 회초리와 막대기와 형구로 맞는 것뿐이었다. 충분한 옷과 필요한 청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들은 해충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으며 추위에 혹독하게 시달렸다. 이 추위로 낮에 맞고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밤에 죽었다. 그들에게는 침상대신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딱딱한 8 인치의 널판지가 허락되었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들의 허름한 옷뿐이었다. 그나마 그 옷들은 가장 굵고 거친 돛으로 된 빨간색 세루 조끼인 셔츠로 양쪽이 팔진동까지 다 찢기고 팔꿈치까지도 닿지 않는 울이 성긴 소매였다. 3년에 한 번씩 그들은 울이 굵은 작업복과 그들의 머리를 덮을 모자를 받았다. 그들의 머리는 항상 그들의 허약함의 표시로 간신히 유지되었다.

양식은 그들을 그런 비참함에 처하게 한 사람들의 동정심만큼이나 적게 나왔으며 아플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너무나 놀라워서 말조차 못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어두운 흙의 널판지 위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온몸은 해충으로 뒤범벅이 된 채 있어야 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정직한 사람들로써 그들이 참아 내야만 한 것은 중죄인과 가장 저주스러운 악당들 옆에 나란히 사슬에 묶인 채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끝없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런 두려움은 가장 작은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미사를 경청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매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벌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벌을 준비하는 것으로 먼저 사슬이 벗겨지고 희생자들은 회교도들의 수중으로 넘겨진다. 그들은 노를 관할하는 자들로 발가벗겨 큰 대포의 축포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그동안 노예선에는 무시무시한 침묵만이 흐른다. 사형집행인으로 지정된 모슬렘 인은 그 희생물이 그의 선지자 마호메트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친 곤봉이나 매듭이 있는 채찍으로 이 가련한 희생자를 가장 잔인하게 매질해서 살점이 뼈에서 찢겨져 나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든다. 그런 다음 매우 괴롭게 하는 식초와 소금 혼합물을 사용해서 그들의 잔혹함 하에서 수천 명을 죽게 했던 가장 무자비한 병원으로 그들을 넘겨준다.



제 5 장 - 종교 재판에 대한 설명

로마교회의 종교재판소는 그것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있어서 사람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가장 무서운 폭력 구조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이 시작된 것은 아마 1200 년 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황 이노센트 3 세가 로마교회와 다른 왈도파 사람들과 다른 종파들의 수가 급증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재판관들이나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수도사들을 보냈다. 이름이 제시되면 그들은 이단을 발견하는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임명받았다. 그들은 로마교회에 반대 되는 견해를 갖는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심문하고 고문하고 투옥시켰다. 해가 감에 따라 이 교도에 대한 벌은 더욱 가혹하고 엄하게 되었고 재판관들은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교훈이나 규칙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교도가 산다고 알려진 집은 어떠한 집이든지 파괴되어야 한다.

이교도를 숨겨준 사람은 그가 왕이든지 영주든지 감독이든지 간 에 그의 거처와 땅과 직위를 잃을 것이다. 이교도들은 심한 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 사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가 그와 같은 42 가지나 되는 규칙을 동의하고 채용했다. 도미 니카 수도원 수도사들이 특별히 종교재판관으로 선택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의 우울하고 엄한 규칙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인지 불쌍히 여긴다든지 동정을 한다는 일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냉정한 사람들이었다. 종교재판소의 법정 은 어둡고 복수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그밖의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었다. 스페인 에 서는 1480 년에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의 동의로 세워졌고 더욱 강화되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 있었던 어떤 법정보다 더 무서웠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어둡고 육중한 문으로 강제로 들어 가게 된 남자와 여자에게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 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왕들까지도 그들이 비록 폭군들이었지만 그 이름만 듣고도 치를 떨었 고 그 명령들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감히 불복종하지 않았다. 그것은 교회의 법정이자 곧 국 가의 법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은 그 나라에 300 년 이상이나 미쳤다. p278

종교재판소의 본부

스페인 남쪽에 있는 세빌레 시에 종교재판소가 세워졌다. 그것의 목표는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이교도라는 죄명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단순히 이교도를 억압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이 참 으 원하는 것은 때때로 돈이었으며 그러므로 부자들은 종교재판소의 철권이 잡기에 안성맞 춤의 먹이감이었다. 교회와 국가의 고위 간부나 존경을 받는 사람,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명사, 생활이 순결한 사람 그 누구도 종교재판소의 갑작스러운 비밀의 공격에서 구할 수 없었다. 희생자들에게서 끌어모은 이익이나 탈취물은 매년 많은 양에 달했고 이것은 왕이나 로 마에 있는

교회에도 나누어주었다. 종교재판소라고 부르는 성직의 성직자들도 고소를 받은 자 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에서 월급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굶어낼 희생자가 없어서 돈이 마르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종교재판소는 1481 년 초에 스빌레에서 그 일을 시작해 그해가 다하기 전에 298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죽였다. p279

불이 타는 곳 : 토르크마다의 잔인함

세빌레 시장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 쿠에마다로라고 부르는 불태우는 장소를 세웠다. 그것은 시에서 멀지 않은 평지 위에 세워졌는데 4 각형의 돌단 으로 되어 있고 이 흥척스런 돌 제단 위에 거의 매일 희생자들의 생명이 불꽃과 연기로 사라졌 다. 그 성직의 활동이 증가하자 곧 좀 더 효과적인 실무자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도미니 크파의 수도사이며 역사상 영원히 파렴치하게 남을 이름인 토르크마다의 토마스는 교황 식스 투스 4 세에 의해 종교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토르크마다는 정규간사, 재판관, 비서, 정탐꾼, 형집행자, 회계 등을 임명했다. 세빌레에 있는 중앙 사무소 외에 그와 비슷한 4 개의 지방 재판 소가 세워졌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스페인의 통치 하에 있는 나라들, 특히 네덜란드 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보내졌고 거기서 알바 공작이 피흘리는 정복을 하는 동안 그 희생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토르크마다는 그가 죽을 때까지 종교재판소장으로 있었고 18 년 동 안 성직을 지켰는데 그 임기 동안 10220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산 채로 불에 태워죽였고 97322 명 의 재산을 몰수하고 투옥시켰다. 그 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아보인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정확 하다고 정평을 받는 종교재판소에 관한 스페인의 역사가 로젠테가 밝힌 것이다. 그러한 종교 제 약은 스페인에서 신교를 완전히 격파시켜 놓았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못한 프로테스탄트는 다 불에 타죽고 한 명도 남지 않았다. 1808 년 종교재판소가 파괴될 때까지 앞에서 말한 역사가 에 의하면 희생자의 수는 산채로 불에 타죽은 사람이 31912 명, 토굴 속에 투옥된 사람이 291,4 50 명이나 되었다. p280

종교재판소의 규칙과 습관

종교재판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에 관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든 밖에서 일어난 일이든) 비밀로 지키기로 맹세했다. 투옥된 사람들에게 덮어씌운 일반적인 죄명은 이교도였다. 종교재판소가 인정하지 않는 책들을 읽었거나 그와 같은 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내어주었거나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성직자에게 가지 않고 1 년 이상 지났거나 금식 날에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헤어릴 수 없는 사소한 행위도 이교도라고 불렀고 숙명적인 판단이 일단 내려진 사람은 그것을 피할 길이 거의 없었다. 참으로 종교재판소에 있는 죄수는 변호가 거의 불가능했다. 의혹만 일단 되어도 고소하고 정죄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것은 특별히 부자들에게

더 그렇다. 종교재판관들은 날마다 무고한 사람들로 부터 있지도 않은 고백을 짜내기 위해 그들을 심문하고 고문했고, 무고하게 끌려온 자들은 악마같은 그들에게 복종해야 했다. p281

종교재판소의 죄수들

종교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밤에 죄수를 붙잡았다. 실제로 붙잡는 그 순간까지 조그마한 위험스러운 기미도 그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가 한 밤중에 가장 안전하게 자고 있을 때 복면을 한 사람들이 조용히 그의 집 앞에 모여 문을 열라고 한다.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요구하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서슴치 않고 "성직 사무소"에서 왔다고 대답한다. 스페인의 사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검고 화난 구름으로부터 시작한 우뢰소리도 종교재판에 관한 건딜 수 없는 불안감은 주지 못한다" 그 불행한 사람은 놀라 떨며 곧 가장 놀란 두려움의 먹이가 된다. 그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아마 영원히 그의 운명을 모르는 채 버려질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생각한다. 타는듯한 눈물이 그의 눈에 서리고 그의 입술에는 비애의 말이 맺힌다. 그때 그의 가족은 어리둥절하여 절망하며 그의 이웃들은 동정의 뜻을 표한다. 그때 그는 토굴 속으로 데려 가서 그의 고민은 습기차고 벌거벗은 토굴의 벽들만이 증거해준다. p282

일단 종교재판소의 벽 안에 들어서면 죄수들은 분리된 감방 안에 감금되었고 그 방들은 작을 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침대와 테이블 그리고 때때로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가구는 없다. 윗줄은 작은 창문들로 말미암아 햇빛이 들어왔으나 낮은 방들은 완전히 어두웠다. 죄수들은 그 지위에 따라 취급도 여러 가지로 받았는데 감방의 밑줄은 이단자들만을 위해 사용되었고 고독하고 조용한 가운데에 간수들을 제외하고 사람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어머니와 딸이 붙은 감방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알지 못하는 수가 많았고 무자비한 간수들은 비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소리가 날까봐 끈질기게 감시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불행을 슬퍼하며 소리를 내어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는 곧 조용하라는 명령을 들었고 사람들이 그들의 신음소리나 한숨소리로 또 그의 독특한 소리로 서로 알게 될 경우에는 종교재판소의 토굴 안에서 이러한 그의 비참한 처지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어떤 죄수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려도 하지 않고 간수가 그에게 와서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 옥사 안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 죄수는 기침은 자기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간수들은 그에게 두번째 주의를 주면서 기침을 중지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기침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발가벗겨서 잔인하게 때렸다. 그 결과 그는 더욱 많은 기침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가 채찍을 맞아 고통과 고민으로 죽을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때렸다. 죄수들은 감방에서 끌려나와 종교재판소의

재판관들이나 고문관들에게 심문을 받았고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에라도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 "너는 성실하지 않구나. 너는 다 말하지 않는구나. 너는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 그러니 너는 네 토굴로 돌아가야 된다" 대답을 거절한 자들은 재검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만일 그들이 묵비권 행사를 한다면 말할 것이 있든 없든 그들이 말할 때까지 고문을 당했다. p283

종교재판소의 고문, 건물, 비열한 방법들

종교재판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고문은 밧줄과 도르래로 하는 고문과 고문대 위에 올려놓고 고문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죄수의 손을 뒤로 묶고 천정에 있는 도르래에 달린 줄로 매어 원치로 감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는 고문이다. 그의 팔과 어깨에 고통이 더욱 심하게 주기 위해 발을 묶어 달아맨다. 그 희생자는 공중에 매달려 재판관에게 신중히 심문을 받는다. 그 재판관은 그의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 때때로 밧줄을 늦추어 고통을 당하는 자가 몇 피트 내려 가게 하다가 그가 땅에 닿기 전에 갑자기 멈추게 한다. 밧줄과 원치는 죄수의 뼈와 사지를 늘어 뜨려 어긋나게 하는데 쓰여졌다. 고문대와 도르래 외에도 불행한 희생자들로부터 고백을 받기 위해 종교재판소가 사용하는 살인기구들은 많이 있다.

그 희생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은 혐의로 그곳에 왔으며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때가 많았다. 종교재판소의 건물은 많은 돌로 지어진 빌딩인데 거기에는 회의실, 토굴, 고문실 등이 있었다. 전체 구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은 그 안에서 길을 잃기 쉬울 정도이다. 재판장들의 아파트들은 넓고 호화로우며 주 통로는 법정으로 가는 큰 문을 통하게 되어 있었다. 이 법정을 마주보고 밖에 발코니를 가진 다락방들이 있었으며 이 발코니들은 왕이나 그의 가족이 원한다면 어떤 죄수들의 별받는 것을 내려다 볼 수 있게 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p285 필립 2세의 통치기간 동안 종교재판관들의 힘과 교만은 날마다 증가했고, 스페인 왕국은 문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들을 억압하는 멍에 아래서 신음소리로 가득찼다. 필립 3세는 그의 부친 못지 않게 완고했고 미신적 이었으며 잔인했다. 100년 동안 그 뒤를 계승하는 왕들도 더 이상 깨었거나 인도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p309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용사 윌리엄 가디너

윌리엄 가디너는 영국 브리스톨 태생으로, 상인 패기트(Paget) 밑에서 장사를 배운 청년이었다. 그의 주인은 그가 스물여섯 살이 되자 거래중매인으로 일하라고 포르투갈의 리스본(Lisbon)으로 보냈다. 가디너는 그곳에서 열성과 프로테스탄트들과 사적인 교제를 나눴고, 로마카톨릭교도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던 중 포르투갈 왕자와 스페인 공주의 혼인 서약이 있는 날이 되었다. 식이 거행되는 성당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가디너 역시 성당에 발을 들여놓은 적은 없어도 호기심에 식을 엿보았다.

결혼식을 처음부터 찬찬히 지켜보던 가디너는 눈 앞에 벌어지는 미신적인 행위들로 충격에 휩싸였다. 그날 본 그릇된 경배의 잔상들이 그의 가슴을 후려치듯이 오갔다. 손만 뻗으면 참된 복음을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이때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서 비참한 맘을 금할 길이 없었다.

가디너는 도중에 죽는 한이 있어도 포르투갈에 신앙 개혁을 일으키리라는 야심에 찬 포부를 품었다. 그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세상일을 정리하고 빚을 갚았다. 또 장부를 정리하고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로 넘겼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 신약성경을 들고 다시 그 성당에 찾아가 제단 가까이에 자리잡고 앉았다.

왕과 왕비가 모습을 나타내었고,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하기 시작했다. 전체 의식 중 바로 이 부분에서 회중은 제병(祭屏, 성찬용 빵)을 숭배하는데, 가디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추기경에게로 펄쩍 뛰어올라 성체를 낚아채 발로 밟아 버렸다.

깜짝 놀란 회중 틈에서 누군가가 단검을 빼들고 나와 가디너의 어깨를 찔렀다. 국왕이 그만두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한 번 더 휘둘러 그를 아예 끝장내 버렸을 것이다.

가디너는 왕 앞으로 끌려갔다. 왕은 그의 출신지를 물었다.

“저는 본시 영국 태생이며 프로테스탄트이고 생계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결코 폐하의 옥체를 경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미신들과 우상 숭배를 보고서 의분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돌발적인 행위를 한 건 필시 다른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란 생각에 왕은 그를 선동한 장본인을 캐물었다. 이에 가디너는 대답했다.

“제 양심 외에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저는 살아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한 것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다른 모든 섬김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의무일 뿐입니다.”

가디너는 감옥에 보내졌다. 그리고 리스본의 모든 영국인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도주한 몇을 제외하고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해 사소한 것이라도 알고 있는지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종교 재판소에서 고문을 당했다. 가디너와 같은 집에 거주하던 사람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 무언가를 실토케 하려고 야만스럽기 짝 없게 다뤄졌다.

가디너 자신은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문을 당했다. 매번 고문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행위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고 교수대 가까이에 큰 불이 붙여졌다. 그는 도르레로 끌어올려져 교수대 쪽으로 당겨진 후 불 가까이, 그러나 그것과 닿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밑으로 내려졌다. 그는 불태워져 죽었지만, 차라리 조금씩 구워져 죽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를 악물고서 견뎌 내었고, 자신의 혼을 기쁨으로 주님께 의탁했다.

가디너를 불살랐던 불길에서 나온 불티들이 항구 쪽으로 날아가 왕의 전함 한 척을 불태우고, 또 여타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은 그의 순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영국인들은 가디너가 죽자 곧바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집에 거주한 사람은 자유를 얻기까지 2년 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종교 재판에 대한 요약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관해 믿을 만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로마카톨릭이 권력을 쥔 곳은 그 어디나 그 법정도 함께 서 있었다.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거기에 감금되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무력해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게 돼 버리든지 희생자들의 죽음을 보고서 서둘러 무덤으로 달려가 버린, 자신들의 생명이 생명 같지 않았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것은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계 13:10)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교황 체계의 자손빨인 종교 재판소, 그것의 부모뺄 되는 로마카톨릭의 힘을 느끼려면, 우리는 그 시대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 13세기에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교황 체계의 통치가 극에 달했다. 그것은 모든 왕국들로부터 독립해 있었고, 전후 어떤 인간 왕권도 결코 휘두른 적이 없던 영향력으로 통치했음은 물론, 그것이 인간의 몸과 혼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고, 지상에서 의도된 모든 일에 있어 그것의 권력은 선이든 악이든 가히 측량을 불허했다. 로마카톨릭은 문학, 평화, 자유 그리고 자칭 '기독교'를 유럽 끝까지 전파했을진 모르나 그것의 본질은 적대적이었으니, 그것의 승리의 잔이 가득 차오를수록 그 악랄함 또한 그만큼 더 넘쳐나는 게 드러날 뿐이었다.

로마, 그것은 인간의 이성애 수치를, 인간의 미덕에는 공포와 고통을 안겨 주려는 듯, 그것의 웅대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그 괴상망측하고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소들로 득실거렸던 것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의 박해

윌리엄 가디너는 브리스톨에서 태어나서 26세때 위탁판매인으로 리스본에 있었다. 거기서 그는 구원받았다. 그는 로마 카톨릭이나 교황에 최소한의 불쾌감을 주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러던 중 포르투갈 왕자와 스페인 왕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성당에서 진행된 이 결혼식에는 수많은 고위급 인사들과 왕실 전체가 참석했다. 거기서 그는 그가 본 미신적인 행위들로 인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정도를 넘어선 숭배와 나라 전체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르투갈에 개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경멸 속에서 죽게 되든지, 그의 신중함을 열성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빚을 청산하고, 책들을 정리하고, 그의 모든 상품들을 넘겨주고, 다음 주의 첫날 손에 신약을 들고서 성당으로 갔다. 왕과 왕실

사람들이 등장하고, 추기경이 미사를 시작하고, 미사 중간에 사람들이 성찬용 빵을 숭배했다. 가디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추기경에게 가서 그것을 빼앗아 발로 짓밟았다

전체 회중이 이 행동에 놀랐으며, 한 사람이 단도를 꺼내어 그의 어깨를 찔렀다. 왕이 그만 두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가디너가 왕 앞에 끌려왔을 때 군주가 그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영국인이며 프로테스탄트로서 직업은 상인입니다. 제가 한 행동은 결코 폐하의 인격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미신들과 엄청난 우상 숭배가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본 정직한 분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왕은 다른 사람의 부추김으로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선동자가 누구인가를 물었다. 이 질문에 그는 “제 자신의 양심 뿐입니다. 제가 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감옥으로 보내졌고, 리스본에 있는 모든 영국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일로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당했다.

가디너에게도 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들이 가해졌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교수대 옆에 큰 불이 지펴졌으며 활차로 거기에 운반되었다. 그리고는 불에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그를 두고 느린 속도로 그를 불에 그을렸다. 그는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었으며 자신의 혼을 주께 기꺼이 내 맡겼다.

가디너를 살렸던 불의 불꽃이 항구쪽으로 가서 왕의 전함들 중 하나를 태우고 상당한 다른 손해들을 끼쳤다는 사실은 특이할 만하다. 가디너가 죽은 뒤에 이 사건으로 잡힌 영국인들은 풀려났지만 가디너와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자유를 얻기까지 2년을 갇혀 지냈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윌리엄 리드고우의 삶과 고통

리드고우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럽 전역을 다니던 중 스페인의 마라가에 이르러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프랑스 배에 승선하려던 중 작은 사건으로 잠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영국 군함이 터키 배로 오인되는 바람에 그 도시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나 결국 오해가 풀린 일이 있었다.

그 영국군함에는 리드고우가 잘 아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리드고우를 군함에 초대했다. 며칠을 그들과 함께 지낸 후 해변에 내려서 그의 숙소로 가던 중 그는 갑자기 9 명의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사령관의 집으로 납치되었다. 즉 스파이로 오인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시내의 영국 상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사령관은 그를 배반자며 스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영국을 이롭게 하고 스페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계획을 돕고 있으며, 스페인 함대가 인도에서 돌아오는 때를 알기 위해 세빌에 9 개월 간을 머무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배의 장교들을 알고 있었으며 지나치게 그들이 예의바른 것에 트집을 잡았다.

그는 비밀리에 사령관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그에게 강철을 지우고 1 야드 길이의 철봉으로 그의 다리를 늘렸다.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는 설 수도 없었으며 계속해서 등을 대고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의 심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 마침내 그는 고문실로 인도되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는 다시 지하 감옥으로 옮겨졌다.

며칠 후에 사령관과 한 명의 심문관과 교회법에 따른 사제가 두 명의 예수회 회원과 지하 감옥에 와서 질문을 했다. 심문관이 그에게 그가 로마 카톨릭인지 교황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둘 다 아니라고 말했으며 영국과 스페인의 평화조약에 의해서 영국 국민은 누구라도 심문을 받아서는 안됨이 분명하게 규정화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고통속에서도 그의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표현을 사용했다. "당신들은 거짓 되어 꾸민 반역이라는 이유로, 거의 나를 살해할 지경에 이르게 하고 이제는 나의 믿음을 이유로 나를 순교자로 만들 셈이로군.." 또한 1588 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스코틀랜드 해안에 좌초되었을 때 스페인 사람들에게 참으로 고귀한 인간애가 실천되어 그들이 안전을 얻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사령관은 리드고우가 한 말이 사실임을 인정했지만 거만한 태도로 그 때 당시 스코틀랜드만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사랑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으며, 그러므로 감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회 회원 중 하나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스파이로 붙잡혀서 반역죄로 고소되어, 우리도 인정하지만 무죄하게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을 네게 가져오신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냐하면 오만하게도 로레토의 축복된 기적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위대한 대리인인 거룩한 교황을 부당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 후 그들은 이 죄수에게 8 일 간의 생각할 여유를 주고 그의 종교의 개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예수회 회원이 십자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나의 아들이여 보라, 너는 산채로 불에 태워져야 마땅하지만 네가 신성을 모독한 우리의 로레토의 은혜로 너의 혼과 몸을 살려 두리라”

다음날 다른 세명의 성직자들이 와서 그로 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그의 양심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마음에 어떠한 의심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들을 신뢰하고 복음 속에 나타난 그의 계시된 뜻을 확실하게 믿으며 개혁된 카톨릭 교회에서 공언하는 것처럼 은혜로 확실시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말에 심문관은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이단일 뿐이다.”라고 했다. 리드고우는 무례한 말과 고문대와 고문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종교의 본질과 정수에 위배되며, 성경에서 표출된 논쟁에 의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문관은 리드고우의 대답에 너무나 분개해서 그의 얼굴을 치고 악한 말들을 하며 그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 예수회 회원들이 그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다음날 두 명의 예수회 회원이 와서 그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물었다. 리드고우는 자신의 의견을 바꿀만한 실질적인 이유들을 그들이 보여줄 수 없다면 그의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가장 고참자가 그들의 일곱 가지 성사를 보이고 성도들의 중보와 성면화(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와 그들 교회의 전통과 확고함과 보편성을 자랑했다. 리드고우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진 믿음의 표현은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계속되어 왔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들의 가장 큰 어둠의 시대에서도 자신의 교회를 (그러나 보이지 않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쟁이 바라는 만큼의 효과가 없음을 알고, 또한 고문으로도 그의 태도를 바꿀 수 없고, 잔인한 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어쩔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심한 악의를 표한뒤 그를 떠났다. 그러나 형이 선고되어지던 날 그들은 다시 와서 이번에는 말과 행동에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가 끔찍한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것을 그들 마음 깊이 유감스러워 하는 듯이, 그리고 가장 귀한 혼을 잃게 되는 것을 애통해 하는 듯이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오 사랑하는 형제여 개종하라.” 이에 리드고우는 “나는 죽음도 불도 두렵지 않다. 둘 다 준비되었다.”고 했다.

그가 받아야 할 형은 네 번의 서로 다른 고문이었다. 만약 그가 이후에도 살아 남게 되면 그는 부활절 이후로 그레나다로 옮겨져 화형에 처해지기로 결정되었다. 그날 밤 이 선고의 처음 부분이 대단한 야만성과 더불어 행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과 마음에 힘을 주사,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에게 가해진 무시무시한 형벌들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셨다.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한 터키인 노예가 그에게 비밀리에 건포도와 무화과를 가져다 주었다. 리드고우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노예가 리드고우의 비참한 상황에 마음이 움직여서 40 일 이상을 계속해서 음식을 나르고 그를 돌봤기 때문이라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던 중 스페인 신사 한 명이 그레나다에서 마라가로 왔는데, 사령관에게 초대를 받아 리드고우가 당한 모든 것을 듣게 되었다. 즉 스파이로 오인된 리드고우가 무죄하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는 자신의 돈과 서류들과 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댓가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저서들을 조사하던 중, 그들의 종교에 비취볼 때 신성 모독적인 저작물들이 발견되었고, 이런 이단적인 의견들을 바꾸기를 거절함으로써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마침내 사형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사령관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식탁에서 시종을 들던 플란더즈 젊음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 놀라움과 연민에 사로잡혀 그 주인의

숙소로 돌아와서 그 밤을 그 죄수를 생각하며 보내다가 다음날 시로 가서 영국 상인 월드를 찾아 그 이야기를 다 해 주었다.

곧 월드는 다른 영국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영국대사를 통해 스페인 왕에게 전체 사건을 알렸다. 그리하여 왕과 스페인 의회에 리드고우의 기록들이 보내졌고 결국 그는 석방되었다. 리처드 호우킨경이 리드고우의 서류들과 돈과 책들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리드고우는 그의 왼쪽 팔을 잃었고 작은 몇개의 뼈들이 부숩히고 부러져서 그 이후로 불구의몸이 되어 버렸다. 그는 영국이 유럽의 나라들과 왕들에게 노예의 굴종상태가 될 위험에 처해있었던 그 평화 통치기간 동안 영국 의회에서 참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다.



제 6 장 - 교황권 밑에서 자행된 이탈리아의 박해들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자행된 박해에 관한 기사를 다룰 것이다. 이탈리아는

(a) 로마카톨릭의 중심지요,

(b) 로마 교황의 근거지이며,

(c)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어 수천의 지성을 현혹시키고 미신과 편협의 구름으로 인간의 명철을 어둡게 한 다양한 오류들의 산실이다.

이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박해는 첫째, 교황의 즉결권에 의해, 둘째, 종교 재판소의 권력을 통해, 셋째, 성직자 무리의 특이한 명령에 선동되어, 넷째, 이탈리아 통치자들의 편협에 의해 저질러졌다. 교황권 밑에서 자행된 첫 박해들은 아드리안(Adrian)이라는 한 영국인이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던 12 세기에 시작되었다.

학문에 조예가 깊은, 브레스키아(Brescia)의 뛰어난 웅변가 아놀드(Arnold)는 로마에 와서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온 부패와 그릇된 혁신에 반대하여 순수하고 경건한 영으로 시원스럽고 담대하게 설교했다. 그러자 의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리를 높이 사게 되었다. 이에 화가 치밀어오른 교황 아드리안은 아놀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로마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 처음엔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그를 편들고 나서며 교황의 권위에 맞섰지만, 이 때문에 아드리안이 로마 시에 성무 금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온 성직자들이 의원들과 시민들을 설득해 결국 아놀드는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독일로 국외 추방형을 언도받은 아놀드는 독일로 가서도 교황에 반대하여 설교하고 로마카톨릭의 온갖 오류들을 폭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아드리안은 그를 피흘려 죽이기를 갈망하며 대여섯 번 수중에 넣으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자, 황제의 위엄을 지닐 때가 된 프레데릭 바바로사(Frederic Barbarossa)가 교황에게 교황의 손으로 그의 머리에 직접 왕관을 씌워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 아드리안은 그의 요구에 선뜻 응해 주면서 한 가지 요청을 했으니, 아놀드를 황제의 힘으로 자신의 수중에 넣어 달라는 것이었다. 황제는 그 불행한 설교자를 아주 흔쾌히 넘겨 주었다. 아드리안에게 넘겨진 아놀드는 아풀리아(Apulia)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몸은 불태워져 재가 되었다. 이와 동일한 운명은 그의 오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찾아왔다.

엔세나스(Encenas)라는 스페인 사람은 로마로 보내져 로마카톨릭 신앙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몇몇 개혁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몇 편의 논문을 읽고서 그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친척 중 하나가 그를 밀고했고, 교황과 추기경단의 지시로 화형에 처해졌다. 엔세나스의 남동생 역시 스페인어 신약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체포됐지만, 처형당할 시간이 이르기 전에 탈옥할 방도를 알아내어 독일로 도주했다.

파니누스(Faninus)라는 학식 있는 성도는 교리에 관한 논쟁서들을 읽고서 개혁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역시 밀고를 당해 감옥에 넣어졌다. 갇혀 있는 그를 찾아간 가족과 친지들의 애걸로 한때 마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을 철회하고 풀려나오긴 했지만, 풀려나자마자 무겁기 짝 없는 죄책감의 쇠사슬들이 옥죄어 오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개종자들을 만들려는 일념 하나로 숨김없이 그리고 정력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주님을 증거했고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그는 이 일로 또다시 수감되었지만, 이번에는 믿음을 철회하면 목숨을 살려 주겠다는 제안에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했다. 처형 당일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즐거워 보였고, 목 졸려 죽임 당한 그의 몸은 불태워져 재가 되고 바람결에 이리저리 흩날렸다.

도미니쿠스(Dominicus)라는 교양 있는 군인은 몇 권의 교리적 논쟁서들을 읽고서 열렬한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퇴역하여 플라센시아(Placentia)에 갔을 때에는 적지 않은 회중을 모아 놓고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한 복음을 설교했다. 어느 날 그는 설교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성도 여러분이 내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든 것까진 좋았으나, 도미니쿠스가 막 설교를 시작하려 할 때 시 행정관이 설교단에 올라와 그를 체포하여 감금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체포에 기꺼이 순응한 그는 행정관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마귀가 그토록 오랫동안 날 그냥 내버려 두었다니 거 참 기이한 일일세.” 끌려와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교리들을 철회할 텐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내 교리라고? 난 내 교리 같은 것은 없다. 내가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들이며,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내 피라도 다 빼 줄 것이고, 나의 구주를 위해 고난 받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여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믿음을 철회하고 로마 교회의 오류들을 꺼안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됐지만, 제아무리 달래보고 위협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사형을 언도받아 시장 바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갈레아시우스(Galeacius)라는 성 안젤로(St. Angelo) 성 근방에 거주하던 프로테스탄트 신사는 그의 믿음 때문에 체포되었다. 그의 친구들이 무진 애를 쓴 끝에 자신의 믿음을 철회하고 로마 교회가 전염시키는 미신적인 교리들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믿음을 철회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해 버렸다. 이로 인해 체포된 그는 화형을 언도받았고 화형대에 사슬로 묶이게 되었다. 그들은 장작에 불을 붙이기 전 몇 시간 동안 그를 그 상태로 방치해 두었는데, 이는 그가 그를 둘러싼 아내와 친지들과 친구들의 설득에 못 이겨 자신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갈레아시우스는 굳은 지조를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태우려고 준비된 장작에 제발 불을 붙여 달라며 형 집행인에게 간청하기까지 했다. 집행인은 마침내 그 일을 시행했다. 불길은 갈레아시우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는 듯 놀랍도록 빠르게 타올라 몇 분 만에 그의 감각을 앗아가 버렸고, 그는 타오르는 불길에 곧바로 소진되어 버렸다.

이 신사가 죽은 지 얼마 안되어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그렇게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써 그들의 참된 신앙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남겼다.

교황청 치하 이탈리아의 박해에 대한 기록

피에몬테 골짜기에서의 핍박 사건

프랑스에서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발도파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여러 장소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에몬테 골짜기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거기서 그들은 성장하여 굉장히 번창했다. 그들이 조금도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로마 성직자들에게 돈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성직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을 훼방할 길을 모색했으며 따라서 튜린의 대주교에게 발도파 사람들은 이교도라고 불평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웠다. P139

1. 그들은 로마 교회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
2.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한 헌금을 하지 않는다.
3. 그들은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4. 그들은 고해성사도 하지 않으며 면죄권도 받지 않는다.
5. 그들은 연옥을 믿지 않으며 그들의 친구들의 영혼을 해방시킬 돈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소에 따라서 대주교는 핍박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혹은 사형을 당했다. 결국 고난에 지친 발도 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잡고 정규 부대를 조직했다. 여기에 대한 전적인 보복 조치로서 튜린의 대주교는 그들을 무찌를 대부대를 보냈다. 그러나 대부분 작은 충돌에서 발도파 사람들이 승리했다. 이 때 필립 7 세가 사보이의 공작이었고 피에몬테의 성주였다. 그는 드디어 자기의 권한으로 중 재하여 이 유혈 전쟁을 중지시켜야겠다고 결정했다. 이 유혈전쟁이 자기가 다스리는 성의 내정을 혼란시켰던 것이다. 교황이나 튜린의 대주교를 건드리기 원 치 않았지만 그는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고위 성직자들의 명령을 받은 군대로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신 은 전혀 그 사건에 대해서 의논 받은 일도 없는데 자기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공작의 단호함을 안 카톨릭 신부들은 그가 발도파 사 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려고 애를 썼다. 공작은 그들에게 비록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언제나 조용하고 충실하고 순종 잘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부들은 그가 발도파 사람들을 잘못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발도파 사람들은 사악한 무리이며 그들은 방종과 더러움과 신성모독과 여러가지 혐오할 만한 범죄에 빠져 있다고 했다. 공작은 신부들이 아주 엄숙한 태도로 말했지 만 그 말에 속지 않았다. P141



제 7 장 - 존 위클리프의 생애와 박해에 관한 기사

“종교개혁의 섯별”이라 불리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를 총칭하는 영(英) 본국]의 에드워드 2 세(Edward II)가 통치하던 1324 년경에 태어났다. 그를 교회 일꾼으로 키울 작정이던 부모는 여왕 필리피(Philippi)의 고해신부 로버트 이글즈필드(Robert Eaglesfield)가 옥스포드(Oxford)에 설립한 왕립 대학(Queen's college)에 그를 입학시켰다. 그러나 학문적 유익이 기대에 못 미치자 당시 유럽 최고의 학구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던 머턴 대학(Merton College)으로 옮겼다.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 건 학교에 돈을 달라며 구걸하는 수사들을 대적해 대학을 변호한 일 때문이었다. 수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흔히 볼 수 있는 구걸자이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구걸자들이었으므로 구걸하는 것을 복음이 규정하고 있다는 교리를 설교단과 기회 닿는 모든 곳에서 역설했다. 그들과 대학의 반목은 끊이지 않았다. 이 게으른 자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위클리프는 그 거지떼를 대적하는 논문을 출간하여 그들이 종교는 물론, 인류 사회에 치욕을 안겨 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 일로 그는 대학의 첫째가는 대변자들 중 하나로 여겨졌고, 곧 발리올 대학(Baliol College)의 학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후에 신학 교수 자리에 선출된 위클리프는 로마 교회의 오류들과 수도원 앞잡이들의 야비함을 확신하고서 그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대중 강연을 통해 그들의 부도덕함을 거세게 비난했고, 미신의 흑암으로 덮여 있는 각색 악습을 펼쳐 보였다. 대중이 뒤집어쓰고 있던 편견부터 벗겨 내었고, 로마 법정의 횡령 행위들을 까발렸다. 이 때문에 성직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그들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힘을 빌어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후에 이전 지위를 회복하자 강의를 통해 교황의 횡령, 그의 무오성, 그의 오만, 그의 탐욕, 그의 폭정에 대해 거센 공격을 가했다. 위클리프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부른 최초의 인물이었다. 또 주교들의 허식, 사치, 장식 달린 예복들로 화제를 돌려 그것들을 초기 감독들의 소박함과 비교했다. 그들의 미신과 속임수는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논리적 정확성으로 역설하던 주제들이었다.

랭커스터 공작의 후원으로 위클리프는 성직록을 넉넉하게 받았다. 그러나 그가 그의 교구에 정착하자마자 그의 적들과 주교들은 그를 가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랭커스터 공작이 박해 때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퍼시(Percy) 경, 영국 문장원(紋章院) 총재가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 시련은 그 앞에서 맥을 못 추었다.

에드워드 3세가 죽자 손자 리차드 2세(Richard II)가 나이 열한 살에 왕위를 계승했다. 기대했던 독점적 섭정(攝政)의 자리를 손에 넣지 못한 랭커스터 공작은 그의 권세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때는 이때다 싶은 위클리프의 대적들은 그에 대한 고소 항목들을 새로이 다듬었다. 교황의 권위에 힘입은 주교들은 위클리프의 재판 회부를 주장하며 나섰고, 그는 실제로 램베스(Lambeth)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 바깥에서는 민중들이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어수선했고, 법정에서마저 어떤 최종적인 선고도 내려서는 안 된다며 루이스 클리포드(Lewis Clifford) 경이 엄포성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판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위클리프에게 교황의 미움을 사는 교리들을 설교하지 말라는 금지령만 내리고서 전체 사건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이에 콧방귀를 뀌 후 맨발로 돌아다니며 두터운 모직으로 된 프리즈 가운(frieze gown)을 걸치고서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1378년에 두 명의 교황, 즉 우르반 6세(Urban VI)와 합법적인 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t VII) 사이에 경합이 벌어졌다. 위클리프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교황 제도에 반대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그것을 각계각층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도록 했다. 그런데 그 해가 다 지날 무렵 위클리프가 심신 기능에 심한 이상이 생겨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 갔다. 옥스포드에서 가장 저명한 시민 넷을 옆에 끼고서 구걸하러 다니던 수사들은 그를 찾아가 그들에 대해 역설하고 다녔던 내용들을 그의 혼을 위해서라도 철회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엄한 얼굴로 응수했다. "난 죽지 않을 것이다. 기필코 살아서 수사들의 악행을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다!"

병상에서 일어나자,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매우 중대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소책자를 발간하여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이에 성경 발매를 금지시키려는 주교들의 발악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성경 판매량을 치솟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인쇄본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은 특정 복음서나 서신서들의 사본이라도 손에 넣으려 했다.

이 일이 끝나자, 위클리프는 더 나아가 화체설 교리를 목표로 삼았다. 1381년 옥스포드 대학 강연에서 이 교리를 공격했고 논문을 발표했다. 옥스포드 부학장으로 있던 바턴 박사(Dr. Barton)는 그 대학 수뇌들을 소집해 위클리프의 교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서 파문 운운하며 위협을 가했다. 위클리프는 이제 랭커스터 공작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이전의 적수 윌리엄 코트니(William Courteney) 앞으로 출두하라는 법정 소환 명령까지 떨어져 난관에 부딪혔다. 때문에 자신이 그 대학 직원으로서 주교 관할권에서 면제됨을 구실 삼아 스스로를 보호했고, 이 탄원은 대학 당국이 자기 직원을 지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락되었다.

지정된 시간에 소집된 법정은 최소한 그의 견해들에 대해 판결이라도 내리자는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것들은 오류로 어떤 것들은 이단으로 정죄했다. 위클리프는 화체설 주제를 문서로 출판하여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주교는 모든 이단 사설과 위클리프가 간행한 책자들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옥스포드 총장에게 내리는 지시 서한들을 왕에게서 받아 냈고, 위클리프는 검열의 폭풍 속에서 물러나와 어느 후미진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견해들은 길을 걷다 두 사람을 만나면 그 중 한 명이 위클리프파라 확신해도 무방할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기간에 두 교황 사이의 다툼은 계속되어 교서를 발표한 우르반은 종교의 대의명분을 위해, 또 교황청을 지키기 위해 클레멘트와 그의 지지자들을 대항해 무기를 들어올리자며 종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촉구했다. 종교의 이름을 팔아먹은 그 야비한 전쟁은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던 위클리프로 하여금 다시 펜을 들게 했다. 타협을 모르는 신랄하기 짝 없는 글 때문에 우르반의 분노를 사 전례 없는 큰 문제를 야기한 듯했지만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되었다. 얼마간 중풍에 걸린 그를 적들이 분노를 쏟을 가치도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다시 돌아온 위클리프는 자신의 교구인 러터워스(Lutterworth)로 가서 교구 목사를 지냈다. 그리고 1384년 말 실베스터의 날(Silvester's day)에 주님의 품에 평안히 잠들었다.

위클리프의 박해자들은 그가 죽은 지 41년 뒤 진토가 된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재로 만들었고, 그 재를 주워 담아 강물 속에 던져 버렸다. 그렇게 그는 3대 요소, 즉 흙과 불과 물로 분해된 셈인데, 이는 위클리프의 이름과 교리 모두를 완전히 소멸시켜 없애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비록 그의 시체를 파내어 뼈들을 불사르고 재를 물 속에 가라앉게 했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얻은 열매와 그의 교리에 담긴 진리는 불태울 수 없었다.



제 8 장 - 교황권 밑에서 자행된 보헤미아의 박해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화형장의 존 후스” (John Huss)

교회의 권력을 강탈해 온 로마 성직자들의 횡포가 보헤미아에서는 특히 심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A.D.977 년에 교황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두 명의 사역자와 네 명의 형제들을 로마로 보냈다. 얼마후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불평의 원인이 시정되었다. 특히 그들은 두 가지를 허락받았는데, 그들 자신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사 때 평신도에게도 잔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란들은 다시 재개되었다. 후임 교황들은 자신의 권력을 보헤미아인들에게 행사하고자 했고, 보헤미아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A.D.1375 년 복음에 열성적인 이들이 보헤미아의 찰스왕에게 교회 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 스며든 폐해들을 조사해서 완전한 개혁을 단행하자는 것이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왕은 교황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침을 얻고자 했으나, 교황은 이 사건에 너무나 분개해서 도리어 “이 저돌적이고 악한 이단들을 엄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그 군주는 이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처벌했으며, 교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수많은 부가적 조치를 취했다.

박해의 희생자들은 존 후스(John Huss)와 프래그의 제롬(Jerome)이 화형될 때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 두 명의 탁월한 개혁가는 교황과 그의 사절들의 부추김으로 정죄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존 후스 (John Huss)

존 후스는 보헤미아의 후센니츠라는 마을에서 1380 년 경에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에게 최상의 교육을 해 주었다. 사립학교에서 고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그는 프래그의 대학에서 지적 능력을 쌓았다.

1398 년에 후스는 신학사(B.D.) 과정을 시작했으며, 후에 프래그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로, 대학 총장으로 지정되었다. 그 일을 그는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마침내

설교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의 설교는 위클리프의 교리와 일치했기 때문에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주시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후스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맹렬히 비난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개혁주의자인 위클리프가 개혁에 불을 붙여서 교황권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무지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의 교리는 보헤미아까지 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였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존 후스와 그의 열성적인 친구이며 동료 순교자인 프래그의 제롬이다.

개혁주의자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고 프래그의 대주교는 위클리프의 저서들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욱 자극하여 그들이 오히려 이 교리를 널리 퍼뜨렸기 때문이다.

위클리프의 교리를 강력하게 수호했던 후스는 대주교의 칙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대주교는 마침내 교황의 교서를 얻어내었다. 그 교서로 대주교는 그 지역에서 위클리프의 교리들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대주교는 또한 위클리프의 복사물들을 유포하지도 않았던 네 명의 박사들에게 소송을 일으켰으며, 그들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회중에게 설교를 금했다. 후스 박사는 대학의 몇몇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이런 절차에 항거했고 대주교의 판결에 항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교황에게 알려졌고 교황은 콜로나 추기경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존 후스를 로마법정에 직접 출두시켜서 그가 거짓과 이단을 설교했다고 고소하고, 후스로 하여금 그러한 고소에 대해 변호하게 했다. 그러나 후스는 직접 출두하지 않기를 원했으며, 또한보헤미아에서 그를 크게 사랑했던 윈세스로스 왕과, 여왕, 귀족, 대학 당국은 교황이 그런 출두 명령을 철회해 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또한 보헤미아가 이단이라는 고소를 받지 않기를 원했으며, 그들의 경배 장소에서 자유로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허용되기를 원했다.

세 명의 사무 변호인이 후스 박사대신 콜로나 추기경 앞에 나왔다. 그들은 그가 출두하지 않은 것을 변호하고자 했으며, 후스 박사 대신 답변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나 추기경은 후스가 오만불손하다고 선언하고 그를 파문시켰다. 사무 변호인들은

교황에게 항소했고 네 명의 추기경이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이 전 판결을 더욱 확증했을 뿐이며 후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과 추종자들까지도 파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부당한 판결에 후스는 위원회에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심한 판결을 받고, 프래그에 있는 그의 교회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고향인 후센니츠로 가서 그의 새로운 교리를 강단에서, 그리고 글로 계속해서 발표했다.

이 시기에 그가 쓴 글들은 상당히 많다. 프로테스탄트의 책들을 읽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될 수 없다는 논문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는 삼위일체에 관한 위클리프의 책을 변호하는 글을 썼으며 부패한 교황과 추기경들과 성직자들의 악행을 담대하게 말했다. 그는 또한 강력한 논쟁이 수록된 다른 많은 책들을 썼다. 이것은 그의 교리들이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414 년 11 월 독일 콘스탄스에서 전체 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외적으로 교황권에 맞선 세 사람 사이에서 미결정된 논란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개혁의 진행을 짓밟고자 하는 것이었다.

존 후스는 이 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황제는 그에게 안전 통행권을 보냈다. 후스가 여행중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찬사와 존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거리와 작은 길들에서조차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이는 호기심이기보다는 존경의 표시였다.

그는 큰 환호성과 함께 각 도시에 안내되었으며, 일종의 승리감 속에서 독일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추방자였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최악의 친구들이 보헤미아에 있음을 안다."

후스가 콘스탄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숙했다. 그가 도착한 지 얼마 후 스테판 팔레츠라는 사람이 왔다. 그는 후스에게 고의적인 박해를 가하기 위해 프래그의 성직자가 고용한 사람이었으며, 나중에 그는 로마법정에서 보낸 미카엘 드 카시스와 합류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그의 고소자로 자처하고 후스를 대적하여 일련의 조항들을 만들어 교황과 위원회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제출했다.

후스가 그 시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는 곧 체포되어 궁정 관리에게 넘겨졌다. 이러한 일반 법과 정의의 위반에 대해 후스의 친구들 중 한 사람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 군주의 안전 통행권을 요청했으나 교황은 이를 거부했고 군주의 안전 통행권도 거부되었다.

후스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위원회가 종교 재판관들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교리들을 저주했으며 심지어 그의 유골을 파헤쳐 태워 재로 만들 것을 명령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명령들은 꽤히 허가되었다. 그동안 보헤미아와 폴란드의 귀족들은 후스를 위하여 강력하게 중재에 나서서 그를 정죄하지 못하게 했으나, 그를 재판하기 위해 임명된 위원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그가 위원회 앞에 섰을때 그에게 고소된 조항들이 낭독되었는데, 40 개 이상이나 되는 그 조항들은 주로 그의 저술들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존 후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교황에게 호소했으나 그는 죽었고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이 문제의 명분을 그의 후임자인 존 13 세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나의 지지자들이 2 년 정도 교황 앞에서 나의 명분을 변명할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았기에 나는 대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 호소하였다.”

존 후스가 이 말을 마치자 그들은 그에게 교황의 결정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물었고,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다시 그들은 그가 그리스도께 호소한 것이 합법적인지 물었고, 이에 존 후스는 답변하기를 “진실로 내가 여기 여러분 모두에게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는 호소보다 더 정의롭고 효과적인 호소는 없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재판관이 누구인가? 누가 이 문제를 더 정의롭고 더 공평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는 속임수도 없으며, 그는 속임을 받지도 않으신다. 누가 그분보다 비참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가?”

존 후스가 경건하고 부정한 뜻으로 이 말을 했을 때, 전체 위원회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런 훌륭한 말들은 반역의 말로 여겨졌고 그의 대적자들을 격분시켰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교들이 그의 성직자복을 벗기고 그를 모욕하며 종이 주교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다. 거기에는 마귀들이 그려져 있었고 “이단들의 주동자”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다. 그렇다면 비록 굴욕적이긴 하나 그를 위하여 내가 이 가벼운 관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진정으로 나는 기꺼이 이것을 쓰겠다.”라고 했다. 그의 머리에 이것이 씌워졌을 때 주교는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너의 혼을 마귀에게 넘겨 주노라.”고 했다. 그러자 존 후스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그러나,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대속하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말했다.

화형대의 사슬에 묶였을 때, 그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보다 더 심한 사슬에 묶이셨는데 내가 왜 이 녹슨 사슬을 부끄러워 하리요?”라고 했다.

장작이 그의 목까지 쌓였을 때 바바리아 공작은 그에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후스는 대답하기를 “나는 결코 악을 지향하는 교리를 설교한 적은 없다. 내가 내 입으로 가르쳤던 것을 이제는 나의 피로 인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사형집행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위 한 마리를 불사르려하고 있다(보헤미아어로 후스(Huss)는 거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1 세기 후에는 구울 수도 삶은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고 했다. 그가 미래를 예견한 것이라면 그는 마틴 루터를 의미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약 100 년 후에 빛을 발했으며, 백조를 문장으로 가지고 있었다.

불이 나무에 붙었고 우리의 순교자 후스는 크고 쾌활한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그 소리가 나무들이 타는 소리를 뚫고 들리다가 마침내는 심한 불꽃에 가려 들리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재를 모두 모아서 라인 강에 뿌렸고, 지상에 그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에 대한 기억은 물로도, 불로도, 어떤 종류의 고문으로도 없앨 수 없으리라.

프라하의 제롬에 대한 박해 (Jerome)

존 후스의 친구이자 그와 함께 순교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개혁자는 프라하에서 태어나 바로 그곳의 대학에서 수학했고, 또 유럽의 몇몇 신학교들, 특히 파리,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쾰른(Cologne), 옥스퍼드(Oxford) 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제롬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위클리프의 저서들에 정통하게 되었는데, 남다른 근면성을 지녀 각고의 노력 끝에 영어에 통달한 후 그 중 여러 작품들을 모국어로 번역했다.

제롬은 프라하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위클리프의 지지자임을 공언했다. 위클리프의 교리들이 보헤미아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데다 후스가 그것들의 주된 촉진자라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위대한 개혁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1415년 4월 4일, 제롬은 후스가 죽기 약 석 달 전 콘스탄스에 도착했다. 그의 도착이 대중에게 알려져 공회가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음 날 콘스탄스에서 1마일 떨어진 황제의 도시 이베를링(Iberling)으로 이동했다. 그는 거기서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안전 통행권을 주는 조건으로 공회 앞에 서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공회에도 의뢰해 보았지만 허사로 돌아가 보헤미아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제롬은 허소(Hirsaw)에서 술츠바흐(Sultzbach) 공작의 한 장교에게 체포되었다. 제롬을 손에 넣은 술츠바흐 공작은 앞으로 할 일들을 편지에 적어 공회에 보냈다. 공회는 공작에게 감사를 표한 후 제롬을 콘스탄스로 즉각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제롬은 긴 쇠사슬 족쇄에 채워져 끌려갔고, 도착하자마자 혐오스런 지하 감옥에 넘겨지고 말았다.

마침내 공회 앞에 끌려온 그는 자신의 대의명분을 항변하여 혐의를 풀기를 원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별안간 다음과 같이 절규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짐승 같은 일이 다 있단 말인가! 난 340일 동안 감옥을 옮겨 다니며 감금되어 있으면서 비참이란 비참, 궁핍이란 궁핍은 모조리 다 맛보았도다. 내 적들에게는 온갖 고소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도, 정작 나에게는 최소한의 방어 기회도 주지 않으니 이 무슨 행패란 말인가! 당신들은 내가 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 한 시간도 주려 하지 않으면서도 내게 쏟아진 중상모략은 곧이곧대로 다 믿었다. 내 교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이단으로 제시했고,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믿음의 적으로 간주했는가 하면, 박해에 대한 내 생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미리부터 나를 사제들을 박해하는 자로 낙인찍어 버렸다. 당신들은 지금 총공회를 열고 있으니 당신들이 중추가 되어 이 온 세상이 위엄과 지혜와 신성함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당신들은 사람이며,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이끌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신들이 더 고결한 지혜를 추구할수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어리석게 빛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항변하는 대의명분은 나 혼자만의 명분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대의명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의명분이며, 후대의 권리에 영향을 줄 대의명분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험이 내 안에서 직접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제롬은 자신의 혐의가 워허 내려가는 것을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요약되었다. ① 그는 교황의 위엄을 비웃은 자이다. ② 그는 교황을 반대하는 자이다. ③ 그는 추기경들의 적이다. ④ 그는 고위 성직자들을 박해하는 자이다. ⑤ 그는 기독교를 증오하는 자이다.

제롬에 대한 재판은 그가 고소를 당한 지 3 일째 되는 날에 치러졌고, 제롬의 혐의를 지지하는 증인들이 심문을 받았다. 죄수는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340 일 동안 빛도 들지 않는 혐오스런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그 혼한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준비되었다는 말이 통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나 활기가 조금만 부족해도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불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백은 하늘을 찌를 듯했으며, 또 마치 모든 장서들이 구비된 도서관이라도 옮겨다 놓은 것처럼 교부들과 고대 저자들의 글들을 인용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가 가슴 뭉클한 웅변을 어찌나 의기양양하게 펼치던지 완고한 열성을 지닌 가슴이 녹아내리는 듯했고, 미신에 사로잡힌 마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치를 보일 정도였다. 그는 사실에 바탕을 둔 증거와, 위협과 중상이 지지하는 증거를 훌륭히 구별했다. 또 그의 삶과 행실의 방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시했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색하는 것은 진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식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당당하게 경멸했는데, 만약 그가 조금만 허점을

보였다면, 그들은 그로 하여금 덕과 진리의 대의명분을 철회토록 했었을 것이다. 그는 후스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하며 자신도 그의 영광스런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선언했다. 그 뒤 위클리프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교리들을 간단히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진술로 결미를 지었다. 즉 그의 의도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거슬러 무엇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만을 토해냈던 성직자들의 타락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며, 또 이에 덧붙여 그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은, 원래 널리 선행을 행하며 자선을 베풀 의도였던 교회의 재산이 논의 만족, 성대한 잔치, 멋부린 제의(祭衣)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과 신앙 고백에 여타 치욕을 가져오는 데에 천하게 쓰이는 것은 분명 불경건한 일이라는 것이다.

재판이 끝나자 제롬은 동료 순교자 후스에게 내려졌던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그 결과 그는 교황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시민들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 자신이 평신도였기 때문에 강등 의식은 치를 필요가 없었다. 준비된 붉은 마귀가 그려진 종이 모자가 머리에 씌워지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참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실 때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 이 모자를 쓸 것이다.”

그가 믿음을 부인하리라는 희망 하에 이들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이 기간 동안 플로렌스(Florence) 추기경은 그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있는 노력 없는 노력을 다 쏟아 부었으나, 제롬은 자신의 피로 그 교리에 인장을 찍기로 마음을 굳히고서 너무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아들였다.

제롬은 형장으로 가는 길에 찬송가를 몇 곡 불렀다. 후스가 불탔었고 자신도 그렇게 처형될 바로 그 지점에 도착하자 무릎을 꿇고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화형대를 부둥켜안았다. 그들이 나뭇단에 불을 붙이려고 등 뒤로 다가오자 이렇게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내 눈앞에서 불을 붙여라.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난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드디어 불이 붙었다. 제롬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가리를 크게 벌린 뱀처럼 삼켜 들어오는 불길의 고통에 찬송을 멈춰야 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외침이 들려 왔다. “불길에 휩싸인 내 혼을 그리스도께 바치나이다!”



(a) 지스카(Zisca)에 대한 박해

지스카의 본명은 존 드 트로크즈노우(John de Trocznow)였다. 지스카라는 이름은 그가 눈을 하나 잃었기에 붙여진 '애꾸눈'을 의미하는 보헤미아어이다. 보헤미아 본토인으로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폴란드 황제 윈세슬로스(Winceslaus)를 돕기 위해 튜톤족(Teuton, 유틀란트에 살던 게르만족의 한 부족) 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자 명예 훈장을 받고 윈세슬로스의 궁정으로 복귀한 그는 존 후스 사건 때 콘스탄스에서 왕의 백성들에게 자행된 유혈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언명했다. 윈세슬로스는 그것을 복수하는 일이 자신의 권한에 있지 않음을 한탄했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지스카가 자국의 종교적 자유를 강력히 주장하려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1418년, 해악의 온상이었던 공회가 해산되고, 그 해 여름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위스그라데(Wisgrade) 성에서 총회가 열렸다. 그들은 지스카를 따라 손에 무기를 들고 황제에게 몰려가 적들로부터 그를 지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황제는 무기를 적절히 사용하라면서 이를 허락했다.

윈세슬로스의 후임은 남동생 시지스몬드(Sigismond)였다. 그는 스스로를 개혁자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었고, 자신의 정부에 불쾌히 여겨지는 모든 것을 제거했다. 이에 지스카와 동료들은 황제와 교황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40,000명의 군사로 필센(Pilsen)을 포위 공격하여 성을 점령했다. 또 보헤미아 남서부 지방을 굴복시켜 개혁자들의 군대가 크게 증강되었다. 닷새 밤낮을 맹렬히 전투한 끝에 멀다우(Muldaw) 길목을 장악하자, 놀란 황제는 터키 국경에서 병력을 빼내어 보헤미아로 진격시켰다. 그러나 지스카는 프라하를 정복하고 1420년 8월 19일 소규모 부대를 격파하여 황제로 하여금 서둘러 병력을 다시 모집하게 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스카는 프라하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견고한 언덕 위에 진영을 요새화하여 그곳을 타볼 산이라 불렀고, 거기서 일단의 기병대를 한밤중에 기습하여 1,000명의 병사를 포로로 만들었다. 잠시 후, 황제는 이전에 지스카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프라하의 견고한 요새를 손에 넣었지만 곧 지스카에게 봉쇄되었고, 굶주림에 위협받은 황제는 결국 철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죽기 살기로 맞붙어 보기로 하고 타볼 산 위의 지스카 진영을 공격해 엄청난 살육을

자행하였다. 그 밖의 많은 요새들도 무릎 꿇었고, 지스카는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산으로 철군하여 그곳을 강한 요새로 만들었다. 거점을 정한 그가 다시 프라하 시로 가서 황제를 강하게 압박하자 미스니아 후작(marquis of Misnia)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큰 병력으로 적을 쳐부수는 일을 맡겼으나 지스카에게 대파되고 말았다.

1421년 봄, 지스카는 이전처럼 작전을 개시하여 도중에 만나는 수도원이란 수도원은 모조리 파괴시켰다. 위스그라데(Wisgrade) 성을 포위공격하자 그것을 구하러 온 황제가 뒷에 걸려 가공할 살상을 당하며 크게 깨졌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성 또한 빼앗겼다.

보헤미아 성직자들의 엄청난 무지와 미신에 상당한 혐오감을 느낀 지스카는 전쟁의 와중에도 개혁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스카가 이러한 원정들 가운데 루비(Rubi) 시 앞에서 숙영했을 때 그가 공격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느닷없이 성벽에서 화살이 날아와 눈에 꽂히고 말았다. 프라하에서 그것을 빼냈지만 거기에 미늘이 달려 있어 그것과 함께 눈알이 찢겨지며 밖으로 빠져 나왔다. 열병이 뒤를 이었고, 생명은 어렵사리 유지되고 있었다. 이제 눈은 완전히 멀어 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군에 참여하고 싶어했다.

황제는 제국의 속국들을 불러들여 연합군을 형성했다. 연합군 군주들은 소이신(Soisin) 포위공격을 감행했으나, 지스카 장군이 다가오는 것만 보고도 줄행랑을 쳐 버렸다. 황제는 그에 아랑곳 않고 15,000두의 헝가리산 말과 흑한 작전을 위해 잘 무장된 25,0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와 함께 진군했다. 지스카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황제는 그 무적의 적장과 한 번 더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1422년 1월 13일, 두 군대는 크렘니츠(Kremnitz) 근처 광활한 평원에서 마주쳤다. 지스카는 수행하는 두 기병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용 도끼로 무장하고 최전선 중앙에 모습을 나타냈다. 병사들은 찬송가를 한 곡 부른 후 올 테면 오라는 식으로 침착히 칼을 뽑아 들고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장교들이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자 지스카가 머리 위로 군도를 한 바퀴 휘익 저었다. 전투 개시 신호였다. 전투는 매우 치열했다. 황제 군대는 후미를 공격당하며 모라비아 변경의 타볼인들을 향해 쉬지 않고 달아났고, 도중에 이글라(Igla) 강의 얼음이 깨지면서 적어도

2,000 명이 수장되었다. 전리품과 전승 기념물을 싣고 타볼로 돌아온 지스카는 다시 종교개혁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죽은 자를 위한 모든 기도와 우상들, 성직자 예복, 금식, 축제를 금지시켰다. 이 모든 일에 편견 없는 지성을 지닌 이들의 자문을 구했고, 전체의 동의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지스카에게 보헤미아의 왕위를 취하라는 권유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하고서 다음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황제 시지스몬드는 이 전투에서 사생결단을 보기로 전의를 다졌고, 미스니아 후작이 북색소니(Upper Saxony)를 돌파해 들어가 있는 동안 헝가리의 측면에 자리잡은 모라비아로 진군해 들어갈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후작은 엘베(Elbe)의 견고한 아우시그(Aussig) 성읍 앞에 진을 친 지스카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참패를 맛보았고, 아우시그 또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피로에 지친 자신의 병사들에게 약간의 휴식을 주기 원했던 지스카는 자신의 존재가 최근에 있었던 소요 때문에 남겨진 모든 불안을 잠재우리라 희망하며 프라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난데없는 공격을 받았고, 그와 그의 병력은 그 시민들을 물리친 뒤 군부대로 철군하여 그 배신행위에 대해 상세히 일러 주었다. 지스카는 그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적의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프라하의 저명한 목사 로케산(Roquesan)과 면담을 벌여 결국 화해를 이루었다.

오랜 전쟁으로 맥이 빠진 황제 시지스몬드는 지스카에게 사람을 보내 이제 그만 칼을 거두고 그가 내세우는 조건들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장소가 지정되자, 지스카는 그의 주요 장교들과 황제를 만나러 출발했다. 그러나 역병이 창궐한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브리스크라우(Briscau) 성에서 염병에 걸려 1424년 10월 6일 안타깝게도 생을 마치고 말았다. 모세처럼 지스카도 자신의 수고가 완결되는 걸 내려다보며 죽은 것이다. 그의 시신은 보헤미아의 차슬로우(Czaslow)의 큰 교회에 안치되었는데, 그곳에 세워진 그의 기념물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여기 존 지스카가 누워 있으니, 그는 로마 교황의 폭정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고국을 수호한 후 교황을 경멸하며 이 신성한 곳에 당당히 잠들어 있도다.”

칼라브리아에서 자행된 박해들

때는 14 세기, 프라겔라(Pragela)와 도피니(Dauphiny)에 살던 수많은 왈덴스들(Waldense)이 칼라브리아(Calabria)로 이주하여 그 나라 귀족들의 허락을 받고 몇몇 불모지에 정착했다. 그들은 근면하기 이를 데 없는 노력으로 땅을 일구어 몇몇 거친 불모의 땅을 신록이 우거진 옥토로 만들었고, 그곳 영주들은 이 정직한 새 백성들과 소작인들을 크게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주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왈덴스들을 박해하려고 했다. 갖은 구실을 내세워 영주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로 돌리려 했지만, 영주들은 왈덴스들이 로마카톨릭교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또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어 주교들의 수입을 올려 줬으니 주교들이야말로 불평을 터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며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후 왈덴스들은 몇 년간 스스로 두 개의 통합된 도시를 만들어 대여섯 개의 마을을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 병합시켰다. 그리고 한 도시에 설교자 한 명을 둘 목적으로 제네바에 사람을 보내 목사 두 명을 데려오게 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일은 교황 피오 4 세(Pius the Fourth)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왈덴스들을 칼라브리아에서 뿌리뽑고자 했다. 그래서 기질이 몹시 과격한 추기경 알렉산드리노(Alexandrino)를 사제 두 명과 함께 보내어 칼라브리아에서 심문관 노릇을 하도록 했다. 그 짐승들은 왈덴스들이 세운 도시 중 하나인 성 자이스트(St. Xist)에 도착하여 그곳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교황이 지명한 설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이를 공표하기 위해 미사가 치러질 예정이니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숲으로 도주해 버렸다. 그러자 추기경은 왈덴스들의 또 다른 도시인 라 가르드(La Garde)로 달려가 그곳 주민들도 도망갈까봐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대로에 경비병들을 배치시켰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성 자이스트에서와 동일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 자이스트 주민들이 제안에 동의했다는 거짓말을 덧붙이는 바람에 라 가르드 주민들은 형제들의 선례를 따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후 추기경은 성 자이스트 주민들을 잡기 위해 병사들을 숲속으로 출동시켰고 보이는 즉시 살해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수많은 왈덴스들이 그들의 포악함의 먹이가

되어 나뒹굴었지만,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왈덴스들이 몇 차례의 교전에서 놀라운 용맹을 발휘하자 추기경의 군대는 병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여러 전투에서 거의 모든 병사들을 잃었고 잔류병들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추기경은 나폴리(Naples)의 총독에게 서한을 보내 병력을 요청했다. 총독은 즉시 명령을 내렸는데, 나폴리의 모든 범죄자와 탈영병과 여타 추방자들에게 성 자이스트 주민을 몰살시킨다면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들은 이 제안에 응하여 경무장 중대로 조직되어 숲으로 파병되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은 나무에 매달아 가지들로 불태웠고, 또 발가벗겨서 야수나 육식 조류에게 뜯어 먹히게도 했다. 이들은 많은 성도들을 멀리서 저격했지만, 대부분은 재미 삼아 요리조리 추적하여 잡았다. 그나마 동굴에 피신한 이들은 굶어 죽고 말았다.

성 자이스트 주민들이 몰살당하자, 라 가르드 주민들에게는 로마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면 집과 재산이 회복될 것이나 거절하면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것이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자 이 고결한 성도들은 로마카톨릭의 오류를 받아들이기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이에 추기경과 총독은 겁을 주려고 그들 중 30 명을 즉각 고문대에 올려놓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중 몇이 고문을 받다 숨졌고, 특히 샤를랭(Charlin)이라는 성도는 복부가 터져 창자가 밖으로 빠져 나와 격렬한 고통 속에 죽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성도들은 어떤 고문에도 형상을 숭배할 수 없다며 담대하게 선언했다. 그러자 몇몇 성도가 추기경의 지시로 발가벗겨진 채 쇠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어떤 이들은 서슬 퍼런 큰 칼로 갈기갈기 난도질당했다. 어떤 이들은 높은 탑 꼭대기에서 아래로 던져졌다. 수많은 성도가 역청을 뒤집어쓴 채 산 채로 불태워졌다. 추기경을 수행하던 사제는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날카로운 큰 칼로 80 명의 목을 베어 버렸다. 라 가르드 주요 인사 네 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목사는 자기 교회 첨탑 꼭대기에서 내던져졌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으나 추락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다. 숨이 붙어 있는 그를 돼지들에게 던져 주라는 총독의 명령 때문에 돼지들에게 먹혀 죽은 것이다. 60 명의 자매들은 사지가 너무 거세게 잡아당겨져 사지를 묶은 끈들이 살을 뚫고 뼈까지 조여 왔다. 감옥에 재수감된 그들은 거기서 상처가 썩어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죽어

갔다. 다른 많은 성도들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 갔다. 동정심 많은 로마카톨릭교도가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나서면 그 역시 붙들려 동일한 운명에 처해졌다.

결국 칼라브리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미신의 제단에 바치려 하지 않았기에 죽임을 당했다. 가증스런 우상 교리를 포용하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의 탈을 쓴 그 짐승들에게 죽고 만 것이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제 9 장 - 마틴 루터의 생애와 박해에 관한 기사

저명한 독일의 성직자요 교회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광부였다가 고위급 행정관이 된 존 루터(John Luther)의 아들로써, 만스펠트(Mansfield)주에 소재한 작센(Saxony)의 이슬레벤(Isleben)에서 1483년 11월 10일 태어났다. 루터는 1501년 에르푸르트(Erfurt) 대학에서 논리학과 철학 일반 과정을 이수했고, 스무살이 되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윤리학, 그 밖의 다른 분야의 철학들을 강의했다. 그 뒤 부모의 권유로 변호사가 될 목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려고 했으나, 어느 날 친구와 들판을 걷다가 난데없이 내려친 번개에 맞아 루터 자신은 그 자리서 쓰러지고 옆 친구가 죽는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그 길로 세상을 등지고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 수도회로 들어가 버렸다. 루터는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스콜라 철학자들의 저서를 탐독하며 장서들을 섭렵하는 가운데 전에 본 적이 없는 라틴어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되었다. 큰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읽고 또 읽는 중에 그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루터는 1년간의 수련(修練) 수사 과정을 거친 후 에르푸르트 수도원에서 성직자가 될 것을 선서했고, 사제 취임식을 하고서 1507년 처음으로 미사를 직접 거행했다. 이듬해 비텐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Wittenberg)으로 옮겨 갔는데, 이 대학에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에 속한 연로한 교수가 있었다. 당시 같은 수도원 수사였던 루터는 교수와 특히 죄들의 사함에 대해 의논했는데, 늙은 신부는 루터에게 “모든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며,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리”라고 가르쳤다. 이에 루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라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깨우치게 되었고, 전에 읽었던 스콜라 철학자들의 해석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

1512년 루터가 소속된 수도회의 몇몇 수도원들이 그들의 주교 총대리와 다툼을 벌이자, 루터가 로마로 가 그들의 대의명분을 주장할 자로 뽑히게 되었다. 로마에 간 그는 교황과 그의 궁정을 보았음은 물론, 그곳 성직자들의 관례를 관찰하고 그들이

미사를 거행하며 보여 준 조급하고 피상적이며 불경건한 모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메모해 두었다. 그 뒤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비텐베르크 대학에 머물며 신학 교수로서의 소명에 전념했다. 즉 로마서와 시편을 이전 주석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설명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으로 값없이 용서되므로 우리가 이 풍성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지런히 돌려놓았던 것이다.

1513년 3월, 율리오 2세(Julius II)를 뒤이은 레오 10세(Leo X)는 율리오 2세가 시작한 성 바울 대성당(the Church of St. Paul) 건축 계획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모으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 1517년 대성당 건축에 한 푼이라도 기부하는 자들을 위해 전 유럽에 걸친 총체적인 면죄를 발표했으며, 각 나라마다 대표들을 임명해 면죄를 찬사하며 사람들을 면죄해 주고 돈을 긁어모으게 했다. 이 괴이한 행위들로 비텐베르크 전역에 성난 아우성이 메아리쳤고, 특히 루터의 경건한 열성을 확 타오르게 했다.

1517년 만성절(萬聖節, All Saints' Day) 전날(10월 31일) 밤, 루터는 비텐베르크 시 성곽 옆에 붙은 교회 문에 면죄에 관한 논문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았고, 그 글 서두에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글로든 논쟁으로든 한번 붙어보자는 도전장을 내걸었다. 이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이단으로 고소했고, 황제 막시밀리안(Maximilian)도 작센에서 불길처럼 번지는 루터의 주장들을 틀어막을 일에 대해 고심했다. 루터의 주장은 로마카톨릭과 황제 모두에게 골치 아픈 일이었던 것이다. 루터의 대적들이 루터의 주장을 철회시키려고 루터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사이, 루터의 교리들은 크게 우세를 떨쳐 고국과 해외에서 격려가 빗발쳤다. 보헤미안들은 개혁 작업 중 순교한 존 후스의 책과 편지들을 보내 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하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수많은 위대한 학자들도 루터에게 가세했다.

레오 10세는 루터의 대적들의 끈덕진 간청에 못 이겨 1520년 6월 15일자 교서에 루터를 정식으로 정죄함을 발표했다. 세족 목요일(Maunday Thursday, 부활절 전 목요일)로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사도들의 발을 씻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성체와 서품(敍品)의 성사(聖事)를 그리스도께서 정한 것을 기념하는 로마카톨릭의

날]에 교황의 견책을 받고 처음으로 고소당한 마틴 루터는 부활절이 지난 후 보름스(Worms)로의 여정에 박차를 가했고, 그곳에서 황제와 독일의 모든 나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 끊임없이 진리를 고수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대적들에게 답변해 주었다.

샤를 5 세는 자신도 교황의 판결에 따라 루터를 로마카톨릭에서 분리된 교회 분리론자요 악명 높은 이단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는데, 이에 루터는 교황과 주교들을 대적해 노골적으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황 세력들의 권위를 경멸하도록 교황의 교서를 대적하는 책과 “주교들의 위계”라 불리는 성직위계에 대항하는 책을 1522 년 각각 한 권씩 집필했다. 또 독일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출간했는데, 후에 루터 자신과 멜란히톤(Melanchthon)에 의해 교열되었다.

1527 년 루터는 심장 부위의 혈액이 갑자기 응고되는 바람에 하마터면 숨이 끊어질 뻔했다. 1533 년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1530 년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발표한 신조)을 고수한 연유로 고난을 겪은 오샤츠(Oschatz) 시민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1534 년에는 그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그로부터 1 년 후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같은 해에 <미사와 사제들의 화체설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1537 년 2 월 슈말칼트(Smalkald)에서 종교 문제를 둘러싼 회합이 열렸을 때 멜란히톤과 함께 부름받았는데, 모임에 참석한 루터는 몹시 심한 병에 걸려 다시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남긴 유언에서 로마카톨릭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그의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듯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에 전념한 루터는 1546 년 2 월 18 일 예순셋을 일기로 생을 마감하며,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을 에워싼 이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두세 번 열린 적이 있는 트렌트 공회와 교황이 복음을 거슬러 이상한 것들을 고안해 낼 것이기 때문이오.” 오전 9 시가 되기 전, 자신의 임종 시간이 다가오는 걸 느낀 루터는 경건한 기도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의탁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나이다. 저는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저의 생명과 건강과 구속으로서 사랑했지만, 그 악한 자는 그분을 박해하고, 욕하고, 상처를 입히며 괴롭혔나이다. 제 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 그는 다음처럼 세 번 연달아 말한 뒤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게 되었다. “저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오 진리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를 구속해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제 10 장 - 독일의 일반적인 박해

바이블파워

독일에서 일어난 총체적인 박해는 주로 마틴 루터의 교리와 사역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는 그 용기있는 개혁자가 거두는 성공을 너무도 두려워하던 교황이 황제 샤를 5 세를 그들을 근절시키려는 음모에 끌어들이기로 좌우간에 결심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현금으로 200,000 크로나를 황제에게 주었고, 12,000 명의 보병과 5,000 두의 말을 6 개월 동안, 즉 원정 기간에 보유토록 해줄 것을 약속했는가 하면, 황제가 전쟁 기간 동안에 성직자들의 총수입의 절반을 가져가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그가 대수도원의 부지들을 500,000 크로나에 저당잡히게 해서 그 돈을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전쟁 수행에 보태는 일을 허용했다.

이렇게 자극되고 지원받은 황제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뿌리 뽑는 일을 떠맡았는데, 사실 그 자신도 그들에 대해 특히나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으며, 이 목적을 위해 가공할 병력이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일으켜졌다.

한편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은 임박한 공격을 격퇴키 위해 강력한 연합을 구축하였다. 거대한 군대가 일으켜졌고, 군 통솔권이 색소니 선거후와 헤세 란트그라프[landgrave of Hesse, '란트그라프'는 중세 독일의 백작영주를 가리키는 호칭이다.]에게 주어졌다. 황제의 군대는 독일 황제가 직접 지휘했으며, 유럽의 모든 눈이 이 전쟁에 쏠리게 되었다.

드디어 군대들이 맞붙어 죽음을 무릅쓴 교전이 뒤를 이었으니,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들이 패배하여 색소니 선거후와 헤세 란트그라프 모두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 치명적인 공격에 이어 무시무시한 박해가 뒤따랐다. 그것의 가혹한 행위들이 어찌나 지독했던지 추방은 그래도 가벼운 처벌로 여겨졌고, 음산한 숲길에 은닉해 있는 게 행복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한 때에 동굴은 으리으리한 궁전이요, 바위는 보송보송한 오리털 침대, 그리고 야생 뿌리들은 그야말로 천하의 진미였으니 그 박해가 어떠했는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불잡힌 사람들은 지옥처럼 무시무시한 상상력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들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절개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갖 위험을 넘어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헨리 보에스(Henry Voes)와 존 에스흐(John Esch)는 프로테스탄트로서 불잡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왔다.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 답변하던 보에스는 행정관의 지시로 그들을 조사하던 한 사제의 몇몇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사제 : 당신 둘은 모두 수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회의 수사들이 아니었던가?

보에스 : 그랬소이다.

사제 :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의 품을 떠나게 되었는가?

보에스 : 그것의 혐오스런 작태 때문이었소.

사제 :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보에스 : 신, 구약 성경을 믿고 있소이다.

사제 : 당신들은 교부들의 글과 공회들의 법령을 믿는가?

보에스 : 물론이오. 다만 그것들이 성경과 일치할 경우에만 그렇소이다.

사제 : 마틴 루터가 당신 둘을 유혹하진 않았소?

보에스 :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유혹'하신 것이라면, 그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유혹했소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덧없다는 것과 참으로 가치있는 것은 우리의 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말이외다.

조사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 그들은 모두 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순교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는 용맹스런 불굴의 정신으로 이내 고난을 당했던 것이다.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던 경건한 설교자 헨리 수트펜(Henry Sutphen)은 한밤중에 침대에서 끌려나와 적지않은 길을 맨발로 걷도록 강요당한 끝에 양발바닥이 끔찍하게 찢어지고 말았다. 그는 타고 갈 말을 원했지만, 그를 안내하던 자들은 그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단에게 말이라니! 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이단들은 그냥

맨발로 걷게 돼 있다구.”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처형을 받는 동안 수많은 모욕을 당했는데, 이는 참관하고 있던 자들이 그가 불길 속에 고통당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처참한 방법으로 그를 베고 난도질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레(Halle)에서 살해되었다. 강습당해 점령된 미들레부르크(Middleburg)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전원이 칼에 죽임을 당했고, 비엔나(Vienna)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불에 태워졌다.

어떤 목사를 죽이기 위해 장교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그 목사의 자택에 도착하자 별다른 목적 없이 한 번 들러 본 척했다. 김새를 못 챜 목사는 그를 손님이라 생각하고 다정스럽게 맞아들였다. 드디어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장교는 수행원 몇 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 목사를 잡아 목매달아라.” 그러나 목사가 보여 준 정중함에 심히 충격을 받은 그들이 머뭇거리며 상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자,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환대의 법칙을 깨뜨림으로써 당신들의 양심에 남게 될 그 찌르는 듯한 고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시오.” 그럼에도 장교는 복종을 고집했고, 수행원들은 마지못해 하며 형 집행인들의 혐오스런 임무를 수행했다.

스칼렛(Schalet)이라는 마을의 경건한 신학자인 피터 스펡글러(Peter Spengler)는 강물에 던져져 죽었다. 그들은 그를 그의 무덤이 될 강둑으로 데려가기에 앞서, 먼저 그를 시장바닥으로 끌고 가 사람들이 그의 범 죄를 분명히 알도록 했는데, 그 범 죄란 다른 아닌 미사를 드리지 않고, 고해를 하지 않고, 화체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의식이 끝난 후, 그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난 설교를 전했으며, 사람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그것을 매듭지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수형이 내려진 어느 프로테스탄트 신사는 형장으로 기분 좋게 걸어갔다. 그러자 한 수사가 그에게 다가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을 몹시 주저하는 눈친데, 여기 내 귀에 대고 나한테만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죄들을 사면해 주리이다.” 이에 그 신사는 다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수사 양반, 날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난 이미 내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면죄를 얻었소이다.” 그리고 나서 형 집행인에게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날 괴롭히게 하지 말고 어서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이에 그의 머리가 한 칼에 떨어져 나갔다.

울프강 스쿠흐(Wolfgang Scuch)와 존 휴글린(John Huglin), 이 두 덕망있는 목사는 뵘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Wertembergh)의 학생인 레오나르드 카이제르(Leonard Keyser)와 마찬가지로 불살라졌다. 바이에른(Bavaria) 사람 게오르게 카르펜테르(George Carpenter)는 프로테스탄트 신앙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여러 해 동안 누그러졌던 독일에서의 박해가 1630 년에 다시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황제와 스웨덴 국왕 사이의 전쟁 때문이었다. 후자가 프로테스탄트 군주였으니, 당연히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그의 대의명분을 지지했을 터이고, 아닌게아니라 이것이 황제를 격분케 하여 그들을 대적토록 했던 것이다.

파세워크(Passewalk)(이것은 스웨덴 병력이 방어했다)를 포위한 황제의 군대는 그것을 맹공격으로 점령하여 무시무시하기 짝없는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들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집들을 불태웠는가 하면, 재산을 약탈하고, 목사들을 학살하고, 주둔군을 칼로 베고, 마을 사람을 목매달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목졸라 죽이는 등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피가 낭자한 아주 살벌한 비극이 1631 년에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서 일어났다. 툴리(Tilly)와 파펜하임(Pappenheim) 장군이 그 프로테스탄트 도시를 강습하여 점령하니, 2,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분,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대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6,000 명은 엘베(Elbe) 강을 건너 도망치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 격분이 수그러들자, 그후 남겨진 거주민들은 발가벗겨져 가혹하게 채찍질당하고, 그들의 귀가 잘리고, 황소처럼 함께 멩에를 메고서 거리를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혹스터(Hoxter)읍은 로마카톨릭 군대에게 빼앗겨 수비대뿐 아니라 모든 거주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으며, 심지어 집들에는 불이 놓여져 시신들이 불길에 타 들어갔다.

그리펜베르크(Griphenberg)에서는 황제의 병력이 우세를 떨쳤는데, 그때 그들은 의원들을 의사당에 가둬 놓고서 그것을 불 붙여진 짚으로 빙 둘러 그들을 질식사시켰다.

프라넨달(Franhental)은 항복을 조건으로 무릎 꿇었으나, 그곳의 거주민들은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잔인하게 다루어졌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굶어 죽었다.



제 11 장 - 네덜란드의 박해에 대한 설명

네덜란드에서 자행된 박해들

복음의 빛이 네덜란드에서 성공적으로 비추이자, 교황은 황제를 자극하여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박해를 개시하게 했다. 이 때 수천 명이나 되는 이들이 미신에 사로잡힌 악의와 짐승 같은 편협함에 희생되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들은 다음과 같았다.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과부 웬델리누타(Wendelinuta)는 그녀의 신앙 때문에 체포되었는데, 그때 몇몇 수도승들은 애써 그녀를 설득하여 신앙을 철회토록 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녀를 이길 방도를 찾지 못하던 차에, 그녀와 친분이 있는 한 로마카톨릭 부인이 그녀가 갇혀 있는 지하 감옥에 들여보내 주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있는 힘껏 노력하여 그 죄수가 개혁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지하 감옥으로 들여보내진 그녀는 자신이 떠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웬델리누타, 만약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거든, 최소한 당신의 가슴 속에서 남몰래 고백하는 것들을 지켜서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해 봐요.” 이에 그 과부는 이렇게 대꾸했다. “부인, 당신은 자신이 무얼 말하고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신앙 철회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녀 자신은 화형을 선고받았다. 형장에서 한 수도승이 그녀에게 십자가를 들이밀며 하나님께 입 맞추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그녀는 다음처럼 대답했다. “내가 경배드리는 분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따위 나무 쪼가리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그녀는 그후 처형되었다. 하나 이전에 언급했던 그 로마카톨릭 부인의 부탁으로 그녀에게 호의가 베풀어졌는데, 그녀는 불이 나뭇단에 놓이기 전에 먼저 목졸려 죽임을 당해 불에 타는 고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콜렌(Colen)에서 불태워졌고, 니콜라스(Nicholas)라는 이름의 안트워프(Antwerp)의 상인은 부대 속에 놓여져 그것의 주둥이가 봉해진 채 강에

던져졌다. 학문을 갈고 닦던 피스토리우스(Pistorius)라는 학생은 광대 복장을 하고서 네덜란드인 마을의 시장으로 끌려가 불길에 넘겨졌다.

참수형에 처하라는 선고가 16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떨어진 후, 한 프로테스탄트 목사에게 형 집행에 참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신사는 자신의 임무를 그야말로 적절하게 수행하여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들의 구세주 안에 있는 자비로 그들을 위로했다. 그 16 명이 참수되기가 무섭게 집행관이 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외쳤다. “아직 한 차례 더 남아 있다. 너는 그 목사의 목을 잘라야 한다. 것처럼 빼어난 훈계가 그의 입에 담겨 있고 그토록 칭찬할 만한 본보기들이 그의 눈앞에 있는데, 이보다 죽기 좋은 시기가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비록 수많은 로마카톨릭 교도들이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는 불필요한 잔인함에 혀를 차며 직접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명령에 따라 참수당하고 말았다.

살즈부르크의 목사인 조지 셔터(George Scherter)는 그의 양무리에게 복음의 지식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넘겨졌다. 그는 감금되어 있는 동안 믿음의 고백을 글로 썼는데, 얼마 안있어 이 일 때문에 처음엔 참수하고 그 다음엔 불태워 재로 만들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장으로 가는 길에 구경꾼들에게 다음같이 말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표적을 보여 주리이다.” 이것은 실제로 아주 보기 드문 방법으로 증명되었는데, 아닌게아니라 그의 머리가 잘려 떨어진 후 잠깐 동안 배를 땅바닥에 대고 있던 몸통이 갑자기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눕더니 오른발을 왼발 위로 엇걸고 오른팔도 왼팔 위로 엇걸어 이런 식으로 불길에 넘겨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루비아나(Louviana)에서는 퍼시널(Percinal)이라는 학식있는 남자가 감옥에서 살해당했고, 저스투스 인스파그(Justus Insparg)는 루터의 설교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참수당했다. 브루셀즈(Brussels)의 칼장수 질레스 킬레만(Giles Tilleman)은 인정이 가득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과 함께 체포되었으며, 수도승들은 그가 신앙을 부인토록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 번은 우연히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난 단지 간수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요. 만일 내가 저 멀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내가 없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을 거요.” 화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는 순교를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형장에 상당히 많은 양의 나뭇단이 준비된 것을 알아차린 그는 그것들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날 태워 없앨 것이요.” 형 집행인은 불이 붙여지기 전에 그를 목졸라 죽일 것을 제안했으나, 그는 자신은 불 따윈 신경도 쓰지 않는다며 그에 동의하려 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도 불길 가운데서 너무도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가 그 뜨거운 불길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1543 년과 1544 년에 플랑드르(Flanders) 전역에 걸쳐 매우 난폭하고 잔인한 박해가 자행되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추방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수형, 익사, 감금, 화형, 고문대로 죽거나, 생매장당해 죽임을 당했다.

열성파 프로테스탄트 존 드 보스케인(John de Boscane)은 그의 믿음 때문에 안트워프 시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석에 선 그가 자신은 개혁 신앙을 소유한 자라는 고백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즉결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집행관은 그를 공개적으로 사형시키기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가 심히 아낌없는 마음씨로 평판이 자자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과 타의 모범이 되는 경건함으로 거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적이고 은밀한 형 집행이 결정되었고, 그를 감옥에서 익사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형 집행인은 명령에 따라 그를 커다란 욕조 속에 집어넣었지만, 보스케인이 격렬히 몸부림치며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바람에 그를 단검으로 찌르고 또 찢러 죽이고 말았다.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 존 드 뷔손즈(John de Buisons)는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은밀히 체포되어 안트워프에서 남몰래 처형되었다. 그 도시에는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가 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걸 안 집행관은 폭동이 두려워 그를 감옥에서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A.D. 1568 년 세 사람이 안트워프에서 체포되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스코블란트(Scoblant), 휴즈(Hues) 그리고 쿠만즈(Coomans)였다.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굉장히 깨끗하고 쾌활하게 처신했다. 그들은 몇몇 덕망있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박해당하는 것이 전능하신 분의 뜻이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복종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할 때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비록 육신은 영을 거슬러 대적하여 그 옛 뱀의 종교회의에 귀를 기울인다 해도, 복음의 진리들은 그런 충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이 있기에 갇혀 있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에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갇혀 있어도 행복하고, 우리의 족쇄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겨진다는 사실에 기뻐 합니다. 우리는 풀려 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꺾이지 않고 견뎌 내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구하지 않고 인내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의 처지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순교의 면류관이 씌워질 그 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블란트가 제일 먼저 재판석에 끌려 왔는데, 그때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굽히지 않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어떤 수사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간수에게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면서 나의 맘을 심히 분란케만 할 겁니다. 나는 내 구원이 이미 하늘에 인쳐져 있기를 바라고, 내가 확고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악들로부터 나를 씻어 냈기를 소원합니다. 난 영원한 영광으로 옷 입기 위해 이제 이 흙 싸개를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난 그것이 지닌 천상의 찬란함으로 인해 모든 오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난 내가 교황의 폭정에 순교당한 마지막 사람이 되고, 이미 흘러진 피가 교황주의자들의 타 들어가는 잔인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걸로 드러나서, 주님의 종들이 장차 누릴 그 안식을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처형이 있는 날, 그는 동료 죄수들에게 가슴 아픈 작별을

고했다. 화형대에 묶인 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뜨겁게 암송하고서 시편 40 편을 노래했다. 그후 그는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산 채로 불살라졌다.

휴즈도 얼마 안있어 감옥에서 죽었다. 쿠만즈는 이 일에 관해 그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난 지금 내 친구들과 동료들을 빼앗겼다네. 스코블란트는 순교했고, 휴즈는 주께서 데려가셨지.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가? 내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니 말이야. 그분은 내 위로자시고, 내 보상이 되어 주실 것이네. 이제는 이 진흙 집에 거할 시간도 한시간 한시간 사라지리란 생각이 드니, 나를 끝까지 강건케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길 바라네.”

자신이 재판받을 차례가 되자, 그는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떳떳하게 고백했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비난에 대해서는 남자답고 깨끗하게 대답했으며, 복음에 따른 그의 답변들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으로 증명해 주었다. 재판관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 포기와 죽음 둘 중에 하나라고 일러 준 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당신은 당신이 고백하는 믿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가?” 이에 쿠만즈가 답변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죽는 것도 마다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들도 기꺼이 당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면, 난 그것의 확실한 증거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을 테니 말이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장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그는 가장 남자답고 깨끗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종(忍從)을 보이며 죽음을 맞아들였다.

낫소(Nassau)의 윌리엄(William)은 배반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 쉰한 살에 프란체 콤프테(Franche Compte) 태생의 벨타자 게라드(Beltazar Gerard)에 의해 브루군디(Brugundy)에서 암살당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살인자는 스페인 국왕의 대적과 카톨릭 종교의 원수를 죽여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보상에 눈독을 들이며 오렌지 공작(duke of Orange)을 죽이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소형 화기를 몸에 지닌 그는 그가 저녁 식사를 위해 그의 관저의 커다란 현관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다 출입증을 요구했다. 그 암살자가 알아듣기 힘든 흐리멍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오렌지 공작부인은 그의 차림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공작은 이 때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출입증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전에는 별 다른 일이 없었지만, 사건은 식사를 마친 공작과 공작부인이 앞서 말한 현관을 지나 돌아갈 때 일어났다. 한 기둥 옆에 최대한 몸을 숨기고 서 있던 암살자가 공작을 향해 총을 쏘자, 탄환들이 왼편 옆구리를 관통해 오른편으로 빠져 나가면서 위장과 급소들에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부상을 입자마자 공작은 “주여, 저의 혼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그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만을 내뱉고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오렌지 공작의 죽음으로 인해 연합 주(州)(United Province) 전역에 큰 슬픔이 일었다. 현장에서 붙들린 암살자에게는 경중 차원에서 본때를 보여 주기 위해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그는 열정이라 해야 할지 어리석음이라 해야 할지 모를 그것이 너무도 지독한 탓에 시뻘겋게 달궈진 펜치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데도 다음과 같이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만일 풀려났다면, 난 그런 짓을 또다시 저질렀을 것이다.”

오렌지 공작의 장례식은 로우 컨트리즈(Low Countries)에서 그 때까지 가장 엄숙하게 치러진 것이었으며, 아마도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 또한 가장 진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그에게 돌려져 마땅한 인격, 곧 백성들의 아버지로서의 인격을 뒤에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플랑드르의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 살해되었는데, 특히 발렌스(Valence) 시에서는 하루 동안 57 명이나 되는 주요 거주자들이 로마카톨릭 미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짐승처럼 학살당했으며,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감금되어 혹독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제 12 장 - 하나님의 참된 종이자 그분의 순교자인

윌리엄 틴데일의 삶과 이야기

순교자 윌리엄 틴데일은 교황과 같은 오만한 성직자들의 뿌리와 기반을 흔드는데 쓰인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주께서 선정하신 특별한 지체였다. 어둠의 통치자는 틴데일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를 배반하고 그의 생명의 피를 불의하게 흘렸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인 윌리엄 틴데일은 왈레스 지방 근처에서 태어나서 어릴때부터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육받았다. 거기서 그는 어학과 다른 교양 과목들을 배웠으며, 특히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에 몰두했던 그는 몇몇 학생들과 마그달렌 대학 동료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해 주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은 그가 참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며 흠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인정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더 깊이 쌓아갔다. 자기 아이들의 교장인 윌치의 집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집사들과, 여러

박사들, 그리고 유명한 성직자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루터와 에라스무스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성경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는 점들과 의문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틴데일은 자신의 판단을 그들에게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들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때면 그는 언제나 성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보여주곤 했으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오류를 논박했고 자신의 말을 확증시켰다. 그리하여 틴데일과 여러 차례에 걸친 논쟁을 경험한 그들은 마침내 틴데일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기에 이르렀다.

사제들은 선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함께 모여 그가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비밀리에 틴데일을 교회법 고문과 다른 주교의 관리들에게 고소하였다.

이 일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주교의 교회법 고문이 임명되었고 사제들에게 출두 경고가 내려졌으며 틴데일도 같은 명령을 받았다.

그가 교회법 고문관 앞에 서자 그는 틴데일을 심하게 위협하였고 고소자도 없는 많은 일로 그를 비난했다. 그리하여 틴데일은 그들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서 그의 스승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주교의 고문관이었던 사람으로 틴데일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틴데일은 그에게 가서 성경의 여러가지 문제에 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 놓았다. 그 의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성경이 그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말조심하게.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걸세.”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틴데일은 우연히 어떤 신학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는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의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낫지.”라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에 틴데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차서 참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을 무시하는 바이며, 차라리 쟁기를 끄는 소년이 그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오.”

틴데일에 대한 불평은 점점 더해갔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틴데일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일로 그를 고소했다. 많은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는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런던으로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설교하게 되었다.

런던의 험프리 뭉무스의 집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다. 거의 1년 정도를 런던에 머물면서 그는 설교자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교만했으며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고위 성직자들은 호화스런 삶을 누리고 있었다.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어디서든 신약을 번역할 만한 곳이 없음을 알고 그는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독일로 떠났다. 거기서 틴데일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열성과 관심에 불타서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국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자 했다. 그러던중 성경이 일반 언어로

번역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눈 앞에 그들의 모국어로 제시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본문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평민들을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친다 해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궤변과 그들 자신의 전통으로 진리를 덮어버리거나 본문을 속여서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이었다.

틴데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눈에서 가리워진 것이 교회내의 모든 불행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바리새적인 성직자들이 행한 가증스런 행위들과 우상숭배가 식별하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궤변으로 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성경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들의 행위를 경멸하는 자들을 옹아매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마음 속으로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미묘한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는 없게끔 만든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틴데일은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찼다. 먼저 신약에 손을 대어서 A.D.1525 년경에 출판되게 되었다. 런던의 주교인 그스버트 톤스톨과 토마스 모오경은 너무나 분개해서 이 “거짓되고 실수투성이의” 번역을 파기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팩킹톤은 그같은 주교의 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성경을 얻어다 주겠다고 말했다. 주교는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그것을 다 입수해서 불태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부탁했다. 오거스틴 팩킹톤은 이 모든 일을 윌리엄 틴데일과 상의했다. 그리하여 팩킹톤과 틴데일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을 모르는 런던 주교는 남은 모든 성경을 입수했고 팩킹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결과적으로 틴데일은 돈을 얻게 되었다.

이 일 후에 틴데일은 신약을 다시 수정하고 새롭게 인쇄해서 초판의 세 배나 되는 양의 성경을 영국으로 보냈다. 주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팩킹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많은 신약이 해외로 나가다니. 자네가 성경 모두를 내게 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이에 팩킹톤은 “분명 나는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들이 활자와 압인기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압인기까지 다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에 주교는 웃었고 그래서 그 문제는 거기서 일단락 되었다.

얼마 후에 조오지 콘스탄틴이 그때 당시 영국의 교회법 고문이었던 토마스 모어경에게 이단 혐의로 체포되었다. 모어경은 그에게 물었다. “콘스탄틴! 내가 묻는 한 가지에 솔직히 답변해 주기 바라네. 그러면 자네가 고소된 다른 모든 것에는 호의를 베풀 것을 약속하네. 바다 너머에 틴데일 일당이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누군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이들이 있는 게 분명한데, 자네는 그들 중 하나이니 돈의 출처를 알고 있을 걸세. 그들을 돕는 자들이 누구인가?” 콘스탄틴은 대답했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겠소. 우리를 도운 사람은 런던의 주교요. 그가 신약을 불태우기 위해 그 값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소. 과거에도, 또 현재도 그가 우리의 유일한 후원자이며 위로자요.”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지. 주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교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라고 모어는 말했다.

그 일 후에 틴데일은 구약번역에 착수했으며 모세오경을 끝마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서문을 작성했다. 이 책이 영국으로 보내졌다. 그것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영국 전국민에게 얼마나 큰 빛이 되었는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틴데일은 루터와 다른 학식있는 사람들과 독일에서 회합한 후 다시 네덜란드로 떠났다.

틴데일의 신학서적들, 특히 신약 번역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해외로까지 퍼져 나갔으며 경건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들은(대중들이 자신들보다 더 현명하게 되는 것을 시기했으며, 진리의 찬란한 빛으로 자신들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적지 않은 소요를 일으켰다.

틴데일은 신명기를 번역하고서 햄버그에서 인쇄할 것을 계획하고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홀란드 해변에서 배가 난파하는 바람에 그는 모든 책들과,

저술들과 복사본들과 돈과 시간을 다 잃고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는 다른 배로 햄버그에 갔다. 거기서 약속대로 커버데일이 그를 기다렸으며 모세오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 일은 부활절에서 12월까지 계속되었으며 A.D.1529년 마가렛 밴 엠머슨 부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성직자들은 그 책이 보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 성경은 수천에 달하는 이단적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정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평민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이들은 성경이 그들 모두를 이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통치자들을 그들의 목적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왕에게 반역하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빼앗고자 하는 영국 성직자들의 패역한 책략은 너무나 엄청났다.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는 것도 견디지를 못했다. (틴데일이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세상을 어둠속에 가두어 두고, 헛된 미신과 가짜 교리로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만족시키며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추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왕의 동의를 기어코 얻어냈으며 서둘러 선언문을 작성하고 공표해서 틴데일의 번역 성경을 금지시켰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런던의 등기부에서 주교들과 토마스 모어경은 틴데일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조사했다. 틴데일이 어디서 누구와 모였으며, 그 집이 어디 있으며, 그의 키는 얼마며, 외출할 때는 어떤 옷을 입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들은 틴데일을 파멸시키기 위한 그물을 한올 한올 엮어갔던 것이다.

윌리엄 틴데일은 앤트워프 시에 머물면서 토마스 폰츠의 집에 약 1년을 유숙했다. 그곳으로 헨리 필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어떤 숨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틴데일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수단을 통해 헨리 필립은 그와 안면을 트게 되었고 곧 틴데일은 그를 크게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와 한두번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틴데일은 그와 더 깊은 우정을 갖게 되었고 그를 폰츠의 집에 머물도록 주선하였으며 그에게 자신의 책들과 다른 중요한 연구물들을 보여 주었다. 틴데일은 이 반역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폰츠는 이 친구를 그리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틴데일에게 필립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틴데일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며 상당히 학식이 있고 매우 유순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폰츠는 틴데일이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의 친구들 중의 하나의 소개로 가까워졌으리라 생각하고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폰츠는 앤트워프에서 18마일 떨어진 바로이스 시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한 달이나 6주 정도 일을 보게 되었다. 그가 없는 동안 헨리 필립은 폰츠의 집으로 가서 그의 부인에게 틴데일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후 그는 다시 가서 브루셀에서, 그가 데려온 장교들을 집근처와 거리에 배치했다. 정오쯤에 그는 틴데일에게 가서 함께 저녁을 들자고 했다.

저녁식사 시간이 되자 틴데일은 필립과 함께 나갔다. 폰츠의 집을 나가는 길은 길고 입구가 좁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갈 수가 없었다. 틴데일은 자기 앞에 필립을 가게 했으나 필립은 겸손을 가장해서 틴데일을 자기 앞에 가게 했다. 틴데일은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 갔으며 키가 큰 필립이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문 양편에 장교들을 배치시켜 놓았던 것이다. 뒤에 선 필립은 틴데일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장교들에게 데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었다. 장교들은 그를 감옥에 가둔 후에 폰츠에게 틴데일의 단순함에 동정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황제의 변호사에게 데려갔으며 그 다음은 행정고문관이 폰츠의 집에 와서 책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 틴데일은 앤트워프에서 18마일 떨어진

빌보데 성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서 틴데일은 변호사를 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자신이 답변하겠다며 거절했다. 그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설교했으며, 성안에서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많은 논의 끝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황제의 칙령으로 오그스버그 모임에서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D. 1536년 빌보레 시에서 화형당했다. 화형대에서 그는 큰소리로 외쳤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의 교리와 삶의 성실성은 그가 감금되어있는 동안(1년 반의 기간) 그가 간수와 간수의 딸과 그의 다른 가족들을 회심시켰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의 적들은 그의 번역이 이단적 교리들로 가득차다며 심하게 트집을 잡아댔다. 틴데일은 존 프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결코 내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의 단 한 자도 변개시키지 않았으며, 지상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부를 내게 다 준다 해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틴데일의 삶과 이야기

틴데일 경은 성경이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감춰졌다는 이 사실만을, 즉 거의 이 사실만을 교회 내의 모든 해악의 원인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너무도 오랫동안 위선적인 성직자들의 가증스런 행위들과 우상 숭배를 찾아낼 수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이 손발을 아끼지 않고 사력을 다해 성경을 억눌러 전혀 읽혀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설령 읽혀진다 해도 그들의 궤변이 뿜어 내는 뿌연 안개로 그것의 올바른 의미를 흐려 놓아 혐오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당사자들을 몹시 당황케 하였는가 하면, 그들이 구절의 의미와는 딴판으로 그들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왜곡시켜 배우지 못한 평신도들을 심히 현혹시키는지라, 비록 당신이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묘한 수수께끼들을 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들과 그와 같은 다른 속고들로 인해 이 선한 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성경을 그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고국의 무지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 주었다. 다시 말해 신약성경을 찍기 위해 준비된 첫 번째 식자(植字)가 A.D. 1525 년 즈음 인쇄되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분노로 달아오르던 런던 주교 쿠스버트 톤스털과 토마스 모어(Thomas Moore) 경은 그들이 저 '오류투성이의 거짓 번역물'이라 부르는 것을 파괴시킬 방도를 궁리해 냈다.

당시 그 주교가 있던 안트워프에는 어거스틴 패킹턴(Augustine Packington)이라는 한 직물상이 살고 있었다. 이 사내는 틴데일에게는 호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주교에게는 정반대였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던 주교는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신약성경들을 만족스럽게 사들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패킹턴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하! 전 그것이 각하께 기쁨이 된다면야 이곳에 있는 대다수의 상인들보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틴데일에게서 그것들을 사들인 네덜란드인들과 외국인들이 그것들을 이곳에서 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하의 의향이 그러하시다면, 전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이 없으면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인쇄되어 안 팔린 것은 죄다 각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발끝"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온화한 패킹턴 경, 서둘러 일을 거행하십시오! 내게 어서 그것들을 사다 주시게. 비용이 얼마가 들든 내가 다 지불하리다. 난 그것들을 죄다 바울의 십자가(Paul's Cross)에서 불태울 작정이니 말ियो." 이 사람 어거스틴 패킹턴은 곧장 윌리엄 틴데일에게 가서 일의 전말을 낱낱이 알려 주었고,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 런던 주교는 성경들을 손에 넣고, 패킹턴은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틴데일은 돈을 쥐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틴데일은 동일한 신약성경을 다시 교정 보아 새롭게 찍어 내었고, 그 결과 그것들은 세 배로 두꺼워진 영어 성경이 되어 나왔다. 그것을 알아차린 주교는 패킹턴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신약성경이 엄청나게 퍼져 있으니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यो? 그것들을 다 사들일 거라고 내게 약속했잖소." 그러자 패킹턴이 대답했다. "물론, 전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죄다 사들였습쇼. 하나 이후로 그들이 더 많이 찍어 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보니 그들이 활자와 판목(版木)을 가지고

있는 한 종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하께선 차라리 판목들도 사들여서 일을 확실히 해 두시는 게 좋은 듯싶습니다.” 이 대답에 주교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얼마 후, 때마침 조지 콘스탄틴(George Constantine)이 이단으로 의심받아 당시 영국의 종교법 고문관으로 있던 토마스 모어 경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모어 경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콘스탄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물어볼 한 가지에 대해 당신이 내게 솔직해 줬으면 하오. 순순히 응해 준다면 당신을 고소한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오. 저 바다 건너에는 틴데일, 조이(Joye) 그리고 당신네 수많은 이들이 있고, 난 그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소. 다시 말해, 그들에게 돈을 대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데, 그들 중 하나인 당신은 거기서 당신의 몫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 돈이 어디서 흘러드는지 잘 알고 있을 게요. 바라건대 내게 말해 주시오. 이처럼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게 대체 누구요?” “각하,” 콘스탄틴이 말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이는 바로 런던 주교입니다. 신약성경을 사서 불태우라고 그가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렸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원조와 위로가 되었고, 그 일은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어가 말했다. “과연 맹세코 내 생각이 바로 그거였소. 주교가 그 일에 손대기 전에 누차 경고했는데도 그놈의 고집 때문에 올 게 오고야 말았구료.”

그 일이 있던 후, 틴데일은 구약성경 번역에 착수하여 모세오경을 끝냈으며, 거기에 학식이 철철 넘치고 경건하여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읽고 또 읽어도 부족할 만큼 매우 훌륭한 갖가지 서문들을 달아 놓았다. 이 성경들이 영국으로 보내졌을 때, 그것들이 이전에 흑암 속에 갇혀 있던 온 영국민들의 눈에 열어 주었던 그 빛의 문이 어떠했는지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 고국을 떠났을 때 그는 독일로 여정을 밟았으며, 그곳에서 루터와 여타 학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거기서 일정 기간을 계속 머무르다 후에 네덜란드로 내려와 안트워프에서 대부분의 거처를 정했다.

틴데일의 경건 서적들, 특히 그가 번역한 신약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널리 보급되자, 그것은 성도들에게 유례 없이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지는 것을 시기하고 경멸할 뿐 아니라, 눈부시게 내리꽂는 진리의 광선에 그들의 흑암의 일들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며) 갖은 법석을 떨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틴데일이 신명기를 번역하고 그것을 함부르크(Hamburg)에서 간행할 작정으로 그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을 때, 그가 탄 배가 네덜란드 연안에서 좌초하고 말았다. 그는 이로 인해 그의 모든 책들과 저작집, 인쇄 원고들 그리고 가진 돈과 시간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배를 갈아타고서 함부르크에 도착했고, 거기엔 약속대로 커버데일(Coverdale) 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버데일은 그가 모세오경 전 권을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이 일은 부활절에서 12 월까지 신앙심 깊은 과부 마가레트 밴 에머슨(Margaret Van Emmerson) 여사의 집에서 A.D. 1529 년에 이루어졌다. 같은 시기에 그 도시에서는 굉장한 발한성 질병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함부르크에서의 자신의 일을 신속히 처리하고서 안트워프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언어로 된 신약성경을 널리 보급시키고자 하셨을 때, 그것의 번역자인 틴데일은 성경의 맨 후미에 어떤 서간을 덧붙였는데, 그 안에는 무언가 잘못되게 발견되면 학식있는 이들이 수정해 달라는 그의 바람이 적혀 있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수정을 가할 만한 실수가 있어서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학식을 이용해 그 안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바로잡았다면, 그것은 예의 있고 친절한 행위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경이 널리 보급되는 것을 꺼려 하던 성직자들은 그것 안에 수없이 많은 이단 교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할 게 아니라 발매를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며 그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평신도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이 그들 모두를 이단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 속세의 통치자들을 끌어들이는 작정으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거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틴데일은 모세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앞 그의 서문에 직접 천명했으며, 다음의 사실 또한 덧붙여 보여 준다. 즉 그들이 그 번역을 검토하고 그것을

그들의 상상과 비교하는 데 들인 수고를 생각하면 기가 차는지라, 비록 그의 추측이지만, 그들이 만일 성경을 번역하려 했다면 그 일에 들인 수고의 일부만 가지고도 성경의 대부분을 번역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며, 또 그들이 모든 제목과 구두점을 한자 한자 이 잡듯 어찌나 꼼꼼하게 살펴보며 검토하던지 거기엔 ‘이’ 한 자라도 실수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만일 그의 이해력을 넘어서 번역이 불완전하다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여지없이 기록해 두었다가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단이라며 일일이 고자질했다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빛의 안내자가 되었어야 했을) 영국의 성직자들이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백성들을 저 멀리 내몰기 위해 고안한 당시의 심술궂은 계략들은 그 정도가 심해도 어지간히 심한 게 아니었는데, 그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그것을 번역하려 하기는커녕, 그것이 다른 이들에 의해 번역되는 것도 견디지 못해 했다. 여기엔 세상을 여전히 흑암 속에 가둬 둔 채 헛된 미신과 거짓 교리들로 백성들의 양심 위에 군림하여 자신들의 야망과 물릴 줄 모르는 탐욕을 만족시키고 왕과 황제 위에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그들의 음흉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왕이 그들에게 동의하기 전에는 한시도 다리 펴고 누워 있을 수 없었기에, 성명서가 눈 깜짝할 새에 작성되어 국가의 승인하에 공표되었다. 그 내용은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금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A.D. 1537 년경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를 그들의 그물에 걸려들게 하여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 하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될 것이다.



제 13 장 - 존 칼빈의 삶에 관한 기사

칼빈의 생애와 사상

1. 칼빈의 생애

칼빈(John Calvin, 1509. 7. 10-1564. 5. 27)은 루터보다 20 년 후에 프랑스 노용(Noyon)에서 서기관이었던 제라르 칼뱅(Gerard Calvin)의 아들로 태어났다. 칼빈은 칼뱅의 영어 음역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어릴 때는 교황 제도에 무조건 헌신했으며 교역자가 되기 위해 파리, 라미슈르, 몽테그 대학 등에서 신학을 연구했다. 그러나 부친 노용이 성직회에 불만을 품고 칼빈이 법률(法律)을 공부하도록 강권(強勸)하여 3 년간 법학(法學)을 배웠으나 부친이 별세한 후에는 다시 신학으로 되돌아 왔다. 1522 년 세네카의 저서 《관용론》(De Clementia)을 주석 출판하여 일약(一躍) 학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1533 년 파리 대학 장 니콜라스 코프(N. Cop)의 취임 연설문을 초안해 주었는데, 그 연설문에서 성직자들을 비난한 것이 화근이 되어 파리를 탈출, 방랑생활에 들어갔다. 방랑 기간 중 루이 드 틸레(Louis de Tillet)의 집에서 교부(敎父)들에 관한 광범위한 독서를 할 수 있었다.

1536 년에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를 출판하였다. 이 해 여름에 스트라스부르그로 공부하기 위해 가던 도중 제네바에서 화렐(Farel)을 만나 종교 개혁에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산 피엘(St. Rierre)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10 월 초 로잔에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공개 토론을 한 후 명성을 얻고 곧 교회 개혁을 시작했다. 칼빈은 특히 자녀 종교교육, 도덕적 훈련, 신앙고백 제정 등에 주력했다. 그러나 신앙고백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들의 강력한 반항과 반대파들이 시의회의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 1538 년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그에서 3 년간 머물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칼빈은 부처(Bucer) 및 독일 종교개혁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고, 여러 곳에서 종교 토론회에 참석하며 《로마서 주석》을 출간, 신학 교수 및 설교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했다. 또한 1540 년에 뷰레(Idelette de Bure)여사와 결혼을 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제네바는 로마 카톨릭 추기경 사돌레토(Jacopo Cardinal Sadoletto)가 제네바에 편지하여 로마 교황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므로 곤경(困境)에 처해 있었다. 결국 칼빈이 장문의 편지로 이에 답하여 제네바를 어려움에서 구출했으며(1539),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화를 겪은 제네바에서는 다시 칼빈을 초빙(招聘)하기에 이르렀다.

칼빈은 1541년 제네바에 오면서 곧 예배 모범을 기초하고 교회 법규 제정 위원을 두어 11월 20일에 초안을 200인 의회에 제출하여 가결하게 했다. 이것을 시행 감독하는 위원회를 ‘콘시스토리움’(Consistorium)이라고 하는데 교직회에서 12명, 소의회에서 2명, 60인 의회에서 4명, 200인 의회에서 6명씩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교회 법규의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개인을 바르게 하며 징계 대상자를 훈계하여 그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교회가 결코 죄를 경시(輕視)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요긴(要緊)하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고 댄스와 연극 등 향락 생활을 배격하고 특히 성도덕의 순결을 지키는데 비상한 노력을 지불했던 것이다.

교회 법규 강행의 철저함에 따라 반대를 유발(誘發)시켜 10년간 고투(苦鬪)가 시작되었는데 신앙과 생활의 엄격주의에 대한 반대, 신앙 사상 즉, 이단과의 고투이다.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의 범신론(汎神論)적 이단 사상으로 인해 그를 화형(火刑)시키도록 하는 시의회의 결정에 칼빈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제네바는 교회 도시로 변했고 오랫동안 유럽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의 아성으로 군림했다. 또한 학교를 설립하여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학생들을 개혁주의 정신으로 훈련시켰다.

칼빈의 업적을 종교 개혁자, 신학자, 저술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외에 다른 어떤 정권을 이용하는 일을 극히 삼가 했으며, 그의 청렴한 생활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칼빈은 학생 시절에 과도한 공부로 인해 소화기 만성 질환을 얻고 편도선, 결석증으로 1일 1식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학문연구를 쉬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말씀의 사역자’됨을 중히 여기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역대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熱烈)한 의도에서였다.

1564년 5월 17일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별세했다.

2. 칼빈의 신학

칼빈주의는 칼빈이 성경으로부터 신학적 체계를 수립한 것이며 종교개혁의 완성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주의는 교부들의 전통에 근거한다. 자유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거스틴과 칼빈은 기독교 주의 사상에다 새로운 교리를 창안해 낸 자이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선택, 예정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부들의 문헌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誤謬)이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오직 성경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초대 교회의 신학에 뿌리박고 있다. 초기 4세기 이후의 교부들을 연구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들 역시 칼빈의 업적으로 돌리고 있는 교리들을 성경에서 발견해 낸 것을 알 수 있다. 초대 교부들이 교리를 대성(大成)시키지 못한 것은 5세기 펠라기우스의 출현 시까지는 이렇다 할 이교(異敎)의 도전을 받지 못한 연고라고 할 수 있다. 4세기 이후의 신학적 결실이 어거스틴이요, 칼빈의 주류(主流)는 어거스틴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만큼 어거스틴-칼빈 신학은 독특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전통적인 노선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칼빈의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의 최정상(最頂上)이다. 칼빈 신학은 종교개혁이 약속한 것의 최종적인 성취이다. 루터의 위대한 힘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다. 루터는 독일인에게는 강하게 호소할 수 있었으나 보다 범세계적인 개혁을 요청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큰 호소력이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 면에서 볼 때 루터는 칼빈의 필요한 선구자였으며 칼빈의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실제적 인물이었다. 칼빈주의는 그 범위와 호소력이 국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루터, 부처(Bucer), 쾰링글리(Zwingli)의 노력의 총 결산이었다. 칼빈은 그들이 닦은 터 위에 보다 명석(明皙)하고 정확한 성경에 근거한 교리적 체계를 수립했다.

칼빈은 '주석의 왕자'로 불릴 만큼 성경 주석에 탁월(卓越)하며 사실 칼빈 이후의 신학이 다소간(多少間)에 칼빈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다른 개혁자들이 성경을 의존하는 마음이 희박한 듯이 보이는데 반해 칼빈은 성경 중심의 완숙(完熟)한 경지에 이르렀다. 칼빈은 쾰링글리와는 달리 철학을 완성하려는 동기도 없었으며, 루터처럼 영적

난제(難題)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은 칼빈으로 인해 열매를 맺고 교회는 성경적 전통을 되찾게 되었으며 중세 스콜라 철학의 축적된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제 14 장 - 1641 년 아일랜드 사람들의 대학살 사건의 전모

영국과 아일랜드의 박해에 관한 기록

찰스 1 세 치하에서 명의상의 가톨릭 대주교와 대성당 평의원 회장에 의한 아일랜드 성직자들이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1629년에는 가톨릭의 의식과 관례의 공적

인 행사를 금지시켜야만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가톨릭 신부가 더블린에 새로운 가톨릭 대학을 세웠다. 그들은 또한 나라 여기저기

에 사원들과 수녀원들을 계속 지어나갔고, 거기서 신부들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거기서부터 프랑스, 스페인, 플랑드르, 로렌, 로마 등지로 퍼져 나

갔다. 여기서 1641 년 오네일 가족과 그들의 추종자에 의해 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대계획이란 전국에서 동시에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모든 신교도들은 예

외 없이 다 살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끔찍한 대학살의 날은 가톨릭 예수회의 시조인 이그나티우스 로올라 축제일인 1641 년 10 월 23 일로 결정되었다. 전국 주요지역

의 주모자들은 투쟁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다. 그 계획의 실천은 영국에서 군대를 보내는 것이 더 어려울, 겨울이 가까워 올까지 연기되었다. 프랑스 신부 리슐리외 추기경이 음모자들에게 막대한 사람과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많은 아일랜드 장교들이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기꺼이 가톨릭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겠다는 강력한 확신을 표시했다. 이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날이 다가오자 이 나라의 수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음모가 오웬 오코넬이라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도는 다행히 보존되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이 유혈의 비극이 예방되지 못했다. p416

약속된 날 음모자들은 전국에서 무장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고, 그들에게 붙잡힌 신교도들은 살해되었다. 10 월 22 일 펠림 오네일 Phelim O'Neil 경은 찰르몬트

경을 방문하는 척하면서 먼저 그의 성 안에서 그를 사로잡고 그 앞에서 하인들을 죽이고 며칠 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냉혈 동물처럼 자신의 상관을 살해했다. 이

것은 1664 년 런던에서의 큰 음모를 계획한 므기르 경의 재판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다. 유허의 비극이 일단 시작되자 그것은 전국으로 퍼졌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

도 상관없이 없었다. 심지어 선천적으로 자신들의 고난이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연약한 여성들까지도 모든 잔악성을 자행하는 데에 남성들과 맞먹었다. 어린아이

들도 부모들의 본보기의 권유에 용기를 얻어 죽은 영국 어린이의 시체를 때릴 지경이었다. 주민들의 편리하게 잘 지어진 집들은 재가 되고 전부 파괴되어 버렸다. 불행한 집주인들이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타 버리고 말았다. 맹신적이고 무자비한 가톨릭 교

도들은 손을 피로 적시자마자 매일매일 끔찍한 비극을 되풀이했고, 전국에 걸쳐 신교도들은 전례없이 죽음으로써 그들의 격노에 희생되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데에, 가톨릭 예수회 사람들과 신부들과 수도사들에 의해 더욱더 선동되었다. 그들은 그 음모를 실천할 날에 대해 합의를 본 후 부하들에

게 빨리 그 위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라고 권고했다. 그들은 그것이 국가의 번영과 가톨릭의 진전을 가져 오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

나 평민들에게 신교도들은 이단이며 그들 사이에서 더 이상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국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개를 죽이는 것 이상의 죄

가 아니며 그들을 놓아주거나 보호해 주는 것은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p417

이상이 이 비할 나위 없는 대학살을 전반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가톨릭교도들이 롱포드 시와

성을 포위했을 때 신교도였던 그 성의 주민들은 관대한 대우를 조건으로 항복했다. 포위자들은 주민들이 나타나자마자 가장 무자비하게 그들을 공격했다. 그들의

신부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공격을 시작하라는 신호로 제일 먼저 영국인 신교 목사의 배를 갈랐다. 그 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살해했다. 어떤 이

들은 목이 매달렸고, 어떤 이들은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반란자들이 준비한 도끼에 머리를 맞아 죽었다. 가톨릭교도인

트리로니 남작은 수도사들로부터 충동을 받아 40 명 이상의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된 영국 신교도들을 향해, 칼에 찔려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그들은 후자를 택하고 준엄한 핍박자들의 무기에 못이겨 팔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턱이 올라

와 떠밀려 가더니 그 후 가라앉아 함께 죽어갔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마차 차축 위에 등을 대고 한 쪽으로는 다리가 늘어지게 하고 다른 한 쪽으로는 머리와 팔이

늘어지게 누인다. 그런 자세로 있을 때, 야만인 하나가 불행한 목표물의 넓적다리외 다리를 채찍질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와서 팔과 몸의

윗부분을 물어뜯게 했다. 이 끔찍한 방법으로 그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대여섯 명이 말꼬리에 묶인 채 말이 마구 뛰기 시작하면 불행한 희생자들은 목숨이 끊어

질 때까지 땅으로 질질 끌려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장대에 매달린 채 아래에서는 불길이 넘실거리서, 한편으로는 목 매달려서, 한편으로는 질식해서 생명이

끊어졌다. 연약한 여성이라고 해서 이 무자비하고 격노한 핍박자들이 고안해 낸 잔인한 만행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여자들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했다.

1000 여 명의 남녀 어린이들은 포텐다운 다리 중간이 끊어져서 물에 빠졌다. 헤엄쳐 나오려고 애쓰는 어린이들은 머리를 얻어맞아 죽었다. 200 여 가구의 킬모어 주민

들은 모두 그들의 분노의 희생자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백할 때까지 착고가 채워져 있다가 알아낸 뒤에는 죽여버렸다. 전국이 도살장과

같았고, 수천 명이 단 시간에 칼에, 굶주림에, 불에, 물에, 그리고 분노와 악의가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잔악한 방법으로 죽어갔다. 그들은 신교도들을 모두 카셀에

있는 외딴 토굴 속에 집어넣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서너 주일을 가두어 두었다. 드디어 그들은 석방되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야만적인 방법으로 매를 맞아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었고, 행길에 버려 두어서 헤매다가 죽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목을 매달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땅 속에 곳곳이 세워 묻어버렸다.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미사에 나오라고 협박하고는, 그가 성당에 오면 그의 몸을 찢어 벌려 놓은 채 그대로 두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조각조각 톱질했고, 그의 아내의 목을

베고, 그들의 자녀의 머리를 깨뜨려서 돼지우리에 넣어 돼지들에게 밟히도록 했다. 이 짐승같은 자들이 그러한 잔인한 일을 행하면서 쾌락을 취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 손아귀에 떨어진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도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 영혼은 악마에게 가라 !!!" 이러한

극악무도한 자들 중 하나가 손에 피가 얼룩진 채 집으로 들어오더니 그것은 영국 사람의 피며 자기 칼이 신교도들의 흰 피부를 찢러 칼자루까지 깊숙이 들어갔노라

고 자랑했다. 글래스고라는 곳에서 한 가톨릭 신부와 몇몇 사람들과 함께 40 명의 신교도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로마교회와 화목케 했다. 그들이 그렇게 화목되자마

자 그들은 신교도들에게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다시 타락해서 이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즉시 그

들의 목을 잘랐다.

티퍼러리 군에서 30 여 명의 신교도들, 남녀 어린이들이 가톨릭교도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그들은 신교도들을 발가벗긴 채 돌로, 도끼로, 칼로, 다른 도구로 살해

했다. 퀸스 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경악할 만한 죽음을 당했다. 50 혹은 60 여 명이 갇힌 집에 불을 지르자 그들은 모두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여섯 명

이 발가벗겨진 채 채찍질을 당하고, 그 후 몸을 밧줄로 말에 끄꽂 묶인 채 수렁 속에 빠져 말발굽에 밟히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서 숨져갔다. 17 명이 클라운스

에서 땅에 묻혔다. 그리고 한 영국인과 그의 아내와 다섯 자녀와 하녀 한 명이 한꺼번에 목이 매달렸고, 그들의 시체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어떤 사람들은 풍차

에 매달려 그들이 기절하기 전에 야만인들이 그들을 칼로 산산조각 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들의 몸 여러 부분을 난도질하여 피를 펄펄 쏟으며 죽을 때까지

쓰러진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었다. 티론느 군에서 하루 300 면 이상의 신교도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목 매달려 죽었으며, 불에 타 죽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당했다. p420 아르마흐 대성당도 이러한 야만인들의 격노를 모면하지 못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대성당에 불을 질러 완전히 태워버

렸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르마흐 안에, 혹은 그 근처에 사는 신교도들을 그 종족까지 근절시키기 위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먼저 그들의 집을 불태워 버렸다. 그런

뒤 이 무죄한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한꺼번에 모아 놓고 콜러렌스로 가는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척하면서 도중에서 배반하고는 모두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와 비슷한 야만적인 행위가 전국 각처에서 불행한 신교도들에게 자행되었다. 그후 가톨릭교도들의 악마같은 잔악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당한 사람

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 150,000 명에 달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순교자들의 거룩한 순례를 기억하면서 찬사를 보냈다. 인간의 칭찬은 일시적이며 부활하는 날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의 칭찬은 영원하다.



제 15 장 - 프랑스와 위그노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는 로마교회의 전장 戰場 이 되어 왔고 군소 종파들은 그것을 반대해 왔다. 우리는 왈도파와 알비겐스파가 로마 카톨릭과 투쟁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아 보았다. 그들이 거하던 시는 빼앗겼고 그들의 집은 파괴되었으며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한 때 것처럼 수가 많고 번창했던 그들에게는 흩어진 소수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전장에 서는 승리했지만 양심과 마음을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었다. 브지에르 시가 빼앗긴 후 300 년 동 안 남부 프랑스는 위대한 위그노들이 나타날 때까지 종교개혁에 가담했다. 1530 년에 잠시 동안 프랜시스 1 세의 법정에까지 퍼진 듯 한 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은 로마교회의 악행에 항거하는 마르틴 루터의 소책자들과 독일, 스위스, 영국 개혁자들의 설교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북방 프 랑스에 있는 피카르디아 출생인 존 칼빈은 성서를 배우는 학도였으며 유력한 지성인이었는데 종교개혁에 지원했으며 파리로 가서 뛰어난 웅변으로 많은 일반사람들로 하여금 로마교회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왕은 칼빈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양심을 품고 교황청에 연락했다. 왕은 한편 교황이 뽑아서 보낸 사람들의 교묘한 설득에 감동을 받아 칼빈에 게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은 정부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칼빈 에게는 핍박이 따랐고 개혁을 지원하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프랑스로부터 도망하여야만 했다. p336

위그노의 수와 부가 증가하자 프랑스의 유력한 귀족들과 대영주들은 그들을 파괴하기로 야합 하게 되었다. 헨리 2 세의 통치 기간 동안 위그노의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 으로 그들은 나바르의 왕과 그의 동생 콩트 공작, 그 외 프랑스 왕가 가문의 몇몇 사람들, 샤텐 용과 콜리니와 같은 많은 귀족들이 종교개혁에 호의를 베풀었다. 프랜시스 2 세의 통치기간 동 안 위그노는 핍박을 받았다. 왕이었던 프랜시스 2 세는 1560 년에 죽고, 그의 동생이 당시 10 세 의 소년으로서 찰스 9 세라는 칭호를 갖고 즉위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으므로 그의 어머니 캐 서린 드 메디치가 섭정이 되었다. 그 여자가 통치하는 가운데 프로테스탄트들은 다시 잔인하게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한 박해의 증거는 자주 있었던 대학살과 암살이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위그노를 한꺼번에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다. 바로 왕의

누이와 위그 노 군의 사령관인 나바르의 헨리 (낭트칙령의 헨리 4 세) 가 결혼하도록 주선한 것이다. (호겐 : 적 과의 동침) 캐서린은 성대히 거행될 그 지도자의 결혼식에 수천의 위그노들이 파리로 오게 될 것 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모두 일망타진하려고 계획을 짰다. 그같이 무서운 살인 극을 벌이기 위해 캐서린은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그녀는 자기를 돕는 몇몇 지도자들에게 그 비밀 을 털어놓았다. 아무 혐의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결정된 날은 1572 년 8 월 24 일 성 바돌 로마 축일의 전날 밤이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사건이 역사에서는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 사 건' 으로 알려져 있다. p338

대학살을 위한 준비 : 콜리니가 어떻게 먼저 병상에 눕게 되었나

그 피흘리는 작업은 조용히 준비되기 시작했다. 몇 개 연대의 병력이 파리로 소환되어 무기를 공급받았고 이러한 소문은 위그노들에게도 알려졌다. 그리고 결혼식이 옳지 않다는 의혹이 일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살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두려움은 차차 가라앉 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거짓되고 반역적이었던 찰스 9 세는 위그노들의 훌륭한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는 콜리니 제독을 자기 궁전에 초청해 가장 정중하고 예의있게 대접했다. 왕은 콜리니에게 군인들을 파리로 데리고 와서 반대당이 일으킬 폭동을 막으라고 했다. 자신이 최초의 희생자로 선택된 콜리니는 왕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가지를 걸어다녔다.

8 월 22 일에 콜리니가 어떤 교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숨은 암살 자에 의해 발포된 2 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그 암살자를 추적하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파인 기즈 공작이 그를 위해 집안에 마련해 둔 은신처에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 총탄 가운데 하나는 콜리니의 어깨에 관통상을 입혔고 다른 하나는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이 비겁한 범죄는 파리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상처를 입은 콜리니 제독은 호텔로 옮겨졌고 그 상처는 왕의 의사가 진찰했으며 왕도 친히 방문했다. 왕은 상처받은 그를 보고 크게 유감스러 워하며 암살자를 꼭 찾아 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명목으로 황실에서는 콜리니가 누워있는 호 텔 주위에 군인 50 명으로 구성된 수비대를 배치하고 쇠줄로 거리를 차단시켰다. 콜리니의 친구들 인 위그노의

지도자들은 숙소를 그 제독의 숙소 가까이로 옮기라는 말을 들었다. 그 이유는 시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요사태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왕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두 곳을 제외한 모든 성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한 진짜 목적은 위그노의 고위 지도자들이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감시가 쉽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왕은 살인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마음속에 알라릭의 말을 상기한 것처럼 보인다. "풀이 뻗뻗하면 할수록 더 빨리 베어진다" p339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 : 콜리니 제독의 살해

계획이 곧 세워졌다. 기즈 공작은 아침종이 울리는 순간 콜리니를 살해함으로써 대학살을 시작 했다. 기즈 공작은 군대에 명령을 내려 한 밤중에 드 빌 호텔로 행군해 오게 했다. p340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은 지켜졌다. 위그노들은 아무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무장한 군대는 드 빌 호텔 앞에 모두 모였다. 대학살로 인해 가슴 설레며 신호를 기다렸던 기즈 공작은 즉시 그의 동생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콜리니의 집으로 갔다. 거기 있는 군대를 책임 맡았던 코생과 그의 부하들은 왕의 이름으로 문들을 부수어 열고 층계 밑에서 지키고 있던 스위스 수비병들을 살해했다. 그 때 그들은 제독을 찾으면서 집으로 달려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콜리니는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 시종드는 사람 중의 하나에게 무슨 일인가 고 물었다. 그 사람은 "나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부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콜리니는 그때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해 왔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가고 그 제독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 그 제독은 자기를 죽일 사람들을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드디어 모든 문이 다 부숩지고 암살자가 그의 방으로 들어와 그 살인자는 "네가 콜리니냐?" 라고 물었다.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यो, 젊은이. 당신은 나의 흰 머리를 존경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오. 아마 당신은 나의 생명을 며칠만 더 단축시킬 수 있을 뿐이오" 그 암살자는 베스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칼을 콜리니의 몸에 찌름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그때 그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빨리 달려들어 대검들을 꽂았다. 베스므는 그때 창문을 열고 기즈에게 "우리가 그것을 했다" 라고 소리쳤다. 그는 "잘했다. 그러나 우리가 발로 걸어가서 그를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체가 창문으로부터 앞마당으로 던져졌다. 것처럼 처참하게 암살당한 사람의 피는 살해자들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기즈는 그것이 진짜 제독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냈고 그의 목을 자르라고 명령했다. p344

성 바돌로매의 날에 대학살을 당하는 프로테스탄트들 p34 5 프랑스의 바시에서 군인들에게 총을 맞는 위그노들 p3 56 이 그림에 대한 글은 또 다른 폭스의 순교사화 포스트인

프랑스 상파뉴, 베시에서 일어난 대학살의 간단한 전모 : 기즈 공작 지휘』를 참고하십시오.

성 바돌로매 대학살의 시작

로마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 사정도 두지 말고 죽이라고 선동했다. 햇빛이 비취왔을 때 (즉 날이 밝자) 파리에는 섬뜩한 살인극이 나타났다. 목없는 시체들이 창문에 걸려져 있었고 정 문에는 죽은 시체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로 막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거리는 수족이 절단된 송장들로 가득차 있었다. 루브르 궁전까지도 대량 학살의 장면이 나타났다. 수비병들은 그 궁전 주위를 돌았고 궁전 안에 있던 불운한 위그노들은 하나씩 불려나와 군인들의 도끼창으로 죽임 당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비난도 하지 않거나 평범한 말을 하면서 죽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호소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하나님이지여! 억압받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옳으신 재판장이시여! 이 사악한 자들에게 복수해 주시옵소서" 그 궁전 에서 살던 나바르의 왕의 종들까지도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죽임을 당했다. 기즈 공작과 그의 친구들인 따반느 몽빵시에, 앙굴렘 등은 거리로 말을 타고 나가 살인자들을 격려했다. 기즈는 그들에게 이교들을 최후의 하나까지 죽이고 독사의 자식들을 다 파멸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따반느는 사납게 이렇게 소리쳤다. "피를 흘리라! 피를 흘리라! 의사들은 우리에게 5 월과 마찬가지로 8 월에도 피를 흘리는 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나운 말들은 군인들에게 효과가 대단히 컸다. 그래서 모든 동료들도 서로서로 경쟁하듯 폭언 을 사용했고 한 대장장은 자기 손으로 100 명을 죽였다고 자랑했다. 대학살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다. p346

나바르의 헨리의 통치

나바르의 헨리는 후에 프랑스의 왕 헨리 4 세가 되었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하나 였다. 그는 로마파와 위그노파가 싸우는 전쟁 중에 태어나, 당시 가장 고상한 여인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의 어머니 (잔느 달브레) 에 의해 위그노로 양육받았다. 그녀는 그 소년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산이 많이 있는 곳에서 단순하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보냈다. 거기서 그는 어려움에 익숙하게 되었고 강인한 남자다운 기질로 훈련을 받았다.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 사건이 일 어났을 때 헨리는 파리에 있었다. 그의 씩씩하고 용감하고 쾌활하고 관용적인 기질은 그가 아르 크와 이브리에서 승리해 프랑스의 왕이 될 때까지 사기가 저하되었던 위그노 군대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브리 전투 후에 헨리는 파리로 행군해 갔으나 그 성벽이 대단히 강하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었다.

그는 프랑스 여러 곳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몇 차례 승리했 지만 연합된 국가로서 다툼이 없는 절대권을 가진 왕이 되려는 그의 희망이 실현되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그 때 헨리는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만일 그가 위그노 신앙을 포기하기만 하면 그가 파리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모든 반대 행위는 중지될 것이라는 제안이 왔다. 그 유혹은 너무 컸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결국 동의했다. 헨리는 "파리는 미사드리기에 가치있는 곳이다" 라는 기억할 만하고 역사적인 말을 하면서 로마교회에 그 자신이 개종했다. 모든 카톨릭교도들은 기뻐하며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고 파리는 성문을 열 어주었다. 이와 같은 반역적인 행위는 확실히 변명될 수 없으나 헨리는 욕심내던 권력을 얻은 후 위그노의 박해를 종식시킴으로써 고발하는 양심을 가라앉혔다.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프랑 스를 황폐하게 했던 내란을 종식시키고, 욕망을 위해 비열하게 내버렸던 위그노 신앙을 다시 마음속에 주워 담아 보호했다.

헨리는 그 때 그 유명한 낭뜨칙령 (왕이 그 칙령을 서명한 도시 이름을 따서 부름)에 서명했다. 그 칙령은 위그노에게 시민권을 주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했다. 또한 위그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로마교회의 성직을 지원하기 위해 십일조를 내도록 강요받았고, 적어도 외적으로 로마교회의 축일들을 지켜야만 했다. 이렇게 여전히 로마파에 유리한 낭뜨칙령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시시한 개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일 수도 없었으며, 박해와 학대를 당하던 위그노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을 만한 사건이었다. 낭뜨칙령이 가져온 위그노의 개선된 위치는 위그노의 수를 늘렸고 번창시켰다. 항상 프랑스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근면했던 그들 중에는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장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그노들은 명주 비단을 짜는 사람들이었고, 보석과 시계와 안경이나 포슬린 제품을 만드는 숙련된 예술가들이며 기술자였다. 프랑스는 바로 그 위그노들의 제품들로 유명하게 되었고 부유해진 것이다. 외국에 자신들의 제품을 보내는 프랑스 상인들과 무역업자의 대부분은 위그노에 속했다. 헨리 4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루이 13세가 즉위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도 위그노들은 온건하게 대우를 받았다. 1640년까지 그들은 700개의 교회를 갖고 있었고 이 것은 그들이 가장 강하게 번창한 때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영역은 위그노에게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다. 때문에 오히려 위그노들은 정치에 빠져들지 않고 경건하고 순결하게 성장했다. 낭뜨칙령이 서명된 후 60여년 동안 그들은 근면함과 유덕으로 계속 프랑스의 복지를 증진시켰다.

p3 67

카톨릭교도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

루이 14세는 그의 아버지 루이 13세를 계승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다. 그는 1638년에 출생해 불과 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유년기 동안은 그의 어머니와 마라랭 추기경을 수상으로 하여 정부를 이끌어 나갔다. 그 왕은 23세가 되자 왕권을 정식으로 차지해 반세기 동안 프랑스를 전제군주의 철권으로 다스렸다. 당시 그의 오만함과 건방짐을 따라갈 다른 군주가 없었다. 그의 말 "내가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대답은 그 자신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신념과 프랑스와 백성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루이 14세가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프랑스의 위그노의 평화와 번창은 깨졌다. 그들은 최초로 모임을 금지당했다. 그 다음 그들의 교회도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왕실은 곧 더 심하게 나아갔다. 루이 14 세는 카톨릭 성직자들을 위그노들에게 보내 로마교회의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위그노들은 도시에서 예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또 다시 헛간이나 들판 을 찾아야만 했다. p367

낭뜨칙령이 무효가 됨

루이 14 세의 통치 20 여 년간에 520 개의 위그노 교회가 문닫았고 위그노들은 잔인한 악의를 계 획하는 난폭한 카톨릭 교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수천 명의 위그노가 것처럼 잔인하게 폭행을 일삼는 자신의 나라로부터 탈출을 시도했다. 프랑스 위그노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숙명적인 계기는 무엇보다도 낭뜨칙령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엄청난 범죄는 1685 년에 루이 14 세가 범한 것이다. 이때 많은 위그노가 프랑스를 탈출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재산과 생명은 그것을 가지겠다고 선택한 사람의 것이었다. 이러한 폭군적 범법 행위는 후에 프랑스 여러 곳에서 내란 을 일으키게 했다. 정확한 숫자를 얻을 길이 없지만 루이 14 세가 국정을 장악했을 때 프랑스에 살고 있던 위그노의 수는 약 200 만이었으며 그 가운데 약 100 만은 그의 통치 기간 중 해외로 도망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온갖 범법 행위와 폭력이 위그노들에게 자유롭게 행해졌다. 만일 그 들이 로마교회의 예배방식을 택하지 않고 위그노의 방식대로 예배를 보면 그들은 곧 무력으로 탄압당했다. 왕의 군대 중에서 가장 포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그들의 집이나 마을에 주거하게 되었다. 위그노 처녀가 강간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었다. 독자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 서 불행한 위그노들은, 어떠한 통제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가장 나쁜 욕망까지도 맘대로 채울 수 있었던 잔악하고 무지한 군인들이 그들에게 부가할 수 있던 모든 치욕에 순응해야만 했다. 그들의 모든 목사들과 중요한 사람들은 프랑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떠나는 날도 2-3 일 에 불과했다. '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들에 의해 고의로 억류되거나 여행할 수단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들은 갠리 배를 타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빵과 물만

먹었고, 얼마 후 큰 무리가 되면 수갑을 차고 쇠줄에 묶여 바닷가로 행군해갔다.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 그들의 고통은 대단히 컸으며 심한 일기변화에도 거의 덮을 것이 없었고, 심한 추위가 겹친 겨울철에도 여러 날 밤을 맨 땅에서 지내야 했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쓰러지며 질병으로 쇠약해 졌다. 그 결과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절반으로 그 수가 줄었다. 그 소름끼치는 여행에서 살아 아남은 사람들은 곧 새로운 고통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갤리 배에 승선하게 되었고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주인들의 절대적 통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갤리 배를 노젓는 일은 그 자체가 가장 힘든 중노동인데다가 그 야만적인 감독관들이 자주 때리는 매 때문에 그 가련한 노예들의 고통은 백 배나 더했다. 결국 그들의 잔인한 악행은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노를 일으켰다. 영국의 앤 불린 여왕은 그들의 비참함에 대해 동정으로 가득차서 프랑스 황실에 있는 대사를 시켜 그들을 위해 진지한 항거를 하도록 했다. 그것에 대해 벌써 독 일과 전쟁에 들어갔던 루이는 주의하는 편이 총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종교 때문 에 유죄선고를 받아 갤리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모든 항구에 명령을 내렸다. p 370

그러나 루이는 또 하나의 다른 잔인한 행위를 위한 기회를 놓친 것을 언짢아했으므로 석방된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거쳐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로 여행하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루이는 그들이 감금되었던 항구에서 직접 항해하게 했다. 그들의 항해를 위한 배가 없어서 그것을 구하는 데 오래 지연되었으므로 그 가련한 죄수들은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 지연된 희망'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아직도 어떤 것이 그들의 피신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악의와 고집이 만들어낼 수 있던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 고통을 당하던 그 죄수들은 그들의 석방에 기뻐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 그들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 그들을 보호해준 깊은 감사를 돌리기 위해 앤 불린 여왕이 계신 런던으로 보냈다. 여왕은 그들을 대단히 정중하게 맞아들이며 자기의 통치기간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료 프로테스탄트의 비참한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서 더 기쁨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 망명객들은 곧 영국에서 안락하게 정착했고 그 나라는 그들의 근면함과 재간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반면에 프랑스는 것처럼 능력있고 좋은 시민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상공업과 무역의 이익에서

결코 회복되지 않는 타격을 받았다. 홀란드, 독일, 스위스 등도 그들의 국경에서 피난처를 찾는 망명객들을 환영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거기서 정착을 했고, 그러한 나라들은 전에 프랑 스에서만 만들어졌던 고귀한 물품들을 넘치도록 가공하기 시작했다. p370 호겐 : 앤 불린은 그 시 대의 진정한 에스더였다. 뒤의 포스트에서 계속....

그들의 지원으로, 존 데이는 순교자들의 책을 출판하고, 가장 인기있는 기본서들과 작은 교리문 답서, 영어로 번역된 시편 등의 책들의 출판을 독점하는 영예를 안았다. 뛰어난 사업 감각과 기교가 어우러진 존 데이를 일컬어 사람들은 "영국 종교개혁의 거장 the m aster 인쇄업자" 라고 불렀다.



제 16 장 - 메리 여왕 통치 기간에 영국에서 자행된 박해들

메리여왕 통치기간 중 화형당한 순교자들

영국 왕의 유언에는 영국의 왕위를 수프폭크공작의 딸인 레이디 제인에게 양도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통치는 5 일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그녀의 뒤를 이은 메리는 모든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존 로저

존 로저는 순교자 윌리엄 틴데일과 마일즈 커버데일을 통해 개심하게 되었다. 그는 "토마스 매튜"라는 이름이 붙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그들과 합류했다. 그는 영국에서 개혁을 증진시키는 일을 도왔으며 바울성당에서 봉사했는데 거기서 메리여왕이 왕좌에 오를 때까지 계속 있었다. 그는 그의 설교에서 에드워드왕 통치시절에 가르쳤던 참다운 교리를 더욱 확증했으며 교황제도와 우상숭배, 미신의 병폐를 주의하라고 사람들을 훈계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소환당해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다. 여왕은 참된 설교를 금지시켰고 그의 적들은 이 기회를 이용했다. 오랫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후 그는 화형선고를 받았다. 자신의 교리를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때 그는 "내가 설교했던 것을 나의 피로 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단으로 선고받았다. 그의 아내와 10 명의 아이들은 그가 스미스필드로 가는 길에 그를 만났다. 그러나 그는 혈육이 당하는 슬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면서 놀랄만한 인내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로렌즈 사운더즈

로렌즈 사운더즈 목사는 하나님의 참다운 종교가 소개되었던 에드워드왕의 통치가 시작될 무렵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잘못된 카톨릭 교리들을 담대하게 반대했다. 여왕의 무리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대단히 불쾌해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왕실 수석 배우들인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의 사랑덕분에, 또한 그의 설교에서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풀려났다. 악의에 찬 박해음모를 알아차린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떠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후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화형선고를 받았다. 그가

화형장으로 가는 길에 그에게 늘 신발을 만들어 주던 가난한 구두공이 소리쳤다. “오 나의 선한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운더즈가 응답했다. “자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높은 지위에는 맞지 않은 사람이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실 걸세.” 1555년 2월 8일 그는 화형당했다. 화형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 그는 거부했다.

윌리엄 헌터

어려서부터 그는 경건한 부모의 영향으로 건전한 교리로 양육을 받았다. 열아홉 살때 그는 미사 때의 성체배령을 거부함으로써 주교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 그는 신앙을 포기하면 용서와 안전이 보장되리라는 제안을 거부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틀밤낮을 기둥에 묶여서 빵 부스러기와 물 한컵만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손도 대지 않았다. 2일 후 그의 믿음에 전혀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고 주교는 그를 감옥에 넣었다. 계속해서 그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자 주교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화형대에 다가가자 그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는 그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여 나의 영을 받으소서”라고 말했다.

존 후퍼

존 후퍼는 에드워드 6세때 런던에서 설교했다. 그의 설교에서 그는 죄를 바로잡고 세상의 불의와 교회의 부패한 죄악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매일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때로 그가 설교할때 교회가 꽉차서 문안으로 더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

왕 앞에서 설교한 후 그는 곧 그라우체스터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2년간 그 직무에서 봉사했으며 너무나 모범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적들조차도 그에게서 어떤 비난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매우 주의깊고 부지런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 에드워드왕의 시대에는 종교가 건전했고 변성했다. 그는 보더와 헬스박사 앞으로 소환된 후 공의회에 넘겨져서 여왕의 돈을 빚지고 있다는 거짓고소를 당했다. 감금기간중 그는 로저목사를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밤중에 후퍼는 시내를 통과해서 뉴게이트로 옮겨졌다. 이런

일이 비밀리에 행해졌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에 불을 켜고 나와서 그를 격려하며 그의 변치않는 믿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뉴게이트에 있는 얼마동안 보더와 다른 사람들이 자주 와서 그의 믿음을 철회시키고자 했지만 그는 자신이 전에 가르쳤던 진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확증코자 했다.

1555년 2월 9일 8시 정각에 그는 화형장으로 갔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장이 서는 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여들었다. 그가 돌아서면 여왕께서 용서해주실 것이라는 제안을 다시 했다. 물론 그는 거절했다. 장작더미의 부족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세 번이나 불이 다시 지펴졌다.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으소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잠자는 아이처럼 조용하게 죽었다. 그는 지금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하늘나라의 즐거움 속에서, 축복받은 순교자로 있으리라.

해드리의 로우랜드 테일러

로우랜드 테일러는 해드리의 교구목사로 죄와 악행에 대해서는 단호했으나 가난하고 병들고 불구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에드워드 6세 시대의 축복된 기억들이 끝난 후 메리여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그의 교구민 중 두 명이 두 번이나 해드리 교구교회에서 온갖 미신적인 의식과 함께 미사를 거행하기로 결심했다. 테일러는 교회에 들어와서 단호하게 이 일을 막았다. 그러나 클락이라는 사람이 그를 교회 밖으로 내몰고 미사를 집전케 하고는 즉시 윈체스터의 주교인 대법관에게 그의 행동을 알렸다. 그는 소환당했다.

그의 친구들은 대륙으로 도망하라는 충고를 해주었으나 그는 거절하고 기꺼이 그 소환명령에 응했다. 가디너주교는 그를 보자 관례에 따라 테일러를 꾸짖었다. 그는 이런 집권남용을 인내하며 들었다. "어떻게 감히 내 얼굴을 쳐다보는 거지?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인가?"라고 주교가 말했을 때, 테일러는 대답했다. "당신은 윈체스터 주교이자 대법관인 스테판 가디너요. 그러나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에 지나지 않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당신은 왜 우리 모두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거요. 어떤 얼굴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거요?"

오랜 대화 끝에 가디너는 소리쳤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다! 너는 참으로 신성모독자이며 축복된 성사를 모독했으며, 거룩한 미사를 배척했다. 미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희생제로 드리는 것인데...”라고 했다.

그는 감옥에 감금되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축복된 자들이라고 믿소. 하나님께서는 참새까지도 돌보시며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아시니 그러므로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그를 믿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복종하시오.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마시오. 왜냐하면 나는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오.”라고 했다.

그가 화형을 당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기도하며 화형대에 다가갔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계속 기도했다. 워윅이란 사람이 잔인하게 장작을 그에게 던졌다. 그것은 그의 머리에 맞아서 그의 얼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렀다. 그가 영어로 찬송가를 부르자 존 웰톤이 그의 입술을 치며 “라틴어로 말해!”라고 소리쳤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졌고 그는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손을 모으고 똑바로 서 있었다. 소스라는 사람이 마침내 창으로 그의 머리를 치자 그의 시체는 불속으로 떨어졌다.



(b) 메리 여왕 통치 기간에 영국에서 자행된 박해들

메리여왕 통치기의 박해자들에게 임한 섭리적 징벌

이제 우리는 메리여왕 통치기의 박해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당시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박해자의 우두머리인 가디너가 죽은 후로 다른 이들이 뒤를 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파러 주교의 후임인 성 데이비스 주교 모간 박사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는 주교직에 앉혀진 지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음식이 목구멍을 통해 내려가면서 심한 구역질과 함께 다시 넘어 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아사 직전까지 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버 속교구(屬教區) 주교 손턴은 참된 교회를 지칠 줄 모르게 박해하던 자였다. 캔터베리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잔인한 폭정을 휘두르고 난 다음 날, 그는 참사회 회의장에서 본(Borne)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일요일 그곳에서 그의 심복들이 나무공을 굴리며 놓고 있는 걸 서서 지켜보다가 중풍으로 쓰러져 얼마 못 살고 죽고 말았다. 손턴에 이어 속교구 주교로 임명된 자는 도버 주교 관구로 승급된 지 얼마 안 되어 추기경 집무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목이 부러졌다.

서퍽 주 와트샘의 존 쿠퍼는 허위 증언에 의해 고난을 당했다. 그는 페닝이라는 자의 사적인 언짢음으로 박해를 당했는데, 그자는 다른 돌을 매수해서 쿠퍼가 '하나님께서 메리여왕을 데려가지 않으시면 마귀가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맹세했다. 쿠퍼는 그러한 모든 말을 부인했지만 목에 줄이 감긴 채 질질 끌려 다닌 뒤 몸통이 네 토막으로 찢겨졌으며, 아내와 아홉 아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해 거지 신세가 되었다. 뒤이은 추수 때, 앞서 말한 증인들 중 하나인 히참의 그림우드는 그 비열한 짓에 대해 심판을 받았다. 그는 일하던 중 옥수수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창자가 튀어나와 고통이 가라앉을 새도 없이 죽고 말았다. 그 계획적인 위증은 갑작스런 죽음으로 보응을 받았다.

쉐리프 우드로프는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 뛰며 좋아했는가 하면, 로저스 씨가 처형되었을 때는 그 순교자의 아이들이 그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마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마부의 머리를 깨부수었다. 우드로프는 주장관 직에서 물러난 지 딱 일주일 만에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그후 며칠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지내다가 죽었다.

제임스 애비즈는 처형장으로 가는 도중, 자신을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는 구경꾼들에게 진리를 확고히 고수하고 자신처럼 피 흘려 순교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었는데, 주장관의 종이 그를 저지하고 나서서는 불경스럽게도 그의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며 그 선한 남자를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화염이 순교자를 덮치자마자 그의 면전에서 그를 너무도 잔혹하게 조롱하던 그 완고하고 비열한 자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일격이 가해졌다. 그 사내는 갑자기 광기가 돌더니 (애비즈가 몇몇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사람들 앞에 벗어 던지며 이렇게 소리쳤다. "하나님의 참된 종인 제임스 애비즈가 바로 이렇게 했었지. 그런데 그는 구원받았지만 난 저주받았다구!" 자꾸 이 말을 되풀이하자 주장관은 그를 꼭 붙잡고서 옷을 입혔으나 그는 다 뿌리치고 옷을 찢어발기고서 이전과 같이 소리치고 다녔다. 그는 손수레에 묶인 채 주인집으로 옮겨졌고, 약 반 년 후 죽고 말았다.

에드워드 국왕 통치기에 프로테스탄트들의 원수로 자처하고 다니던 클라크라는 이는 런던탑에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프롤링이라는 상당한 명성을 지니고 있던 사제는 길거리에서 넘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데일, 즉 쉴 새 없이 밀고하고 다니던 그는 해충에게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갉아 먹혀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다.

알렉산더는 뉴게이트의 피도 눈물도 없는 간수였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몸이 부풀어 올라 비참하게 죽었는데, 속이 어쩌나 심하게 부패하였는지 썩은내가 펄펄 나서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이 간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만에 그의 엄청난 재산을 탕진하고서 어느 날 갑자기 뉴게이트 시장 바닥에서 죽었다. 알렉산더의 사위이자 지독한 신성 모독자요 박해자였던 존 피터는 무언가를 주장할 때면 곧잘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정말 난 죽기 전에 썩어 버릴

거라구.”라고 말하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죽기 전에 보는 이들을 메스껍게 하는 모습으로 썩어 버렸다.

렐프 엘러커 경은 아담 댐리프의 심장을 꺼내 두 눈으로 보기를 몹시도 원했는데, 이 아담 댐리프로 말하면 부당한 죽임을 당했었다. 렐프 경이 프랑스인들에게 살해된 직후, 그들은 그를 난도질하여 무섭게 짓이겨 놓았고, 사지를 잘라 냈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을 뜯어내었다.

엘리자베스가 즉위한 후, 대부분의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이 런던탑이나 플리트에 수감되었으며, 보너는 마셜시에 투옥되었다.

노예로 그리니치에 살고 있던 맬던이라는 이는 어느 겨울 저녁 영어로 된 소(小) 기도서를 읽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존 포웰이라는 한 머슴이 옆에 자리 잡고 앉아 맬던이 하는 모든 말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맬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포웰은 계속해서 비웃었고 마침내 맬던은 영어 기도서의 어느 부분에 이르러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등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러자 욕설을 퍼붓던 자가 갑자기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순간 그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악령이 머물 수 없다고 말한 후 그대로 미쳐 버렸다. 그는 런던의 정신 병원인 베들렘으로 보내졌는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늘 참고 모욕만 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헨리 스미스는 법학도로서, 캠든에서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그에게서 덕스러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결국 카톨릭 신앙을 갖게 되었고, 프랑스로 망명으로 갔을 때는 면죄부들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카톨릭 장신구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한 그는 자신을 길러 준 그 복음적 신앙에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는데, 어느 날 밤 너무도 거세게 몰아치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갑작스런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말았다.

스토리 박사는 그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몹시도 즐기던 ‘공개 처형’으로 토막내어졌다. 그는 모종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서 반역자를 형장으로 보낼 때

쓰는 운반구에 실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다. 그는 거기서 반시간 정도 매달려 있다가 칼로 베어지고 토막났으며, 형 집행인은 그의 심장을 꺼내어 전시했다.



제 17 장 - 성경의 전투 그리고 화약 음모 *

* 이 책의 이 장은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 영어 성경의 역사, 정동수목사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현대 성경 역사는 영어 성경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의 백미라고 불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 주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과.

영국과 영어의 역사

영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 민족 및 영어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후 5 세기에 로마가 영국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브리튼족은 색슨족의 도움을 받아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략을 막아냈다. 색슨족은 북부지방에서 승리를 거둔 뒤 돌아갔으며 그 후에 영국 남부를 차지하려 했다. 이런 싸움은 거의 150 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동안에 앵글로족, 색슨족, 여러 이교 도 등이 고대 영국을 일곱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다. 그 뒤 이 왕국들은 주변의 좀 더 강한 왕국으로 합병되었고.

위클리프 성경(주후 1382 년)

“나는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1380 년에 랭카스터 공작에게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4-1384)가 쓴 글이다. 위클리프의 역본이 제롬의 부패한 라틴 별게이트로부터 나왔고 따라서 킹제임스 흙정역 성경의 기초가 되는 역본들 중 하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의 작품은 초기 영어 성경 역본들에 대한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만 한다.

영어로 된 성경전서 역본을 최초로 우리에게 준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이다. 또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 것도 바로 위클리프였다. 위클리프는 혼자 힘으로 신약성경을 번역하였지만 구약성경 번역은 헤리퍼드의 니콜 라스가 그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프의 성경은 1382 년에 소개되었으며 후에 퍼 르비(John Purvey)가 개정하였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아서 역본의 모든 복사본을 자필로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송고한 일이었다.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데는 열 달 정도가 걸렸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성경이 필사되자 마침내 영국 국회는 법령을 제정하여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기록된 200 여 개의 위클리프 성경을 가지고 있다.

1382 년 런던에서 위클리프의 많은 가르침이 이단 사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옥스퍼드에 있던 위클리프의 많은 추종자들 역시 믿음 철회를 강요받았다. 그렇지만 위클리프 자신은 시련을 당하지도 않았고 순교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생각과 작품은 여전히 카톨릭 주의의 진노를 받았다. 위클리프는 퇴직을 강요받았고 1384 년 사망 할 때까지 영국의 러터워쓰에 있는 자신의 사제관에 머물렀다.

1401 년에 의회는 위클리프의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영국의 아룬델 대주교는 교황에게 '저 사악한 위클리프'를 처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뒤 1408 년에 그의 지휘 하에 옥스퍼드 회의가 열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그런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라는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뒤 약 100 년 동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위클리프의 성경을 목에 매단 채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와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로 많은 성경이 필사되어 아직까지 200 여 권이나 남아 있음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영어 성경이 평민들의 손에 들어가자 큰 위협을 느낀 교황 요한 23 세는 1415 년 5 월 4 일에 콘스탄스 공회를 열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어 무덤에 안치된 위클리프의 유골을 캐내어 불사를 것을 결의했다.

종교개혁의 뜨거운 불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성도들을 위해 담금질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는 교회 체제의 손아래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만 했다. 많은 성도들은 거룩한 성경 기록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자기들의 부와 명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희생하였다. 그들의 수고와 고난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하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영어 성경 역사와 군주 제도

영어 성경의 역사는 정말로 풍성하다. 성경 기록 그 자체처럼 영어 성경 역사는 추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를 언급한다. 영어 성경은 인간 표현력의 아름다움, 헌신에 대한 순수성 및 희생의 깊이를 보여 준다. 역사는 또한 사람의 비열한 생각과 잘못된 길로 인도받은 종교적 경건함, 그리고 사람 의 타락의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유를 얻기 위해 많은 이들이 땀과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

영어 성경 번역자들의 수고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영어 성경은 1382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였으며 카톨릭 교회는 영국의 군주정치에 두루 영향을 끼쳤다.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잘못 번역할 것이라고 믿었다. 카톨릭 교회는 성경 금지령을 집행할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 출간된 성경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위클리프 성경이다.

우리가 영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먼저 영국 군주 제도의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 특히 틴데일로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의 역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이 시기에 영국은 자체의 종교개혁에 직면해 있었다.

메리 1 세 (1553-1558 통치)

“빛이 왔다가 갔다. 그리고 다시 왔다.” 그런데 이와 동일 한 그림이 메리의 통치 기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메리는 자기의 통치 기간 에 영국 전역에 어둠을 가져왔다. 그녀의 이러한 열심은 잘못된 결과를 낳아서 그녀는 곧 ‘피의 메리’라는 악명 높은 이름을 얻게 되었다. 메리는 자신의 통치 기간의 마지막 3 년 동안 무려 300 명 이상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화형대에서 불살라 죽였다.

엘리자베스 1 세 (1558-1603 통치)

엘리자베스의 통치로 다시 빛이 왔다. 메리의 통치가 유혈로 점철되었다면 엘리자베스의 통치는 영광으로 덮였다. 우리가 현재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바로 엘리자베스 1 세의 통치 기간이었다.

엘리자베스의 통치 기간에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스코틀랜드에서의 반란을 피해 1568 년 영국으로 도피했다. 메리는 강력한 로마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서 일어난 몇몇 카톨릭 교회 음모의 축이 되었다. 그들은 카톨릭 교회의 교황직을 다시 설립하려 하였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체포하고 1587 년에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 메리의 아들인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의 킹제임스 6 세였다. 엘리자베스의 사망으로 제임스는 1603 년 영국의 킹제임스 1 세가 되었다. 비록 자신의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제임스는 강력한 프로테스탄트 군주가 되어 번역자들에게 성경을 만들도록 허락했으며 그가 허락한 그 성경은 현재 일반적으로 그의 이름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으로 불리고 있다.

그레이트 성경(1539)

그레이트 성경 (Great Bible) 크랜머 성경으로도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대주교 크랜머 (Thomas Cranmer)가 두 번째 판의 서문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레이트 성경은 또한 위처치 (Whitchurch) 성경이라고도 불렸다. 이것은 왕실의 임명을 받은 두 명의 출판업자 그래프톤(Richard Grafton)과 그와 함께 일한 위처치 (Edward Whitchurch) 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성경을 ‘위처치 성경’이라고 불렀다.

제네바 성경(1560)

1553 년에 영국 여왕이 된 메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해 맹렬히 타오르는 박해를 시작했다. 그레이트 성경은 교회에서 사라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녀의 종교적 광기를 피하려고 영국으로부터 피신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많은 사람들은 제네바에 자기들의 피난처를 발견했다.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메리의 박해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그녀가 일으킨 박해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은 새로운 성경 번역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1557년에 신약성경을 출판했다. 그것의 대부분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 칼빈의 자형인 위팅검이 노력한 결과였다.

길비와 샘프슨의 도움으로 위팅검은 즉시 신약성경을 개정하였다. 구약성경의 경우 그레이트 성경의 1550년 판을 택하여 개정하였다. 그리고 1560년에 제네바 성경 전체가 완성되어 출판되었다.

킹제임스 성경: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든 것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 목표는 이전에 있던 역본들보다 더 나은 새로운 역본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흠정역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전 역본들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만 좋은 역본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다수의 좋은 역본들 중에서 하나의 가장 으뜸가는 좋은 것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염원은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초기 영어 프로테스탄트 역본들에 기초를 둔 하나의 가장 으뜸가는 역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업은 성공적이 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초기 영어 역본들에 기초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400년 동안 당당히 표준 영어 성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의 킹제임스 1세(스코틀랜드의 킹제임스 6세, 1566-1625)가 직접 번역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제임스는 성경을 번역하지도 않았고 제임스의 성격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역본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제임스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된 1611년에 영국의 왕이었으며 그 당시 왕의 권위로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 외에는 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외동아들이었다. 유명한 제임스의 어머니 메리는 엄격한 로마 카톨릭 교도였지만 제임스는 확고한 프로테스탄트로 자라났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레이놀즈가 영어 성경을 개정할 것을 왕에게 제안한 그해 1 월의 그 추운 날 제임스는 그의 제안에 기쁨으로 반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위한 목적으로 54 명의 학자들을 지명하라고 벵크로프트 주교에게 지시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참가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일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실제 번역자들의 수는 비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번역자들의 이름은 보존되었다(부록 A 참조 바람). 이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와 옥스퍼드 그리고 케 임브리지에 위치한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또 각 그룹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한 부분은 구약성경을 작업했고 다른 부분은 신약 성경을 작업했다.

사실 번역자들은 위대한 학자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출간 뒤에 언어 연구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다. 그들은 성경 언어를 배워서 자기들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자신들의 시간 대부분을 사용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에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종종 모국어인 영어가 서툰 경우도 있었다.

기독교는 그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가지 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전서 (The Holy Bible) 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초가 성경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이 랜드마크가 확실한지 혹은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늘 신경 써야 한다.

지난 2,000 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며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수용해 온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이것들에서 번역된 역본들만을 사용해 왔다.

이런 본문은 과거의 거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였기에 보통 수용 본문(Received Text)이라 불리기도 하며 또 공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의 공인(共認) 본문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 세기 동안 성경 신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을 모았는데 이것들의 99%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처럼 절대다수를 이루는 다수 사본들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되었다.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제임스 1세)은 햄튼 코트 회의에서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 기존 성경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통 사람들의 손에 공통 성경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 결과로 1611년 5월 2일에 태어난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제임스 왕은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히브리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도 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 온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과 거기에서 이미 번역된 여러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였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무엇보다도 그가 공인 본문을 근거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힘입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교황의 천주교를 초토화시켰다. 1534년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 천주교를 몰아내고 영국 국교회를 국가의 종교로 세움에 따라 천주교는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1588년에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천주교 국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 의해 대패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 영국은 온 세상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면 천주교의 무지와 미신과 맹신이 다 드러나므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을 금서(禁書)로 만들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라스무스, 틴데일,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들려주셨다.

특히 성경은 1450년경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에 순응하며 목숨을 내걸고 일을 수행한 신실한 성도들 노력의 금자탑이요 결정체가 바로 1611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종교 개혁에 이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 올리베땅의 프랑스어 성경, 레이나/발레라의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등이 유럽 대 부분 국가의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천주교 안에 팽배한 미신의 정체가 드러 나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의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이에 천주교회는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1540 년에 로올라(I. Loyola)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Jesuit)를 형성하여 반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지난 500 년 동안 예수회는 유럽에서 ‘예수 없는 예수회’라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심지어 세속 역사가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다.

틴데일 성경(1525)

틴데일 (William Tyndale, 1494-1536)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엘리자베스 1 세 토머스 모어 경은 그를 ‘혐오스러운 이단’으로 고발했고 20 세기 카톨릭 역사가인 그레 함은 틴데일이 어리석게 반란을 일으킨 성직자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쇄기로 발행된 최초의 영어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 틴데일을 사용하셨다. 틴데일은 또한 그 뒤에 나올 영어 역본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틴데일의 ‘죄’는 일반 백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한 것이었다. 틴데일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으며 화형을 선고받았다. 화형대에 묶여서 자신의 불타는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틴데일은 영원한 세계로 안내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틴데일의 그 기도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간청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영어 성경은 이 성도의 피 값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틴데일은 전통 본문(다수 본문 혹은 공인 본문)을 사용했으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틴데일이 구약성경의 몇몇 책들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조점은 신약성경에 있었고 그의 신약성경 역본은 1525 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커버데일은 곧 틴데일의 제자가 되었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커버데일 성경에서 발견되듯이, 그의 구약성경 초판은 그가 알지 못한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독일어와 라틴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커버데일의 신약성경은 틴 데일

신약성경의 개정판이었다. 커버데일이 1535년 10월에 자신의 성경을 출판했을 때 그 성경은 영어로 출판된 최초의 성경전서가 되었다.

(b) 1605 년 제임스 1 세 치하에서의 화약 음모 사건의 발각 *

예수회의 등장

예수회와 그들이 맡았던 역할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 역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딤후 3:13).

로마 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쏟아 부는 막대한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잉글랜드가 '그레이트 성경'을 출간한 지 겨우 1 년 뒤인 1540 년, 교황 바오로 3 세는 로마에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특별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고 가능하면 개신교 개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 사람들이 사제가 없이도 성경을 이해하게 되자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든 다른 형태의 반격을 취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제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은 로올라(Ignatius Loyola, 1491-1556)라는 스페인의 전직 군인에 의해 군대 조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는 1491 년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이니고 로페즈 드 로올라'이며 '예수의 조직'(Society of Jesus)이라 불리는 '예수회'(Jesuits)의 창설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회는 교회사를 통틀어서 '떨어져 나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을 모든 교회의 어머니인 카톨릭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라는 말은 카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자신과 연합할 개신교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회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은밀히 속이는 방법을 즐겨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첩자 노릇, 침투, 암살, 혁명과 같이 악하고 살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에 예수회는 정치적 계략과 체제 전복의 음모들에 관여함으로써 적어도 83 개 국가나 도시 국가 혹은 도시들에서 추방당했다.⁹⁰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은 제퍼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예수회가 부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시의 왕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변장하는 그들의 무리가 여기에도 고정적으로 우글거리지 않을까요? 만일 지상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의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로올라의 예수회일 것입니다."91)

역사를 통틀어 보면, 로올라가 만든 예수회라는 집단의 궁극적 목표는 시종일관 동일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의 예수회는 창설된 지 1 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탁월한 첩보 및 암살 단체가 되었고 왕들과 평민들이 모두 똑같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지식인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이 1540 년에 개신교 종교 개혁에 맞불을 놓기 위해, 특별히 로올라와 그의 예수회에게 특별 임무를 줬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올라는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교황에게 충성하고 종교 개혁을 거꾸러뜨리는 일을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나타난 카톨릭 '반개혁 운동'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막고 사람들을 다시 로마 천주교로 데려가려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해 교황 천하로 만들려는 예수회의 계략을 경고하는 글과 책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16 세기의 종교 재판은 예수회에 의해 진두지휘 되며 회복되었다. 그들은 여러 잔학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시기에만 90 만 명 이상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102). 예수회가 저지른 만행 중에는 1572 년 프랑스에서 7 만에서 10 만의 개신교인(위그 노)들을 살해한 '바돌로메의 날'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이 14 세로 하여금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보호해 주던 낭트 칙령을 1685 년에 폐지하도록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개신교 신앙이 금지되었고 결과적으로 50 만 명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위그노 대학살

1572년 성 바톨로매의 날 학살 때는 프랑스의 수많은 위그노 개신교인들이 천주교 군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그 결과 1598년 위그노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낭트 칙령이 발표되었다.

당시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는 라쉴즈(Pere Lachaise)라고 하는 예수회 사제였습니다. 이렇게 낭트 칙령이 폐지됨으로써 그 후 100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성경 읽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에서는 예수회가 캔터베리 대주교인.

개신교 개혁자 중 한 명 베자 (Theodore Beza, 1519-1605)는 왈덴시스들을 옛날 순수한 교회의 원조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미신 같은 것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카톨릭 주교나 종교 재판관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고도 그들이 그렇게 존속해 있는 것은 분명 기적이다 (105). 한편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왈덴시스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전 세계에 곳곳이 퍼뜨렸습니다. 글도 많이 쓰고 설교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사도 요한이 미리 얘기했던 진짜 그리스도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지속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의 간증을 남겨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지금(1531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6).

왈덴시스들이 당한 박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65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황의 꼭두각시이던 사보이 공작의 군대가 왈덴시스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릴 목적으로 파견되었는데 그들은 첫 공격에는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공격은 예수회가 개입하면서 작전이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바티칸은 왈덴시스들에게 다른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왈덴시스들은 그 말을 믿고 바티칸이 보낸 군대를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경계를 해제했을 때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피드몽 혹은 뺨에드몽 (Piedmont) 대학살'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피드몽 대학살을 언급하면서 그때 왈덴시스들이 당한 비극을 기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글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복수하소서, 오 신이여, 학살당한 당신의 성인들의 뼈가;
 알프스 산위에 차갑게 흠뻑려져 있나니;
 당신의 오래되고 순수한 진리를 지켜왔던 그들조차;
 모든 조상들이 돌과 나무를 숭배할 때;
 그들을 잊지 마소서, 당신의 책에 그들의 신음을 기록하소서;
 당신의 양이자 예전부터 섬겨왔던 이들을;
 피의 피그몬테가의 사람들이 굴림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된;
 엄마와 아이를 저 바위 아래로, 그들의 고통은;
 계곡에서 언덕으로, 또 그들은;하늘로 올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순결한 피와 재는 뿌려졌습니다;
 아직도 폭군이 지배하는 모든 이탈리아의 땅에;
 삼중의 폭군으로부터 온 것들은 자라나서;
 그럼 백배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배워;
 일찍이 바빌로니아의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7)

‘이날 벌어진 일은 눈물 없이는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벌인 만행은 가히 어둠의 통치자의 행위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증언을 한 이유는 카톨릭 교회가 죄 없는 성경 신자들에게 가했던 잔학한 폭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108)

중세시대 예수회는 의심의 여지없이 역사상 가장 과격하고 급진적인 단체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블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회가 저지른 만행이 어찌나 흉악했는지 그들은 70 개 이상의 나라들로부터 추방을 당 했다. 심지어 그 나라들 중 80%는 카톨릭국가 였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 11 명의 교황으로부터 저주와 규 탄을 받았다.109)

로마 교회의 관점에서는 실제 개혁의 근거지가 영국이었기에 예수회는 엘리자베스 1 세 여왕의 목숨을 25 번 이상이나 노렸고 계속해서 외국의 군대들을 동원하여 영국을 침략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영국을 집요하게 노린 이유는 : - "영국은

개신교의 우두머리며 종교 개혁 운동의 중심지요 그 힘의 근거지이다. 개신교가 영국에서 약해지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끝장이 난다. 영국을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 거기만 끝나면 다른 곳은 시간문제이다."(111)

예수회는 성경의 권위에 맞서기 위해 개신교에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 고백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개종자는 이런 서약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황이 새로 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성경 기록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진실하고 신성하며 구원이 넘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규범보다 그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황이 자기 뜻에 따라 성경 기록을 변경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서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서 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교황이 우리 모두에 의해 신성의 존경심으로 존경받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는 것보다 교황 그분에게 더 얹드려 절해야 합니다." (112)

로마 교회와 그 수하의 예수회는 개신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 성경 자체에 반격을 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화약 음모 음모

이 흉악한 음모에 관련된 주모자들은 노샘프턴셔의 신사 로버트 캣츠비, 노섬벌랜드 공작의 사촌 토머스 퍼시, 존 그랜트, 앰브로즈 록우드, 존과 크리스토퍼 라이트, 프란시스 트레삼, 가이 포크스, 에버라드 디그비 경, 로버트와 토머스 윈터, 토머스 베이츠, 로버트 키이즈 등이다. 이들 중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영국에서 가톨릭을 복구시킬 것인가를 의논하면서 그 중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 왕을 죽이자고 제안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말에 캣츠비는 만약 왕을 제거한다 해도 더욱 고상하고 가문이 좋으며 신교 신앙에 젖어 있는 아직 젊은 두 왕자와 공주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가족들을 왕과 함께 죽이지 않고 왕만을 죽여서는 사회가 전보다 더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이 개회사를 위해 의회에 가 있을 때 그곳을 폭파시켜 왕과 왕비와 왕자들과 의회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을 모두 없애버리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과업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몇몇은 그와 같이 끔찍한 살인을 믿음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하고 꺼림칙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고해신부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그들은 가톨릭 예수회의 날, 신부 오스왈드 테즈몬드와 존 제라드와 고위 성직자인 헨리 가넷에게 의논 했다. 그들은 그 계획을 정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것은 먼저 수아레스에 의해 가르쳐진 교리며, 교황 파울루스 5 세가 승인한 것으로, 이단자들을 파문시키면서 집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413

그런 뒤 음모자들은 비밀의 맹세를 나누고, 제라드의 인도로 미사를 드렸으며 그들은 모두 성찬식을 하면서 충실하게 온갖 능력을 다해서 그 음모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맹세했다. 그 후 퍼시가 의회 의사당에 인접한 집을 한 채 사서 거기서부터 옆으로 구덩이를 파고 건물 전체를 폭파시킬 수 있을 만한 화약을 파묻기로 했다. 그들은 1604 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구덩이 파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가 처음에는 2 월로, 다시 10 월로 또다시 1605 년 11 월 5 일로 연기되었다. 그들은 매우 단단 한 기초를 파서 구덩이를 내야했지만, 그들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 여유, 아니 어쩌면 너무나 많은 시간 여유가 있었다. 음모자들이 거의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근처에서 소음과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깜짝 놀라서 발각되었다고 결론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이 포크스를 보내어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이 들은 목소리는 인접해 있는 창고에서 들리는 소리로, 거기에 석탄을 팔기 위해 쌓아 놓았으며, 그것이 바로 의회 의사당 아래 있는데 지금 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퍼시가 즉시 가서 그것을 빌려 홀랜드에서 수입해 온 화약 36 배럴을 채워 넣고 그 위를 석탄과 장작으로 덮어놓았다. 음모 자들은 이와 같이 추진해 놓고 집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왕과 왕비와 왕자들과 귀족들과 위대하고 번영하는 국민의 대표들을 폭발시켜 버리기 위해 불을 붙이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 때 갑자기 까닭 모를 충동이 그 일행 중 한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의 친구인 몬티글 경을 파멸에서 구하려는 노력으로 그 계획을 누설했다. 다음은 의회가 시작되기 열흘 전쯤에 그가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p414

몬티글 경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주께. 당신의 친구로서 나는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충고를 드리는데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이번 의회에 참석하지 않을 구실을 마련

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요즈음의 사악함을 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신이 이번 사건에서 안전하다

고 생각되는 곳으로 은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동요도 없는 것 같지만 의회에는 끔찍한 폭발이 일어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보

지 못할 것입니다. 이 충고는 정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이롭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잘 이용할 은혜를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분의 거룩하신 보호에 당신을 맡깁니다" p414

그는 이 편지를 받은 날 저녁에 국무대신 세실에게 가지고 갔고 그는 그것을 다른 국무대신들과 의논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사냥을 나가 있는 로이스톤에서 돌

아올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왕은 10 월 말일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날 그 편지는 왕에게 보내어졌고, 왕은

그것을 읽고 나서 그것을 정죄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에 세실은 그 편지는 바보나 혹은 미친 사람이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은 의회

의사당 근처의 모든 창고나 가까이 있는 장소는 다 조사해 보도록 명령했다. 그 당시 궁내 대신으로 왕을 맞을 장소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던 서퍽 공작은 의회가

열리기 하루 전까지 그 조사를 미루었다. 그러다가 몬티글 경을 데리고 의회 의사당 주위의 모든 방들을 조사해보고 특별히 하원의원실 지하실에 있는 창고를 살펴

보았다. 거기에서 그는 석탄과 장작이 가득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공작은 그것들이 누구 소유냐고 물었고, 가끔 궁전에 드나드는 퍼시의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조사해보지 않고 왕에게 자기가 살펴본 모든 상태를 보고했다. 그러나 왕의 의심은 그 보고로 없어지기는 커녕 더욱 커져서 이미 언급된 모든 장작과 석탄들

을 다 치워버리라고 명령했다. p415

웨스트민스터의 치안관 토머스 네벳 경과 궁정 내실에 있는 신사들이 밤이 늦었지만 그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신사들은 아주 운이 좋아서 석탄 밑에 숨겨

져 있던 36 배럴의 화약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그 근처에서 외투를 입고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가 등 하나와 성냥 3 개를 갖고 있는 것도 발견

했다. 이 사람은 퍼시의 하인으로 음모자 중 한 사람임이 판명되었다. 그는 그들의 음모가 발각되어 체포되면 지하실 안에서 자신도 그들과 함께 폭파되겠다고 맹

세했었다. 궁정 사신과 궁내 대신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잠자리에 든 왕에게 알렸다. 그리고 죄수는 추밀원 앞에서 심문을 받으면서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 계

획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자기 양심이 그렇게 자극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동료들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 그는 다만 악마가 그 훌륭한 계획을

드러냈으며 이단적인 왕을 죽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탐으로 끌려가 고문대 위에서 위협을 받자 그는 음모를 자백하고 동료들의

이름을 댔다. 어떤 이들은 사형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c) 화약 플롯에 대한 추가 참고 사항*

* 이 보충 장은 다음 사람들이 작성했습니다. --- 정동수 목사

중세에 예수회가 꾸민 가장 악랄한 음모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1605 년에 일어난 "화약 음모 사건" (Gunpowder Plot)일 겁니다.

화약 음모가 만들어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 세가 1603 년에 죽자 로마 교회는 잉글랜드에 반드시 카톨릭 군주를 즉위시키고 싶었습니다. 교황은 당시 잉글랜드의 카톨릭 사제이면서 예수회 회원인 가넷(Henry Garnet)에 게 교황의 칙서 두 개를 보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가넷은 신실한 카톨릭교도라고 선언하지 않은 사람은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후임인 제임스 1 세는 왕좌에 오르면서 자신이 개신교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로마는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로마 교회는 새로운 왕을 제거하기 위해 포크스(Guy Fawkes, 1570-1606)라는 이름의 스페인 군인을 이용했습니다.(117) 가이 포크스 음모의 주모자였습니다. 포크스가 제임스 왕과 그의 측근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려고 의사당 건물 지하에 36 배럴에 달하는 화약을 묻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로마 교회와 그 수하의 예수회는 잉글랜드를 다시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포크스는 예수회 사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회의 조수 정도일 것입니다. 그는 직업이 용병으로 전문 군인이었고 스페인의 카톨릭 군대에 서도 복무한 바 있습니다." 포크스는 화약을 폭발시키기 거의 직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 사람들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포크스는 동료 음모자인 예수회 소속 가넷과 함께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가넷만이 음모에 가담한 예수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변호사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 교회의 사제가 개입하지 않은 반역죄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번 일에도 이미 알려진 예수회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영국의 가넷, 스페인의 크레스웰, 플랜더스의 볼드윈, 로마의 파슨 등. 그래서 이 일의 주된

범법자들은 가장 신성하고 복 받은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을 방패삼아 온갖 사악한 짓을 일삼아 온 파렴치범인 예수회 바로 그자들입니다."(118)

실제로, 화약 음모, 로마 교회는 제임스 왕을 제거하기 위해 포크스(Guy Fawkes)라는 이름의 스페인 군인을 이용했다. 그 음모가 성공했다면 1604년에 시작된 새로운 성경 번역 작업도 덩달아 실패로 끝나 영원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바로 그것이 예수회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화약 음모 사건은 미수에 그쳤으며 제임스 왕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유명한 성경이 완성되는 것을 살아생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경

거의 100년간의 박해와 피 흘림 속에서도 성도들이 염원하던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쉬운 언어로 번역되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영국의 종교 개혁은 드디어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개혁의 산물을 내놓는데 이르렀고 그것은 바로 1611년에 완역되어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1526년 이래로 영어 성경 번역과 출간이 빈번하였으나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는 그런 관행이 완전히 똑 멈췄습니다.

더 새로운 성경이 나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틴데일 성경은 신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의 일부를 번역했습니다.... 번역하긴 했지만 그것은 개별적으로만 출간되었고 성경전서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커버데일은 그의 작업을 이어받고 그것에다 독일어와 라틴어 번역을 추가해 처음으로 영어 성경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원어 본문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틴데일의 번역을 가져다 놓았지만 일부는 커버데일의 역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 것이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마침내 히브리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 공인 본문을 기반으로 전문이 원어에서 번역되었고 킹제임스 성경에 상당히 근접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번역이 좀 거칩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책의 서문을 통해 선배 번역자들과 그들의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며 그들이 혼의 구원을 돕는 일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서문에 드러난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며 겸손하고 훌륭한 학자들이었으며 영적인 사람 들이었습니다.

화약음모사건 (The Gunpowder Plot)

잉글랜드 예수선교회 수장이었던 헨리 가넷과 일부 카톨릭 사제들은 이런 음모가 논의되고, 음모자들은 상원 근처의 집 한 채를 빌려 의회까지 연결된 터널을 파내려고 했으나,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1605 년 3 월 상원 회의장 바로 아래에 있는 지하창고를 대여했다. 1605 년의 의회개원식은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번 연기된 끝에 11 월 5 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전날 밤, 의회 지하창고에는 36 배럴의 화약이 준비되어 있었다.

의회가 제보를 받다 (Parliament warned)

정부는 어떤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몬티글 경이 익명의 경고편지를 받은 덕분에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국립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이 편지에는 11 월 5 일 의회 개원식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고가 들어있었다.

"의원님, 부디 변명을 만들어서라도 의회에 불참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부정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날 의회는 끔찍한 폭발을 겪을 것이고, 그 범인은 찾지 못 할 것입니다."

몬티글은 1605 년 10 월 26 일 흑스턴에 있는 자택에서 이 편지를 받았고, 즉시 국왕의 측근인 솔스버리 백작, 로버트 세실에게 전달했다. 누가 이 편지를

작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몬티글의 매부인 프란시스 트레شم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음모자들 중 하나인 토마스 윈터 또한 몬티글 집안과 잘 아는 사이였지만, 이 편지는 내각에 있거나, 깊이 연관된 사람이 보낸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일각에서는 솔스버리 백작이 편지를 보냈으리라 추정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동 쿠데타 계획을 알고도 내버려 둔 것일 수도 있다.

발견 및 탈출 (Discovery and Flight)

음모자들은 몬티글 백작 하인들 중 하나를 통해 편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곧바로 트레شم을 의심했다. 트레شم은 동료들에게 자신은 무고하다고 설득했으며, 음모자들은 고민 끝에 다시 한 번 음모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편지 내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했고 솔스버리 백작 또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음모자들이 겁먹고 일찌감치 달아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11 월 4 일 밤, 왕실 관리인 토마스 니베트 경과 에드워드 더블데이가 존 존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던 가이 포크스와 그가 쌓아둔 화약을 발견했다.

하원기록보관소가 보유하고 있는 하원회의록은 가이 포크스가 체포된 다음날 아침 본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다. 당시 하원사무총장이었던 랄프 이웬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지난밤 토마스 니베트 경이 상원 지하실을 수색하다 토마스 퍼시의 하인, 존 존슨이 36 배럴의 화약을 숨겨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그는 다음날 의회가 소집되면 국왕과 의회 인사들을 전부 폭사시키려고 했으며, 음모에 연루된 다른 이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짧은 무력충돌 후, 케이츠비, 토마스 퍼시, 크리스토퍼 및 잭 라이트가 사살되고 토마스 윈터와 암버로즈 루크우드는 생포되어 런던으로 압송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에드워드 딕비 경, 토마스 베이츠, 로버트 키스와 프란시스 트레شم도 체포되었고, 로버트 윈터는 도망다니다 1606년 1월에 체포되었다.

고문, 재판 그리고 처형 (Torture, Trial and Execution)

음모자들은 런던탑으로 이송되어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존 존슨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가이 포크스가 고문을 받았던 기록이 남아있다. 에버라드 딕비 경, 로버트 윈터, 존 그란트 그리고 토마스 베이츠 등 4명은 1606년 1월 30일 세인트 폴 성당부지에서 처형되었다. 가이 포크스, 토마스 윈터, 암브로즈 루크우드 그리고 로버트 키스 등 4명은 다음날 웨스트민스터 홀 밖에서 처형되었다. 홀비치 하우스에서 사망한 퍼시와 케이트비는 참수되어 팔리아먼트 하우스에 목이 걸렸다: 음모사건에 가담한 인물들 (People behind the Gunpowder Plot): 토마스 퍼시, 로버트 케이트비, 프란시스 트레شم, 존, 크리스토퍼 라이트 형제, 가이 포크스, 토마스, 로버트 윈터 형제, 토마스 베이츠, 암브로즈 루크우드, 에버라드 딕비 경, 토마스 베이츠, 암브로즈 루크우드, 에버라드 딕비 경.

제 18 장 - 아일랜드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진보와 박해

아일랜드는 처음부터 카톨릭의 세력하에 있었으며,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헨리 8 세 때였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무지 속에서 터무니없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일랜드에 프로테스탄트가 소개된 것은 영국인 조지 브라운(George Browne)의 공로가 컸다. 그는 더블린(Dublin)의 주교로 그 이전에는 어거스틴 수도사였다.

헨리 8 세는 영국에서 수도원 설립을 금했다. 이것으로 인해 더블린에 있던 두 개의 성당에서도 형상들과 종교적 유물들이 제거되었다. 얼마 후 브라운은 헨리 8 세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교황의 지배를 떨쳐버리기로 했으며, 그를 행정관으로 임명한다는 편지를 크롬웰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아마그(Armagh)의 주교인 조지가 이 일에 격렬히 반대했다. 그는 교황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며, 아일랜드는 로마 주교의 소유이며 왕의 선조들도 교황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 해에 의회가 소집되었으며 결국 헨리 8 세가 교회와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결정되었다. 얼마 후 교황은 아일랜드에(아마 그의 대주교와 그의 성직자들에게) 칙령을 보내어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을 파문시켰다. 에드워드 6 세가 영국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영국 국교회의 전례의식이 아일랜드에서도 행해져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영국 국교회의 공식 기도문이 더블린의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바로 다음날 카톨릭편에서는 사악한 간계가 계획되고 있었다. 거기에는 손에 갈대를 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대리석으로 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는데, 영국식 예배가 회중과 성직자들 앞에서 드러지는 동안 가시관의 틈에서 피가 흘러 그 형상의 얼굴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이 사기극을 꾸민 사람들이 소리쳤다. "보라, 우리 구세주의 형상에 흐르는 피를!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무나 기적적이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고 일반 대중들은 공포에 질렸으며, 즉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는 지옥에서 발단한 것이며 구원은 오직 그들 자신의 무오한 교회에만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의식이 깨인 사람들에게는 이 사기극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무지한 아일랜드인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들은 이 사기극을 꾸민 자들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었다.

제임스 왕의 평화로운 통치기간을 이용해 카톨릭은 힘을 키워 갔으며 찰스 1 세때는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런 이유로 1629 년 공식적인 카톨릭 의식과 제사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곧 로마 사제는 더블린 시에 새로운 카톨릭 대학을 세웠으며 여러 곳에 수도원과 수녀원을 세웠다. 그곳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1641 년 오닐(O'Neal)은 그의 가족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 얼마 전 아일랜드 카톨릭은 그들 종교행사의 자유를 요구했지만 영국 상하원은 둘 다 영국 내 카톨릭의 허용을 금했다.

그 계획은 왕국 전체의 대규모적인 반란과 더불어 모든 프로테스탄트를 예외 없이 다 살해한다는 음모였다. 대학살의 날은 1641 년 10 월 23 일로 정해졌다. 그 날은 예수회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올라를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 계획을 완벽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카톨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를 방문하여 지금까지보다 더욱 친절함을 보여주었다. 이 음모는 겨울이 올 때까지 지연되었는데, 그 이유는 겨울에는 영국에서 군대를 보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프랑스 사역자인 리첼리에(Richelieu) 추기경은 공모자들에게 상당한 물자와 인적 자원을 약속했다. 많은 아일랜드 장교들은 이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카톨릭 형제들과 연합하겠다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날, 이 음모는 아일랜드인 오웬 오코넬리(Owen O'Connelly)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 일의 주모자였던 맥과이(M'Guire)경이 체포되었다. 다행히 왕국의 수도는 보존된 것이다.

그러나 계획된 비극은 왕국 전체에 흩어진 공모자들에 의해 정해진 날 아침에 강행되었다. 길을 가던 모든 프로테스탄트는 즉시 살해되었다. 나이도, 성별도, 신분도 가리지 않았다. 평화 속에서 살아오던 영국인들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살해된 것이다. 죽음은 차라리 가장 작은 형벌이었다. 온갖 잔인한 고문들, 마음의 고뇌, 절망 등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었다. 완고하고 자비심없는 카톨릭교도들은 그들의 손으로 피를 쏟자마자 매일 끔찍한 비극을 되풀이해 나갔다. 예수회 회원들, 사제들, 수도사들은 무지한 아일랜드인들을 더욱 부추겨서 이 계획은 왕국의 발전과 카톨릭의 명분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프로테스탄트는 이단이며, 더이상 살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영국인을 죽이는 것은 개 한 마리를

죽이는 정도라고 떠들고 돌아다녔다. 또한 영국인들을 도망시키거나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까지 했다.

카톨릭교도들이 롱포드 성과 도시를 포위했다. 그 도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사는 곳이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항복했다. 도시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포위자들은 그들을 공격했다. 그들의 사제가 영국 프로테스탄트 목자의 배를 가르는데 신호로 그 뒤를 이어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칼로, 총으로, 혹은 도끼로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스리고(Sligo) 부대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들도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항복을 했다. 처음에 그들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얼마후 다리 위에서 급류속으로 밀쳐져 모두 죽었다. 수도사들이 손에 성수를 들고 와서 그 강에 물을 뿌렸다. 이단의 죽은 몸과 피로 오염된 강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다.

리스굴에서는 150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다. 모니아 성에서는 최소한 100 명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 툴라 성에서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마귀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끔찍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말꼬리에 사람을 묶어놓고 말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해서 죽이기도 했다. 높은 교수대에 매달린채, 밑에 불을 피워서 일부는 질식으로, 일부는 교수형으로 죽기도 했다. 여자라고 해서 이들의 무자비하고 광분한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 많은 여인들이 너무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갔다. 어떤 이들은 튼튼한 기둥에 묶여, 허리까지 옷이 벗겨진채 무자비하게 창으로 가슴이 도려내어져 피를 흘려 죽을 때까지 내버려졌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들이 자궁에서 끄집어내져 그들의 분노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많은 어머니들이 발가벗겨진채 나무에 매달려 몸이 찢겼고 무죄한 아기들이 개와 돼지에게 던져졌다. 끔찍한 장면을 더 끔찍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그 남편들에게 이런 모습을 억지로 보게 만들었다.

이스센스케아스에서는 백명 이상의 스코틀랜드 프로테스탄트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타다운 다리에서 강제로 물속으로 던져졌다. 강변에 기어오른 사람들은 머리가 잘려나갔다. 같은 지역에서 적어도 4 천명이 익사당했다. 무자비한 카톨릭교도들은 먼저 사람들을 옷을 벗긴 후 그들을 죽이려고

정해놓은 장소로 짐승처럼 그들을 몰고갔다. 피로와 허약함으로 뒤에 처진 사람들은 창과 검으로 찔렸다.

어떤 곳에서는 140 명의 영국인들이 극도로 추운 날씨에 완전히 발가벗겨져 수마일을 끌려가서 같은 장소에서 모두 살해되었다. 어떤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떤 이들은 불에 태워졌고 어떤 이들은 산채로 매장되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한 통과를 약속한 후 그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가면 적당한 장소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해했다.

115 명의 사람들이 페림 오닐(Phelim O'Neal) 경의 명령으로 포터다운 다리까지 와서 모두 강제로 물에 빠뜨려졌다. 캠프벨(Campbell)이라는 한 여인이 도망갈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 카톨릭교도 대장 중 하나를 팔로 안아서 함께 물 속에 빠져 익사했다.

킬리맨(Killyman)에서는 48 가구가 학살당했다. 그 중 22 명은 한 집에서 불에 태워졌다. 킬모어(Killmore)에서는 약 200 가구가 있었는데 그들의 돈이 있는 곳을 말할 때까지 화형대에 묶여 있다가 말한 후에 죽음에 처해졌다. 전체 마을이 도살장이 되어서 칼, 불, 물, 기아, 그리고 다른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짧은 시간내에 죽어 갔다.

어떤 이들은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서 굶어죽기도 했다. 카셀(Casel)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더러운 지하 감옥에 함께 수주간을 몰아 넣고는 잠시 풀어준 뒤 잔인하게 난도질했으며 길에서 재미삼아 그들을 죽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땅에 머리를 박아서 매장되기도 했다. 이들은 비참함을 더하기 위해, 고통당하는 그들을 조소했다. 앤트림(Antrim)에서는 하루 아침에 954 명이 살해되었으며 그 뒤 1200 명이 더 살해되었다.

리즈니게리(Lisnagary)에서는 24 명의 프로테스탄트를 한 집에 몰아 넣고 불을 질렀다. 또 다른 잔인한 행동 중의 하나는, 영국 여인의 두 아이를 빼앗아 그 여인 앞에서 그들의 뇌를 부숴뜨린 후 그 여자를 강에 던져 버린 것이다. 킬케니(Kilkenny)에서는 모든 프로테스탄트가 죽음을 당했다. 그들은 어떤 영국 여인을 성한 뼈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구타한 후 시궁창에 던져버렸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의 6 살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배를 갈라 그 어머니에게 던졌다. 어떤 남자를 강제로 미사에 참여하게 한 후

배를 가른 후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했다. 어린 아이의 뇌를 부셔서 돼지에게 먹게 하기도 했다.

일곱명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를 잡아다가 그들 중 하나를 시장 사거리에 데리고 갔다.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그의 뺨을 귀까지 잘라서 그 앞에 성경 한장을 놓고서 입이 충분히 커졌으니 설교를 하라고 강요했다. 파우어스카우트에 있는 교회에서는 강단과 성경들을 불태웠다. 성경을 더러운 물에 적셔서 프로테스탄트의 얼굴에 던지며, “너희가 좋은 교훈을 좋아한다는 걸 알지. 여기 아주 훌륭한게 있군. 내일 와보라구. 이것만큼 훌륭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테니.”라고 조소했다.

어떤 곳에서는 프로테스탄트의 눈을 뽑고 손을 잘라서 들로 보내어 거기서 헤매며 비참한 최후를 맞게도 했다. 젊은이들에게 강제로 부모를 강에 밀어 넣게 했으며, 아내들에게 남편을 매다는 일을 돕게 했으며, 아이들의 목을 찢는데 어머니들에게 자기 아이들의 목을 부수는 일을 돕도록 강요했다. 크로우니스에서는 17 명이 산채로 매장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방법으로 살해되었다.



제 19 장 - 존 번연의 생애와 박해에 관한 기사

잉글랜드의 유명한 목사·설교가이며 청교도의 종교관을 매우 독특하게 표현한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 (1678)의 저자. 그 밖의 저서로는 교리에 관한 논쟁적인 저서들을 비롯해 영적인 자서전 <넘치는 은혜 Grace Abounding> (1666), 우화집 <거룩한 전쟁 The Holy War> (1682) 등이 있다.

● 어린~젊은 시절

늦쇠 세공사, 즉 떠돌이 댐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중부의 오지 농촌에서 '수많은 빈민 소작농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다. 시골의 그램머 스쿨에서 읽는 법과 쓰는 법을 배웠지만, 가업을 전수받기 위해 일찍 학교를 그만둔 듯하다. 번연의 정신과 상상력은 제도적인 교육보다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들로부터 형성되었다. 그는 싸구려 책에 나오는 모험담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그런 책들은 케임브리지 근처 스타워브리지에서 열리는 큰 시장 같은 곳에서 구했다. (<천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은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것). 비록 그의 가족은 영국 국교도였지만, 속해있었지만, 그는 또한 영국 청교도들의 다양한 대중문학을 접하였다: 예를 들면 쉬운 말을 사용한 설교집, 일상의 도덕적인 대화록,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감상적인 판단과 행위를 다룬 책들, 보기에 흥측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목판본으로 인쇄된 폭스의 <순교자열전> 등이었다. 무엇보다도 번연은 영어 성서에 빠져들었다. 그가 12세 때 '킹 제임스 영역 성서'는 발행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었다.

▶ 번연은 자서전에서, 무서운 꿈 때문에 당한 고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을 겪은 데에는 병적인 까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년시절 초기에 종교적인 위기를 겪는 가운데 그의 죄책감은 망상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그를 '모든 형태의 악과 불신에 붙잡아두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과장이 심한 성향과 관련된 번연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수성이었던 것 같다. 1644년 몇 차례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겪으며, 이 시골 소년은 가족과 헤어져 세상으로 떠밀려나갔다. 6월에 어머니가 죽었고, 7월에 누이동생 마거릿이 죽었으며, 8월에는 아버지가 3번째 아내를 얻었다. 그리고 내란(청교도 혁명)이 터져 11월에 의회군으로 징집되어 뉴포트의 파그넬에 있는 수비대의 보충병으로 배치되었다. 그곳 사령관은 새뮤얼 루크 경으로 새뮤얼 버틀러의

〈휴디브라스 Hudibras〉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의 장로교인 기사(騎士)처럼 불후의 명성을 갖고 있었다. 변연은 뉴포트에서 1647년 7월까지 있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의 군복무는 무사평온했지만, 이때 그는 크롬웰 군대 내의 급진적인 小종파들, 설교하는 중대장들, 개인 양심을 제외한 모든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퀘이커교·구도파(求道派 Seekers)·랜터파(Ranters)의 열정적인 종교생활을 접할 수 있었다. 루크가 자기 수비대에 드나드는 이러한 수많은 종교적 선동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에 비해, 변연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크롬웰과 그의 초라한 기병들이 갖고 있던 청교도 분파들의 주요사상을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의 신념에 따르면, 종교적 진리를 위한 투쟁은 각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계시된 은혜에 의지하면서, 모든 형태의 공적인 조직을 단죄하는 끈질긴 노력을 뜻했다.

▶ 변연은 1647년 7월(제대)부터 1649년 사이에 결혼했다. 그는 자서전 〈넘치는 은혜〉에서 자기와 자기의 첫째 아내가 '접시나 숟가락 같은 가재도구도 없을 만큼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서로 만났다'고 말한다. 아내는 결혼지참금으로 그에게 오직 2권의 복음서를 주었다. 변연은 첫 번째 책에서 신앙 소책자라 할지라도 통렬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고, 친숙한 격언들을 가지고서도 훈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 부부는 메리라는 눈 먼 딸을 첫아들로 낳고, 1650년 7월에 세례를 받게 했다. 변연의 첫째 부인은 그뒤 엘리자베스·존·토머스를 더 낳고서 1658년에 죽었다. 엘리자베스도 1654년 그곳에 있는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무렵 변연은 이미 세례를 받고 '베드퍼드 분리파 교회'에 가입했다.

● 회심과 목회

변연의 회심은 결혼한 뒤 몇 해(1650~55)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이 자서전에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 '사제'와 '성직복'(제네바 가운으로 추축됨)을 경외심 어린 눈으로 보았던 초기의 국교도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평소에 즐기던 춤, 종치기, 시골 들판에서 벌이는 운동경기 등의 오락들을 마지못해 서서히 포기하고 내면적인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뒤 몇 해에 걸쳐 신앙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괴로운 시험이 닥쳤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시험의 '태풍'이 거의 물리적인 폭력으로 그를 강타했고, 신을 모독하기를 강요하는

음성들이 들려왔으며, 그에게 저주의 위협을 가하는 듯이 보였던 성서 본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픈 곳을 찔러댔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에는 자신이 이러한 사탄의 음성에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해버렸다고 믿기까지 했다. "나는 총에 맞아 나무에서 떨어진 새처럼 쓰러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에 가까운 고립상태에 있던 시절, 그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정신분열의 모든 특성을 나타내 보인다. 이런 정신분열의 특성은 20 세기에 와서야 분석되었지만, 번연은 자기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시대 나름의 심리학적 도구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17 세기 칼뱅주의 목회신학이었다. 이 목회신학은 영혼의 진정한 필요와 영적 성장의 증거, 하나님의 은총의 계약 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 선택과 예정의 냉혹한 교리를 해석하는 신학이었다.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의 기법과 청교도 설교가들의 기법은 모두 자아를 흠 없는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었다. 번연은 영적인 암흑기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자기 죄가 '죽어 마땅한 것이 아님'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주는 본문들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본문들도 있음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이 회복기에 번연은 베드퍼드 분리파 교회와 이 교회의 강력한 지도자 존 기퍼드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1655 년경 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다.

▶ 베드퍼드 공동체는 침례에 의한 성인 세례를 실행했으나, 엄격한 침례교도들과는 달리 침례를 교인이 되는 자격으로 고집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입장은 침례교회보다는 오늘날의 회중교회의 입장과 더욱 가까웠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거룩한 생활'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성찬식 open-communion' 교회였다. 번연은 곧 평신도 설교가로서 재능을 나타냈다. 영적인 고민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고 위로하는 일에 적임자였으며, 이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나 자신도 쇠사슬에 묶인 채 그들에게 갔고,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내 양심에서 얼마 전에 타오르던 불을 담아 갔습니다' 라는 그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교인들을 방문하고 권고하는 활동도 활발히 했으나, 1655~60 년의 그의 주요활동은 초기 퀘이커교도들과 논쟁을 벌인 일이었다. 번연은 장이 서는 베드퍼드셔의 읍들을 찾아다니며 공개 논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몇몇 열린 복음 진리들 Some Gospel Truths Opened> (1656) <몇몇 열린 복음 진리들을 옹호함 A Vindication of Some Gospel Truths Opened>

(1657) 이라는 최초의 저서들을 펴내기도 했다. 개방적인 성찬식을 실시한 침례교도들과 웨이커교도들은 도시와 시골에 있는 '직공들', 즉 소규모 숙련공들과 기술자들을 자기 교인들로 만들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번연은 곧 분파들 중에서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 찰스 2세의 왕정복고로 분리파 교회들이 예배의 자유를 향유하고,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20년 세월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번연은 1660년 11월 12일 사우스베드퍼드셔에 있는 로어삼셀에서 지방 치안판사 앞에 끌려가 과거 엘리자베스 시대에 포고된 법령에 따라 영국국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예배를 집행한 혐의로 기소 당했다. 기소당한 뒤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아 1661년 1월 순회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주(州) 감옥에 갇혔다. 2번째 아내(1659년에 재혼함)가 순회재판소에 항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용기있게 노력했지만 번연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넘치는 은혜>의 초기 판본들에 첨부된 전기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긴 레이스'를 만들어 팔아 가족을 부양했다고 한다. 수형조건은 관대한 편이어서 그는 때로 친구나 가족을 찾아가고 모임에서 연설하기 위해 나갈 수 있었다.

● 저작활동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번연은 영적인 자서전 <넘치는 은혜>를 쓰고 출판했다. 1672년 3월 찰스 2세가 비국교도들에 대해 관용선언을 공포함에 따라 번연은 석방되었다. 베드퍼드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로 많이 간구한 뒤' 1월에 이미 그를 자기들의 목사로 선출해놓았고, 새로운 집회장소도 얻어놓았다. 5월에 번연은 25명의 다른 비국교도파 목사들과 함께 베드퍼드셔와 주변 마을들에서 설교하도록 허락받았다. 그의 별명 '주교 번연'은 그가 그 지역에서 탁월한 조직력을 발휘했음을 암시한다. 박해가 다시 시작되자, 그는 불법적인 설교를 한 혐의로 다시 감옥에 갇혔다. 2번째 감옥생활은 비록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던 듯하나, 어떤 상황에서 그가 투옥되었는가는 첫 번째 감옥생활 때보다도 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를 석방시키기 위한 1677년 6월의 신원보증서가 다행히도 남아 있어 2번째 투옥은 그해 상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로역정>은 2번째로 석방된 직후, 즉 1678년 2월에 출판된

것으로 보아 번연은 첫 번째 투옥 때 이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것은 〈넘치는 은혜〉를 완성한 직후였으며, 이 책에 담겨 있는 내면생활에 대한 검토가 여전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다.

▶ 문학형식

번연의 문학적 업적은, 그에 대한 많은 비평가들의 시각과 달리, 그의 세련된 작품들에서 보건대, 결코 순진하고 단순한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의 언어에 대한 구사는, 구어체이든 성경체이든, 완성된 예술가의 것이다. 그는 인간의 태도를 예리한 인식과 도덕적인 섬세함으로 다루며, 복음 신학의 개념에 구체적인 삶을 부여함과 육신과 피의 용어로서 신학적인 드라마를 구현하는 재능을 드러낸다. 번연은 이렇게 역설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본래 그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 충동은 순전히 자신의 신앙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을 회심하기 위함이었으며, 다른 청교도들처럼 그는 화려한 양식을 경멸하도록 그리고 문학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경험에 대한 진리를 절대적으로 적나라한 묘사를 구현하고자 문학적 장식의 저편에 도달하고자 하는 번연의 노력은 <넘치는 은혜>에서 상당히 독창적인 양식을 고안하게 만들었다. 이 양식에서, 강력한 실제적인 형상화가 풍부한데, 기독교인의 내적인 삶이 묘사된다: 육신과 영혼은 긴밀히 연관이 되어서 그의 유혹들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육체적인 것을 분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마치 나의 창자가 터져 나갈 것 같이 나의 가슴 뼈에 답답함과 뜨거움을 느낀다."

▶ <천로역정>

번연의 이 위대한 우화적 이야기는 1678 년 나dana엘 폰더가 출판했다. 번연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인 형태로서 요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교도가 위험과 혼란을 겪으며 하늘의 도성을 향해 순례를 하는 이야기가 '사느냐 죽느냐'처럼 강렬하게 묘사되어 진다. 이러한 긴급한 느낌은 처음 장면에서, 기독교인이 자신의 책(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비통한 소리를 외침으로써 제시된다. 여정을 따라서 아폴리온과 거대한 절망과 같은 거인들과 괴물들과의 싸움에서 이어지며, 이들은 영적인 공포를 표현하는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의 소리들과

악마들은 변연 자신의 회심 시기에 망상에 사로잡히고 신경쇠약적인 두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글이다. 이와 같은 흥분되는 행위의 삽화는 더욱 굳은 구절들과 교차된다, 그리고 순례자들과 그들이 만나는 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대화들이 전개되며, "수다(Talkative)"와 "무지(Ignorance)" 같은 위선자들이 등장하면서 약간은 종교적이며 가벼운 위안을 준다. "유쾌한 산(Delectable Mountains)"과 "생명의 강(River of Life)" 옆의 초원 같은 휴식처에서의 머무름은 이 세상을 벗어난 영적인 아름다움을 불러낸다.

▶ 만년의 삶과 작품들 변연은 계속해서 베드퍼드 교회 및, 이 교회와 결연을 맺은 동부의 늘어나는 국교회들을 돌보았다. 문학작품에 힘입어 갈수록 명성이 커지자, 런던에 있는 회중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었다. 1672~73년 윌리엄 키핀과 그 외의 런던 침례교도들과 함께 자신의 '개방적인 성찬식'의 원칙들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악인의 삶과 죽음 The Life and Death of Mr.Badman〉 (1680)은 우화라기보다는 사실적인 소설에 더욱 가까운 작품으로, 박해의 시대가 끝난 뒤 청교도들이 도시 중간계급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찾기 시작할 당시에 돈과 혼인의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변연의 2 번째 우화인 〈거룩한 전쟁〉은 조심스러운 서사시 구조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천로역정〉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내면적 특징은 찾아보기 어렵다. 맨솔의 도시는 마귀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나 에마뉴엘의 군대가 와서 구해주며, 훗날 마귀의 군대가 에마뉴엘의 통치에 대해 여러 차례 공격과 음모를 가함으로써 약화되었다. 이 은유는 타락 때부터 구속(救贖)과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이야기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개인별 영혼의 회개와 타락을 묘사한다. 이 은유에는 찰스 2 세 때 비국교도들이 당한 박해를 암시하는, 보다 명확한 역사적 차원까지도 담겨 있다.

〈속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 Second Part〉 (1684)은 그리스도인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자녀들을 데리고 순례하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대체로 전편에 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더 사교적이고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지만, 순례자들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도록 부르는 내용의 장엄한 결론부는 아마 변연의 문학에서 압권일 것이다. 변연은 목회자로서 맡은 책임이 컸지만 생애의 마지막 10년 동안 시간을 내어 수많은 교리 및 논쟁서를 펴냈다. 또한 거칠기는 하지만 신앙교훈을 내용으로 하는

훌륭한 시를 썼는데,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말년의 작품집은 어린이들의 책인 〈소년 소녀들을 위한 책 A Book for Boys and Girls〉 (1686)으로서 상징적인 삽화들과 함께 활기찬 시들로 엮여졌다. 제임스 2 세 치하에서 비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번연은 '내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 번연'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가족을 보호했다(1685. 12). 제임스가 로마 가톨릭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 개신교 비국교도들을 회유하려고 했을 때, 번연은 관직을 제의하는 왕의 대리자 에일즈버리 경의 감언이설을 지혜롭게 물리쳤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재조직된, 베드퍼드 법원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었다. 번연은 1688 년 설교를 위해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가 런던에서 죽었다. 런던에 오기 전에 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불화를 무마하려고 심한 비를 맞으며 리딩으로 달려갔다가 열병에 걸렸던 것이다. 죽은 뒤 비국교도들의 전통적인 묘지로 알려진 번힐필즈에 묻혔다.

● 평가 19 세기에 종교적 신앙이 쇠퇴하고 대중적인 교훈서들이 크게 늘어나기 전만 해도 번연의 저서는 성서처럼 모든 영국인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모든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18 세기 내내 순수문학의 반열에 끼지 못했다. 그의 위대성을 인정한 것은 스위프트와 존슨뿐이었다. 낭만주의 운동이 끝난 뒤에야 선천적인 재능을 지닌 작가로 인정을 받았고, 호메로스나 로버트 번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20 세기에 들어와 번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미 발전해 있었던 설교체 산문의 전통과 청교도 문학 장르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게 되었다. 비록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탁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천로역정〉의 천재성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크게 다른 문화 전통에 속한 독자들에게까지 번역서를 통해 꾸준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이 유명한 책이 얼마나 심오한 상징적 진리를 담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필자는 그의 생애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 보려한다.

1. 존 번연의 생애

그는 1628 년 영국의 베드포드(Bedford) 근처에 있는 엘스토우(Elstow)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정직했으나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가 태어났던 17 세기는 정치적 혼란시기였으며, 그가 태어났을 때는 찰스 1 세가 왕위에 있었으며 그는 찰스 2 세와 제임스 1 세의 통치기간 중에 살았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가난한 댄쟁이였다. 그는 아들에게 솔단지와 냄비를 때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외에는 그에게 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서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정도의 기본교육 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존 번연은 자신의 집을 "신분이 낮고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집안이었으며, 나의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 중 가장 비참하며 경멸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번연은 이러한 가난함과 비천함에 좌절하고 낙망하여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빛나게 했다고 그의 책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Grace Abounding)'에서 고백한다.

번연이 16 살 때 즉 1644 년 그의 모친과 누이가 사망했다. 그러자 그의 부친은 그와 동시에 재혼했으며, 번연에게는 반항의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당시 의회의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당시 크롬웰의 지휘 하에 있는 이 군대의 종교적 열정은 거의 모든 군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번연이 비록 이 당시 기독교에 귀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크롬웰 군대의 청교도적 열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1647 년 중반까지 군에 있다가 제대하여 고향인 엘스토우에 돌아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의 부인 역시 가난했으며 그녀가 그와 결혼하면서 가져온 것이라고는 고작 책 두권이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번연에게 끼친 영향력은 지대했으며 번연이 마침내 갈등 끝에 베드포드 침례교회의 목사 존 길포드의 인도로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고 침례(1653 년)를 받은 이후에 그의 부인은 사망(1655 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번연이 전도의 깊은 열정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번연은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그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했다. 그는 성경과 종교문제를 이야기 좋아하는 한 친구를 사귀어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외적인 변화를 격게 되었으나

자신의 부패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나는 오직 가난한 체하는 위선자처럼 내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그가 일하러 갔다가 만난 가난하지만 경건한 세 여인들을 통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연인들은 의가 없는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와 중생과 마귀의 유혹과 그들의 승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화는 번연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과 자신의 마음의 부패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번뇌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회의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인가를 회의했고, 이러한 문제들의 직면에 괴로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면서 번연은 성경말씀 속에 있는 그 참다운 비밀을 발견하였고, 1653년에 정식으로 베드포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그의 최초의 저작 ‘Gospel-Truths Opened’는 웨이커교도들을 논박하는 것인데 번연은 웨이커교도들의 ‘Inner light’에 관계된 교리에 비해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행한 이 복음은 단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658년 그는 재혼했는데 이듬해 1659년에는 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The Doctrine of the Law and Grace Unfolded’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계약에 관해 이해를 정교화한 것으로 이 작업에서 그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견지에서 칼빈적 형식을 전체적으로 근거한 기초를 확립했다. 그가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복고 이후 저작한 ‘Grace Abounding’은 그를 6년 동안 투옥하게 했고 감금된 동안에 저작한 ‘A Defence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1666)’은 자유주의자 에드워드 풀러에 대항하여 논박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리고 그 6년은 그가 감옥에서 8권의 책을 쓰는 좋은 시간을 제공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번연은 베드포드 교회의 담임목사로 일생을 보내게 된다. 베드포드 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에 있어서 공개성찬을 취하는 분리주의 교회로 비록 당시 침례교인들과 교제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침례교적인 특성을 분명히 했던 교회였다. 번연은 당시 침례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제에 있어서 신자의 침수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서면으로 논쟁했다. 그는 구원의 길로써 복음에 대한 그의 강한 입장에 비추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침례보다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입장을 'Confession of My Faith, and a Reason of My Practice'에서 강하게 방어했다. 변연은 이 논쟁에서 성도의 진정한 표식은 침례가 아니라 믿음과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성경에서 성례로 인정했지만 교제의 조건으로 침례를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며 그리스도인 간의 폭넓은 교제를 강조했다.

이후 변연은 많은 저작들을 남겼으며, 그의 나머지 생을 그의 회중과 베드포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바쳤다. 그의 교회는 복음화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으로 그 지역의 다른 비국교도 교회들과 협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1688년 8월 31일에 말을 타고 런던에 설교하러 가던 중에 맞은 폭우로 걸린 열병으로 그의 생을 마쳤다.

2. 존 변연의 사상

변연은 자신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인 신학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복음전도자였으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신학의 원천은 성경이었으며 그의 신학적 공부방은 그의 오두막과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의 선생은 성령이었다. 그러나 이 말은 그가 신학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이 단지 무대포로 성경만 가지고 독자적인 신학을 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 또한 종교개혁의 후예였다. 그는 성경 다음으로 루터(Luther)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변연은 복음주의적 칼빈주의를 그의 신학의 근간으로 하였으며, 그것을 신봉하면서 당시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 당시 침례교 지도자들과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교회론에 있어서 침례교적인 특징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었다.

그럼 변연의 신학을 몇 가지 부분에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1) 계시

변연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발견했다. 변연의 복음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즉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 치러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해 부활했고 승천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한편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작업과 성서 안에서의 목적 있는 언약은 변연의 신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동성을 부여했다. 또한 변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불 경건을 정죄하면서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다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한 칼빈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복음

그는 선택과 예정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가 복음의 메세지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신한 바, 그는 그 교리를 만들어 내지 않았으며 그는 오직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고,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했다. 이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청교도들을 사용했다는 확신에서 기인하며, 그는 청교도들의 설교가 다른 교리들의 복잡성과는 달리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구속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변연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성경에서 나타나며, 거기서 역사적 예수 사건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기초로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필수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확고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anathematized of God)'이라 불렀다.

3) 회심

그의 영적 자서전인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에서 변연은 깨닫고 나서 회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근거해서 구원에 있어서 회심은 끝이 아니라 모든 확신의 시작으로 보았다 회심에 있어서 그는 칼빈주의와 성경, 그리고 결의론(決疑論)에서의 회심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속에 믿음과 회개도 함께 다루었다. 변연이 칼빈주의를 확신했음에도 그는 그 교리의 어두운 면이 자신의 구원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오직 성경만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청교도들의 논리로 자연종교를 비판했다. 믿음에 있어서 변연의 생각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인간의 죄는 용서되고 마침내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구원에서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피라고 설명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필수요소였다. 즉 회개는 죄와 마귀와 어둠으로부터 선과 은혜와 거룩함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과거의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줄뿐만 아니라 마음에 다가올 죄에 대한 거룩한 미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4) 구원론

변연은 그의 신학과 설교에 대한 주된 관심을 구원의 문제에 집중시킨다. 그는 정통주의적인 구원관을 굳게 고수했으며 더 나아가 복음 전도적이었다. 그는 칭의, 성화, 영화의 요소뿐만 아니라 견인과 확신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제요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모든 작업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며 그는 그것을 성경에 의한 경험으로 설명하며, 구원에 관해서 각각 요구되어지는 복음의 중요한 적용으로 보았다.

5) 교회론

천로역정에서 그의 죄의 짐으로부터 십자가에 가까이 오자마자 곧 해방된 짐꾼은 아름다움이라고 불려지는 한 성에 도착했다. 그 성은 우화적으로 교회를 나타내며 그 입구에 한 문지기가 지키면서 서 있다. 그 문지기는 "교회의 규칙"에 따라 입장을 허용하기도 거부하기도 한다. 그 성의 "위로와 안전"을 향유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문지기는 그 순례자를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는 그의 딸에게 보냈다. 짐꾼이 그의 딸들을 순례자로 위임했을 때, 짐꾼은 딸들에게 무기고에서 최상의 갑옷과 투구를 갖추도록 하는데, 변연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 이 짧은 예화는 그가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이용했다. 즉 그 언덕 위의 주님에 의해 안전하고, 안도감 있게 왕궁은 설립되는 것처럼 교회는 가족적인 따스한 사랑을 공급하고, 교제가 있고, 가르침과 예사롭지 않은 영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존 번연의 사상을 조금씩이나마 정리를 해 보았다. 그는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깊이 있는 청교도 신학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학은 그 자신의 구원체험과 복음적 부르심에 기초한 실천적이고 복음적인 선포를 하였다. 그리고 번연은 그의 설교보다는 오히려 혁명적 시기인 당시의 쟁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가 보여준 용기와 영국문학의 위대한 유산의 일부를 형성한 그의 수려하고, 영감 있는 저작으로 인해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침례교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기초한 침례의식의 강조, 그리고 개인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에 근거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등은 영국의 침례교의 위대한 사람인 번연에게서 잘 보여진다.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을 배제하면 신학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요한 사상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할 것이다.

인류를 거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번연이 보았을 때, 그는 변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시대역사가 명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개념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아직 그 언약은 유효하며 언제라도 그 백성들이 돌이키면 선예와 같이 이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그들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존 번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존 번연(John Bunyan)의 생애와 사상|작성자 농심곰



제 20 장 - 존 웨슬리의 생애에 관한 기사

1) 가족적 배경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추앙된다. '감리교인' 혹은 '메소디스트(Methodist)'란 '고지식한 사람' 혹은 '원리원칙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복음주의와 사회운동을 중시하는 개신교의 중요한 한 갈래이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링컨셔주 에프워스(Epworth)에서 성공회 사제인 새뮤얼 웨슬리 (Rev.Samuel Wesley)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전체 19명의 자식들 가운데 15번째였다. 그의 집안은 3대에 걸쳐 성공회 목사를 배출한 집안이다. 그의 아버지인 새뮤얼 웨슬리는 40년간 교구 일을 맡아 본 성실한 성직자로, 자녀들의 교육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아버지 새뮤얼 웨슬리의 목회에서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를 보면서 존 웨슬리가 받은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성경의 원문에 충실한 해석, 2) 세계선교를 향한 사역적 확신, 그리고 3) 소규모 모임을 통한 신앙조직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존 웨슬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물론 라틴어에도 능통했다. 후에 그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감리교의 특징인 속회(class)를 활성화 한 것도 아버지 목회에서 배운 방법들이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역시 성공회 목사의 딸이다.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에 능통할 만큼 빈틈없는 학문 실력으로 19남매를 직접 가르쳤으며, 신앙생활에 몹시 엄격했다. 규칙적인 생활과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 영적 일기를 쓰도록 하고 가정을 통한 자녀들의 영적 구원에 신경을 썼다. 영국교회사에서 존 웨슬리라는 지성적이고 활동적인 설교자이며 신학자가 나온 것은 부모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가족 가운데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Charles Wesley)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된 동역자였다. 후기에 동생과의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그를 가장 크게 후원해주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동생인 찰스였다.

2) 좌절의 초기목회

1720년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한 존 웨슬리는 다양한 언어와 논리학, 윤리학, 철학, 웅변, 그리고 신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다. 1725년 성공회

부제 (ordained deacon)에 서품되었고, 1726 년 링 컨대학의 연구원(fellow)에 임명되었다. 1927 년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아버지의 교회에서 2 년간 일을 하고 연구원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옥스포드로 돌아왔다. 이 때 18 세기에 다시 유행이 불기 시작한 중세의 영성가인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제레미 테일러 의 <거룩한 삶과 죽음>의 영향으로 성직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1928 년 영국 성공회 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1729 년은 감리교(메소디즘)의 시작으로 기록된 해이다. 그의 동생인 찰스가 옥스포드에 친구들과 함께 '경건 클럽(The Holy Club)'을 만든 해이기 때문이다. 이 클럽에는 찰스와 조지 윈필드와 같은 성서적 신앙관을 갖은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을 비웃는 옥스포드 대학생들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후에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

1735 년 10 월 14 일 존과 동생 찰스는 미국의 조지아 지방의 사바나를 향해 항해에 나섰다. 그들은 새로 만 들어진 사바나 교구의 교구목사로 주지사인 제임스 오글레토피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는 배에서 그는 큰 경험을 하고 그의 초기 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항해 중 것을 깨닫고 모라비언들과의 교류를 시작한다.

존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한 후, 큰 위기에 처한다. 존 웨슬리는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소피아 흡 키라는 여인과 로맨스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녀와 절교를 하고 그녀에게 성찬식을 주는 것을 거부하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존 웨슬리와 헤어지고 난 후 만난) 윌리엄 윌리엄슨이 그를 고발한 것이다. 열가지 항목에 걸쳐 고발된 그는 재판정에 서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땅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3) 회심 미국에서의 실패는 그를 의기소침하게 했다. 그러나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언들의 모임에 참석한 그는 인생 의 전환기를 맞게되는 대단한 경험을 한다. 1738 년 5 월 24 일 런던의 알더스게이트(Aldersgate)에서 모라비언의 모임에서 들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Preface to Romans)'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경험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경험은 존 웨슬리에게 성령과의 직접 교통을 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주었고, 이후 그의 사역에 경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 성공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과격한 신앙적 입장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는 모라 비언들의 총본부인 독일의 헌헷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찬송을 짓는 등 열심히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교회로부터 초대를 받지 못한 그는 설교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존 웨슬리의 옥스포드 시절의 친구이고 '경건클럽'의 회원인 조지 화이트필드 역시 그와 비슷한 처지로 영국 성공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조지 윈필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대신에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인 광부나 농부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야외에서 설교를 하곤 했다.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등을 돌아다니며 직접 사람들에게 전도와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도 여행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가 일생동안 한 전도여행은 그 거리가 40 만 km 나 되었다고 한다.

4) 존 웨슬리 신학의 발전과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제제 1739년 그는 모라비언들이 이단인 '침묵주의(Quietism)'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여 모라비언들과 결별을 한다. 스스로 신앙체를 조직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는 브리스톨과 킹스우드에 '영국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를 결성한다.

그 해,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부제들에게 성공회가 사제 서품을 주지 않는 것에 반발해 자신이 스스로 사제 서품을 줌으로서 사실상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분열되었다. 영국 성공회는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미국에서 사제서품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은 성공회를 화나게 했다. 성공회 목사들은 설교와 출판물을 통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목회를 계속했다. 비록 그가 감리교파를 만들고 목사들에게 사제서품을 해주었지만, 존 웨슬리 사제 자신은 자신을 성공회 사제로 생각했다. 왜냐면 그의 존 웨슬리의

입장에서는 복음주의(Evangelical) 운동은 부패하고 사회적인 영향을 상실한 성공회를 갱신하려는 신학운동이었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는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영국 성공회는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제제를 부과했다. 복음주의 운동은 영국의 왕이 수장인 영국 성공회가 보기에는 국가교회와 국가질서를 혼란하게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영국 성공회는 교회내에서 복음주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금하였고, 교회에서 복음주의 성직자들을 파문하였다. 심지어 영국 성공회에서는 복음주의 운동을 영국에 성공회를 파괴하고 로마 가톨릭을 재건하려는 운동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했다.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성공회의 제제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자, 존 웨슬리는 결국 자신이 만든 영국내 복음주의 운동이었던 감리교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주도한 감리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기독교 윤리에서 무기력하던 성공회 내부에 복음주의적 변혁을 이끌기도 했다. 그가 신학적 토대를 마련한 감리교는 미국에서 더욱 활발하게 피어났다. 또 그의 아이디어인 '감독'제도와 '순환근무' 같은 제도들은 감리교의 특징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 존 웨슬리는 감리회의 대표이며 동시에 직무를 박탈 당했어도 파면된 성공회 성직자의 자격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은 교회의 전통, 예전, 성사와 같은 형식을 존중하는 옥스포드 운동(Oxford Movement)과 함께 영국 성공회의 전통이 되었다.

존 웨슬리는 1748년 감리교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킹스우드 신학교를 설립했다. 그의 사후인 1831년 미국에서는 웨슬리안 대학이 그의 이름을 따라 설립되었다. 평생을 복음주의 신학과 가난한 자를 위한 설교에 힘을 쏟은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친지들에게 "나는 찬양한다. 나는 찬양한다. 찬양한다 (I'll praise... I'll praise...)"라는 유언을 남기고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5) 존 웨슬리 신학의 특징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성공회에서 유행했던 조지 화이트필드의 칼빈주의(Calvinism)과는 다른 알미니안 주의(Arminian Doctrine)를 수용했다. 알미니즘 학파를 지지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존 웨슬리는 칼빈 주의적인 '선거'와

'교회로 부터의 출교제도'에 반대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초기 동역자이며 친구인 조지 와이 트필드와 결별을 한 이유가 되었다.

그는 성공회의 전통에도 충실했다. 성공회의 기도서에 따 른 철저한 신앙생활과 전통적 예식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 혜를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성경이 모든 진리의 중심이라는 점 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는 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기독교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전제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개인적 회심과 신앙적 경험을 중요 하게 생각했다. 그는 침례교인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인 경외, 죄를 멀리 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복음주 의 신학에서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학에 가장 구별되는 점은 기독교인으로써 의 사회봉사와 사랑의 실천이다. 존 웨슬리에 따르면 크리스찬의 사랑이란 이웃들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 했다. 또한 그 사랑의 동기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순수 한 동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오늘 날 중요한 감리교의 정신이 되고 있다.

제 21 장 - 1789 년프랑스혁명과그박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의도한 것은 기독교 종교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학 대한 속자군 전쟁의 지도자 인 볼테르[490] "한 셀으로 열두 사도가 세운 것을 무너 뜨릴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의 편지 인장의 모토는 예썩 그리술도와 그가 선포 한 종교 체계와 관련하여 "비열한 자를부썩다"였습니다. 볼테르는자썩의목적달성하기위해가장사썩한감정과성경의종교학대한 가장 불경술러운 공격을 포함하는 다썩한 무썩론자 썩책자를 저썩하고 출판했습니다. 이 전도지는 썩많은 부썩가 인썩되썩 프랑스와 다른 나라썩 널리 배포되썩습니다. 저널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능력썩맞게조정되썩으므로간절히찾고열렬히읽썩습니다.

이 교리는 도덕과 종교의 모든 원칙을 전복썩켰썩니다. 미덕과 썩덕의 영원한 구분을 완전히 무너뜨렸썩니다. 결혼은 조롱거리가 되썩고, 부모썩 대한 썩종은 가장 비참한 노예로 취급되썩으며, 썩민 정부썩 대한 복종은 가장 끔찍한 전제주의로, 썩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썩리썩고 부조리한 일로 여겨졌썩니다. 이러한 정서썩 깊이 물든 1789 년 프랑스 혁명 당썩 프랑스의 민썩은 그 이후의 모든 잔학 행위썩 대해 잘 준비되썩 있썩습니다. 대중의 썩썩은 너무 왜곡되썩 배썩, 잔인 함, 유혈 사태를 무관썩하게 생각했으며 때로는 관중들썩게 가장 무한한 박썩를 불러 일으켰썩니다. 썩곳은 프랑스의 성격이"가장가볍고친절한성격을가진국가중하나썩서이교도및무썩론적의견의전파로인해그 정도로 변했썩니다."라고 말합니다. "혁명이 썩작될 때부터 프랑스인들은 단썩한 용기가 썩니라 썩생 짐썩의광포한분노로활기를띠는것처럼보였썩니다."

바썩티유가 썩격당했을 때, "국민의 적으로 여겨지던 푸통과 베르티썩는 인디썩 썩영지썩서나 있을 법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상황과 문자 그대로 썩인종을 모방하여 사형썩 처해졌썩니다. 그들은 희생자의사지를갈기갈기썩을뿐만썩니라썩장을먹썩치우고피를마썩다."

크롤리는목썩록썩대한새로운해썩썩서다음과같은썩썩를사용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요 원인은 개썩교의 추방이썩습니다. 그 예의범절은 상류층의 면허를 크게 제한했고, 그학문은로마교회썩비썩한노동을강요했으며, 기독교는프랑스의그러한교회썩호썩할 썩

있습지만, 복음의 선택성, 평화, 지혜를 위한 살육은 증거로 인해 이교도 작가들의 발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한하나님의종들의존재가그들의나라를위한순성한보호였다고생각하는것은 성경과역사의숨인숨이도생각할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몰락은 가장 명백하고 즉각적이며 불길한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로마 사제직의 위대한 이름들, 보살네의 활기찬 문학, 마스용의 장대한 웅변,[491] 모든 영광자 중 가장 온화한 페넬롱의 솜씨롭고 고전적인 우수함, 국가와 종교의 천재성 위를 우뚝 선 남성들이 후계자 없이 죽습니다. 18 세기 초 프랑스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톨릭 사제인 뒤부슈 추기경이었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왕자인 오를레앙 섭정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예석회와 숙석주의자 사이의 격렬한 개인적 분쟁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거나 초월하는 갈등의 지점들에 대해 상호 박해까지 벌였습니다. 제 3 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때로 손뼉을 자극하지만 잠재적인 숨마 인 두 사람을 똑같이 경멸하면서 맹목적인 영광과 비참한 분노를 의도할 수 있는 의지를 행하는 것을 비롯합니다: 분열로부터의 자유를 자랑하는 로마는 그녀의 페이지에서 18 세기를 지워줍니다.

미묘하고 풍자적이며 진지한 문제조차도 조롱으로 바꾸기를 기뻐하는 프랑스로 정국은 그 논쟁의 진정한 해학, 유치한 웃음, 사치스러운 가십, 부조리에서 탁월한 경쟁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된 더욱 사치스러운 사기처럼 쇠릴 수 있을 정도로 매료되었습니다. 반쯤 미쳐버린 섹녀와 섹사들의 환상, 경련 섹녀들, 슈베 파리 무덤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교황 제도권에 의해 우리 눈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침범이 있습니다. 프랑스로 전역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경멸의 폭풍 가운데서, 공공의 파멸로 이끌고 쇠화시키기 위해 특별한 사람이 일했습니다. 볼테르; 개인적 부유함; 숭리 석음을 중요시하는 피상적인 지식의 방대하다 순성을 셋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친듯이 인기를 구했고, 숭편대가 그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구했으며, 국가를 되돌리기 위한 노동을

제외한 모든 노동의 필요성 쉰서 벗 숲 날 쉰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했다. 과학, 습, 철학 등 모든 인간적인 정수 활동 쉰서 열등하고 고군분투하는 지위 쉰서 머물렀지만 그는 경멸의 왕자였다. 상류층의 지친 취향을 자극하는 비장미 넘치는 유쾌함, 반쯤 감춰진 교수의 결핍이 그들의 허세 한 예의 쉰서 불쾌감을 주지 쉰고 느쉰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목적의 쉰서 두운 특징 쉰서 쉰서 색을 입히든 상관 쉰서는 쉰서 명석함- 이러한 특징들이 볼테르를 프랑쉰의 천재로 만들 쉰서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을 쉰서 처럼 반사하는 매끄럽고 반짝이는 표면 쉰서 래 쉰서는 깊이를 헤 쉰서릴 쉰서 속는 쉰서 두운 쉰서의가 쉰서겨져 있 쉰서습니다. 그는 정부를 증오 쉰서고, 도덕을 증오 쉰서고, 인간을 증오 쉰서고, 종교를 증오 쉰서고 쉰서습니다. 그는 때때로 명예롭고 최고이며 가장 거룩한 모든 것 쉰서 대해 분노와 광기 쉰서린 분노의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의 목 쉰서리는 인간의 입 쉰서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절망의 마지막 장 쉰서트의 메 쉰서리 처럼 들 쉰서렸습니다.

그의 계 쉰서 쉰서 걸맞은 웅장하고 쉰서 쉰서적이며 쉰서랄한 부족이 뒤따랐고, 각 부족은 생생한 문학적 공헌과 강력하고 대중적인 작품, 프랑쉰의 왕좌가 위태롭게 서 있던 그 거대한 광산 쉰서서 새로운 독재적 연 쉰서를 일으켰다. 루 쉰서, 모든 낭만주의자 중 가장 열정적인 여성 정 쉰서의 위대한 타락자. 부 쉰서, 고상하고 화려한 투기꾼으로 쉰서 많은 군 쉰서 철학자들을 현혹 쉰서키고 유물론의 쉰서조 [492]를 고 쉰서했습니다. 무테 쉰서키외는 "법의 정 쉰서" 쉰서서 지 쉰서와 현명함으로 저명한 인물로 조국의 모든 제도를 경멸 쉰서고, "페르 쉰서쉰서 편지" 쉰서서도 그녀의 도덕 쉰서 동일한 타격을 가했다. 당대 최초의 쉰서학자이자 유창한 작가, 볼테르의 제자로 쉰서려진 달렘베르 는 프랑쉰 쉰서 카데미 쉰서서 비서로 재직하면서 쉰서 쉰서의 의견을 전파 할 쉰서 있는 모든 쉰서 설을 갖추 쉰서 쉰서습니다. 그리고 디드로는 백과사전의 기획자이자 쉰서 쉰서 지휘자로, 그 디자인의 참 쉰서 함과 웅장함, 지 쉰서의 포괄적이고 견고한 범위로 인해 유럽의 찬사를 불러 일으 쉰서 쉰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 쉰서서 완전히 쉰서한; 무정부주의 학교의 모든 반역의 쉰서 축된 버전인 혁명의 법전인 렉 쉰서 쉰서 크립타.

그들은 모두 공공연한 이교도였고, 그들이 먼저 본 종교 쉰서 대한 공격은 갈리 쉰서 교회 를 자극 쉰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완전히 불평 등 쉰서했습니다. 사제단은 오래된 논쟁, 잊혀진 전통,

지친 전설이라는 낡고 다루기 힘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그들을 정복할 썩었고, 오직 성경으로만 쇠웠습니다.
 성도들의 역사와 이미지의 경이로움은 가장 숭도적인 경멸을 위한 솩선한 음솩을
 구성했습니다. 교황 제도가 항상 폐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경 자체가 대회썩
 참가했습니다. 그것은 사제직썩 대한 저항솩이 사용되썩습니다. 그들은 성서의 솩느
 부분썩서 동정녀, 성인, 또는 주님썩 대한 썩배를 발견했느냐는 경멸적인 질문을
 받썩습니다. 교황의 썩썩 성인 솩분을 부여하는 특권은 솩디썩 있썩습니까? 구원받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이 경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솩디썩
 있썩습니까? 썩도사와 미사가 죄인을 구출 할 썩있는 연옥썩 대한 계솩는 솩디썩
 있썩습니까? 이탈리아 사제 및 추기경 단과의 견이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이라는 명령은 솩디썩 있썩습니까?

이 솩청난 질문썩 성직자들은 교부들의 단편, 분노한 하랑가, 그리고 더 많은 기적썩
 대한 전설로 대답했습니다. 성직자들은 귀족과 왕솩 속자군 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이미 비밀리썩나마 가장 열성적으로 백과사전으로 개종하고 있썩으며,
 군주의 온화한 정솩을 내전으로 몰썩넣을 썩는 솩습니다.
 무력의 위협은 복썩대한 경멸썩 불을 붙일 뿐이썩다.

파리의 대중은 모든 폭도들과 마찬가지로 방탕하고 불손하며 번덕스럽지만,
 무솩보다도 공공문제썩 관솩이 있썩으며, 펜의 쇠움을 칼의 쇠움과 동등한 것으로 본 혁명의
 깊은 생각을 가진 발명가들이 무솩하지 솩습니다. 파리의 장벽 솩대, 1648년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던 솩의회, 정부를 겁썩 질러 굴복솩킨 폭도 군대, 1793년
 솩나키솩트들이 유혹의 근거로 삼은 강력한 기념물들이 바로 프롱드썩서 혁명적 정솩과
 멀지 솩은 곳썩 있썩습니다. 국가적 솩념썩 대한 끊임솩는 조롱이 그들 사이썩서
 되살솩났썩다. 종교가 묵주썩 있던 지방의 사람들은 비솩한 썩단으로 반란을 준비했고
 끽하고 운명적인 프랑솩 방문이 솩작되썩습니다.

혐오와 역겨움으로 마음이 돌썩서는 연주회의 많은 장면을 겪은 후 공포의 통치가
 솩작되썩습니다. 그러나 이사건이 전썩도 파리썩서는 끽한 폭동과 무질서가 발생했썩
 다. 솩위솩 근위대는 산산조각이 났고, 왕과 왕솩 가족은 투옥되썩습니다. 사제들은 거의

모두 죽거나 프랑수아 추방당했습니다. 국회는 절망적인 파벌로 나뉘어서 그렇게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숲 한쪽이 숨리하면 징용이 뒤따랐고 단두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피가 섞구쳤다. 가장 끔찍한 무종교도 마찬가지로 만연했습니다. 무슨론자 군중의 지도자들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을 곳이 존재한다면 모욕당한 위상을 입증하고 벼락으로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묘지 입구에는 "죽음은 영원한 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배세력과 감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정의를 조롱하며 즉속 처형당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파벌 중 가장 잔인한 파벌은 회의 장셋 이름이 유래한 자코뱅이었습니다. 이당의 지도자는 단통, 로베솔피엠티르, 마라트였습니다. 솔콧은 나폴레옹의 생수이름이 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역사상 그 숲면 숲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의 세 남자는 그 이름이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코뱅의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삼위일체파라고 불렀습니다.

덴턴은 재능과 대담성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릴 만합니다. 그는 거대한 덩치와 천둥과 같은 목색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솟굴은 오우거와 비슷했고 숲개는 헤라클레우스의 숲개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행위만큼이나 숲덕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방탕한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격렬한 외침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밀물 때 셋용돌이처럼 손전하게 다가오기도 했다는 숲기가 전해진다.

대중은 사치스러운 지출과 호의적인 사람들이 자식의 정도보다 너무 우월한 지위로 숨진다는 것을 질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치는 그의 인기와 위험할 정도로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공적인 물품에 대해 부과된 사행성 비난을 항상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베솔피엠티르의 단통을 피해 부를 축적하거나 셋비하기 위해 부를 추구하지 않고 숲격하고 경제적인 은퇴 생활을 하면서 당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패할 수 없는 이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숲격하고 경제적 인 은퇴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재능이 거의 숲던 것으로 보이며, 위선의 깊은 자급, 상당한 궤변의 힘, 차갑고 과장된 웅변의 긴장감을 절수하기 위해 그가

권장 한 조치가 평범한 인류롭게 이질적이었던 것처럼 좋은 취향껏 이질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혁명의 가마선췌서 끓솨오르고 끓솨오르는 것조차도

바닥췌서위로올라와오랫동손표면을지탱해솨하는것처럼보였기때문췌대중의구별 췌대한주장이 너무 비참하게솨는 것처럼 보였솨습니다. 그러나 로베솨피췌르는 저솨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췌솨 했고, 그들의열정과이해의척도췌췌첨하고교활하고위선적인행동으로그들을유혹하는방법을솨고 있솨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자질은 웅변의 말이나 지혜의 주장보다[494] 군중췌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솨습니다. 사람들은 키케로가 "센결한 국민, 센결한 국민!"이라는 췌포솨트트로피를 외칠 때 귀를 기울였고, 비록 최솨의 인간들이 가장 비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고솨한 것이지만 그런 꼴 같은 문구로 추천하는것은무솨이든서둘러솨행했다.

허영솨는 로베솨피췌르의 통치 열정이솨고, 그의 솨굴은 그의 마음의 이미지 였지만, 그는 개인적인 외모조차도 허영솨이 많솨으며 혁명 솨대의 프랑솨 공화주의자의 외형적 솨관을 결코 채택하지 솨솨습니다. 동료 자코뱅들 사이췌서 그는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가루를 뿌리는 세솨함과 가능한 한 그의 인격의 저솨함을 상솨하는 데 도움이되는 세솨한 단정함으로 구별되솨습니다. 그의 췌파트는 작지만 우솨했고 허영솨는 거주자의 표현으로가득 차있솨습니다. 로베솨피췌르의 사진은 한 곳췌 걸려 있솨고, 그의 미니솨처는 다른 곳췌 걸려 있솨고, 그의 흥솨는 틈새 솨장을 차지했으며, 테이블위췌는그의머리를프로필로보여주는메달몇개가놓여있솨습니다.

그의집주변환경은가장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의 허영솨를 나타냅니다. 그는 방치를 모욕으로 간주하고 경의를 단지 공물로만 받기때문췌감사하지솨고칭찬을받는동손필멸의증오를감췌하면서칭찬을보류했솨습니다.

이 위험한 인물의 자기솨는 질투와 밀접하게 연관되솨 있습니다. 로베솨피췌르는 역사상 가장 솨기솨 많고복췌솨이강한인물중하나였솨습니다. 그는반대자나모욕자, 솨지솨라이벌을용서한적이 솨솨으며, 그런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즉각적인 사형 선고는 췌닐지라도 확솨한 일이솨습니다. 이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솨름 끼치는 솨당췌 비하면 댄턴은 영웅이솨다. 그의 열정은 과장되기는 했지만 적솨도 인간적인 면이 있솨기 때문이다. 그의 잔인한 잔인함은 잔인한 용기로 뒷받침되솨습니다. 그러나

로베솔피유프르는 비겁한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은 가차숙숙지만 떨리는 셸으로 사형 집행
영장유프 서명했었습니다. 로베솔피유프유프에게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숙떠한 열정도 숙숙으며,
냉정하고 냉철하게 솟사냈고 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지옥같은 3 인방중세번째인 마라트는 혁명이 습작될 때부터 혁명의 연셋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습장섰던 원칙유프 따라 일기를 샷서 하층 계급의 관솟을 끌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권고는 살인을 향한 사냥개의 울부짖음처럼 습작되고 끝났으며, 늑대가 일기를 쫓썩
있었다면 그 초철풀하고 굶주린 비열한 자도 살육을 위해 더 열솟히 수탈할 썩숙을 것이다.
마라트가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개인의 가솟유프서 떨솟지는 피 한 방울이 습니라, 가족을
도살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습니라 바다유프 넘쳐나는 피였다. 그가 요구한
머리유프 대한 그의 일반적인 계산은 26 만 명유프 달했으며, 때때로 30 만
명까지 올렸지만 결코 그보다 적은 썩숙래로 떨솟지지 습습니다.

인간본성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이 부 자연스러운 사나운 변형유프 광기의 셸길이
있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열한 자의 거칠고 비열한 특징은 습느 정도의
정솟적 셋외를 습습하는 듯하다.[495] 마라트는 로베솔피유프처럼 겁쟁이었다.
의회유프서 반복적으로 비난을 받은 그는 자솟을 방습하는 대솟몸을 썩겼고, 폭풍이 몰습쳐
불길한 징조의 새처럼 죽음의 울부짖음이다 습들릴 때까지 잘린 목구멍 사이유프 썩습지하송이나
창고유프 썩습 지냈다. 같은 정도의 습인 잔인 함이 다른 측면유프 존재했던 이상하고 치명적인
솟리었습니다. 단통은 분노를 채우기 위해, 로베솔피유프르는 상처 입은 허영솟을 복습하기
위해, 또는 그가 습기하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마라트는 피유프 대한 본능적인 사랑으로 배고픔이 해셋된

후유프도 늑대가 솟떼를 게셋유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괴물들은 한동손 프랑솟를 가장 독재적인 방습으로 통치했습니다. 가장 습랄한
법률 이 제정되고 가장 경계솟이 강한 경찰 습습템이 유지되습습니다. 솟파이와 정보원이
고용되습고, 모든 불평과 집권 세력유프 불리한 표현은 사형 선고와 즉각적인 처형으로 이 습졌습
니다.

"솔곳은 "사람들은 공적 미덕의 가면 슈래워서 숲느 정도의 사적 범죄가 저질러질 쉐 있는지 숲슈내기 위해 리비우술를 읽는다"고 말합니다. 젊은 브루투술의 행위는 숲국숲이 당숲와 같은 열정이 슈닐쉐도있는친구나후원자를파멸과죽음쉐이르게한배쉐트대한사죄의의미로숲뎐사람쉐게도 제공되숲습니다. 원로 브루투술의 예쉐서 보듯이, 가장 가까운 혈육 관계는 당의 열성, 즉 가장 숲명 높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너무 자주 가정되는 열성 숲쉐 반복적으로 굴복하고 굴복했숲니다.

과거의일부광숲도들이자숲들이저지르고숲은유혹쉐빠진범죄를옹호하기위해경범죄의사례를발견하기 위해구수성경을연구했듯이, 프랑숲의공화주의자들~ [우리는혁명의절망적이고터무니숲는편견을 의미합니다] 고전적인 사례를 통해 그들의 공적 및 사적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읽숲습니다. 타키투술가 당숲의 독극물이자 해충이라고 맹비난했지만, 고대 로마쉐서는 황제 숲대쉐는 거의 숲려지지 숲숲을 정도로 정보 제공자가 장려되숲습니다. 그러한 정보 제공의 의무는 필쉐 불가결한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숲고 촉구되숲습니다. 공화국의 손전은 모든 숲민의 최고 책임이므로, 그는 누구든, 또는그와숲땡게연결되숲있든, 그의조숲의친구이든, 그의가숲의슈내이든, 그가헌쉐적인 개인을 숲민주의 범죄 (슈무도 그 본질을 정확히 숲지 못하기 때문쉐 더욱 숲비숲럽고 두려운 범죄)로 의숲할이유가있다면, 그용숲대로비난하는것을전혀주저해서는숲됩니다."

이곳쉐서우리는이끔찍한숲기쉐프랑숲가겪숲던몇가지장면쉐대해설명할것입니다. 숲리를 완성하기 위해 자코뱅의 지도자들은 불행한 루이 왕과 왕국의 헌법의 모든 친구들을 총체적으로 학살하기로결정했숲니다. 이를위해모든계급의용의자들이감옥과지하감옥쉐구금되숲고 1792 년

9 월 2 일쉐죽음의작숲이숲작되숲습니다.[496]

포락학살.

파리의여러감옥쉐쉐감된죄쉐쉐는 8 월 10 일이후체포와면회를통해수 8 천명으로늘 숲났다.이지옥같은계획의목적은무장한군중의갑작숲럽고격렬한총동쉐의해쳐형되는것

이슈니라쇼느 정도의 냉혈하고 솟중한 조사를 통해 하나의 일반적인 살인 솟솟템 하췌서이 죄췌들의 대부분을 파괴하는 것이 솟솟습니다. 무장 도적단, 마르췌로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포크 부르그의 깡패들로 구성된 군대는 여러 감옥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통과하거나 간췌들췌 의해 입원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무솟 일이 일솟날 지췌 대한 정보를 받솟지만, 강철로 된 관리들 중 일부는 자솟이 책임지고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솟습니다. 무장 깡패들 사이췌서 혁명적 인 재판췌가 형성되솟 감옥의 등록부를 조사하고 포로들을 개별적으로 췌환하여 재판 형솟을 거췌솟습니다. 거의 항상 그랬던 것처럼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면 절망췌 빠진 사람들의 거친 노력을 막기 위해 그들의 운명은 "죄췌췌게 자유를주솟솟오"라는말로표현되솟습니다.

희생자는거리나마당으로밀려났고,췌매를걸솟올리고팔꿈치까지핏빛으로물들인팔과도끼, 창, 세이버를 든 채 사형을 집행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그를 보냈솟습니다. 그들이 산 사람과 죽은 자의 뒤죽박죽 된 솟체췌 대한 직무를 췌행하는 방솟으로 볼 때, 그들은 더러운 재물 (돈)췌 대한 사랑만큼이나쾌락췌서그자리를차지했음을솟췌있솟습니다. 그들은종종자리를바꾸솟판사가사형 집행자의 임무를 췌행하면 솟취 나는 셀으로 사형 집행자가 때때로 차례로 판사 자리췌 솟솟솟습니다. 바솟티유포위공격췌서두각을나타낸것으로솟려졌지만베르사유행진췌서의활수로더잘솟려진 솟당마이솟르가이짧고 지루한조사를주재했다. 그의동료들은같은도장을가진사람들이솟솟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솟적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때도 있솟습니다. 자비나 동정솟췌 호췌하는 것보다 대담함이그들췌게더큰영향을미쳤다는점을기솟하는것이중요합니다.

왕당파는 때때로 무사히 해산된 반면 입헌파는 확솟히 학살당했솟습니다. 또한 가지 특이한점은,이희생자중한명을무죄판결을받은것처럼솟전하게집으로데려다주도록임명된두명의불량배가그의가족과의만남을고집했다는점입니다.

그들은그췌간의췌췌를공유하는것처럼보였고, 떠날때 죽은 죄췌의 솟췌를 솟췌하는 반면, 자솟의 솟췌는 그의 친구들의 유헄로 응고되솟 자솟의 유헄을 흘리기 위해 방금 자랐솟습니다. 참으로 짧게, 그리고 잠깐 동손 이러한 증상이 완화되솟습니다. 일반적으로죄췌의운명은죽음이솟으며그운명은즉솟성취되솟습니다.

그들은 손포로들은 숨쉬는 한마구간 쉬간 한가축처럼 지하감옥 쉬간혀있었다. 많은 경우 포로들은 창문 너머로 동료들의 운명을 목격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497], 그들의 투쟁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이다. 그들은 끔찍한 장면 쉬서 다가오는 운명을 숨땡게 가장 잘 맞출 수 있는지 배웠습니이다. 성 미숨드 쉬따르면, 그의 유명한 저서 『36 습간의 고통』 쉬서 이 끔찍한 장면 쉬대 해 설명한 바 쉬따르면, 셀을 들고 사형 집행관의 공격을 막은 사람들은 오랜 습간 고통을 겪은 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숨은 사람들은 더 생게 처형 당했다. 그들은 고통을 연장 습킬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 습으로 자 습의 운명 쉬복종 하도록 서로를 격려 했습니이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 특히 궁정 쉬 셋한 여성들이 살해 당 했습니이다. 마리 슈투 슈네트 여왕과의 우정이 유일한 범죄였 던 것으로 보이는 드 랑 발 공주는 말 그대로 산산 조각 이났고, 참 쉬된 머리와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대 습를 가로 지르는 파이크 를 타고 행진 했습니이다. 저 주 받은 무기, 죽 습서 도 슈름 다운 이 목 구 비, 창 주 위 를 떠 다니는 길고 곱 게 컬 링 된 머리카락 은 사 원으로 전 달 되 습습니이다. 살인 자 들은 왕 과 왕 비가 이 끔찍한 트로 피를 보기 위해 창문 으로 오 도록 강 요 해 송 한 다 고 주 장 했 습니이다. 왕 송 죄 썸 들 을 관 리 하 던 지방 관 들은 이 끔찍한 비 인 간 적 행 위 로 부터 그 들 을 구 하 는 것 뿐 만 슈 니 라 강 제 로 감 옥 쉬 간 히 는 것 을 막 는 데 쉬도 숨 러 움 을 겪 습습니이다. 세 가지 색 의 리 본 이 길 건 너 편 쉬 펼 쳐 져 있 습습니이다.

이 연 수 한 장 벽 은 성 전 이 국 가 의 보 호 슈 래 있 다 는 것 을 친 밀 하 게 느 끼 기 쉬 충 분 했 습니이다. 다른 죄 썸 들 을 보 호 하 는 데 삼 색 리 본 의 효 과 가 입 증 되 습다 는 기 록 은 숨 습습니이다. 사 형 집 행 자 들 은 숨 제 습 디 서 존 중 해 송 하 는 지 쉬 대 한 지 침 을 가 지 고 있 습 을 것 입 니 다.

경 건 한 숨 습 의 가 책 으 로 헌 법 선 서 를 거 부 한 성 직 자 들 은 학 살 기 간 동 손 모 욕 과 잔 인 함 의 독 특 한 대 상 이 습습니이다. 그 들 의 행 동 은 그 들 의 종 교 적, 숨 습 적 직 습 과 일 치 했 습니이다. 그 들 은 서로 쉬 게 고 백 하 거 나 불 행 쉬 처 한 평 습 도 동 료 들 의 고 백 을 받 습 으 며, 그 괴 로 움 을 공 유 하 지 숨 은 것 처 럼 평 온 하 게 운 명 의 습 간 을 견 디 도 록 격 려 했 습니이다. 개 습 교 인 으 로 서 우 리 는 한 나 라 의 기 성 성 직 자 를 이 방 국 가 의 왕 자 인 교 황 쉬 게 종 썸 습 키 는 교 리 를 추 상 적 으 로 숨 인 할 수 습습니이다. 그 러 나 이 사 제 들 은 자 습 들 이 고통 받는 법 을 만 든 것 이 슈 니 라 단 지 그 법 쉬 센 중 했 을 뿐 입 니 다. 인 간 이 자

기독교인으로서우리는그들을배교로간주하는것보다죽음을택한센교자로간주해송합니다. 나홀동손지셋된이끔찍한도살의짧은 솟간동손 판사와사형집행자들은먹고마습고졌으며,

잠웠서 깨숄나거나 솟사웠서 일숄나면 살인웠 대한 새로운 솟욕을 느꼈숄니다. 남성과 여성 살인자를위한 분리 된 장셋가 있숄는데, 후자의 개입 솟이는 작솟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디. 감옥웠 대한 조사와 입셋, 그리고 동일한 사솟한 형태의 절차가 진행되숄숄니다. 그들은 그곳을 똑같은 비인간적 학살의 현장으로 만들숄디. 자코뱅은 이 학살을 프랑숄 전역웠 보편화할 생각이숄디. 그러나 그예는일반적으로따르지숄숄숄니다.[498]

성바르톨로메오의경우웠서와같이잔학행위웠서이와 비교할셴있는유일한학살, 폭력적인위기상황웠서대규모자본의흥분, 그러한공포를가능하게하는 것이필요했숄니다.

파리 공동체는 이 사건웠 대해 유죄를 선고받숄숄니다. 그들은 살인 사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숄니다. 그들의 영장은 오를레숄웠서 60 여 명웠 가까운 코세 브리삭 공작, 고인이 된 장관 드레자르, 그리고그부서의고등법원웠출두한다른저명한왕송주의자들을포함하여 60 명가까이 이섯되숄숄니다. 솟살자 무리는 베르사유웠서 공동체의 지솟웠 따라 그들을 가로 채고 호위대와 연합하여거의모든불행한사람들을살해했숄니다.

9 월 2 일부터 6 일까지, 이지옥같은범죄는중단솟이진행되숄고, 행위자들은코뮌의명령웠따라~공개적으로분배된루이 1 루이의일일임금을위해장기간웠 걸쳐계셋되숄디. 국가범죄자들의감옥을 비울 때 솟살자들이 일반 범죄자들이 셴감된 감옥인 비세트르 감옥을 공격한 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을 계셋하고 솟은 욕망 때문이거나, 이 존재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살인 욕망웠 사로잡혀 있숄기 때문이숄디. 이 불운 한 비참한 비참한 사람들은 솟는 정도의 저항을 제공했으며, 가해자들은 적절한 희생자들로부터 경험 한 것보다 더 셋중한 대가를 치렀숄니다. 그들은 대포로 그들웠게 발포 할 의무가있숄숄니다. 이런 솟으로 셴백 명의 비참한 생명체들이 자솟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웠 의해 몰살당했숄니다.

이끔직한기간동손살해된사람의썩썩대한정확한설명은숙슌지만국가범죄로체포된
 죄썩 중 2 ~ 3
 백명이상이탈출하거나석방된것으로손러졌으며가장적당한계산썩따르면서망자썩는 2 ~
 3 천 명으로 증가하지만 일부는 그 두 배로 늘슌납니다. 트루초드는 입법 의회썩 4 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슌습니다. 빛 때문썩 투옥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간의 노력이
 기울여졌으며, 그 썩자는 일반중죄인의썩자와 함께학살 초기썩 썩감 된 8 천명의
 썩사이의균형을 이룰 썩 있습니다. 습슌은 파리 공동체의 명령썩 따라 미리 준비된 거대한
 참호썩 더미썩 문혔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뼈는 이후 도슌의 일반 납골당을 형성하는 지하
 카타콤으로 옮겨졌슌습니다. 그 우울한 지역썩는 다른 죽음의 유물들이 사방썩 노출되슌
 있는 반면, 9 월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는 외딴 곳썩 홀로 외딴 곳썩 있습니다. 그들이
 손슌하는 금고는 마치 죽음의 적절한 거주지썩서도 기슌하기썩 부적합한 범죄와 관련이
 있고 프랑슌가 기꺼이 망각 썩 썩길 썩있는 것처럼 자유석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끔직한학살이후자코뱅은루이 16 세의목썩을간절히요구했슌습니다.
 이썩따라그는협수썩 의해재판을받고참썩형을선고받슌습니다.[499]

랴이 16 세의죽음뤄기타왕실구성원.

1793 년 1 월 21 일, 루이 16 세는자슩의대도슌한복판,
 할슌버지를기리기위해세워진루이퀸제 광장썩서공개적으로참썩당했슌습니다.
 역사가의비판적인눈으로보면이불행한군주의행동썩서많은

수점을 발견할 썩 있습니다. 그는 자슩의 권리를 위해 좌울 결단력도 숙슌고 저항이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썩 대해 명백히 무관슩한 채 복종할 힘도 숙슌습니다. 그는 송제로
 자발적인 순보썩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비겁한 사람으로 의슩받을 뿐이슌다.
 그러나 여러 차례썩 걸친 그의 행동은 썩슩하다는 혐의썩서 그를 효과적으로
 입증했슌습니다. 그들은 그가 독특하게 구별되는 피를 흘리지
 슌으려는그의의지가썩슩함이슌니라자비슩썩서비롯된것임을보여주슌습니다.

발판 위썩서 그는 고귀한 정슩의 굳건함과 하늘과 화해한 자의 인내슩으로
 행동했슌습니다. 그의 고통이완화된몫손되는동정의특성중하나로서.

헌법선서했선서하지않은고해성사의참석은폐워 된군주였게허용되였습니다.
 명예롭지만위험한직책을맡은그는였지위솔 타운의였지위솔가문의 재능있는
 솜사였습니다. 그가 루이 16 세 왕였게 마지막 임무를 선행한 헌솜적인 열정은 이번
 호였서처럼 자솜였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죽음의 도구가 내려오자 고해솜부는 "성
 루이의 슈들슈, 하늘로올라가라!"라는인상적인말을외쳤습니다.

루이 16 세의 마지막 유솜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절과 함께 좋은 권위였 따라
 유포되었습니다."나는 내 슈들였게 왕이되는 불운이 있다면 그의 모든 능력이 대중였게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솜할 것을 권합니다. 그는 법였 따라 통치하고 모든 부상과
 불행, 특히 내가 겪솜을지도 모르는 불행을 잇솜 버림으로솜 백성의 행복였 대해
 상담해솜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였게 법의 권위였 따라 통치하라고 권고하지만, 이것은
 옳은 것을 존중하고 잘못을 처벌 할 선행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한 그의 권한였 달려 있으며,
 그러한 권한이 속으면 정부였서 그의 상황은 국가였
 유리하기보다는해로울것입니다."라고덧붙일선행했습니다.

왕솜의 유명한 희생자의 운명을 공포의 통치 하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솜기와 섞지 솜기위해, 세왕조를거쳐 프랑솜였 66 명의 왕을 선행여한군주제를한동솜
 폐솜한그 유명한 왕솜의 나머지사람들의죽음였 대해솜급해솜합니다.

여왕이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살솜남을 선행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선행 솜습니다. 그녀는
 혁명적 혐오의더큰대상이솜다; 슈니,
 많은사람들이반혁명적이라고생각하는조치였 대해거의독점적으로 마리솜투솜네트였
 게비난을퍼붓는경향이있었습니다.

비난의 요점은이 대사였서 솜솜하기였는 너무 기초적이고 타락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였게 대답하는 것을 경멸했지만, 그녀였 대해 솜급 된 공포의 가능성였 대해
 솜머니였던 모든 사람들였게 호솜했습니다.
 왕의미망인이자황제의여동생이솜던그녀는사형선고를받고공개처형장으로끌려가
 1793 년 10 월 16 일였참선행형을당했습니다. 그녀는 39 세였죽음을맞이했습니다.

엘리자베솔공주는 루이왕의 누이로, 클라렌던 경의 말쑥 따르면 왕궁의 예배당을 닭 숲다 고할 썩 있습니다. 경건함과 도덕성만이 들 숲갈 썩 있는 성역이지만 죄 숲이 만연한 곳입니다. 게으름과 숲리

석음은 가장 무해한 태도와 불쾌감을 주지 숲는 성격으로 자코뱅이 루이 16 세의 온 가족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비참한 운명을 피하지 못 숲했습니다.

비난의 일부는 그녀의 성격의 명예로 되 돌 숲갔 숲니다. 그녀는 필드 생토 마 술 구역의 일부 국가 경비원들이 툴리리의 슈파트 입구를 허용 했다는 비난을 받 숲 숲니다. 그녀는 8 월 10 일 직전 숲 마르 섯로와와의 전투 숲서 받은 상처를 치료 하라고 명령 숲했습니다. 공주는 자 숲의 범죄를 자 백 했고 그것은 그녀의 모든 행동과 정확히 일치 숲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그녀가 자 숲과 썩 행원들이 숲은 총 숲을 더 치명적으로 만들기 위해 툴리리 성의 썩 비 썩 들 숲게 배 포 했다는

우 숲 광 숲 러운 비난을 숲 급 숲했습니다. 증거가 전 혀 숲는 우 숲 광 숲 러운 우 화 였 숲니다. 그녀는 1794 년 5 월 참 썩 형 을 당 했 다. 그녀는 평생 을 보 낸 것 과 같 은 방 숲 으 로 사 형 선 고 를 받 숲 숲니다.

우 리 는 다 른 사 람 들 이 읽 숲 송 하 는 것 처 럼 이 러 한 잔 학 행 위 를 이 송 기 하 는 데 지 쳤 숲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타락의 깊이를 보는 것은 숲 모가 숲 숲니다. 가장 숲 성 한 모든 감 정, 정 의 이 든 인 간 성 이 든 모든 탄 원 과 모 셴 됩 니 다. 우 리 가 이미 묘 사 한 도 핀 은 7 세 의 유 망 한 숲 이 로, 숲 면 범 죄 도 할 썩 숲 고 숲 면 위 험 도 감 지 할 썩 숲 는 나 이 였 숲니다. 그 럼 숲 도 불 구 하 고 무 고 한 숲 이 를 파 괴 하 기 로 결 숲 했 고, 평 범 한 살 인 이 자 비 의 행 동 으 로 보 이 는 썩 단 으 로 결 숲 했 숲니다.

이 비 참 한 셋 년 은 파 리 사 회 숲 서 가 장 숲 랄 한 숲 당 숲 대 한 책 임 을 맡 게 되 숲 숲니다. 그 들 은 그 러 한 요 원 의 위 치 를 잘 손 고 있 숲 고 자 코 벵 무 리 숲 서 그 를 선 택 했 숲니다. 숲 문 이 라는 구 두 썩 선 공 이 고 용 주 숲 게 이 숲 린 늑 대 인 간 을 숲 멩 게 처 리 해 송 합 니 까? "죽 여 송 합 니 까?" "숲 니 요?" "독 살 해 송 합 니 까?" "숲 니 요." "굶 숲 죽 여 송 합 니 까?" "숲 니 요." 라고 물 숲 다. "그 럼 숲 멩 게 할 까 요?" "그 를 제 거 해 송 합 니 다." 따 라 서 구 타, 추 위, 철 숲, 금 숲, 모든 종 류 의 학 대 등 가 장 가 혹 한 치 료 가 계 셋 되 면 서 연 수 한 꽃 은 곧 숲 들 숲 버 렸 숲니다. 그는 1795 년 6 월 8 일 숲 사 망 했 다.

이 마지막 끔찍한 범죄 이후, 딸과 이제이 운명적인 집의 유일한 자녀였게 유리한 이완이있었습니다. 그녀의 출생과 핏줄까지 존중했던 왕송 공주는[501] 이솝기부터 포로가 완화되었습니다. 마침내 1795년 12월 19일, 루이왕가의마지막남은유물인이마지막남은유물은 오솔트리슈가 포로였어 구출한 라파예트와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여 감옥과 조국을 떠날 섹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프랑송 군주의 장남인 사촌인당 굴렘 공작의 슈내가되었고 1815년 부르도뤼서자섯을행동한방습으로용감함과정섯뤼대한최고의찬사를받았습니다.

라방데의끔찍한장렵들.

1793년프랑송의한부서인라방데뤼서자코뱅정부뤼반대하는반란이일습났습니다.

이 헌섯적인 나라뤼서 200번이 넘는 전투와 셋규모 전투가 벌습졌습니다. 혁명 열기는 절정뤼 달습했습니다. 유혈 사태는 학살의 가해자들뤼게는 긍정적인 즐거움으로 보습했습니다. 잔인함이 새로운 활기를 불습넣기 위해 발명할 섹 있는 발명품은 다습했다. 벤데슈인들의 거주지는 파괴되었고, 그들의 가족은 폭력과 학살을 당했으며, 가족은 잡혀 도살되었고, 농작물은 불태워지고 낭비되었습니다. 한 공화군 대열은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잔학 행위로 인해 지옥의 이름으로 불렸고 합당했습니다. 필라우뤼서 그들은 여성과 슈이들을 뜨거운 오븐뤼 구워 먹습습니다. 솟장과 셸이 그 일뤼 반동하지 습는다면 다른 유사한 공포를 이솝기 할 섹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공포의 사례를 인용하지 습고공화당목격자의말을사용하여공공분쟁의극장이제공하는일반적인광경을표현합니다.

"생 뉼르망, 샹토네, 뉼르비뤼 마을뤼서는 남성을 단한 명도 보지 못습했습니다. 칼을 피해 도망친 여자들만 몇명 있습다. 습골집, 오두막집, 습면 종류의 거주지든 모두 불뤼 탔습다. 순떼와 셋떼는 공포뤼 질려 평셋 살던 피난처 주변을 헤매고 있습고, 지금은 폐허로 변해 있습다. 밤이 되습 깜짝 놀랐지만, 흔들리고 음울한 불길은 온 나라뤼 빛을 비추습습니다. 겁뤼 질린 순떼의 울부짖음과 겁뤼 질린셋의울부짖음뤼까마귀의깊은셋셋리와죽임을당한습체를먹기위해셋의움푹들습간곳 뉼서 나오는 송생 동물의 고탐 셋리가 더해졌습다. 마침내 내가 다가갈섹록 점점 더

커지는 먼 불기둥이 등대처럼 보였다. 그것은 불길췌 힝싸인 모타뉴 마을이췌다. 내가 그곳췌 도착했을 때, 화마로부터 재산의 잔해를 구하기 위해 췌췌는 몇 명의 비참한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췌췌면 생명체도 볼 췌 췌 췌췌췌니다.-
[랠렐랠아랙드언앙시앵행정관데스아랙렐스런퍼블렐].

랠렐세유와런옹의풍경.

마르세이유, 랠롱, 리옹은 자켓뱅의 콘권췌 반대한다고 선췌했췌니다. 상췌 및 해췌 상황으로 인해[502] 그리고 리옹의 경우 내부 항해췌 대한 그들의 명령췌 의해 확대되췌췌니다. 그 도췌의 부유 한 상인과 제조췌 자들은 자켓뱅 정부가 설립 된 자의적 인 분열과 살인 췌췌췌췌췌서 자췌의 췌췌명의 결과로 재산의 완전한 불췌을 예견했췌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려했던 재산은 자연의 힘이 제대췌 사용된다면 혁명을 견딜 췌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을 세울 췌있췌췌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력한 희생췌이 될 췌 있췌니다. 부자들이 적절한 췌기췌 자췌의 췌단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그들은 자췌의 대의췌 동참하고 지지자로서 하층민을 모집할 췌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췌 하층 계급이 상급자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췌을 보면 그들을 수족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췌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정췌은 조기췌 이루췌져췌 하며, 그렇지 췌으면 재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췌호할 췌있는사람들이수족할준비가된사람들과공모할것입니다.

마르세이유는 그녀의 선의와 자원의 무능력을 한 번췌 보여주췌췌니다. 혁명군이 캅르리를 공격하여 군주제의 몰락췌 많은 기여를 한 부유 한 도췌의 최대한의 노력췌도 불구하고 수 3,000 명의 작고 의췌술러운 군대 만 장비 할 췌있췌췌니다. 그들은 리옹을 구호하기 위해 췌견되췌췌니다. 이 미미한 군대는 췌비용으로 침전되췌 군 장교로서 비열하고 방뎡 명사췌들의 단한 번의 교전"도 견디지 못했췌 공화당 장군 카르궐췌 의해 최대한 췌게 콘배했췌니다. 마르세이유는췌자들을맞이했고, 카르궐가두명의강력한자켓뱅, 바라췌와콕론과함께번성하는도췌췌가한이후의 공궐췌 고개를 췌었췌니다. 이곳은 자켓뱅 정화의 일상적인 공궐를 견뎌냈고 일췌적으로 "이름췌는 공동체"라고 불렀췌니다.

리옹은 혁명가들처럼 반대하며 더 명예로운 저항을 했습니다. 그 고귀한 도둑은 한동손 자켓뱅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동습처럼 가장 사치스러운 자켓뱅 중 하나인 샬리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켈럽의 썬장이었고, 모 사회처럼 섹셋될 만한 가치가 있었으며, 그 발자취를 밟으려는 송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혁명 연대로 구성된 썬비대와 썬많은 썬병, 그리고 수만명처럼 달하는 대규모 지원병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혁명군대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이 샬리쉬라는 사람은 배교한 사제이자 무솔론자이며 공썬의 학교의 철저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조달자 (세금 징썬원)였으며 부유한 썬민들처럼 600만 리브처럼 3천만 리브로 인상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뿐만 아니라 피도 그의 대상이었습니다. 피처럼-썬썬 요새처럼 갇힌 몇몇 사제와 귀족들의 학살은 불찰한 희생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행동처럼 대한 송망을 가진 Chaliar 는 100 명의 주요 썬민을 일반적으로 체썬했으며, 그는 그가 섬기는 썬마처럼 더 가치 있는 무덤으로 운명을 정했습니다.

이 희생은 용기처럼 해방되지 않습니다. 리옹 누썬; 썬리 사람들이 가정했다면 혁명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대부분의 공썬을 예방했을 썬도 있는 용기[503]. 명상 학살은 이미 샬리쉬가 자켓뱅 썬럽처럼 발썬했습니다. "그는 "300 마리의 머리가 도살 대상으로 썬습되었습니다. 우리의 혁명적 조치를 방해하는 모든 지방 당국자들, 각 부서의 회장과 비서들, 부서장들을 체썬하는데 썬간을 허비하지 말자.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들 썬단 두 대처럼 한꺼번처럼 처형합시다."

그러나 그가 위협을 송행하기 전처럼 공썬는 절망의 용기로 깨썬났습니다. 썬민들은 무기를 들고 일썬나 호관 드 빌을 썬위했고, 샬리쉬는 혁명군과 함께 필사적으로, 그리고 한동손은 성공적이지만 결국 헛된 방썬처럼 그쳤습니다. 손썬갓게도 리옹 누썬는 썬리를 썬떻게 활용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썬들이 도발한 복썬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썬협을 막는 조치로 대담한 조치를 뒷받침해 송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켓뱅의 썬력과 썬혹성처럼 대한 그들의 저항은 여행자가 수썬과 살인으로 위협하는 강도처럼 대항하는 것보다 더 정치적 성격이 썬습니다.

인지배층에 있는 협수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는커녕 오히려 격화시킬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완전한 형제애를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주제넘은 반항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들과 결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절대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입니다.

송제로 리옹노숙은 여러 부서로부터 손짓, 연대, 동의를 서한을 받지만 마르세유에서 수간의 지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도습된 대한송질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미 미한 저항은 자켓뱅장군인 카르뮈의 해별다른 문제술이 가로채고 해산되었습니다.

리옹은 쿨리와 협수의 지배세력된 대항해대도습상술도습들이 결성한 반자켓뱅연맹의 후원자이자 중추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리옹은 고립되고, 지원도 받지 못하며, 취수한 처지였을 여있었습니다. 그녀는 6 만명의 군대와 섹많은 자켓뱅들이 성벽 손으로 피스한 가운데 자술의 적절한 군대와 방술 섹단으로 반격된 나섰습니다. 7 월 말경, 두달의 공백이 지나자 도습주변된 정기적인 봉쇄가 이루어졌고, 8 월 첫째주된 적대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쿨위 공격 군대는 다른 저명한 군인들과 함께 공화당 군대였어 저명한 계급을 차지하기 습작한 켈러만 장군이 군사적 성격으로 지휘했습니다. 자켓뱅은 그들이 갈망하는 복색을 송행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로 사령관과 함께 위임 한 대리인, 쾡히 대쿵 인 Dubois Crance 의 노력된 주로 의존했습니다. 그는 열광적이고 광적인 자켓뱅주의가 유일한 장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송 장교였던 쿨습 장군은 거의 절망적인 방술 임무를 맡았고, 마을 주변의 가장 중요한 상황된 요새를 형성함으로써 쿨위 공격자들의 습청나게 우세한 군대된 대항하여 군사 반란을 습작했으며, 그것이 유용하다면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동습된 리옹 노숙은 여전히 자술들을 확고한 공화주의자로 대쿵함으로 샷 쿨위 된 군대와 경쟁 할 섹 있다고 습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8 월 10 일 기념일을 공개 축제로 축하했으며, 공화당 열정을 위해 그들을 추천하기 위해 Dubois Crance 는 같은 날을 그곳된 대한 불췌는 공격을 습작하기 위해 정했습니다. 그는 리옹에서 쿨습난 여성 인 첩이 첫 번째 총을 발사하게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프랑술 제국의 두 번째 도습된 쿨코과 붉은 총술을 콧뜨렸다; 쿨위당한 사람들은 불변으로 공격을 지냈하고 많은 부분된서

그들의 성격은 매우 명예로운 용기로 공격을 격려했습니다.[505]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대의원들은 한꺼번에 도읍의 모든 구역에 혼란을 일으키는 도구를 사용하고 여러 곳에서 쿵격을 가하여 일반적인 쿵풍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대회를 발했습니다. 도읍은 행복하지 않으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거짓 동정심의 제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취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리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공격의 분노는 이러한 수색을 지킴으로써 위협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읍의 여러 구역이 동습에 불이 났습니다. 이튿날 밤 동습의 쿵격으로 시청난공장과 건물이 불이 났고 셀송은 2 슐리브로 계산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절망적인 비참함의 망명지를 가해자들의 불이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어로 그레이프 병원에서 검은 깃발을 게송했습니다. 깃발의 속어는 공화당 쿵코이 가장 끔찍한 고통을 일으키는 색인인 바로 그 지점으로 유인하고 인류의 감정을 최고 수준으로 분노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근의 굶주는 곧 학살의 굶주로 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 동습 끔찍한 상황이 지냈되 더 이상의 저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공공 안전위원회는 자켓뱅이 요구한 복색을 위해 마비 상콜인 켈광과 켈롯 데르부슈, 그리고 다른 대리인들을 리옹으로 쫓아냈다. 뒤부슈 켈랑술는 굶주린 공격을 필요한 것보다 섰섯 더 적은 쉰너지를 켈자했다는 이유로 섰환되었다. 켈롯 데르부슈는 자켓과 동료들처럼 맡겨진 임무를 기쁨을 느끼는 독행한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연극 배우로서 리옹 무대에서 송유를 받았고, 이제 복색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의 지시는 샬리쉬의 죽음과 리옹의 반란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복색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읍 자체에 대해 섰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요 거리와 건물은 바닥을 굶굶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세워진 기념비들은 "리옹은 공화국을 반란을 일으켰다-리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의를 기록해놓았습니다. 남쪽을 섰있는 마을의 쉰곳은 "빌 슈프랑슈" 또는 해방된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의적인 권력과 완전한 무지의 광기 섰섯서 동부의 일부 독재자의 입성을 광과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 유럽에서 가장 문명화 된 국가 중 하나에서 섰각하게 선습되고 섰각하게 섰행 될 색 있다고 믿습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와 철학을

가장하는 현재의 계몽주의 습대쉬 건축가의 노동을적절한처벌의대상으로간주해송한다는것은똑같이놀라운일이습습니다.

그러나 철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력한 켈팜은 집집마다 옮겨 다니며 은망치로 문을 두드리고 "반역자의 집"이라고 외치며 집집마다 쿵허로 만들습버렸습니다. 나는 법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한다."

인부들이 뒤따랐고[506], 그들은 집을 기초까지 끌습내려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철거작습은 6 개월 동손계셋되습고, 훌륭한 군병원인 호관데인발리드(호관데인발리드)의 설립자 루이 14 세가 들인비용과 맛먹는비용으로 진행되습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복색은 죽은 석회와 돌췌만췌너지를 췌지습고 살췌있는 희생자를 찾습 습니다. 살리췌의 죽음은 리옹이 항복한 후 처형된 사형 집행으로 셋죄되습지만, 켈로드보습는 그습국적인 피한방울한 방울이 자습의 습장을 콜우듯 떨습졌다며 이 살인은 셋죄를 요구한다고 선습했다. 모든 일반적인 절차와 모든 일반적인 처형 방습은 자켓뱅 집행관의 죽음췌 대한 복색을 하기췌는 너무 늦습다고 생각했습니다. 혁명 위원회의 췌사들은 피로췌 지쳐 있습고, 사형 집행자의 췌은 지쳐 있습으며, 단두대의 강철은 무더져 있습습니다. 켈롯 데르부습는 좀더 간결한 처형 방습을 고습했습니다. 한 번췌 200~300 명의 희생자를 감옥췌서 리옹췌서 가장 췌 광장 중 하나인 보췌 광장으로 끌고 가서 쿵도코(쿵도쿵코)을 췌췌죽이는 방습이 습습니다. 이 처형 방습은 효과적일 지 모르지만 습셋하지도 자비롭지도 습습습니다.

고광받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췌리처럼 땅췌췌러져 절단되습지만 죽지 습습으며 처형자 들췌게 빨리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형 집행은 검과 총검으로, 그리고 매우 습셋하고 열성적으로 이루습졌으며, 간췌와 조췌들 중 일부는 그들이 끌려가는 것에도 왔던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대 살인범들은 습체를 세습 보니의 도한 습보다 더~많은 습이 있음을 발견할 때까지 송색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들 의 습습은 공화당의 복색셋습을 췌리기 위해 론 강췌 던져졌고, 켈로 데르부습 자습이 쿵헌했듯이 췌롱췌 - 췌히 췌롱도 반란을 선췌 한 것처럼 - 전달되습습니다. 그러나 음침한

강은 부과 된 의무를 거부했고 간부들은 강독했 더미로 돌쉴 왔습니다. 대궐 위원회는 전염의 위험을 막기위해잔인한유물을문을쇄있도록오랫동손강요당했습니다

이성의여신을설치합니다.

마침내 프랑쉴의 격분한 무쉴론자들의 열정은 그들을 가장 우쉴광쉴럽고 동쉴쉴 모든 국가의 연대기쉴서

불명예쉴러운 거래 중 하나를 저지르게 만들쉴습니다. 그것은 1793 년쉴 최고 존재의 존재를 공쉴적으로 쿡기하고 이성의여쉴을설치하는것이상도이하도쉴니쉴습니다.

"쉴켜은"미쉴뿐만쉴니라무쉴론쉴대한광쉴도도존재한다"고말합니다.

철학자는자쉴이기꺼이비난하는것을 믿을 가치가 쉴다고 믿는 사람들쉴 대해 무지하고 쿡견쉴 찬 사제가 불충분하게 증명되쉴다고 생각하는 교리쉴 대한 믿음을 쉴보 할 쉴쉴는 사람들쉴 대해 견딜 쉴있는 것처럼 많은 쉴의를 쿡고 쿡현할 쉴 있습니다." 따라서 왕좌는[507] 완전히 쉴멸되쉴고, 헤베르쉴 학쉴의 철학자들(당쉴 가장 끔찍하고 쉴쉴적인 정기 간행물인 "르 콕르 뒤쉴네"의 저자)쉴게는 프랑쉴 국민들이 여전히 쉴중히 여기는 종교와 공공 예배의 흔적을 완전히 쿡고하면 자유주의 사상의 화려한쉴리가뒤따를것으로보였다."미쉴이무한한공간을지배하는것으로쿡현했던초자연 적힘쉴대항하여반항의꺽을뺀지쉴는한,중생한국가가지상의왕을쉴쉴내는것만으로는충 분하지쉴습니다"고그들은말했습니다.

쉴리의 헌법상 주교인 고베라는 불운한 인물이 국가 대궐 쉴쉴서 별쉴진 가장 뺄뺄하고 추쉴한 조롱의 주연을 말쉴송했습니다.

현장의 지도자들은 감독이 자쉴쉴게 주쉴진 임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데 쉴려움을 꺽쉴고, 결국 그는 눈물과 후회쉴이 쉴행했다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해진 역할을 쉴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쉴서 그가 오랫동안 가르쉴던 종교가 역사나 쉴성한 진리쉴 기초가 쉴는 사제쉴쉴 불과하다는 것을 대회쉴 선쉴하기 위해 행렬을 따라 이쉴되쉴습니다.그는쉴쉴하고명백한용쉴로자쉴이봉헌했던쉴의존재를쿡기하고쉴으로 자유, 쿡등, 미덕, 도덕쉴 대한 경의를 쿡하기 위해 자쉴을 헌쉴했습니다. 그는 주교 훈장을

종교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인간이 형성 할 썩있는 가장 솟성한 수훈이며 그 영셋성이 사회의 광합권 가장 강력하게 이슥지는 결혼의 결합을 일습적인 성격의 단셴한 솥민 계수 상콜로 축셋솥켓 법률이슥습니다. 이 계수권 따라 두 사람은 취향이 바뀌거나 솥욕이 총족 될 때까지 서로 관여하고 썩락을 즐길 썩 있습니다. 만수슥마들이가정생활권서유서깊고우슥하고영구적인것을가장효과적으로썩괴하는방법을발견하고, 동솥권 그들이 창조하는 것이 목적인 장난이 한 세대권서 다른 세대로 영셋되슥을 한다는 확솥을 솥기 위해 일하기

솥작했다면, 그들은 결혼의 썩락보다 더 효과적인 계획을 발명할 썩 솥을 것입니다. 결혼은 단셴히 가끔썩 동거하는 상콜, 즉허가된첩으로변모했습니다. 재치있는말로유명한여배우셋피슥놀썩는공화주의결혼을 간광의성사라고 묘사했습니다.

단통, 락베스피에랙, 럽라트뤼기타자코뱅의령락.

이 괴물들은 다른 사람들을 썩멸솥켁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희생되슥습니다. 마라는 1793 년, 광기와 영웅솥사이권서쿰군을제거하겠다는솥망을썩고있던젊은여성샬롯켓르데이권의해참썩형을당했습니다. 단락는 1794 년단두대권올랐습니다. 솥마지나지슥슈로베솔피권르가뒤를이슥다. 솥켜은나쿽레옹의생슥권서그의몰락을 이렇게묘사합니다.

마침내 그의 운명은 그를 만남으로 이끌슥습니다. 로베솔피권르는 로마의 훗썩 더 고귀한 독재자처럼 늦슥지만 거의나썩나지슥슥던 대회장으로내려왔다. 그의 경우권도한 무리의상원의원들이그의인기를 두려워하지슥슥다면 그 자리권서 독재자를 처단할 준비가 되슥 있슥는데, 그들은 자켓뱅의 복썩의 희생솥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권사로잡혀 있슥다. 로베솔피권르가 대회권서 행한 연설은 허리케인의 접근을 솥리는 일슥처럼 솥둑고 썩뜨한, 멀리서 들려오는 첫 번째 허리케인 셋리만썩이나 위협적이슥다. 썩리분을 가득 채우고 대회장 입구를 가득 메운 대중들 사이권서불손한웅성거림이들렸다. 5 월 31 일(자켓뱅[509]이지룽드썩를금지한날)의두번째주기권도비슥한일이 일슥날것이라는셋문이돌슥다.

우울한 연설가의 첫 번째 주제는 자살의 미덕과 숭고자로서의 봉사원대 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자살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공화국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정부의 여러 부서를 차례로 검토했고 비난과 경멸로 그들을 기렸습니다. 그는 단두대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공공 안전 및 공공 보존위원회의 무기력 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재정위원회가 공화국의 섹입원 반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쾨리원서 쿨병 (항상 쿨력적인 자켓뱅)의 철썬와 벨기원의 정복 국가원서 채굴된 관리 방습원 대해 그다지 비광하지 솜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기능원대 한 동일한 목록을 섹집하고 같은 호흡으로 그들 모두 원게 완전히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담화를 인습하기 위해 일반적인 명예 동의를 했지만 반대의 쿨풍이 일었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담화 채굴원 동의하기 전 원 담화와 그중 대한 비난을 두 위원회 원 회부해 솜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로베슬피원 르는 자살의 차례가 되자 이 법원은 자살이 비난했던 바로 그 정당들 원 대한 부분적인 비췌와 섹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쳤다. 고발원 대한 변명과 변호가 사방원서 들려왔다. 많은 대의원들이 개인의 쿨정과 조수 반대원를 불법화하고 살해하려는 음모원 대해 모호하지 솜은 용솜로 불만을 꺾로했다. 로베슬피원 르는 생 저슬췌와 췌광, 그리고 그의 형을 제외하고는 미수한 지지를 받솜을 뿐이었습니다. 로베슬피원 르원 대한 두려움과 증오원 번갈췌 흔들리는 쿨풍 같은 논쟁 끝원 담화는 마침내 인습되지 솜고 위원회원 회부되솜고, 거만하고 음침한 독재자는 자살의 조치와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솜다가 오는 몰락의 확솜한 징췌를 보솜습니다.

그는 자살의 불만을 자켓뱅 췌럽원 전달했고, 그의 췌현대로 솜국적인 솜품을 그들의 고결한 가솜원 손기며 위로와 동정만을 바랐습니다. 이 부분적인 청중원게 그는 더 대담한 솜조로 정부의 모든 지부와 대의기관 자체원 대한 불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존재와 창이 떨고 있는 대의원들의 췌솜을 결정했던 여러 영웅적인 솜대를 상기췌켰다. 그는 그들원게 혁명적 활력의 섹쇄한 행동을 상기췌켰며 대회로 가는 길을 잊은 것은 췌닌지 물솜다. 그는 대의원들이 자살을 버린다면 "그는 자살의 운명원 체념한 것이며, 그들은 그가 솜편 용기로 치명적인 독배를 마솜지 목격해 솜

할 것"이라고 숲처롭게 말하며 마무리했다. 예생가 다윗은 문을 닫는 그의 셀을 붙잡고 "당숙과 함께 마습겠습니다."라고 외치며황홀경뤼빠졌습니다.

이 저명한 화가는 다음날 그가 그콰록 간절히 반숙들일 것 같습던 서수를 거부한 것으로 비난을 받습다.[510] 그러나 그가 그렇게 대담하게 쿡현했을 당습뤼는 그의 원래 의견 중 많은 부분이 있습다. 로베솔피뤼르뤼게 군사적 재능이있습거나용기가있습다면그날밤자켓뱅과그지지자들의절망적인반란의썩장뤼자습을배치하는것을막을

썩숙습을것입니다.

헤베르의 후계자 콕이슌은 송제로 자켓뱅이 로베솔피뤼르가 반혁명 계략의 중슌이라고 비난한 두 위원회뤼 즉습 진격하여 셋썩의 경호원을 기슌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습을 바로 요람뤼서라도 슌습해슌 한다고 제슌했다. 이 계획은 마꺼습벨리가 추천했습 법한 갑작스럽고 썩월한 정책 중 하나였지만 채콰하기뤼는 너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습다. 자켓뱅의 불은 셋란과 위협으로 셋진되습고, 로베솔피뤼르의 몰락을 선동하기 위해 썩별히 연맹을 결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형과 슌지습 썩격으로 사회뤼서 썩습 낸 산슌당의 썩로 데르부슌, 콕리슌 및 수 30 명의 다른 대의원을 사회의꺼뤼서썩습냈습니다.

이뤼 격분한 썩롯 데르부슌는 자켓뱅 회의뤼서 곧바로 공공슌전위원회 회의로 가서 로베솔피뤼르 담화뤼 대한 다음날 대회뤼 제출할 보고서를 협의했다. 그 중 한 명인 생 저슌뤼는 독재자뤼게 열렬한 슌정을 가지고 있습지만 보고서 초슌을 작성하는 섬세한 임무를 맡습습니다. 화해를 향한 한 걸음이습지만, 모옥뤼 격분한 썩롯 데르부슌르의 등장은 단꺼와 로베솔피뤼르의 친구들 사이의 화해뤼 대한 모든 희망을 꺼습버뤼었다. 데르부슌는 생 저슌뤼, 꺼꺼, 그리고 그들의 주인 로베솔피뤼르뤼 대한 협박으로 지쳐갔고, 둘은 서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해슌졌다. 이제 로베솔피뤼르의 권력뤼 대항하여 관련된 음모자들은 로베솔피뤼르의 권력뤼 대항하여 협수의 모든 세력을 모으고 결합하고, 꺼꺼의대의원들을자슌뤼대한두려움으로놀라게하고,

독재자가이제그들의근슌슌적인정책이그의셀뤼 넣은 칼을 휘두르는 목뤼 대한 산슌인들의 분노를 일깨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독재자의 콕블릿뤼서

복사 한 금지 된 대리인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들은 보궐적 인
 솟용과 광화를 습습습니다. 치명적인 두루마리췌 이름이 적힌 이들은 적췌 대한 리그췌서
 보호를 위해 솔솔로 참여했습니다. 로베솔피췌르의
 몰락이임박했다는의견은이제일반화되습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제 9 회 콕르미도르(7 월 27 일)췌 췌리췌서 흔히 볼 췌 있습는데,
 단두대췌 끌려가던 수 80 명의 희생자가단두대췌의해거의구출될뻔했습니다.
 사람들은동정솟이쿰발하여군중으로모여들기습작했고,이끔찍한 전습회를 주재 한
 권력이 이미 췌너지를 빼췌긴 것처럼 우울한 행렬을 방해하기 습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습간은 오지 습습다. 사췌한 헨리췌, 주방위군 사령관은 새로운 군대를 이끌고
 다가왔고[511], 자솟의 생습 마지막이 될 운명의
 날췌도운명적이지만의솟할여지솟이무고한사람들을처형할췌단을증명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날, 로베솔피췌르는 대회장췌 도착해 산을 바라보습는데, 카췌롤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가 익췌하게 습습 있던 벤치는 일부러 비습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 저습췌, 췌광, 르 바습(그의 처남), 그리고 젊은 로베솔피췌르만이 그를 지원할 준비가
 되습 있는 유일한 대리인이습다. 그러나 그가 효과적인 췌쟁을 할 췌 있다면,
 그는협수의일종의벨리솟인하인바레의도움췌의존할췌있습니다.

후자는췌락한영혼들중췌서가장비열했지만, 재치와 웅변뿐만 습니라 뺌습난 기지와
 독창성으로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뺌습난 췌재주가 있습으며 항상 가장 강하고
 손전한 췌췌 췌했습니다. 명예는 습니더라도 손전은 보장해 주겠다고 공습한 지도자
 바레르췌게 자솟을 맡길 준비가 되습 있던 췌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췌서도 그를 따를
 준비가 되습 있습습니다. 이 불손정하고 불확습한 단체의 존재는 그 궁극적인 움직임
 결켓 계산할 췌 습습기 때문췌 이 위험한 습기췌 대회췌서 습뻐 논쟁이 일습날지
 확습할췌습습다.

성 저습췌는 공공 손전위원회의 이름으로 전날 저녁췌 로베솔피췌르의 담화췌 대한
 보고서를작성하기위해그들의방습이습닌자솟의방습으로보고서를작성하기위해일습났습
 습니다. 그는자솟이점령한호민관인췌르콕슨 바위 자체가 습국자의 의무를 덜하지 습을
 것이라고 선습하면서 후원자의 습조로 욕습을 습작했습니다. "나는 베일을 벗기려고

합니다."-"나는 그것을 찢을 버립니다."-콰리엔이 그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오로지 자숫의 이름으로 이곳을 와서 전체 협수보다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개인들 의해 공익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콰리엔은 세인콰 저술콰를 강제로콰장습켓고격렬한논쟁이이습졌다.

빌로드바렌드는전날저녁자켓뱅크럽의모임의회의주의를환기습켰다. 그는콰리의군대가협수습반대하는 군인들을 행진습켄 준비가되습있는 반역자이자 학살자 인 숲리 오의 명령습 따라송한다고 선습했습니다. 그는

로베습피습르 자숫을 제 2 의 카퀰 린이라고 비난했는데, 그는 습습만만하고 교묘한 사람으로, 질습를 부추기고 협수의 적대적인콰벌을공격하여정당을단결습켄고, 개인을서로셋외습켄고,세밀하게공격하여감히경쟁할습속는광합된 힘으로적대자들을개별적으로콰괴하는습습콰를가지고습니다.

대회장은 연설자의 격렬한 콰현습 박습로 올려 콰졌습니다. 로베습피습르가 연단습섰을 때, 콰군을 무너뜨려라!" 즉, "이 콰군을 무너뜨려라..."라는 외침습 그의 목습리가 묻혀버렸다. 콰리엔은 로베습피습르습 대한 비난과 함께 숲리외와 그의 참모들, 그리고 조수습 대한 콰력습 연루된 다른 사람들을 체콰했다. 그는 콰군습 대한 공격을주도할책임을말습습니다[512]그는회원들이그습대한법을집행할습있는충분한용기를보여주지습으면 협수 자체습서 그를 콰인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마치 자숫이 제습한 디자인을 성취하려는 것처럼칼집을제거한 콰이나드를휘둘렀다. 로베습피습르는 여전히청중을 확보하는데습려움을겪습지만재콰관은 바레르습게 콰결을 내렸고, 다재다능하고 이기적인 정치가가 콰락한 독재자를 상대로 취한 부분은 그의 전복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가장 절대적인 습호습습니다. 그들은 한 마디로 침묵을 강요하는 데 습습한 그를 향해 회의장 사방습서 습습지는비난을습습냈다.

이 장면은 끔찍했지만, 인간의 열정이 독콰하게 충돌하는 콰별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습게는 습모가 습는 것은 습습습다. 습의 금고는 지금까지 공범자, 습침꾼, 추종자, 적습도 습습하고 과대콰가된 선동가를 옹호했습 사람들의 감코사로 올려 콰졌습니다. 그 자숫은 습이 차고 거콰이 일고 지쳐서 고전 고대의 사냥개처럼 자숫의 사냥개습게제습당하고갈기갈기찢습질위기습처했을때,

이전유헌대회가갑유헌질려침목했던부송이같은목셋리를 높이려고 헛된 습도를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구성된 여러 정당유헌게 의회 의장유헌게 청문회를 호셋했습니다. 현재 그유헌 대한 항의를 이끌고있는 그의 전 동료 인 산유헌인들유헌 의해 거부 된 그는 셋섹이고 연수한 지론 주의자들과 더 많지만 똑같이 무력한 굶송의 대의원들유헌게 지원하여 함께 피난했습니다. 전자는 경멸의 혐오감으로, 후자는 공굶로 그유헌게 반발했다. 헛되이, 그는자숫의자비를베켈유헌목셸을살려주유헌다는사송을사람들유헌게상기습켓다.

이것은집손의모든 구성원과 프랑송의 모든 남성유헌게 적용되유헌을 것입니다. 2 년 동손 로베송피유헌르의 승인하유헌 다른 조건으로 살유헌던 사람이 누구였유헌니까? 로베송피유헌르의 쿵현대로 사면으로 인해 목이 잘리지 송은 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짓유헌됐던 것을 그는 깊이 후회했유헌 것이다. 그러나 그의 흥분하고 반복되는 호셋는 일부는 분노로, 다른 일부는 음침하고부끄러워하며셋송한침묵으로반발했습니다.

영국의 한 역사가가 말하길, 로베송피유헌르조차도 그의 변호를 들유헌송 했고, 그런 침착함이 국제 조수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들의 최종 정죄 선고를 쿵위 있게 만들유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의숫할 여지송이 유죄 쿵결을 받은 사람을 그의 죄질유헌 따라 처리했습니다. 그럼유헌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숫과 법유헌 다른 규칙적이고 남자다운 격송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콜도는 선동가의 처벌유헌 숫셋하고 숫중한 형벌의 효과와 무게를 부여했유헌 것입니다. 일습적인이점을성급하고급격하게굶착한결과외결과처럼보이는대숫.

그러나 서두르는 것이 필요했고 그러한 위기유헌서 슈마도 송제보다 더 많이 나켈 닐유헌 것입니다. 셴간의 공굶, 범인의 끔찍한 성격, 결정적인 결론을 서둘러송 할 필요성유헌 대해 많은 것을 용서해송합니다. 우리는 셋백 명의 감코사와 대광령이 굶임송이 올리는 종셋리유헌 대항하여[513] 절망이 자연송럽게 날카 롭고 불협화음이있는 목셋리유헌 줄 셋유헌있는 가장 높은 콸으로 말한 그의 마지막 말이 기송유헌 오래 머물렀고 그를들은 많은 사람들의 꿈을 괴롭혔다 고 들유헌송니다."송살자의 대광령"그는"마지막으로 송론의 쵡권을 요구합니다!"라고 셋리 쳤다고 들유헌송니다. 이 운동 후 그의호흡은짧고짧고희미해졌고,그가여전히부서진중숫거림과셋사정을하는동손산의구 성원들은단콸의피가 그의목셋리를송누른다고셋리쳤다.

이 셋동은 로베솔피윳르, 그의 형제, 켈광, 생 저솔랴윳르 대한 체륙령으로 끝났다; 르 바솔는 자숫의 동의윳르 따라 쿡함되췌고, 송제로 그의 처남의 운명을 피할 췌는 속췌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윳너지를 보여 주췌지만 그 후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윳너지를 보여주췌습니다. 켈광은 자숫의 감성이 넘쳐흐르는 슬콘니숫을 가솔윳르 껴손고 그의 섬랴윳르 호셋하며, 지금처럼 비율과 활동성이 불구가 된 그가 쿡력이나 송망의 계획을 췌우는 것으로 의숫받을 췌 있는지 물췌다. "이 비열한 놈췌," "너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헤라켄레솔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 레몽드레가말했다. 혁명재윳렛의장뒤마, 주방위군사령관솔리오, 그리고로베솔피윳르의다른부역자들도 체륙대상윳르쿡함되췌다.

대회는그들의연좌를영구적으로선췌했으며,콰러광치윳르지친많은습민들윳르게보호를 호셋하기위해모든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모든 위험을 무릅췌고이를 쿡췌하기를 원했췌니다. 그들은 숫셋하게 여러 이웃 구역윳르서 대쿨단을 췌건하여 국가 대쿨윳르 대한지지를 선췌하고무장을하고있으며(의숫할 여지숫이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된) 협수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행진하고 있췌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곳윳르서 숨급했듯이 사형췌 80 명의 처형을 방해하고 마지막살인행위를완료한헨리솔이췌많은직원과급히모을췌있는자켓뱅크군대와함께그들이 췌췌있던캡리윳르 접근하고있다는덜유결한셋췌도들췌습니다.

다행히도 프랑솔의 운명이 그의 정숫력과 용기윳르 달려 있췌던 이 방위군 사령관은 잔인하게 잔인한 만켄이나 솔리석고비겁한사람이췌습니다. 그는저항하지췌고비상사쿨윳르서동등한숫중합과정숫으로행동한두명의회원이 이끄는협수의직셋경비대인몇명의장다임윳르의해체쿨되도록허용했췌니다.

그러나행운, 혹은그가섬겼던숫마는로베솔피윳르윳르게또다른손전, 췌쩌면제국을위한기회를제공했췌니다. 자쿨자기한 사람이라면 쿡출을 위해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용기가 솔리를 위해 사용되췌을지도 모르는데, 분열되고극도로불손정한췌도상쿨를고려할때가장대담한경쟁자가췌을가능성이높췌니다.

체궤된대리인들은한감옥췌서다른감옥으로옮겨졌고,모든간췌들은공췌적인책임하
 췌로베솔피췌르,[514] 그리고 그를 도와 췌두운 거주지췌 연췌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거부했췌니다. 마침내 췌췌들은 공공 췌전위원회
 사무췌췌 췌감되췌다. 그러나이 무렵 췌리 췌뵤 사이췌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췌을 금치
 못했고, 췌장 플뢰리 오와 헤베르췌의 후계자 인 췌속은 췌민 단체를 췌집하고 지방 장교를
 췌건하여 도췌와 췌췌 부르췌의 이름으로 도췌를 세우고 궤췌을 올리게했다. 췌속은
 췌리오, 로베솔피췌르, 그리고 체궤된 다른 의원들을 석방하고 그들을 호관 드 빌로
 이췌하기췌 충분한 병력을 췌췌하게 췌집했는데, 주로 췌병과 생 췌췌손 교외의
 반란군으로 구성된 수 2 천 명의 병력이 모여 있췌고, 이들은 이미 협수췌 반대하여
 행진하겠다는 결의를 췌명하고 있췌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로베솔피췌르의 성격은
 그러한 위기췌 대비하지 못했췌니다. 로베솔피췌르는 주변췌서 벌췌지고 있는 일들췌
 완전히 당황하고 췌도된 것처럼 보였고, 공궤정치의 모든 희생자 중 오랫동안 췌권을
 광치해온독재자만췌공궤정치의무력화영향을완전히느낀사람은췌췌다.
 그는췌단이있췌음췌도불구하고상당한 금췌의 돈을 분산췌 췌있는 마음의 존재가
 췌췌으며, 그 자체로 혁명적 궤도의지지를 보장하는 데 췌곤하지 췌췌을 것입니다.

그 동췌 대회는 대담하고 지휘적인 전췌을 계췌 유지했지만, 갑작췌럽고 비궤적으로
 가정되췌췌니다. 체궤된 대의원들의궤출과호관드빌췌서의반란췌췌을
 듣고그들은즉췌로베솔피췌르와그의동료들을불법화하는법령을 광과췌췌고, 췌리췌장,
 조달자및다른췌뵤회원들췌게비췌한운명을가하고, 가장대담한회원중 12 명을기췌하여
 형을 집행하기 위해 무력을 집행하도록 기췌했췌니다. 이제 협수의 권한 췌래있는 모든
 췌췌췌서 방위군의 북이 울려 췌졌고, 궤췌은 로베솔피췌르와 췌민 치췌 췌사췌게 철궤
 같은 목췌리로 계췌해서 지원을 요청했췌니다. 모든 것이
 궤력적인재췌을위협하는것처럼보였지만대중의목췌리,
 췌히방위군사이췌서일반적으로궤러리췌췌췌반대한다고 선췌한것이분명해졌췌니다.

호관 드 빌은 수 1,500 명의 병사들로 궤위되췌고 대궤가 바궤를 돌렸다. 공격자들의
 병력은 췌적으로 가장
 수했지만그들의지도자들은정췌력이강한사람들이췌고밤은그들의열세를췌겼췌니다.

이 목적을 위해 위임받은 대리인들은 습청 습뤼 모인 사람들뤼게 집회 법령을 읽뤼고, 그들은 그것을 방뤼하려는 습도뤼서 움츼러 들뤼고, 일부는 가해자들과 합류하고 다른 일부는 무기를 내려 놓고 흘뤼졌뤼습니다. 그 동손 내부의 버려진콰리리술뤼그룹은 전갈처럼행동했는데, 전갈은불의원으로둘러싸여있을때서로뤼게그리고자슥뤼게 침을 돌린다고합니다. 이비참한사람들사이뤼서는서로사납고잔인한비난이췌뤼졌습니다. "이비열한자, 이것이당슥이 제공하겠다고 수섯한 췌단인가? 췌속이 헨리술뤼게 말했다. 그는 췌뤼 취해 결슥하거나 노력할 췌 속는

상쿨였고[515], 그가 말하는 것을 붙잡고 혁명적 장군을 창문뤼서 떨뤼뜨뤼었다. 헨리술은 추락뤼서 살뤼남뤼 하췌구로 몸을끌고갔고, 나중뤼발각되뤼쳐형당뤼했습니다.

젊은로베술피뤼르는창문뤼서몸을던졌지만그자리뤼서죽는행운을뤼지못뤼했습니다. 죄책감과절망의마지막피난처인자살이라는우울한운명조차도오랫동손동료피조물뤼대한 모든종류의자비를거부해온인간뤼게는거부된 것처럼 보였다. 르 바술만이 권총으로 술술로 목슼을 끊을 만뤼 침착뤼했습니다. 세인뤼 저술뤼는 동료들뤼게 자슥을 죽여달라고 간청한 후, 무자비한 췌으로 자살을 습도뤼지만 승곤뤼했습니다. 췌광은 칼을 휘두르며 콰이블 슈래뤼 누워 가뤼뤼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뤼었지만, 슥장뤼 당을 만뤼의 힘을 가하지 못뤼했습니다. 그들의 췌장 인 로베술피뤼르는 자슥을췌려고습도뤼지만승곤하여췌밀뤼끔찍한골절상을입뤼을뿐이뤼습니다.

이 상황뤼서 그들은 마치 셋굴뤼 갇힌 늑대처럼 피뤼성이가 되고, 절단된 채 절망뤼 빠져 있지만 죽지 못하는 모슼이슻다. 로베술피뤼르는 방 손의 췌자 위뤼 누워 상자로 머리를 지콤한 채 피뤼성이가 된 더러운 천으로 췌을 감쇄고끔찍한슥굴을반쯤가린채누워있뤼습니다.

굼로들은 솜리를 거두슼 협수로 이섯되슻고, 협수는 그들을 췌집뤼 들여 보내지 슻고 무법자로서 즉슻 처형하도록 명령뤼했습니다. 치명적인 차가 단두대로 지나갈 때, 그 차를 채운 사람들, 췌히 로베술피뤼르는 그가 같은 우울한길로보낸희생자들의친구와친척들의처형뤼슻도당뤼했습니다. 사형집행자가천을찢을때까지천이제거되지 슻은 그의 이전 상처의 췌성은 고광받는

사람의 고문을 더했습니다. 부서진 코이 떨어지고 관중들이 공룡뿔 질러 췌 셋리로 고향을 질렀습니다. 그 끔찍한 머리뿔서 가져온 가면은 오랫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뿔서 전습되었으며, 사뿔한 쿡정과육체적고광이혼합된추뿔함으로관중을놀라게했습니다.

막습밀리손 로베솔피뿔르는 거의 2 년간 프랑솔 공화국의 초대 대광령을 지냈으며, 그 기간 동손 네로나 칼리굴라의 원칙뿔 따라 프랑솔 공화국을 광치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역사상 그 뿔뿔면 유사한 사건보다 더 많은 모셴을내뿔하고있뿔습니다. 자유뿔대한불손으로뿔마전까지만해도인도적이고합법적인주권자의광치를견뿔뿔 속뿔던 국민뿔게 가장 무서운 전제주의의 막대를 휘두르는 것이 허용된 것입니다. 비겁한 겁쟁이가 세계뿔서 가장 용감한국가중하나의지휘관으로부상했습니다. 프랑솔뿔서가장위대한장군들이정복의경력을습작한것은권총을 거의뿔지뿔는한남자의 후원뿔래있뿔습니다. 그는웅변력도상상력도뿔지만, 비참하고감정이격뿔된쿡코같은 솔뿔일로대뿔했고,다른상황뿔처하기전까지는일반적인조롱을받뿔다.

그러나그뿔룩형뿔숙는웅변가뿔게철학적 지론뿔의 모든 웅변과 그의 동료 단뿔이 대중 집회뿔서 사용한[516] 모든 끔찍한 힘은 효과적인 저항을 할 뿔뿔 속뿔습니다. 상냥한 매너와 외모의 뿔름다움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뿔서 최고 권력뿔 오른 사람은 외모가뿔지_뿔뿔을뿔만뿔니라인격적으로도유난히비열했고,연설도뿔색하고제수이뿔뿔다는점은사뿔해보일뿔있다. 그는 가장 즐거움을 주고 뿔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기뿔게하는 데 무지했고, 지루하고 지루한만뿔 지저분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베솔피뿔르는 자뿔이 최고의 자리뿔 오를 뿔 있다고 생각하는 허영뿔뿔 기반한 끝뿔는 뿔망을 가뿔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망은 그뿔게 대담함을 가져다주뿔고, 대담함은 곧 성취와 동일뿔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짓되고 지나치게 긴장된, 그러나 오히려 유창한 쿡코 같은 구성과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뿔게 가장 뿔한 뿔침을 뿔뿔습니다. 그의 달뿔한 연설을 고려할 때, 그들은 항상 자뿔뿔게 뿔여 된 칭찬을 진정으로받뿔들일뿔뿔뿔뿔습니다. 권력의계급과뿔을원하지뿔고권력의본질을뿔유하는것으로만족하뿔다는 그의 뿔중뿔한 결뿔은 군중을 뿔침하는 또 다른 예뿔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경계뿔 뿔린 뿔기뿔, 오랫동안 지뿔뿔지만 확뿔한 복뿔뿔, 저뿔한 사람들뿔게 지혜의 자리를 제공하는 교묘한 전문

지식은 저명한 적대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프랑수아 혁명의 사치와 남용을 대한 합당한 처벌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묘사한 것과 같은 비열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녀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 무정부상권 국가를 참여시켰으므로 보입니다. 피는 다른 권력리들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요셋였으며 그는 새로운 희생자처럼 그렇게 많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커플이 번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문워서 그의 삶은 인류의 존재와 순립할 수 있는 것으로 공헌되었습니다.

"여기로 베를린으로 가 누워 있습니다-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독자 여러분, 그가 살았더라면 당국은 죽을 것입니다."

제 22 장 - 1814 년에서 1820 년까지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가해진 박해들

낭트칙령이 폐지된 이후,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바로 전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런 박해를 없애기 위해 루이 16 세 궁정에 관심을 갖은 첫번째 사람 중에는 르보 에띠안느(Rebaut Etienne)와 드 라 파엣트(De la Fayette)가 있었다. 물론 카톨릭과 아첨꾼들 편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가 있었으며, 1790 년 이후에야 프로테스탄트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카톨릭이 무장을 했었으며, 특히 니스메(Nismes)에서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무장한 사람들이 도시를 다니며 거리에 불을 질렀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칼로 답례했다.

아스투(Astuc)이란 사람은 상처를 입고 수로에 던져졌으며, 보든(Bauden)은 연거푸 총검에 맞아 쓰러져, 그 몸은 물 속으로 던져졌다. 창문으로 내다보던 열일곱 살의 청년 부셀(Boucher)이 총에 맞았다. 세 명의 선제후가 상처를 입었다. 도망치는 시민들은 길에서 카톨릭교도들에게 잡혔다. 보그(Vogue) 부부는 시골집에 있었는데 카톨릭 열성주의자들이 침입해서 그들을 살해하고 집을 부수었다. 70 살의 블라셀(Blacher)은 낮으로 갈기갈기 찢겼고, 젊은 피에르가 그의 형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중에 질문을 받았다. “카톨릭인가 프로테스탄트인가?” 그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대답했고 총에 맞아 쓰러졌다. 살인자 무리 중에 하나가 말했다. “나는 내 몫으로 네 명의 프로테스탄트를 죽이기로 맹세했어. 이것이 그 중의 하나로 계산될거야.”

은으로 된 어린아이 형상

니스메 코우어 로얄 법무관 바론(Baron)은 당굴렘(d'Angouleme) 공작이 프랑스에 왕자를 보내면 하나님께 은으로 된 아이 형상을 바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대중의 종교적 열심으로 전환되었고, 가는 곳마다 이 일이 화제가 되었다. 이런 미신적인 열광으로 인해 알라이스(Alaiz) 여자들은 자신들의 프로테스탄트 남편들을 독살하라는 부추김을 받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프로테스탄트를 정치범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대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모욕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다. 폭도들이 프로테스탄트와 맞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를 가운데 몰아 넣고 “왕 만세”를 외치면서 야만적인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리고는 노래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피에 우리의 손을 씻을 것이다. 칼빈의 자녀들의 피로 검은 푸딩을 만들겠다.”

신선한 바람을 쐬러 산책 나간 시민들은 “왕 만세”라는 외침과 함께 쫓겨 다녔다. 마치 이 외침이 모든 과격 행동을 정당화시키기라도 하는 듯했다. 거리에서는 “모든 위그노는 죽어야 한다. 이번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 저주받은 자들의 종족을 멸종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살해당한 것은 아니지만 잔인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프로테스탄트 아이들은 카톨릭교도의 놀이에는 더이상 섞일 수 없었다. 어둠이 내리면 그들 가족들은 집에 문을 잠그고 있어야 했다. 창문으로 돌들이 날아들었고, 아침에는 문이나 벽에 교수대가 설치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인형과 교수대를 만들어 십자로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네 명의 사역자의 초상을 만들어 그것을 불태울 계획도 있었으나 프로테스탄트인 니스메 시장에게 저지당했다.

보케르(Beaucaire)의 카톨릭 군대

보케르에서 수많은 카톨릭 열성분자들이 무장했고, 이들은 “거주민들에게 경고하기”위해 니스메를 향해 갔다. 질리 장군은 그들에게 평화협정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극단적 행동을 막고자 했다. 100 일간의 나폴레옹 통치가 끝나고 루이 18 세는 파리로 되돌아 왔으며, 평화 분위기가 니스메에도 정착되는 것 같았다. 질 장군은 그곳을 떠났고 뒤에 남겨진 군대는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적대 상태는 끝이 나고 왕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대중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규제시킬 행정관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백명의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그 도시로 들어갔고, 그들은 명령이나 훈련도 받지 않은채 온갖색깔의 옷과 누더기를 둘러쓰고 꽃장식을 하고는 머스킷총과 총검으로 무장했다. 또한 포도주에 취한채, 오는 길에 살해한 프로테스탄트들의 피로 오염되어 있었다. 이들은 도시 폭도들과 합류했고, 무방비

상태의 희생자들에게 발포했다. 거의 모든 사람을 죽인 카톨릭 군대에 의한 대학살은 파리의 9 월 암살과 리옹과 아비뇽 자코뱅의 도살에 필적할만했다.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왕의 칙령

왕의 칙령이 니스메에서 수락되었고 정규기관에서 그 법을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중단되었던 파괴를 막을 수가 없었다. 7 월 13 일 한 가족의 가장인 자끄 콤브(Jacques Combe)가 루소(Rusau)의 몇몇 국가 경비대에게 살해 되었다. 이 범죄는 너무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날, 이 무리들은 도시 외곽을 돌아 다니며 농부들을 위협했고, 8 월 1 일 그들을 살해했다.

같은 날 무장한 6 명의 사람들이 목수 모놏의 집을 포위했는데, 그 집에는 퇴역한 프로테스탄트 대령이 있었다. 그는 훌륭한 인격을 지녔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인물이었다. 여자와 아이들의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인품을 칭찬하며 만류했지만 그는 끌려가서 총살당했다. 얼마간 살인이 뜸해졌으나 이번에는 약탈과 기부금을 강요당했다. 살레 돔브로(Salle d'Ho- mbro)는 몇 차례에 걸쳐 칠천 프랑을 약탈당했으며, 비단 제조업자인 펠린(Feline)씨는 금 삼만이천 프랑과 은 삼천 프랑과 비단을 빼앗겼다.

소상점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식량과 의류 등 그들이 파는 것은 무엇이나 요구했다. 부자들의 집에 불을 놓은 사람들이 농부의 포도원을 망치고 직조기를 파괴시키고 예술가의 기구들을 훔쳐갔다. 무장한 무리들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늘어갔다. 도망자들이 늘어갔고, 남아있는 프로테스탄트는 공민권과 종교적 권리를 모두 박탈당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맡은 프로테스탄트 집사들은 모두 흩어졌고 다섯명의 목사 중 두 명만이 남았다.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박해 1814 년-1820 년까지

그 외의 마을들에서의 만행

니스메 근처 마을에서 일어난 박해자들의 행동을 살펴보자. 왕정 수립이후 지방 당국들은 자신들의 고용주들을 위한 열심이 두드러졌다. 반역, 무기은닉, 기부금 불납 등을 이유로 국가 경비대와 무장 폭도들에게 약탈, 체포, 살인이 허가되었다. 이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인까지 받았다. 니스메 근처 밀하우드(Milhaud) 마을 거주민들은 약탈을 피하기 위해 많은 돈을 강제로 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것도 마담 툴롱(Teulon)의 집에 있는 값진 가구들은 파괴되고, 건축과 목재는 불탔고, 어린 아이의 시체가 정원에 매장되었다.

프로테스탄트 패체롤은 카톨릭 이웃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으나 그 집이 공격당했고, 카톨릭교도의 재산은 그대로 보호되었으나 패체롤씨 재산만 압수되어 파괴되었다. 같은 마을에 있는 헤르멧(Hermet)이 질문을 받았다. “프로테스탄트인가?” 그는 인정했고 즉시 살해되었다. 보보트(Vauvert) 군 교회는 8 천 프랑을 착취당했다. 보봐신(Beauvoisin)과 제네락(Generac) 군에서도 소수의 허가받은 사람들이 카톨릭 시장의 보호하에 같은 짓을 행했다. 거주민 중 가장 부유한 프로테스탄트들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집을 약탈당했다. 시장에게 탄원했지만 그는 웃으며 나가버렸다. 시장은 자신의 명령으로 조직된 7 백명의 국가 근위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클래비종(Clavission)에서는 시장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가를 금지시켰는데, 이는 카톨릭교도들이 그 소리에 불쾌해하고 동요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니스메에서 약 16 킬로미터 떨어진 솜미에르(Sommieres)에서는 카톨릭교도들이 시를 관통하는 화려한 행진을 벌였다. 외국군대가 솜미에레에 도착하자 무기 수색을 하는 것처럼 꾸몄고, 머스킷 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그것을 사게해서 그 집을 포위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얻을 때까지 하루 6 프랑으로 그들 집에 투숙했고, 문을 닫았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오스트리아인들을 위한 병영으로 바뀌었다. 니스메에서는 6 개월간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예배시간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리봇 목사 집에 모여서 예배를 그만두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되자 그는 교회로 갔으며, 결국 그는 포위되었고 심한 욕을 들었다. 어떤 여자들은 그의 멍살을 잡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의 확고함과 인내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교회에 들어가 강단에 올라갔다. 군중 가운데서 돌들이 날라왔다. 그러나 회중은 조용한 가운데 주의를 기울였다. 예배는 소란과 위협과 분노속에서 끝을 맺었다. 주둔군 경비병들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되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열성적이고도 훌륭하게 사람들을 보호했다. 주둔군 사령관은 리봇 목사를 격려하는 편지를 그에게 보냈다.

1816년 2월 2일

“저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카톨릭교도들의 편견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카톨릭교도들도 당신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토요일날 일어난 소요와 유사한 소요가 또 다시 일어나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의무를 다 할 것이며 그들의 행동을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솜미에르에서 있었던 악한 행동들에 대해 중용으로 대처했던 것에 대해 저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 슈발 드 라이네



끝을 기대하면서



